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236-14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 2010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1)

연구 책임자 : 곽 충 구

연구 보조원 : 김 수 현

조사 지역 :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2010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및 전사 용역”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연구책임자 : 곽충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2010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이 보고서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탈디쿠르간 거주 한국인 교포로부터 조사한 구술발화(4시간 분량), 음운, 어휘, 문법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 조사는 2009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 시간은 총 60시간 52분이다. 이 자료는 카자흐스탄의 한인들이 말하는 한국어(고려말)의 실체를 잘 보여 줄 것이다. 또한 고려말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는 함경남도 단천군이고 남편은 함북 경흥군이다. 그러나 제보자의 고려말은 함북의 하위 지역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것으로서 코이네적인 성격이 강하다. 종결어미는 대체로 함북 육진방언형이나 음운체계나 그 특징은 동북방언(비육진방언)과 비슷하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공화국으로 동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인접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약 10만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한국인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하여 러시아의 극동 지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카자흐스탄의 한국인들은 수도인 아스타나, 옛 수도인 알마티, 우슈토베, 카라간다, 파라즈, 침켄트, 크즐오르다, 제스카스칸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고려사람’이라 부르고 자신들의 모국어를 고려말이라 부른다. 70세 이상의 한국인들은 유창하게 모국어를 구사하지만, 그 아래 세대는 고려말을 구사하지 못한다. 60대는 모국어 구사가 가능하지만 매우 서툴며 고려말로 말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 한다. 러시아어를 모르는 한국어 화자를 만나면 떠듬떠듬 고려말을 구사하지만 고려사람과는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50대 이하의 거의 모국어를 상실하여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노인들은 자신들끼리 모이면 대체로 고려말로 대화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자손들이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쓴다.

주요어: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이주, 고려사람, 고려말, 육진방언, 동북방언

2010년도

##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1)

### 목 차

1. 조사 과정 .....	3
----------------	---

2. 전사 원칙 .....	10
----------------	----

3. 전사 자료	
----------	--

제 1 편 구술 발화 .....	13
-------------------	----

제 2 편 어 휘 .....	147
-----------------	-----

제 3 편 음 운 .....	199
-----------------	-----

제 4 편 문 법 .....	229
-----------------	-----

4. 제출 자료(별첨)	
--------------	--

(1) 2009년 카자흐스탄 조사 지역어 전사 결과(보고서 100부)	
--	--

(2) 2009년 카자흐스탄 조사 구술 자료의 발간용 원고 파일 및 보완된 전사 파일(.trs)	
---	--

(3)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외 지역어 조사 5지점(회룡봉, 알마티, 타슈켄트, 비슈케크 등)에 대한 어휘·음운·문법 자료 통합 파일	
--	--

(4) 전사한 구술 자료에 대한 사생활 보호 등 비공개 부분 표시 자료	
---	--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카자흐스탄공화국 알마티주 탈디쿠르간시 나히모바 22번지(Казахстан Алматы область г.Талдыкорган ул. Нахимова 22)

## 1.2. 조사 지점 개관

탈디쿠르간(г.Талдыкорган)은 카자흐스탄 내에서 비교적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 중의 하나로서 카자흐스탄공화국 알마티 주(州)의 주도(州都)이다. 알마티 시를 빠져나와 북으로 향하면 광활한 스텝지역이 펼쳐진다. 그 스텝지역을 벗어나 첫 번째로 만나는 도시가 탈디쿠르간이다. 고려인들이 최초로 이주 정착한 곳으로 알려진 우슈토베는 탈디쿠르간으로부터 버스로 약 한 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다. 인구는 약 12만 명인데 한인은 약 6,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옛 수도인 알마티 시에서 북쪽으로 약 300km떨어져 있다. 우슈토베는 이 탈디쿠르간에 딸린 위성도시이다.

2007년 제1차 카자흐스탄 조사에서는 육진방언 화자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대부분이 말하는 고려말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초기 이주민들의 집단 거주지이면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슈토베 인근의 탈디쿠르간을 조사지점으로 선정하였다.



### 1.3. 조사 지역의 고려말과 그 사용 현황

카자흐스탄은 100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이다. 각 민족은 자신의 민족어를 구사하기도 하나 민족간의 대화는 러시아어로 이루어진다. 구소련이 해체된 후 카자흐어가 공용어로 지정되면서 카자흐어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탈디쿠르간에는 6,000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지만 이민족과 함께 사는 까닭으로 일상적으로는 러시아어를 쓴다. 가족간의 대화도 러시아어로 이루어진다. 제보자는 50대의 아들, 딸 및 30대의 손녀와 한 집에서 사는데 러시아어를 쓴다. 50대 자녀들은 간단한 한인 음식 이름, 친족 명칭 등을 알 뿐이다. 이들은 초보적인 고려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나 말할 줄은 모른다. 이 도시에서 한인들이 고려말을 쓰는 경우는 대체로 70세 이상의 한인 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뿐이다. 예컨대, 고려인협회에서는 단오, 여성해방의 날 등 일 년에 몇 차례 모임을 갖는데 이러한 한인들의 모임이나 대소사로 친족이 모이는 경우에만 고려말을 부분적으로 쓴다. 인접 우슈토베에는 한인들의 쿨호스가 많지만 개방 이후 많은 한인들이 쿨호스를 떠나서 알마티, 탈디쿠르간 등 대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사회 변동과 고려말을 구사하는 노인층의 감소로 고려말은 더욱 위축되고 조만간 소멸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말의 사용 빈도는 이민족과 뒤섞여 사는 대도시보다 한인들이끼리 모여 사는 집거지역이 높다.

### 1.4. 조사 기간 및 조사 진행 과정

(1) 조사자 : 박충구(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수현(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 조사 일시 : 2009년 7월 17일~7월 31일

(3) 조사 진행 과정

7월 17일 : 키르기스스탄 비쉬케크에서 비행기 편으로 새벽에 알마티에 도착.

7월 17일 : 공항에서 박 교수를 만나 조사 예정지인 우슈토베, 탈디쿠르간의 교포 거주 상황, 예비 제보자 상황을 듣고 현지 거주 박따찌야나 선생을 소개 받음. 오후에 탈디쿠르간으로 이동. 저녁에 박 선생을 만나 우슈토베와 탈디쿠르간의 예비 제보자의 나이, 고려말 사용 정도, 주거 환경 등을 듣고 다음날부터 제보자를 면접하기로 함.

7월 18일 : 오전 10시경 제보자 윤 할머니를 30분 정도 면접하고, 일단 조사하기로 결정함. 탈디쿠르간의 여관에 숙소를 정하고 조사 준비에 들어감.

7월 19일 ~20일 : 구술발화 조사.

7월 21일 : 오전에 구술발화 조사. 오후에 어휘 농사 편을 조사.

7월 22일 : 조사 자료를 정리하고 확인 조사 항목 검토.

7월 23일 ~7월 26일 : 어휘 조사.

7월 27일 : 구술발화 전사 및 확인 조사 내용 검토

7월 28일 : 음운 조사.

7월 29일 : 음운, 문법 조사.

7월 30일 : 문법 조사 완료. 조사 종료.

7월 31일 : 문법 조사 내용 검토. 오후에 40대 고려말 화자 조사.

8월 1일 : 알마티 행. 알마티 도착 후 한 , 박 교수 면담

8월 2일 : 오전 구술발화 전사. 오후에 50대 한인의 고려말 사용 정도를 조사(200여개 기초 어휘 조사). 제보자: 문 .

8월 3일 : 새벽 알마티 공항 출발. 귀국.

### 1.5. 제보자

- 이름 : 윤
- 성별 : 여
- 나이 : 85세(1926년 생)
- 출생지 : 러시아 연해주 나호드까
- 거주지 : 강제 이주 전 : 러시아 극동 나호드까의 어촌  
현재 :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탈디쿠르간시
- 선대 거주지 : 함경남도 단천군
- 직업 : 없음
- 경력 : 농업 및 기관 일
- 학력 : 초등학교 4년 수료
- 병역 : 해당 없음

제보자는 조부 때(부친이 두 살 되던 해) 함경남도 단천군에서 러시아 연해주 나호드까(Находка) 인근의 한인촌으로 이주 정착하였다.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 집에서 살았다. 11세 때(1937년) 러시아의 불가강 인근의 스탈린그라드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가 1941년 독소전쟁(獨蘇戰爭)이 발발하면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제보자의 약력을 아래에 간단히 소개한다.

1907년 부친 2세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원동 나호드까(Находка)로 이주

1926년 러시아 극동 나호드까의 어촌에서 출생

1930년 4세 때 부친 원동에서 별세(1906-1929)

이후 결혼 전까지 삼촌댁에서 기거

1936년 기관에서 공산당원인 모친을 모처로 옮기는 바람에 모친과 이별  
1937년 카스피해 연안, 불가 강 인근의 스탈린그라드로 이주  
1938년 아스타나 아크몰린스크주(Астана Акмолинская область)로 다시 이주  
1942년 꾸이간(Қуиган)으로 이주  
1944년 우슈토베(Үш-тобе)로 이주  
1947년 21세 때 결혼. 선대(先代)가 함북 경흥(慶興)인 22세의 남편(청풍 김씨)와 결혼.  
술하에 아들 둘 딸 하나를 둬.  
1969년 타지크공화국의 수도 두산베로 이주. 1년 거주.  
1970년 두산베에서 카자흐스탄의 탈디쿠르간으로 이주  
1978년 모친 작고  
1999년 남편 청풍 김씨 작고

<제보자 선정 과정>

한국에서, 카자흐스탄 외국어대학의 박 교수에게 우슈토베 지역의 집단 농장에서 조사할 계획임을 말하고 적당한 콜호스와 제보자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7월 17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이동한 후 오후에 다시 우슈토베와 탈디쿠르간으로 출발하였다.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외국어 대학 강사인 박 선생을 만나 탈디쿠르간과 우슈토베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여러 정황을 듣고 이어 박 선생이 예비로 선정한 제보자들의 신상 정보를 점검하고 탈디쿠르간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18일 아침 탈디쿠르간에서 윤 할머니를 면접하였다. 윤 할머니가 연해주어 어촌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다는 점, 남편이 육진방언권 화자라는 점, 그 밖에 제보자의 자격 조건에 알맞다는 점을 확인하고 윤 할머니를 제보자로 모시기로 하였다. 그 동안 농촌 지역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사람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어촌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주 전 어촌 지역 고려인들의 생활 문화를 조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 고려말은 함북의 여러 지역 방언들이 서로 혼합되어 형성되었는데, 함북의 소방언권을 고려하여 말하면 비육진방언(동북방언)과 육진방언의 혼합이라 할 수 있다. 제보자 윤 할머니는 선대가 동북방언(함남 단천 지역어) 화자이고 남편은 육진방언(함북 경흥 지역어) 화자이기 때문에 방언 혼합의 한 양상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보자는 85세의 고령이지만 건강한 편이고 목소리가 맑지는 않았지만 언어센스가 있고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려말을 많이 잊은 상태였다. 그러나 애써 고려말을 쓰려고 노력하였다. 조사 후반에는 러시아 어를 많이 구사하였다. 일상적으로 러시아 어를 많이 구사하는 까닭에 러시아 어 발음은 유창한 편이지만 고려말 발음은 서툴렀다.

1.6. 조사자

- (1) 이름 : 객충구(서강대학교 교수)  
김수현(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 조사 일시 : 2009년 7월 17일~7월 31일  
(3) 조사 장소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공화국 알마티주州 탈디쿠르간 시(市) 나히모바 22번지  
(Казахстан /область г.Талдыкорган ул. Нахимова 22)

- ① 구술 발화 파일(6개): AKZ\_TD\_01~AKZ\_TD\_06(총 11시간 43분 08초)  
② 어휘 파일(10개): AKZ\_TD\_07~AKZ\_TD\_16(총 30시간 24분 58초)  
③ 음운 파일(5개): AKZ\_TD\_17, AKZ\_TD\_19~AKZ\_TD\_20, AKZ\_TD\_22~AKZ\_TD\_23  
(총 11시간 26분 50초)  
④ 문법 파일(3개): AKZ\_TD\_24, AKZ\_TD\_26~AKZ\_TD\_27(총 6시간 29분 49초)  
⑤ 보충 조사 파일(3개): AKZ\_TD\_18(구술 발화), AKZ\_TD\_21(구술 발화),  
AKZ\_TD\_25(구술 발화)(총 48분 03초)  
-전체 60시간 52분 49초

연번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주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AKZ_TD_01	1:35:55	구술 발화 이주사, 1.2, 1.8.		객충구 김수현	2009. 7. 19.
2	AKZ_TD_02	1:41:35	구술 발화 이주사, 1.2.		객충구 김수현	2009. 7. 19.
3	AKZ_TD_03	2:54:56	구술 발화 1.5.~1.6.		객충구 김수현	2009. 7. 19.
4	AKZ_TD_04	2:27:36	구술 발화 원동 생활사, 1.8.3.		객충구 김수현	2009. 7. 20.
5	AKZ_TD_05	1:28:07	구술 발화 1.6.3., 1.4., 1.8.		객충구 김수현	2009. 7. 20.
6	AKZ_TD_06	1:34:57	구술 발화 1.6., 1.9.2.		객충구 김수현	2009. 7. 20.
7	AKZ_TD_07	2:41:29	어휘 20101~20410		객충구 김수현	2009. 7. 21.
8	AKZ_TD_08	3:01:38	어휘 20411~20819		객충구 김수현	2009. 7. 21.
9	AKZ_TD_09	2:55:16	어휘 20820~21120		객충구 김수현	2009. 7. 23.
10	AKZ_TD_10	2:48:15	어휘 21201~21340		객충구 김수현	2009. 7. 23.
11	AKZ_TD_11	3:20:41	어휘 21401~21719		객충구 김수현	2009. 7. 24.
12	AKZ_TD_12	3:06:28	어휘 21720~22115-2		객충구 김수현	2009. 7. 24.
13	AKZ_TD_13	2:57:06	어휘 22115-3~22329-1		객충구 김수현	2009. 7. 25.

14	AKZ_TD_14	3:25:28	어휘 22330~22637-0-1	박충구 김수현	2009. 7. 25.
15	AKZ_TD_15	3:16:18	어휘 22701~23115	박충구 김수현	2009. 7. 26.
16	AKZ_TD_16	2:52:13	어휘 23116~23441	박충구 김수현	2009. 7. 26.
17	AKZ_TD_17	33:39	음운 31001~31034	박충구 김수현	2009. 7. 26.
18	AKZ_TD_18	24:03	구술 발화 보충 조사	박충구 김수현	2009. 7. 28.
19	AKZ_TD_19	2:59:52	음운 31035~32032	박충구 김수현	2009. 7. 28.
20	AKZ_TD_20	3:20:24	음운 32033~32186	박충구 김수현	2009. 7. 28.
21	AKZ_TD_21	17:48	구술 발화 보충 조사	박충구 김수현	2009. 7. 29.
22	AKZ_TD_22	3:10:25	음운 32187~32317	박충구 김수현	2009. 7. 29.
23	AKZ_TD_23	1:22:28	음운 32318~32362	박충구 김수현	2009. 7. 29.
24	AKZ_TD_24	1:25:40	문법 40101~40229	박충구 김수현	2009. 7. 29.
25	AKZ_TD_25	06:11	구술 발화 보충 조사	박충구 김수현	2009. 7. 30.
26	AKZ_TD_26	3:12:22	문법 40230~40908	박충구 김수현	2009. 7. 30.
27	AKZ_TD_27	1:51:45	문법 41001~41116	박충구 김수현	2009. 7. 30.
합계		60:52:49			

음운 : 박충구, 김수현  
문법 : 박충구, 김수현

### 3) 2차 점검(2010년 11월)

구술발화 : 김수현

어휘 : 박충구, 김수현

음운 : 박충구, 김수현

문법 : 박충구, 김수현

## 1.7. 전사

### 1) 1차 전사(2009년 7월, 2010년 4월~9월)

구술발화 : 박충구

어휘 : 박충구, 김수현

음운 : 박충구, 김수현

문법 : 박충구, 김수현

### 2) 1차 점검(2010년 10월)

구술발화 : 박충구

어휘 : 박충구, 김수현

## 2. 전사 원칙

###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형태음소 전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형, 활용형, 파생어, 합성어 내부의 형태소 경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단, 형태소 내부는 음소 전사를 하였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발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 안에 한글 또는 음성 기호로써 발음을 표시하였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주 제보자), ‘#1’(보조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실물은 존재하나 러시아어로 답변한 경우, 조사지역의 방언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 ⑧ 조사지역에서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어형을 제시하고 그 쓰임을 확인한 후 그 방언형 앞에 ‘→’ 표시를 하였다.
- ⑨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⑩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⑪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⑫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ɰ]로 실현되거나 상항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이’와 ‘으’의 중간음은 ‘-i’로 전사하였다. 예: 괴래, 괴별. 그러나 본래의 음가를 지닌 경우도 있다. 예: 짐식(짐승-이)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상승조, 하강조, 저강조를 동반하는 긴 소리는 동일 모음을 반복 표기하였다. 예: 해애타(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다.

### 3. 전사 자료

#### 제1편 구술 발화

#### 1. 끊임없이 이어진 이주의 역사

##### 1.1. 원동, 중앙아시아로의 이주

- 10201 @ 아매:!! 그러면은 그: 어떤, 어떤 분이 그:: 세베르나이 까레이(Северная Корея)에서 나호드까(Находка)로 가셨습둥?(할머니! 그러면 그 어떤, 어떤 분이 그 북한에서 나호드까로 이주 하였습니다니까?)
- 10201 # 우리 할메 할아버이?(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 10201 @ 예, 예.{예, 예.}
- 10201 # 어, 내 우리, 내 조오꼬맏다나이 어트기 오픈한두 내 모르지, 내사 웁.{어, 내가 우리, 내가 조그맏다 보니 어떻게 러시아에 왔는지 내가 모르지, 내가 웁.}
- 10201 @ 얘기 들은 거 없습둥?(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까?)
- 10201 # 얘기두 얘기 어느 적에. 쪼오꼬맏 적에 큰아매 클아버이 다 상세났지.{이야기도, 이야기 어느 때에 (들을 수 있었겠어). 쪼그맏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지.}
- 10201 @ 음.{음.}
- 10201 # 빠 우리, 우리 아버지 내 네 살에 상세났지.{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는 내가 네 살 때 돌아가셨지.}
- 10201 # 마마 어머니 없지. 까끄(как).{어머니 어머니가 없지.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겠어).}
- 10201 # 어머이 그 답에느 마 모르지 메 몇 해나 지 지나구서리 뽕겨앉았지.{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그 다음에 모르지, 몇 해 지나서 개가(改嫁)를 했기 때문에.}
- 10201 # 다(да). 고려말르 뽕겨앉았지.{음. 고려말로 하면 개가를 했지.}
- 10201 # 기래 윈, 그 답에 할미 한에비 어 우릴 주재인찌.{그래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주지 않지.}
- 10201 # 맘 에 어머이 달라는 거 우리 아:덜 달라는 거.{어머니가 달라는 거 우리 아이들을 달라는 거.}
- 10201 # 우리 서이 잇었지 서이.{우리 남매는 셋이 있었지, 셋.}
- 10201 # 그래 빠빠 상세나구 에 에따(это) 아버지 상세나구.{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에 음 아버지 돌아가시고.}
- 10201 # 기랜게 우리 할미 할머 할머이 우리네르 어머이르 주재니찌.{그런데 우리 할머니 우리를 어머니에게 주지 않지.}
- 10201 # 기래구 우리 어마이는 다른 데 뽕겨앉아서 삼 서 삼십육년에, 삼십육년에 어 기게 고려말르느 우리 아버지두 이찍이 상세나두 아 (한숨) 노 고려말르 당위이 당위이 치스뜨이(чистый) 땃지, 내 아버지.{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개개를 해 가서, 1936년에, 1936년에 어 그게 고려말로는 우리 아버지도 일찍이 돌아가셔도 아 고려말로 당원(黨員)이 당원으로 숙청되었지, 내 아버지.}
- 10201 # 기래 우리 어머이두 뽕겨앉은 분두 당원이 땃땃지.{그래 우리 어머니도 개가한 분도 당원이 되었었지.}



10201 @ 공산당원이?{공산당원이?}

10201 # 아하, 공산당원이.{음, 공산당원이.}

10201 # 그런데 서른 삼십육년에 우리네는 고려 어 원도~서 고렷사름덜이 삼십칠년에 우리 싯겜지.{그러니까 1936년에 우리네는 원동에서 고려, 어, 원동에서 고려 사람들이 1937년에 싯렸지.}

10201 # 우리 어머니네는 삼십육년에 당 치스띠이(чистый) 당 치스꺼(чистка) 어드르 가져간둥 모르지 원도~서.{우리 어머니는 1936년에 당 숙청 당 숙청으로 어디로 사람을 데려갔는지 모르지 원동에서.}

10201 # 그저 가져갔다 가져간 우리네 조오꼬만게 세사 아오?{그저 데려갔다 데려간 것을, 우리네 조꼬만 것들이 세상 물정을 아오?}

10201 # 가져 어드르 에미 그양 가져갔, 탄 곶에서 살았지.{데려, 어디로 어머니를 그냥 데려갔기에, 우리는 어머니와 떨어져 탄 곶에서 살았지.}

10201 # 우리어머니가 우리네 탄 곶에 살았지.{우리 어머니와 우리는 탄 곶에서 살았지.}

10201 # 그 담에 당치스까이 가져가이 어드르 가제간두.{그 다음에 당의 숙청으로 어디론가 데려가니 어디로 데려갔는지.}

10201 # 그담에 고 고렷사름덜 삼십칠년에 잉게르 싯 싯겜지.{그 다음에 고렷사람들이 1937년에 여기로 싯 싯려왔지.}

10201 # 잉게 싯게두 난 잉게르 어 인치 잉게르 온 게 에이라 나는 저어: 노 노시아파에 노시아파에 고로드(город)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이라는 곶으르 왔지.{여기로 싯려와도 난 여기로 어 곶바로 여기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저 러시아땅에 러시아땅에 도시 아스트라한이라는 곶으로 왔지.}

10201 #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잉게 싯겜지.{아스트라한 여기(로) 싯려왔지.}

10201 @ 음.{음.}

10201 # 그레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와서 싯게서 우리네 고렷사람덜 파아 폐에췌지, 경게다. 인저.{그레 아스트라한으로 와서 싯려와서 우리네 고렷사람들에게 땅을 폐어 주었지 거기에다. 인제.}

10201 # 월, 월가(Волга) 역에다.{볼, 볼가강 근처에다.}

10201 # 그레 그 어디메다 파아 폐에췌는가 하무, 따 파이 생겨서 아무것두 징재인데.{그레 그 어디에 땅을 폐어 주었는가 하면, 땅이 생겨서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은 데.}

10201 # 아무 집두 아이주구 농사집두 아이 주구, 지내 무운직이 월가(Волга) 역에 월가(Волга). {아무 집도 안 주고 농사 집도 안 주고, 아주 황량한 들판의 볼가강 근처에 볼가강.}

10201 @ 그게 어디에 있슴둥? ‘월가’가?{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볼가강’이?}

10201 #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아스트라한에.}

10201 @ 아췌?{아췌?}

10201 # 아스트라한에.{아스트라한에.}

10201 @ 예, 아췌라한?{예, 아췌라한?}

10201 # 아스트라한{아스트라한.}

10201 @ 그게 어딴둥? 노시아땅임둥 여기.{그게 어딴니까? 러시아땅입니까? 아니면 여기.}

10201 # 노시아 노시아파이지.{러시아 러시아땅이지.}

10201 @ 중앙아시암둥?{중앙아시아입니까?}

10201 # 노시아 파~이.{러시아땅.}

10201 @ 아! 노시아땅.{아! 러시아땅.}

10201 # 노시아파~이. 음.{러시아 땅. 음.}

10201 # 거기로 우리 싯게왔지.{거기로 우리가 싯려왔지.}

10201 # 기래구서리 어 우리 시 실어 실어오구서리 고렷사름덜으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게다 부리와 놓오이 그 담에 빠라호드(пароход) 이 이층대 삼층대 이런 큰 빠라호드(пароход) 경게 땡기지.{그리고 어 우리 실어 실어오고서 고려 사람들을 아스트라한에다 부려 놓으니 그 다음에 기선(汽船) 이 층, 삼 층 이런 큰 기선이 거기에서 다니지.}

10201 # 그 빠라호드(пароход)다 시 실어서 노시아촌으르 우리 가져왔지, 고렷사름덜으.{그 기선에다 실어서 러시아촌으로 우리를 데려왔지, 고려 사람들을.}

10201 # 개 노시아촌으르 시 실어오이까나 국가에서 그 노시아 노시아 집 집집마다 이 한 한 한 이렇기 사름 사는 데 잊재?{그레 러시아촌으로 실어오니까 국가에서 그 러시아 집 집집마다 이 한 이렇게 사람이 사는 데가 있잖소?}

10201 # 한 한 도~에. 손이 손 사름이 열개 열개 열개스무 열구 아이 열개스무 열구 국가서 막 에따(это) 집집마다 한 호씨 노시아 지 집에다 한 호씨 고렷사름 싯 열었지.{한 동(洞)에. 손이 손 사람이 넣췌으면 넣고 안 넣췌으면 넣고 국가에서 막 음 집집마다 한 호씨 러시아 사람 집에다 한 호씨 고려 사람을 싯 넣었지.}

10201 # 열개스무 에 췌엔이 열겜다 하던지 아이 하던지 국가서 국가서 우리네 고렷사름덜으 노시아 집에다 싯 열 한 집씩 집집마다 집집마다 노시아 집집마다 우리네 고렷사름덜으 한 집씩 열었지.{넣췌으면 에 주인이 넣췌다고 하던지 말던지 국가에서 우리 고렷사람들을 러시아 집에다 싯 넣어, 한 집씩 집집마다 러시아 집집마다 우리 고려 사람들을 한 집씩 넣었지.}

10201 # 그 담에 그래구서리 삼십칠년 동삼우 낫지.{그 다음에 그리고서 1937년 겨울을 낫지.}

10201 @ 음.{음.}

10201 # 동삼 나서 그 담에 삼십팔년에 어 이췌:이 이췌:이 그 파아 폐에준 데르, 고렷사름덜 파아 폐에준 데 경게 그런 무운직이 무운직이.{겨울을 나서 그 다음에 1938년에 어 일췌이 일췌이 그 땅을 폐어 준 데르, 고려 사람들 땅을 폐어 준 거기, 그런 허허벌판 허허벌판.}

10201 # 그 그런 데 월가 딱 월가역이지. 그레 경게서 그담에 싯 이거 풀 능재풀이구 미시기구 싯 그러구.{그 그런 데 볼가강 딱 볼가강 근처지. 그레 거기서 그 다음에 싯 이거 풀, 명아주고 무엇이고 싯 그러고.}

10201 # 스트로이(строить) 에따 집우 지래르 접어들었지.{짓을 짓, 그리고 집을 짓으려 덤벼들었지.}

10201 # 개 기래이가 기게 거저 곱만 서른 삼십팔년도에 곱만 시췌이트 해서 그레 경게가서 그거 싯 없시우구서 진 집우 야.{그레 그러니까 그게 그저 금방 30, 1938년도에 금방 시작을 해서 그레 거기에 가서 그거 싯 없애고서 지은 집을 응.}

10201 # 우리 회 회장 양바이 그렇게 곱이 일하는 양바이지.{우리 콜호스 회장 양반이 그렇게 머리를 쓰는 양반이지.}

10201 @ 조합헤장이?{조합(콜호스) 회장이?}

10201 # 야아! 좋은 존 그런 사름이 직금두 직금 없지. 그렇기 곱이 일 하는 사름이.{야! 좋은 좋은 그런 사람이 지금도 지금은 없지. 그렇게 머리를 잘 쓰는 사름은.}

10201 # 그레 세 꼬호즈(колхоз) 세 세 조합으, 원도~서는 우리 딸루 딸루 살았지 모르지 어드메서 그 사름덜 살았는데.{그레 세 콜호스 세 조합을, 원동에서는 우리 따로 따로 살았지, 모르지 그 사람들이 원동의 어디에서 살았는데.}

10201 # 그런데 하나 또 맨들었지.{그런데 하나로 만들었지.}

10201 @ 으음.{으음.}

10201 # 세 세 조합우 하나 또 맨들었지. 저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세 조합을 하나로 또 만들었지. 저 아스트라한에.}

10201 @ 하나?{하나?}

10201 # 하나 맨들었지. 세 조합으 하나 맨들었지.{하나로 만들었지. 세 조합을 하나 만들었지.}

10201 @ 한나또이?{한나또이?}

10201 # 한, 한나.{하, 하나.}

10201 # 음 한 한 한 조합우 맨들었지 세 세 서어.{음 한 조합을 만들었지 셋을 통합해서.}

10201 # 개 그래 경계서.{그래 그래 거기서.}

10201 # 그렇기 회제~이 일으 잘해서 그 담에 그 집우 싹 집우이 에 이룩기 땃굴이 애이구 땃굴이 애이구 이룩기 드바 저: 고려말로 그제 미시기오?{그렇게 회장이 일을 잘 해서 그 다음에 그 집을 싹 지붕이, 에 이렇게 땅굴이 아니고 땅굴이 아니고 이렇게 저 고려말로 그제 무엇이오?}

10201 # 드바이노이 크리샤(двойной крыша. ная крышей ),,, 드바이노이 크리샤(двойной крыша).{‘드바이노이 크리샤(крыша)’, 이중 지붕.}

10201 # 누(ну) 이룩기 크리샤(крыша)르 하구 이 아랫집이 있구.{음, 이렇게 지붕을 하고 이 아랫집이 있고.}

10201 # 누(ну), 잉게서 싹 다 집우 이룩기 쟁겔소? 드바이노이 크리샤(двойной крыша).{음, 여기서 싹 다 집을 이렇게 짓지 않소? 이중 지붕.}

10201 # 예 예여~이 예여~으 싹 이룩기 널르 싹 해서 그런, 그렇기.{이영, 이영을 싹 이렇게 널로 싹 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10201 # 그래 그 집우 싹 삼십팔년 삼십구연 이룩기 저었지, 으흠.{그래 그 집을 싹 1938년 1939년 이렇게 지었지 음.}

10201 # 그 담에 사십, 사십년도에 사십. 삼십팔년 삼십구연 삼십 사연 에따(это), 그담에 사연이지.{그 다음에 40, 1940년도에. 1938년 1939년 30, 4년 음, 그 다음에 4년이지.}

10201 # 삼십 삼십팔년 삼십구연 사십년. 사십년 사십년 사십년 전에, 삼십구연부터 그 발으 싹 승컷지.{30, 1938년, 1939년, 1940년. 40년, 40년, 1940년 전에, 1939년부터 그 발을 싹 심었지.}

10201 # 그 적에 난 우리네 조오꼬맏지.{그 때에 난 우리는 조꼬맏지.}

10201 # 그래 삼십구연부터 거기다 싹 제에서 싹 갈구서 집우 다아: 저었지.{그래 1939년부터 거기다 싹 지어서 싹 갈고서 집을 다 지었지.}

10201 # 그담에 사십년도에 사십년도에 우리네 발써 우리 우리 조합은 어땡기 에 저 회제~이 일으 잘 했걸래 삼십 사십녀이 대 사십년에 우리 전기 다 잇었어.{그 다음에 1940년도에 1940년도에 우리네 벌써 우리 우리 조합은 어떻게 에 저 회장이 일을 잘 했는지 30, 1940년이 되어 1940년에 우리 전기가 다 들어왔었어.}

10201 # 으흠. 메리니짜(мельница) 다 있어 리스(лись)나 저런 거 베르 베르 찢는 그런 계구 싹 재비 제엿지.{음. 방앗간이 다 있어서 쌀이나 저런 거 벼를 벼를 찢는 그런 것이고, 싹 자기가 (농사를) 지었지.}

10201 # 이거 쿨 쿨 고려말로 클르부(клуб) 미시긴가? 클르부 끼노던지 그거 미시기 고려말로.{이거 ‘쿨(루브)’를 고려말로 ‘클르부(клуб)’가 무엇인가? ‘끼노(кино, 극장)’든지 그거 무엇이오? 고려말로.}

10201 @ 구락부.{구락부.}

10201 # 어 구락부. 구락부 여름것두 잇구 동삼것두 잇구.{어 구락부. 여름 것도 있고 겨울 것도 있고.}

10201 # 공이사두 다아 저었지.{가게도 다 지었지.}

10201 # 어 시 사무원덜이 일하는 그거 다아 저었지. 그렇기 잘 해.{어 사무원들이 일하는 그것도 다 지었지. 그렇게 잘 해.}

10201 # 그담에 마흔 한 해, 마흔 한 해 떡 돌아왔지.{그 다음에 1941년, 1941년이 떡 돌아왔지.}

10201 @ 지금 아매가 말씀하신 데가 어딤등?{지금 할머니가 말씀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10201 # 기계 지금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이.{그게 지금 아스트라한.}

10201 @ 아스트라한이지. 아 이 아스트라한이 노시아땅에 있슴등?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임등?{아스트라한이지. 아 이 아스트라한이 러시아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입니까?}

10201 # 네엘(нет), 노시아파이. 그건 노시아파이. 고로드(город) 아스트라한 그건 노시 노시아파이.{아니, 러시아땅. 그건 러시아땅. 도시 아스트라한 그것은 러시아땅이오.}

10201 @ 그러니까 원동에 사는 고렷사람들을 다아 여기 중앙아시아로 옮겼잖슴등?{그러니까 원동에 사는 고려 사람들을 다 여기 중앙아시아로 옮겼잖습니까?}

10201 # 원 원도~서 원도~서 우리 원도~서 싹 실어올 적 \*우르 우리는 아스트라한으르 실어왔지. 우런게 로 러시아따올르.{원 원도에서 원동에서 우리 원동에서 싹 실어 올 적에 우리는 아스트라한으로 실어왔지. 우리는 러시아땅으로.}

10201 @ 러시아땅으로.{러시아땅으로.}

10201 # 다(да), 아하.{예, 음.}

10201 @ 여기로 오지 않구.{여기로 오지 않고.}

10201 # 아이! 여기르 아이 왔지. 여기르 아이 왔지.{아니! 여기로 안 왔지. 여기로 안 왔지.}

10201 @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이 노시아 어디에 있슴두? 어드메쥬 있슴등?{아스트라한이 러시아 어디에 있습니까?}

10201 # 그 월가. 스탈린그라드(Сталинград)서 그리 머지애영지. 스탈린그라드(Сталинград)서 널 달[달], 달레고(не далеко). 네트(нет). 그룽기 머제알다구.{그 불가강. 스탈린그라드에서 그리 멀지 않지. 스탈린그라드에서 멀지 않지. 아니오. 그렇게 멀지 않다고.}

10201 @ 으음.{으음.}

10201 # 아하!{아하!}

10201 @ 아아:: 예 그럼 이제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아아에 그럼 이제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스트라한.}

10201 #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음.{아스트라한, 음.}

10201 @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아스트라한.}

10201 #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아스트라한.}

10201 @ 예. 거기서 그 조합을 잉기 만들어서 고렷사람덜을.{예. 거기서 그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려 사람들을.}

10201 # 아하. 조합으 맨들어서.{음. 조합을 만들어서.}

10201 # 고렷사람덜 싹.{고려 사람들을 싹.}

10201 @ 고렷사람덜으 집어 영구서 그리고서 뭐 공이사 같은 것두 두구.{고려 사람들을 집어 넣고서 그리고서 뭐 가게 같은 것도 두고.}

10201 # 다아, 이제 학교 다 잇었지.{다, 이제 학교도 다 있었지.}

10201 @ 핵교두 두구.{학교도 두고.}

10201 # 아하.{음.}

10201 @ 그렇기 거기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옵소.{그렇게 거기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10201 # 거 거기서 거기다 그 담에 에 그 담에는 사 사십일년이 데재웁소?{거 거기서 거기다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는 4, 1941년이 되지 않았소?}

10201 # 사십일 젠자이 낫지, 젠자이 나서 하! 곡석이 지내 나놓어 깃땅맥히지.{41년에 전쟁이 일어났지, 전쟁이 나서 아! 곡석이 너무 쓰러져서 기가 막히지.}

10201 @ 그렇지!{그렇지!}

10201 # 곡석이 아하!{곡석이 음!}

10201 # 그게 이 파이 생겨서 아무것두 짓재인 파이.{그게 아! 이 땅이 생겨서 아무것도 짓지 않던 땅이. 아무것도.}

10201 # 아무것두. 한늬르 뎃천년으[매칠러느] 아이 에떠(это) 그거 불리자(польза) 아이 잇자.{한평생을, 몇 천년을 안 짓던 음 그거 쓸모가 있지 않은.}

10201 # 무스거 승귀 못 본. 집두 없구.{무엇을 심어 보지 못한. 집도 없고.}

10201 # 그런 월가(Волга)에 뎃 백 겹타르(гектар) 그렇게 잇었지.{볼가강 몇 백 헥타르 그런 것이 있었지.}

10201 # 뎃 백 겹타르(гектар). 으흠.{몇 백 헥타르. 음.}

10201 # 기래 고렷사름덜이 경게르 오이까느 고렷사름덜 그 따아 짓지. 월가역에다, 월가역에다.{그래 고려 사람들이 거기로 오니까 고렷사름들에게 그 땅을 주었지. 볼가강 근처에다, 볼가강 근처에다.}

10201 # 그 담에 전재이 딱 나이 마흔한해 마흔한내에 그 담에 마흔 두해애, 초, 마흔 두해 초하룻날 초이튼날 정월 정월 초하룻날 초이튼날, 초사흔날 이 이 떠 이쥬안에 우리 고렷사름덜이 썩 떠왔어.{그 다음에 전쟁이 딱 나니 1941년, 1941년에 그 다음 1942년에 1942년 초하룻날, 초이튼날 정월 초하룻날 초이튼날, 초사흔날 이쥬에 이 땅에 살던 우리 고려 사람들을 썩 옮겼어.}

10201 # 원동~서 들어오는 것처름.{원동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10201 @ 예.{예.}

10201 # 우리 고렷사람 썩 원도~에서 들어오재엿소? 그것처름.{우리 고렷사람 원동에서 원동에서 여기 중앙아시아로 들어오지 않았소? 그것처럼.}

10201 # 저, 예, 직금우는 저 우리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사던 살 턴 데서 구렷 구려부라구 그 구려분 이 까자흐스탄 따이.{저, 예, 지금은 저 우리 아스트라한 살던 데서 구려부라구, 이 구려부는 카자흐스탄 땅.}

10201 @ 아하!{아하!}

10201 # 아하! 경게 사름 경게두 고렷사름덜이 가뜩 살앗소.{아! 거기 사람도 거기에도 고려 사람들이 가뜩 살았소.}

10201 # 우리 아는 사름덜두 살구 구려부에서.{우리 아는 사람도 살고 구려부에서.}

10201 # 그런데 구려부 사름덜으느 딱 아스트라한 딱 라돔(рядом)이지.{그런데 구려부 사람들은 아스트라한에서 딱 가까운 곳이지.}

10201 @ 음.{음.}

10201 # 딱 불었지.{딱 불었지.}

10201 # 기래네 딱 구려부 사름덜은 아이 떠우구 우리 아스트라한 고렷사름덜은 썩 떠왔지.{그런데 딱 구려부 사람들은 안 옮기고 아스트라한 고려 사람들은 썩 옮겼지.}

10201 @ 음.{음.}

10201 # 원동서 들어오는 것처럼.{원동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10201 @ 음.{음.}

10201 # 그래 떠서 떠와서 어드메르 왔는가 하루 직금 이 저 나 이 까자흐스탄 중앙이 아스파나(Астана) 아이우?{그래 옮겨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지금 이 저 이 카자흐스탄의 중심지가 아스타나 아니오?}

10201 @ 다(да) 다(да).{예, 예.}

10201 # 어스파나(Астана) 그 적에는 아무 집이두 없었맏소 나.{아스타나는 그 때에는 아무 집도 없었었어 음.}

10201 @ 아하!{아!}

10201 # 그 집이 어떤 집이 잇었는가 하루 그전에 토호르 맞아 간 노시앗사름덜이나.{그 집이 어떤 집이 있었는가 하면 그전에 토호(土豪)로 쫓겨간 러시아 사람들이나.}

10201 @ 음.{음.}

10201 # 아하. 고렷사름은 없습데, 고렷사름은 없구.{음. 고려 사람들은 없데, 고려 사람들은 없고.}

10201 # 그래 동삼에 글썬나 누이 두 메떠르 이런 이룩기 한 한 층대집우는 배워주두 못했어.{그래 겨울이 글썬 눈이 2미터 높이로, 이런 이렇게 한 층 집은 보이지 않았어.}

10201 # 누이 어트기 썬었는두~.{눈이 어떻게나 썬었는지.}

10201 # 어쨌 저 전장 적에는 그렇기 칩앗소.{어쨌 전쟁 때에는 그렇게 추웠소.}

10201 # 아아! 칩아 아소벤느(особенно) 전장 적에.{아! 추워 어쨌든 전쟁 때에는.}

10201 # 그래 거기 딱 실어 고렷사름덜 글썬 경게르 딱 실어왔어.{그래 거기 딱 실어, 고려 사람들 글썬 거기로 딱 실어왔어.}

10201 # 동삼에 야. 동삼에 눈 우에 낭기두 한나투 없지. 아무것두 없지. 그런 데. 고렷사름덜으.{겨울에 음. 겨울에 눈 위에 나무 하나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 데에 고려 사람들을.}

10201 # 사 사십이연 정월에 정월달에 경게서. 경게 떠와.{1942년 정월에 정월달에 거기서. 거기서 옮겨.}

10201 # 개 기래 어떤 사름덜으느 썬:이구 이랜 형겅이낭 무슨 잇던 거 그런 세 세 그 경게사름덜 이 그 노시앗사름덜 사는 게 무스거 그런 동삼이랑 때는가나무 이런 거 쇠또~에다 짚우 짚우 섞어서.{그래 그래 어떤 사람들은 썬이고 이런 천이나 잇던 거 그런 소, 소, 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러시아 사람들 사는 것이 무슨 그런 겨울에 때는가 하면 이런 거 쇠똥에다 짚을 짚을 섞어서.}

10201 # 그래 말리와서 그 사름덜이 불우 때이지. 시걱 끓여먹지 그걸.{그렇게 해서 말려서 그 사람들이 불을 때지. 끼니를 끓여 먹지 그걸 가지고.}

10201 # 그래 썬이나 조곰 가져가구 형겅이나 가져가두 한 해 동삼우 사월달까정 부수개에다 썩 거더 열지. 썩 바깳지. 경게 사름덜가.{그래 썬이나 조금 가져 가고 천이나 가져가도 한 해 겨울을 사월달까지 부엌에다 썩 거두어넣지. 썩 바꾸었지. 거기에 사람들과.}

10201 # 썬으 주구 그거 쇠또 쇠똥 에떠(это) 말리운 거 바깳지.{썬을 주고 그거 쇠똥, 쇠똥 음 말린 것과 바꾸었지.}

10201 # 그런 거 형겅으 주구두 바까. 불우 때애사 무 끓에 먹지.{그런 거 천을 주고도 바꾸어. 불을 때야만 뭐 끓여 먹지.}

10201 # 그레 싹 불 썰이구 형겻이구 부수께애다 싹 거두었지.{그레 싹 불을 얻자고 썰이고 친이고  
(주고 쇠팅을 바꾸어) 부엌 아궁이에다 싹 거두어 넣었지.}

10201 # 기계 사 사십이연 어전 사십이연 그 곱만 잡았맏지.{그게 1942년 이제 1942년 그 금방 접  
어들었지.}

10201 # 기래구 사십이연 나찰르(начало) 거기에 경게르 우리 실겨왔지.{그리고 1942년 초(初) 거  
기로 우리 실려왔지.}

10201 # 그 담에 그 담에 경게서 또 저 꾸이간(Куиган)이라 데 있소.{그리고 1942년 초(初) 거기로  
우리 실려왔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저꾸이간이라는 데가 있소.}

10201 # 꾸이간이라구.{꾸이간이라고.}

10201 @ 꾸이간(Куиган).{꾸이간.}

10201 # 아, 그런 꾸이간(Куиган). 저.{아, 그 꾸이간. 저.}

10201 # 그레 꾸이간(Куиган)이라는 그런 경게 가서.{그레 꾸이간이라는 그런 거기로 가서.}

10201 # 경게서 또 우리 우리 조합우 또 꾸이간(Куиган) 조합애다 거기두 그 꾸이간(Куиган)에  
고려 조합이 서이 채레 채레저 잇었지 야~{거기에서 또 우리 우리 조합을 또 꾸이간 조합에  
다, 거기도 그 꾸이간에 고려 조합이 셋이 차례 차례로 설립되어 있었지 응?}

10201 # 꾸이간 꾸이간이라는 데.{꾸이간 꾸이간이라는 데.}

10201 # 그랜데 거기다 또 웨엔: 구차한 꼬호즈(колхоз)다가 우리네르 또 합했단 말이오. 아스트라  
한(Астрахань).{거기다 또 가장 가난한 꼴호스에다가 우리네를 또 합했단 말이오. 아스트라  
한 사람들을.}

10201 #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사름덜 거기다 딱 합했단 말이오. 으흠. 야아!.{아스트라한 사람들  
을 거기다 딱 합했단 말이오. 음. 야!}

10201 # 그 담에 그담에 져재~이 낫지.{그 다음에 전쟁이 낫지.}

10201 # 그담에 어전은 쏜로 마흔두 해, 봄에 봄에 사월달에 우리 정게르 왔맏지. 꾸이간으르.{그  
다음에 이젠 40 1942년 봄 봄에 사월 달에 우리 저기로 왔었지. 꾸이간으르.}

10201 # 사월달에 못 나오무 어 그담에 어 여름이구야 나오지.{사월 달에 못 나오면 어 그 다음에  
어 여름이어야만 나오지.}

10201 # 눈이 너무:: 많아서 그게 녹으무 못 땡기지.{눈이 너무 많아서 그게 녹으면 못 다니지.}

10201 # 조오 조 조 아스파나(Астана)서 아스파나(Астана)서 그 철등길 잇는 데껴저.{조, 조 아스  
타나 아스타나에서 철로 잇는 데까지.}

10201 # 철등길 잇는 데껴저.{철로가 잇는 데까지.}

10201 @ 철등길?{‘철등길’(철로)?}

10201 # 아하! 저 뽀에즈드(поезд) 땡기는 길.{응! 저 기차가 다니는 길.}

10201 @ 아! 예.{아! 예.}

10201 # 뽀에즈드(поезд) 땡기는 길.{기차가 다니는 길.}

10201 # 그 길으 그 길으 사월달에 나 모 나 모으무 못 나오지.{그 길을 그 길을 그 길을 사월 달  
에 못 나오면 못 나오지.}

10201 # 누이 하두 녹아서 물이 어찌지 못하지.{눈이 하도 녹아서 물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지.}

10201 # 기래 우리네 삼춘이 삼춘이는 내 내 어시 없어두 삼춘이는 윈도~서부터 그리 구차하지 없  
구 잘 살았맏지.{그레 우리네 삼춘은 삼춘은 내 부모가 없어도 삼춘은 윈동에서부터 그리 구  
차하지 않고 잘 살았었지.}

10201 # 구차하재엿지.{구차하지 않았지.}

10201 @ 음.{음.}

10201 # 그레 거기 경게 저 사는 사름덜 마술기르 싹으 내서 우리네 철등길껴저 나왔맏지.{그레 거  
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말수레를 싹을 내서 우리네 철로까지 나왔었지.}

10201 # 기래 철등길에 나와서 뽀 뽀에즈드(поезд)에 앉아서 이 발하슬(Балхасы-르) 왔지.{래 철  
로에 나와서 기차에 앉아서 이 발하스로 왔지.}

10201 @ 어덜르?{어디로?}

10201 # 발하스(Балхасы).{발하스.}

10201 @ 발하스(Балхасы).{발하스.}

10201 # 아하! 발하스(Балхасы)라구 그런 데 잇지.{음! 발하스라고 그런 데가 있지.}

10201 @ 그게 어디 옆에 있습니까? 우슈토베(Уш-тобе) 근처에 있습니까?{그게 어디 옆에 있습니  
까? 우슈토베 근처에 있습니까?}

10201 # 네엔(нет)! 우슈토베서 마이 더 가지 저쪽으르.{아니! 우슈토베에서 많이 더 가지 저쪽으  
르.}

10201 @ 아스파나(Астана) 쪽으르?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아스타나쪽으로? 크즐오르다쪽으  
로?}

10201 # 네엔(нет)!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는 따암. 좋은 게지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아니!  
크즐오르다는 다르지. 좋은 곳이지 크즐오르다.}

10201 @ 그러면은 발하스(Балхасы)는.{그러면 발하스는.}

10201 # 발하스(Балхасы)라구.{발하스라고.}

10201 @ 어디가 가깝슴둥? 아스파나(Астана)가 가깝슴둥? 우슈토베(Уш-тобе)가 가깝슴둥? 잠불이  
가깝슴둥?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가 가깝슴둥?{어디가 가깝습니까? 아스타나와 가깝습니  
까? 우슈토베와 가깝습니까? 잠불이 가깝습니까? 크즐오르다와 가깝습니까?}

10201 # 우슈토베(Уш-тобе)에서 좀 가깝지.{우슈토베에서 좀 가깝지.}

10201 @ 아 우슈토베(Уш-тобе)에서.{아! 우슈토베에서.}

10201 # 좀 가깝지. 발하스(Балхасы). 우슈토베(Уш-тобе)서 머제윙지 발하스(Балхасы)라는 데.{좀  
가깝지. 발하스. 우슈토베에서 멀지 않지, 발하스라는 데는.}

10201 @ 네.{네.}

10201 # 거 거기 와서 그담에 그담에 발하스(Балхасы)껴지 오이 발하스(Балхасы), 발하스(Балха  
сы) 와서 그담에 또 배애 앉아서 정게르 가야지.{거, 거기 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발하스  
까지 오니 발하스, 발하스에 와서 또 배애 앉아서 저기를 가야지.}

10201 # 꾸이간(Куиган).{꾸이간.}

10201 # 우리, 우리, 우리 저 나 이게 꼬호즈(колхоз) 무시기라 하오?{우리 저 나 이 꼬호즈 무엇  
이라 하오?}

10201 # 우리 꼬호즈(колхоз) 한테 한테 합한테르 거길 또 가야지, 발하스(Балхасы) 발하스(Балх  
асы) 가 에파 오제르(озеро). 오제르(озеро) 물이지. 발하스(Балхасы) 물이.{우리 꼴호스 한테  
합한 테를 거길 또 가야지, 발하스 발하스가 음 호수(湖水). 호수지. 발하스 물(발하스 호수).}

10201 @ 음.{음.}

10201 # 으흠. 거기 빠라호드(пароход) 땡기구 그저 마또르(мотор) 땡기다나이. 기래 경게 앉아서  
또 꾸이간(Куиган)으 갖지.{음. 거기 기선이 다니고 그저 발동선(發動船)이 다니다 보니. 그  
래 거기에 앉아서 또 꾸이간으로 갖지.}

10201 @ 으음.{음.}

10201 # 꾸이간(Куиған)에 가서 살았었지.{꾸이간에 가서 살았었지.}

10201 @ 또 꾸이간(Куиған)으로 갔슴등?{또 꾸이간으로 갔습니까?}

10201 # 꾸이간에 어 소로끄(сорок) 마흔 두해 적에 꾸이간으르 우리 경계 합해서.{꾸이간 어 40, 1942년에 꾸이간으로 우리 거기로 합해서.}

10201 @ 그렇지.{그렇지.}

10201 # 우리 꼬호즈 합해.{우리 콜호스 합해(서).}

10201 # 그 답에 마흔두해 경계서 나구 나 우리 내 헤이 내 헤이는 꾸이간꺼져 와서 마흔두해 인치 다른 데르 갔지.{그 다음에 1942년에 거기서 나오고 우리 내 언니, 내 언니는 꾸이간까지 와서 1942년 이내 다른 데를 갔지.}

10201 # 에 에따(это) 어른아두 없구 꿈만 시집 서방 간게. 내 헤이.{에 음 어린아이도 없고 금방 시집 장가를 갔는데. 내 언니가.}

10201 # 다른 데르 월급생활하는 데르.{다른 데로 월급생활하는 데로.}

10201 # 으흠. 그 꼬호즈 아이 그러구.{음. 그 콜호스 안 남아 있고.}

10201 # 그 그 기래구 마흔 세 해, 마흔 세 해 우리 헤이 나르 자꾸마 오라 해서.{그 그리고 1943년, 1943년에 우리 언니가 자꾸만 오라고 해서.}

10201 # 우리 헤이 남제는 마또르(мотор) 타구 가무 사흘 사흘만에도 오구 닷새만에도 오구 이롱기 그 저언 이롱기 고기 고기 전에 \*\*뽀터르 마또르(мотор) 타구 달아맏기다 나이 그렇기 나마지 못 땡기구 메출 한번 집우루 오지.{우리 언니 남편은 발동선을 타고 가면 사흘 사흘만에도 오고 닷새만에도 오고 이렇게 그 저 이렇게 고기 고기를 전에 \*\*처럼 발동선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 그렇게 나머지 못 다니고 며칠만에 한 번 집으로 오지.}

10201 # 재비 집우루.{자기 집으로.}

10201 # 그래 헤이 어른아두 없지 하분자 있다구 나르 자꾸 오라구 너무 그래서 기래 내 마흔 세 해에 봄에 봄에 헤이 집으르 왔지.{그래 언니가 어린아이도 없지 혼자 있다고 나를 자꾸 오라고 너무 그래서 그래 내 1943년에 봄에 언니 집으로 왔지.}

10201 @ 음.{음.}

10201 #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 그거는 삼깨이 삼깨이이 이런 셀로(село)지.{까라차간은 카자흐인들이 (사는) 이런 마을이지.}

10201 @ 으음.{음.}

10201 # 삼깨 사는 그거는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 이 스파츠 립씨 스파츠 립씨 좀 머재얹게. 머재얹게 그렇기 있지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카자흐인들이 사는 그거 까라차간은 이 스파츠 립씨에서 멀지 않게 있지. 멀지 않게 그렇게 있지 까라차간.}

10201 #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 사름덜이 고기잡이르 하지.{까라차간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지.}

10201 @ 으음.{음.}

10201 # 으흠. 발하스(Балхасы) 물이 그 발하스 오제르(озеро) 발하스(Балхасы) 물이 고기잡이르 하지.{음. 발하스 물, 그 발하스 호수 발하스 물에서 고기잡이를 하지.}

10201 @ 그리구서 거기서:: 어떻게 살았슴등? 그:: 이 이 헤~이 집에 갔 갔재임등?{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 이 언니 집에 갔지 않았습니까?}

10201 # 아하, 헤~이 집으르 갔지.{아, 언니 집으로 갔지.}

10201 @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까라차간.}

10201 #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으.{까라차간을.}

10201 @ 그래 거기서 무스거 하 하섰슴등?{그래 거기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10201 # 나는 경계서 그 사름덜 보이까나 이래 후리질하제이오? 후리질 다(да)? 후리질.{나는 거기서 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후리질을 하지 않겠소? 후리질이라는 말이 맞지, 음? 후리질.}

10201 # 경계서 조금 일했지.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에서.{거기에서 조금 일을 했지. 까라차간에서.}

10201 @ 음.{음.}

10201 # 으흠. 개 거기서 오래 아이 살았지, 내.{거기서 오래 안 살았지, 나는.}

10201 # 우리 헤~이네 헤~이 남제 마또리스뜨(моторист) 테니까나 마또르(мотор) 타구 땡기지.{우리 언니네 언니 남편이 발동선 선원이 되니까 발동선을 타고 다니지.}

10201 @ 마또르(мотор)가 뭇등?{‘마또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10201 # 마또르(мотор) 그 배 배. 마또르(мотор) 일하지, 배.{발동선. 배. 배에서. 배, 예, 배에서. 발동선에서 일하지, 배.}

10201 @ 배, 이롱기 운전하는, 배르 가게 오게 하는 거?{배, 이렇게 운전하는, 배를 가게 또 오게 하는 것?}

10201 # 다(да), 다(да), 다(да) 아하 그룽기.{예, 예, 예 아 그렇게.}

10201 # 그룽기.{그렇게.}

10201 @ 으음.{음.}

10201 @ 거기서:: 그러니까 무스걸 하섯슴등? 거기서.{거기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섯습니까? 거기서.}

10201 # 어드메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에서? 후리질하는 데서 나두 쪼끔 일했지.{어디 까라차간에서? 후리질하는 데서 나도 쪼끔 일을 했지.}

10201 # 사름덜 이래 후리질해서 고기덜의 다바이(давать) 하지.{사람들 이렇게 후리질해서 고기들을 주지.}

10201 # 주지. 국가 주지. 아하. 거기서 좀 일했지. (웃음).{주지. 국가에 바치지. 거기서 좀 일했지. (웃음).}

10201 @ 그러구선 또 어디르 가섯슴등?{그리하고서는 또 어디로 가섯습니까?}

10201 # 그담에 소로끄 쓰리(сорок три), 마흔세해 경계르 오구 그 답에 마흔네해 적에 또 그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에서 동삼이무 일 그 마또르(мотор) 못 땡기지. 발하스 얼어서.{그 다음에 1943년, 1943년에 거기로 오고 그 다음에 1944년에 또 그 까라차간에서 겨울이면 일 그 발동선이 못 다니지. 발하스 호수 물이 얼어서.}

10201 @ 얼어서.{얼어서.}

10201 # 얼어서.{얼어서.}

10201 # 그 답에 그 까라차간(Карачаған)에서 마흔 세 해 가슬에 안죽 물이 아이 얼어실 적이 또 가슬에 또 알가시라고 있어. 라돔(рядом) 알가시.{그 다음에 그 까라차간에서 1943년 가을에 아직 물이 안 얼었을 때 또 가을에 또 알가시라고 있어. 가까이에 알가시.}

10201 # 그 까자끄덜 촌이지. 까자끄덜이 자는 데.{그 카자흐인 촌이지. 카자흐인들이 자는 데.}

10201 # 그래 그 알가스에 가서 저 우리 헤이 남제랑 그 재비 저 마또르(мотор) 레몬(ремот), 고려말로 그 미시건가? 레몬드(ремон)르 하지.{그래 그 알가스에 가서 저 우리 언니 남편이랑 그 자기 저 발동선을 수리, 고려말로 그제 무엇인가? 레몬드를 하지.}

10201 # 동삼에 세와농구 레몬드(ремон)르 하지. 이 미시기오? 고려말로 미시기오?{겨울에 세워 놓고 수리를 하지. 이 레몬드란 말이 무엇이오? 고려말로 무엇이오?}

10201 @ 모르겠습꾸마 예. 노시아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꾸마. 레몬뜨(ремонт)르.{모르겠습니다 예. 러시아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레몬뜨(ремонт)를.}

10201 # 레몬뜨(ремот), 이래 파이난 계랑 곤치지. 거기다 동삼에 알가스에다 세와 농구.{수리, 이

렇게 고장난 것을 고치지. 거기다 겨울에 알가스에다 세워 놓고.}

10201 # 마토프(мотоп) 세와농구.{발동선을 세워 놓고.}

10201 # 이 파이 기계 파이난 것두 에 싹 같아서 기래구.{고장난 기계도 싹 같아 넣어 그리고.}

10201 @ 음.{음.}

10201 # 그거 곧치 곧치지. 재비 마토프(мотоп).{그거 고치지. 자기 발동선을.}

10201 @ 으음.{음.}

10201 # 기래구야 봄에 또 일할라 가지.{그래야만 봄에 또 일하러 가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아하. 그렇기 그렇기 귀랬어.{음. 그렇게 그렇게 그랬어.}

10201 @ 으음.{음.}

10201 # 그담에 마흔 네해: 마흔 네 해에 내 우스토베르 왔어.{그 다음에 1944년에 1944년에 내 우 슈토베에 왔어.}

10201 @ 아하! 그때에 우슈토베에 오셨군요.{아! 그때에 우슈토베에 오셨군요.}

10201 # 으흠. 마흔 네 해.{음. 1944년.}

## 1.2. 원동과 중앙아시아에서의 학창 시절

10201 @ 우슈토베. 그러면은 아매 우슈 우슈토베::에서 그럼 핵교르 땡졌습등?{우슈토베. 그러면 할 머니 우슈토베에서 그럼 학교를 다녔습니까?}

10201 # 우슈토베(Уш-тобе)서 우슈토베 발써 낡은 게 내 핵교르 아이 땡졌어.{우슈토베에서 우슈 토베에서는 벌써 늙어서(=나이가 들어서) 내가 학교를 안 다녔어.}

10201 @ 으음.{음.}

10201 # 핵교르 아이 땡졌어.{학교를 안 다녔어.}

10201 @ 그럼 언제 핵교르 땡졌습등?{그럼 언제 학교를 다녔습니까?}

10201 # 핵교는 원동 이시 적에는 고렷글으 세 번째 반으 이르다가 잉게 들어왔지.{학교는 원동 있을 적에는 고렷글을 세 번째 반(3학년)에서 공부하다가 여기로 들어왔지.}

10201 # 그래 경계 워 원도~서 고렷글으 그래 세번째 반으 이르다가서 오구서는 영게와서는 고렷 글이라는 게 없었지. 싹 노시앗글루 땡지.{그래 거기 원동에서 고렷글을 그래 3학년에서 공부 하다가 오고서는 여기 와서는 고렷글이라는 것이 없었지. 싹 러시아글로 배우도록 되었지.}

10201 @ 음.{음.}

10201 # 기래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원도~서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 와서 우리 고렷글으 세 세 삼학년으 이르다가 들어왔는데 노시앗글은 또 첫 첫 클래스부터 첫 번째부터 일겼어. (웃 음).{그래 아스트라한, 원동에서 아스트라한에 와서 우리 고렷글을 3학년을 공부하다가 들어 왔는데 러시아 글은 1학년부터 1학년부터 공부를 했어. (웃음).}

10201 # 원도~서 들어온 사름덜이.{원동에서 들어온 사름덜이.}

10201 @ 그렇지.{그렇지.}

10201 # 우린 원도~서 고렷글으 이르메 노시앗글으 한 한 시간씩 한 시간씩 열어서 우리네, 원도~ 에 이시 적에.{우린 원동에서 고렷글을 공부하며 러시아 글을 한 시간씩 넣어서 우리네 공부 했지. 원동에 있을 적에.}

10201 @ 으흠.{음.}

10201 # 노시앗글으 한 시간씩 열어서. 노시아 선택~이 잇었소.{러시아 글을 한 시간씩 있었어. 러 시아 어 선생이 있었소.}

10201 # 고렷사름이 노시앗글으 가르쳐 배워줬지.{고려 사람이 러시아 글을 가르쳐 주었지.}

10201 # 그래구서리 다른 \*\*정교 저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설랑 고렷글이라는 게 없었지.{그리고 서 다른 \*\* 저 아스트라한에서는 고렷글이라는 것이 없었지.}

10201 # 그저 기양 노시앗글으 써.{그저 그냥 러시아 글을 썼지.}

10201 # 기래 개 노시앗글두 머. 아이 고렷글이 세 반 세 번째반 읽다[일따] 들와서 노시앗글은 또 첫 번째부터 첫 클래스 첫 일학년부터 일것단 말이오 노시앗글으.{그래 러시아 글도 뭐. 아니 고렷글을 3학년까지 공부하다 들어와서 러시아 글은 또 처음부터 1학년부터 공부했단 말이오 러시아 글음.}

10201 # 핵교에 노시앗글은 무슨.{학교에 러시아 글은 뭐.}

10201 # 네 네 네 클래스밖에 모 일거. 소핵교 밖에 아이 모 일것어.{(고렷글을) 4학년밖에 공부를 못 했지. 소학교밖에 아이 공부하지 못했어.}

10201 @ 으음.{음.}

10201 # 무스 에미 애비두 없지 무슨 무시기 그리 우리네르 글으 글으 일그 이르라구 그렇기 그 리.{무슨 어미 아비도 없지 뭐 무엇이 그리 우리를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그리하겠어.}

10201 # 귀래 내 기래재오?{그래 내 그러지 않소?}

10201 # 거저 삼춘두 녀미라구.{그저 삼춘두 남아라고.}

10201 # 우릴 그 그 글으 일것으무 일게시무 어통갇어 우리네르 그양.{우리를, 그 글을 공부했으면 공부를 시켰으면 우리를 그양.}

10201 @ 음.{음.}

10201 # 에이구:!!{어이고!}

10201 @ 그러면:은 나호드까:에서두 핵 핵교르 다니 다녔습지. 세 번 세채 반까지 다니셨지.{그러면 나호드까에서도 학교를 다녔지요? 세 번째, 3학년까지 다니셨지.}

10201 # 나호드 절에 그 우리 그런 에떠(это) 조합이 잇었지.{나호드까 곁에 그 우리 그런 음 콜호 스가 있었지.}

10201 # 나호드까 절에.{나호드까 곁에.}

10201 # 좀 머재잉게 조합이.{좀 멀지 않게 콜호스가 있었지.}

10201 # 그릴 적에는 에 세 번째 클라 세번째반까지 이르다가 이루 들어왔지.{그릴 적에는 에 3학 년, 3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여기로 들어왔지.}

10201 # 삼십 삼십 칠년도에 이루 들왔지.{30, 1937년도에 이리로 들어왔지.}

10201 # 그래 갓구 그래 고렷글으 췌에뿌리구 다시 고렷글으 모 일것단 말이.{그래 가지고 그래서 고려말을 내딘지고 다시는 고려말을 공부하지 못했지.}

10201 # 모 일거 뵈지.{공부를 못 했던 말이오.}

10201 @ 그때 나호드까:에서 거기서는 무스걸 배웠습등? 핵교에서.{그때 나호드까에서 거기서는 무 엇을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10201 # 핵교서 첫 번째부터 아 무슨 ‘아, 이, 우’ 이 그건 빠리카(первый класс) 첫번 첫 클래스 부터 이릉기 배왓지.{학교에서 1학년부터 아 무슨 ‘아, 이, 우’ 이러한 것은 1학년, 첫 학년 1 학년부터 이렇게 배웠지.}

10201 # 아, 그담에 두 번째 세 번째 클래스 읽다[일따]가 세 번째 반 읽다[일따] 잉게 들어오이 그 래구 홀 췌에빠리니 다시 고렷글으 모 일거뵈지.{아,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들어와서는 그냥 고려말을 내던지니 다시는 고려말을 못 공부했지.)

10201 @ 아니! 거기서: 어 머 거기서 산수니.{아니! 거기서 뭐 거기서 산수니.}

10201 # 산수구, 어.{산수나, 음.}

10201 @ 머 지리구 역사구.{뭐 지리고 역사고.}

10201 # 나. 기래구 그런 기계 고려책이 그 미시간가 이립이.{응. 그리고 그런 그 고려책이 그 무엇인가 이름이.}

10201 # 고려말로서 그 고려책이 응.{ 고려말로서 그 고려책이 응.}

10201 @ 독본이라구 했습둥?{'독본'이라고 했습니까?}

10201 # 독, 독본이 독본이 있구.{독, 독본이, 독본이 있고.}

10201 # 이 산술이 있구.{이 산술이 있고.}

10201 # 기래구서 기계 미시간가 마 에따(это) 그람마찌까(грамматика) 노시앗말르 그람마찌까(грамматика)지.{그리고 그게 무엇인가 음 문법, 러시아 말로 '그람마찌까'(문법)지.}

10201 # 그런 글으 쓰는 게 잇었지.{그런 글을 쓰는 것이 있었지.}

10201 # 기래구 으 노시아 글이 한 한 끝라 한 반 한 한 에따(это) 그런 거 한 시간씨 노시앗글으 거두어 주구 원도~서부터 음.{그리고 어 러시아 어가 한 학년, 한 반, 한 음 그런 거 한 시간씩 러시아 말을 가르쳐 주고, 원동에서부터 음.}

10201 # 기래구서 왔지.{그리고 여기로 왔지.}

10201 @ 그때 그 학교는 좀 컸습니까?{그때 그 학교는 좀 컸습니까?}

10201 # 어드메?{어디?}

10201 @ 나호드까.{나호드까.}

10201 # 나호드까, 나호드까 어 책교 그 소핵교꺼지 잇었던 말이오, 소핵교.{나호드까, 나호드까 어 학교, 그 초등학교까지 잇었던 말이오, 초등학교.}

10201 # 사 사학년꺼정.{4학년까지.}

10201 # 사학년꺼정 잇었던 말이오.{4학년까지 잇었던 말이오.}

10201 # 내 헤이두 사학년꺼정 이르구서리, 에 경계 오학년이라 없어서 저어: 우리 헤이는 원도~이시 적에 우리 우리 아버지 느비 원 원도~서 이 이래 저 저나 칠년제 칠년 칠 십년제꺼지 잇는 끝이 잇엇맏지. 저.{내 형(언니)도 4학년까지 공부하고서, 어 거기에 5학년 과정이 없어서 저 우리 형은 원동에 있을 적에 우리 우리 아버지 누이가 원동에서 이 이렇게 저 음 7년제, 7년, 10년제까지 잇는 곳에 잇엇었지. 저.}

10201 # 그래 그 끝으르 우리 헤이는 글 이틀라 갓맏지.{그래 그 곳으로 우리 언니는 공부를 하러 갔었지.}

10201 # 사학년 필하고 그 우리 빠빠 우리 전 아버지 느 느비 집우르 글으 이틀라 가 갓지.{4학년을 졸업하고 그 우리 아버지, 아버지 누이 집으로 공부를 하러 갔지.}

10201 # 그래 우리 헤이는 어 노시아 고렷글으 여섯채 여섯번채반 이르다가 잉게르 들어왔지.{그래 우리 형은 어 러시아 말, 고려말을 6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다가 여기로 들어왔지.}

10201 @ 잉게르 들왔지.{여기로 들어왔지.}

10201 # 잉게르 들왔지.{여기로 들어왔지.}

10201 # 여섯번채반 이르다가 잉게르 들왔지.{6학년 과정을 공부하다가 여기로 들어왔지.}

10201 # 나 세번채 반 이르다가 이리 들왔지.{나는 3학년 과정을 공부하다가 여기로 들어왔지.}

10201 @ 그럼 서 소핵교가 거기 (기침) 나호드까(Находка)에 소핵교가 컸었습둥?{그럼 초등학교가 거기 나호드까에 초등학교가 컸었습니까?}

10201 # 아이 컷어.{크지 않았어.}

10201 # 무시기. 조합이 크지 그렇기 크쟁인게 무슨.{뭐. 콜호스가 크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뭐.}

10201 # 그 그저 소핵교밖에 사학년까지밖에 없었지.{그 그저 초등학교밖에 4학년까지밖에 없었지.}

### 1.3. 원동에서의 삶

10201 @ 그러면 거기는 다아 그 까레이즈(кореец)덜만 잇었습둥? 마우재두 잇었습둥?{그러면 거기 는 다 그 한인들만 살았습니까? 러시아 사람도 잇었습니까?}

10201 # 마우재두 이르.{러시아 사람도 이렇게.}

10201 # 원동선 이릉기 고개르 고개르 넘어 가재오?{원동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고개를 넘어 가지 않소?}

10201 # 고개르 넘어가문 고개르 넘어가문 이릉기 높은 고개 잇었지. 높은 산이.{개를 넘어가면 고개를 넘어가면 이렇게 높은 고개가 잇었지. 고 높은 산이.}

10201 # 괴래 그게 그전에 거기서 고렷사름덜 살았지.{그래 그게 그전에 거기서 고려 사람들이 살았지.}

10201 # 개 고렷사름덜 썩 한 군데 어드르 그랜 기래구서르 거기는 어 군데 보에느(военный)덜 이 살았지.{그래 고렷사름들을 썩 한 군데 어디로 모아 살게 하고, 그러고서는 거기 고개 넘어는 어 군데 군인들이 살았지.}

10201 # 개 그래 그 고개르 뽀로꾸소뜨(пропуск) 이릉기 그런게 그게 없이 못 거기 못 건네갓지. {그래 그 고개를 증명서, 이렇게 그런 것이 없이는 거기를 건너가지 못했지.}

10201 # 노시아 저 보엔느 그런 지금 말하무 노시아말르 웨인드까라도끄(военный городок) 뗏맏지.{러시아 저 군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러시아 말로 통제구역이 되었었지.}

10201 # 그 고개르 넘으문.{그 고개를 넘으면.}

10201 # 개 그 글째 뽀로소꾸(пропуск) 없이는 거기 못오구 머 고렷사름덜은 아무 사름두 못 땡기 구.{그래 그 증명서 없이는 거기 못 오고 뭐 고려 사람들은 아무 사람도 못 다니지.}

10201 @ 군대덜 잇어서.{군대가 주둔하고 잇어서.}

10201 # 군대덜 잇어서.{군대가 주둔하고 잇어서.}

10201 @ 그러면은 그 때 그 나호드까에 고렷사름들은 무슨거 하구 살았습둥?{그러면 그 때 그 나호드까에 고렷사름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습니까?}

10201 # 정어리 정어리 잡앗소.{정어리 정어리를 잡앗소.}

10201 # 고기잡이르 했지.{고기잡이를 했지.}

10201 # 그 그 그전에 내 췌외꼬맏을 때 들올라이까나 우리 그 저~어리 잡는 그 그 모레(море). 그 그 바다~이 무슨 바당인가 하문 일본 이름이 야뽀스끼이모레(Японский море)라 하데.{그 그 그전에 내가 조그맏을 때 들으니까 우리 그 정어리 잡는 그 그 바다. 그 바다가 무슨 바다인가 하면 일본, 일본해라 하데.}

10201 # 그전에 내 췌오꼬마시적에 들으이 야뽀스끼이 모레(Японский море)서.{그전에 내가 조그맏을 때 들으니 일본해에서.}

10201 # 저~어리 저~어리 잡앗지.{정어리 정어리를 잡앗지.}

10201 # 저~어리 기땅맏히게 잇지.{정어리는 기가 막히게 잇지.}

10201 # 저~ 어리 저~ 어리 잡앗지.{정어리, 정어리를 잡앗지.}

10201 @ 그럼 그 저어리를 잡아서 어티기 했슴둥?(그럼 그 정어리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10201 # 정어리 저~어리 잡아서 그런 크:게 집우 지은 게 잊지.{정어리 정어리를 잡아서 그런 크게 지은 집이 있었지.}

10201 # 개 이 저 돌 돌갈기[돌갈기] 제멘뜨(цемент-르) 돌갈기[돌갈기]라 하지 고려말르 다(да)? {그래 이 저 돌가루 시멘트, 돌가루라 하지? 고려말로 그렇지?}

10201 # 제멘뜨(цемент) 영겐 제멘뜨(цемент).{(그 돌가루를) 시멘트 여기서는 시멘트(라 하지).}

10201 # 돌갈기[돌갈기] 돌갈기[돌갈기] 그 제멘뜨(цемент-르)르서르 크게 크게 그래서.{돌가루 돌가루 그 시멘트를 크게 크게 지어서.}

10201 # 그래йка 찬이 찬이 그룻기 그룻기 가뜩하지 무 그런 게.{그러니까 배, 배에 그렇게 고기가 가득하지 뭐 그런 게.}

10201 # 그래서 거기다 열구서 소곰 소곰 소곰 간 간 간 소곰 열어서 소곰 열어서 기계 다아 쓸 잉게 간이 들무, 통재, 고려 고려말르느 통재지.{그래서 거기다 넣고서 소금 소금 소금 간을 맞추는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서 그게 다 이렇게 간이 들면, 물통, 고려말로느 물통이지.}

10201 # 이룻기 큰 게.{이렇게 큰 것이.}

10201 # 이 이막씨 이런 게요.{이 이만큼씩 이런 것이오.}

10201 # 모지리 큰. 그런 통재르 그런 저 마또르(мотор)다 가뜩 실어오지.{몹시 큰 것인데 그런 물통을 그런 저 발동선에다 가득 실어오지.}

10201 # 기랩 경계서 그거 소 소곰 처서 싹 이래 보취까(бочка=통재)다 그래서 싹 가져가지.{그런 거기에서 그거 소 소금을 처서 싹 이렇게 물통에다 담아서 가져오지.}

10201 # 웨국으르 싹 가져가지, 으음.{외국으로 싹 가져가지, 음.}

10201 # 이런 저~어리 저~어리 싹 당가서 자알 당가서 보취까(бочка).{이런 정어리 정어리를 싹 담가서 잘 담가서 물통.}

10201 # 물두 못 나오지.{물도 못 나오지.}

10201 # 보취카(бочка)서 물두 한 고치두 물두 못 나오지.{물통에서 물도 한 방울도 물도 못 나오지.}

10201 # 그런 보치까다 싹 절귀서.{그런 물통에다 싹 저려서.}

10201 # 그래 ну(ну) 하 고렷사름덜 얼마 사던지.{그래 음 고렷사람들 얼마가 살던지.}

10201 # 그 그 걱정 시겿지.{그 그 걱정시켰지.}

10201 # 정어리 잡아서느 싹 싹 이 저 보취(бочка) 통재애다 열어서 절귀서는 싹 외국으로 가져가지 싹.{정어리 잡아서느 싹 싹 이 저 물통 물통에다 넣어서 저려서는 싹 외국으로 가져가지 싹.}

10201 @ 어디루?(어디로?)

10201 # 어드르 가져가는둥 내 그 적에[적에] 꺾외포맨 게 그저 싹 가져가지.{어디로 가져가는지 내 그 때에 쪼꼬만 것이 보니까 그저 싹 외국으로 가져가지.}

10201 @ 에국으로.{외국으로.}

10201 # 웨국으로 싹 가져가지.{외국으로 싹 가져가지.}

10201 # 그래 그거 그양:: 정어리잡이르 했지.{그래 그거 그냥 정어리잡이를 했지.}

10201 # 그래 어 고렷사름덜이 그 정어리 잡이르 해서 정어리 당구기두 하구 정어리 바다~에 나가 정어리 잡아 그걸루 고렷사름덜이 살았지.{그래 이 고렷사람들이 그 정어리 잡이를 해서 정어리를 담그기도 하고 정어리 바다에 나가 정어리를 잡아 그것으로 고렷사람들이 살았지.}

10201 # 음, 그거루지 그거루 진짜 잡았지.{음, 그것으로지 그것으로 진짜 잡았지.}

10201 # 기래구 기래구 이저르 기래구 오고로드(огород) 재기 오고(огород), 재기 밭이, 누 산이 그저 산이 그저 가뜩한데 산이 잊자니 경계다 산 뿌리 낭기뿌리나 뽑아데지구서 그거 밭으 맨들지, 밭으.{그리고 그리고 이 정어리 잡이를 하고, 그리고 텃밭 자기 텃밭, 자기 텃밭이, 산이 그저 산이 그저 아주 많은데 산이 있으니까 거기애다 산에 가서 뿌리, 나무뿌리나 뽑아 버리고서 그거 밭을 만들지, 밭을.}

10201 # 그래 그거 끓에서.{그래 그거 가지고 음식을 끓여서(만들어서).}

10201 # 그 제 무슨 감제구 무스 옥수끼구 무스 무스 지제~이구 찰이구 무슨 미시기오 밥수끼구. 벨거 다 원도~ 잇으적엔 다 내 쪼오꼬매두 야 그건 다 우리 클아바이 잇다나이 클아바이 오구르드 잇다 밭으 그래다나이까나 밭지.{그 때 무슨 감자고 뭐 옥수수고 무슨 무슨 기장이고 찰기장이고 무슨 무엇이고 수수고. 별것이 다 원동에 있을 적에 내가 쪼그마도 웅 그건 다 우리 할아버지가 있다 보니 할아버지가 텃밭이 있어서 밭을 다루다 보니까 내가 보았지.}

10201 # 벨란 거 다아 승컷지.{벨란 것을 다 심었지.}

10201 # 개래구 저~어리잡이르 해서 돈으 타지. 음.{그리고 정어리 잡이를 해서 돈을 타지. 음.}

10201 # 개 증승 개두 치구.{그래 짐승 개도 치고.}

10201 # 대애지구 닭이구 모도 그래 쇠두 재래우구 이래, 이래, 이랬지.{돼지고 닭이고 모아서 치고 소도 키우고 이렇게, 이랬지.}

10201 @ 그럼 아매! 그:: 클아바이느 그럼 농새르 지으셨슴둥 농새르 아이 져툼둥?(그럼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그럼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농사를 안 져십니까?)

10201 # 클아바이 그 글쎄 밭으 밭으 승컷지 클아바이느.{할아버지는 글쎄 밭을 밭을 경작했지, 할아버지는.}

10201 # 클아바이느 어저느 그렇기 점문이 애이지.{할아버지는 이젠 그렇게 젊은이가 아니지.}

10201 # 내 삼 삼춘이는 게 마우재말르 잘마(завмаг заведующий магазина) 데지.{내 삼춘은 그게 러시아 말로 '잘마'(지배인) 되지.}

10201 # 공이사 췌인이지.{상점 주인이지.}

10201 # 원도~ 이시 적에는 재밋게 없제이오.{원동 있을 적에는 자기 것이 없잖소.}

10201 # 국가께 애이우? 싹 다. 음.{국가 것이 아니오? 싹 다. 음.}

10201 # 개 거기서 어 삼춘이느 공이사르 봤지.{ 그래 어 삼춘은 거기서 상점을 보았지.}

10201 @ 공리사르 봤고.{상점을 보았고.}

10201 # 공이사르 밭지.{상점을 보았지.}

10201 @ 그러면 뭐 그 조이나 피난이 농새르 어티기 했슴둥 거기서는?(그러면 뭐 그 조나 피 농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는?)

10201 # 거기서 그래 우리네느 원도~ 이시적이 바 바이두 잇구.{거기서 그래 우리네는 원동에서 있을 적에 방아도 있고.}

10201 # 기계 말이 돌구는 게. 석매[성매] 다(да)?(그게 말이 돌리는 것으로 석매(=연자방아) 웅?)

10201 # 석매[성매] 옳지이? 석매[성매].{‘석매’가 옳지? 연자방아.}

10201 # 우리네는 성매두 잇었지. 우리집이. 우리집이. 음.{우리네는 연자방아도 있었지. 우리집에. 우리 집에. 음.}

10201 @ 그것좀 얘기해 주옵소. 어 어터게 그 석매르 돌구구…….{그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연자방아를 돌리고…….}

10201 # 아! 석매, 난 그전에 그 아아 조오꼬마시적이 나두 밭지. 우리집이 그 석매. 석매돌으 이를



기 또리또리사만 거.{아! 연자방아를 난 그전에 그 아이 때 조그맣을 적에 나도 봤지. 우리집에 그 연자방아. 연자방앗돌을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

10201 # 쿠리굴리(курглыи ) 또리또리사단 크다:만 거.{둥글둥글, 둥글둥글한 커다란 거.}

10201 # 기래 그 한 판에다 이롱기.{그래 그 한 가운데에다 이렇게.}

10201 # 무스거 무스거 무스거 잘 말하겠소.{무엇 무엇 무엇을 잘 말할 수 있겠소.}

10201 # 그 직금은 저나 그런게 이 이 질으 맨들구서 까딱 이롱기 \*\*달구재오?{그 지금은 저기 그런 거 이 길을 만들고서 이렇게 돌리지 않소?}

10201 # 질으 맨들구서 이래 돌구재오?{길을 낼 때 이렇게 롤러(roller)를 굴리잖소?}

10201 # 그렇기 우둔한 그거 그거 그거 말이 말이 말깨다 말에 매와 놓오무 말이 그거 돌구지.{그렇게 육중한 그거 그걸 말이 말이 말에다 매워 놓으면 말이 그걸 돌리지.}

10201 # 사람이 아이 돌구구 말이 쫓지 야~ 말이 쫓지.{사람이 안 돌리고 말이 방아를 쫓지 웅. 말이 쫓지.}

10201 # 그런 석매 있어. 우리집에 있었지.{그런 연자방아가 있어. 우리집에 있었지.}

10201 @ 거기다가 무스걸 쫓았습둥?(거기다가 무엇을 쫓았습니까?)

10201 # 싹 쫓었지.{모든 고식을 다 쫓었지.}

10201 @ 무스거르?{무엇을?}

10201 # 피나지구 지재~이구 조이구 그저 밭수끼.{피고 기장이고 조고 그저 수수.}

10201 # 밭수끼두 다아 찢지.{수수도 다 쫓었지.}

10201 # 밭수꾸는 이롱기 물에 체쳐서 밭수꾸 농구재우?{수수는 이렇게 물에 찢혀서 수수는 농그지 않습니까?}

10201 # 바이다가 농구재오?{방아에다 농그잖습니까?}

10201 # 나는 내 내것두 밭수끼 직금 직금두 쪼오포 있어. (웃음){나는 내 내 것도 수수 지금 지금도 쪼금 있어. (웃음).}

10201 # 쫓제인 게. (웃음){방아를 쫓지 않은 것이. (웃음).}

10201 @ 아아. 그러면은 그:: 피난이나 조이 이런 걸 이 시무는 걸 직접 보셨습둥?{아아 그러면 그 피나 조 이런 것을 이 시는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10201 # 시무는 거 시 나는 원도~ 이시적이 우리클아바이 싹 기랬지.{심는 거 나는 원동에서 있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가 싹 심었지.}

10201 # 우리네르 조 조오꼬만게라구 난 밭이두 못 매 밭지.{우리들을 조그만 것들이라고 해서 난 밭에 나가 김도 못 매 보았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못 매 밭지. 몬.{못 매 보았지. 못.}

10201 # 클아바이 어디 가이 승귀서 클아바이 싹 그랬지.{할아버지가 어디다 심어서 할아버지가 싹 김을 땀지.}

10201 # 큰아매는 저런 저~어리 열구 보오취까(боука)에다 저~어리 열는 일으 하구.{할머니는 저런 정어리를 넣고, 물통에다가 정어리 넣는 일을 하고.}

10201 @ 보오취까(боука)다.{물통에다가.}

10201 # 아하, 그래서 어드르 가져갔는두 싹 그전에 조오꼬마시적이 들올라이 웨국 가져간다더.{응, 어디로 가져갔는지 싹 그전에 조꼬마할 때 들으니까 외국으로 가져간다 하데.}

10201 # 어느 웨국으르 가져간두 모르지.{어느 외국으로 가져갔는지 모르지.}

10201 # 저~어리 싹 당가서.{정어리 싹 담가서.}

10201 # 통제다 열어서 싹 열어서.{물통에다 넣어서 싹 넣어서.}

10201 # 개 그 그래 식료사 식료는 그 거기다 밭에다 승귀서.{그래 그 그래 식료(食料)야 식료는 그 거기다 밭에 심어서.}

10201 # 감제두 수무지.{감자도 심지.}

10201 # 일본무꾸두 싱구어 보지.{일본무도 심어 보지.}

10201 @ 또?{또?}

10201 # 로 로, 저어 에 고려말르 로마 이름이 고려말르 미시기오?{로, 로, 저 에 고려말로 ‘로바’(蘿蔔) 이름이 고려말로 무엇이오?}

10201 # 무끼 무끼지 글썸.{무, 무지 글썸.}

10201 @ 예, 무끼.{예, 무.}

10201 # 무끼. 무끼구 볼루께(무끼, 여기는 없지, 모르꼬프(морковь) 색이 난다)구. 볼루께.{무, 무고 ‘당근’이고. 당근.}

10201 # 윈 윈도~ 볼루께 윈도~ 볼루께게 지금은 가마:이 생각하이 거저 잉게 점 바자르(базар)서 팔 이 저 자~이서 팔재오다?{윈 윈동의 당근 윈동의 당근이라는 것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그저 여기에 시장에서 팔, 이 저 장에서 팔지요?}

10201 # 파는, 저 마르꼬프(морковь) 까 첸심 저나 볼루께 같데.{파는, 저 당근이 저, 볼루께 같데.}

10201 # 색이, 색이. 아 볼루께는 이롱기 크 큰 게지.{색이, 색이. 아 당근은 이렇게 크 큰 것이지.}

10201 # 저 마르꼬프(морковь)는 요맨씨 나재?{저 홍당무는 요만큼씩 나잖소?}

10201 # 볼루께는 굵지[국찌].{볼루께는 굵지.}

10201 # 그래 볼루:깨구 무슨 무시게던지 어 이 고치구 무슨 미시기구 싹 체빌르 준 거 오고르드(o город) 밭이 잇단 말이.{그래 당근이고 무슨 무엇이든지 어 이 고추고 무슨 무엇이고 싹 자기에게 준 거 텃밭이 밭이 잇단 말이오.}

10201 # 집이 집 오래 밭이[바티] 잇지.{집에 집 오래에 밭이 있지.}

10201 # 기래구 저어 산에, 산에 우리 하 하 클아바이, 클아바이 저어나 이롱기 쫓등한 데는 그런 데 가서 낭 낭기뿌리르 싹 뽑아 데지구.{그리고 저 산에, 산에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기 이렇게 평탄한 데는 그런 데 가서 나무뿌리를 싹 뽑아 버리고.}

10201 # 거게는 검정 흙이, 원동 검정 흙이 에이우?{거기에는 검정 흙이, 원동은 검정 흙이 아니오?}

10201 # 음. 저 새까만 흙이.{음. 저 새까만 흙이.}

10201 # 음 그래 클아바이 그 뿌로독뜨(продукт) 첸체르 싹 해 그 에따(это) 식료는 싹 승궤지 산에다.{음 그래 할아버지 그 식료품 전체를 싹 해서 그 음 식료는 싹 심었지 산에다.}

10201 # 벨거 다아 승궤지.{벨 거 다 심었지.}

10201 # 무슨 지재~이구 찰지재~이구 무신 미시기구 벨란 게 다아 있어 원동에 이시적에는, 벨란. {무슨 기장이고 찰기장이고 무슨 무엇이고 별난 것이 다 있어 원동에 있을 적에는, 벨}

10201 # 지금은 어전 씨 없구. 한나투 없지.{지금은 이젠 씨가 없고. 하나도 없지.}

10201 @ 다 없어졌지, 씨.{다 없어졌지, 씨가.}

10201 # 다 없어져 씨.{다 없어졌지, 씨.}

10201 # 윈도~서 들오맏시문 누기 그 씨르 가져와.{원동에서 들어오면서 누가 그 씨를 가져와.}

10201 # 그러나 찰으는 재대:만게 찰으는 떡 하는 찰떡 하는 찰으는 조~이 승궤어, 우슈토베(Уш-тобе)서.{그러나 찰기장은 자잘한 것이 찰기장은 찰떡을 하는 찰기장은 종을 심었어, 우슈토베에서.}

10201 # 그건 데엠편.{그건 되더구먼.}

10201 # 내 내 이 정게서 살 적에두 뒤어: 고랑 송긔멧지.{내 내 이 저기서 살 적에도 두어 고랑을 심었었지.}

10201 # 기래 이색이나 하 좋은 켜데.{그래 이색이 매우 좋은 것인데.}

10201 # 아 켜데 새새끼덜게서 그래 시향셰르 시향셰르 씨와서 괴래 해두두 여물때꺼지. (웃음){아 그런데 새 새끼들이 (찍어 먹어서) 그래서 거즈(gauze)를 거즈를 씌워서 그렇게 해 두고. 여물 때까지.}

10201 @ 그때 벌써 시향셰르 씨 씨웠습둥?{그 때 벌써 거즈를 씨웠습니까?}

10201 # 씨 잇었어.{씨가 있었어.}

10201 @ 아니! 시향셰.{아니 거즈.}

10201 # 시향셰 시향셰르 아 그게 저나 이색이 이래 이색이 나지무 아! 새덜이 너무:: 접어들어서 그담에 거기다 시향셰 씨워. (웃음).{거즈 거즈를 아 그게 저기 이색이 이렇게 이색이 나오면, 아!, 새들이 너무 덤벼들어서 그 다음에 거기다 거즈를 씌었지. (웃음).}

10201 # 어찌겠소 글썽 음?{어찌하겠소 글썽 음?}

10201 @ 그 시향셰는 무슨 무스거 무스겔르 만들었습둥? 셸르 맨들었습둥?{그 거즈는 무슨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쇠로 만들었습니까?}(쇠로 만들었느냐고 농담을 하면서)

10201 # 넬(нет), 국가서 그런 시향셰르 파지.{아니, 국가에서 그런 거즈를 팔지.}

10201 @ 그물르?{그물울?}

10201 # 가마 잇어.{+거즈 천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일어서서 주머니를 뒤적이면서}{가만 있어.}

10201 @ 무스거. 예 그냥 가압소. 괜찮습꾸마. 일없습꾸마.{+재보자가 주머니를 뒤져서 ‘시향셰’ 천으로 만든 손수건을 꺼낸다}{무엇을. 예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10201 # 시향셰지. 고려말로 이게 시향셰지.{이게 거즈지. 고려말로 이게 거즈지.}(거즈를 내보이며)

10201 @ 예, 예. 음. 형것이.{예, 예. 음. 천이.}

10201 # 이거 찰 찰에다. (웃음).{이거 찰 찰수수에다 썬우지. (웃음).}

10201 @ 새 들어 못 오게.{새가 들어오지 못하게.}

10201 # 새 새 어똥기 접어드는두~.{새 새가 어떻게나 덤벼드는지.}

10201 # 밥수끼두 그.{수수도 그.}

10201 @ 밥수끼두?{수수도?}

10201 # 밥수끼두 밥수끼 이색이 다(да) 이룩기 이룩기 이룩기 이룬 이룬 이색이 밥수끼 음.{수수도 수수 이색이 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이색이 수수가 음.}

10201 # 밥수끼두 접어드지. 으음.{수수에도 덤벼들지. 음.}

10201 # 아우! 썰래서.{어우! 그 놈의 새 때문에.}

10201 # 원도~서느 그거 어티기 어티기 송궤는둥 모르겠어.{원동에서는 그거 어떻게 심었는지 모르겠어.}

10201 # 새 그렇기 접어드는 거.{새가 그렇게 덤벼드는 거.}

10201 @ 그럼 이게 새르 쫓자구 이렇게 그 채찍 비슷하게 만든 건 없었습둥?{그럼 이것이, 새를 쫓자고 이렇게 그 채찍 비슷하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까?}

10201 # 그러재 그러재. 이래 내 그전에 블라이까나 이룩게 나무 꼬재:에다 세우구서리 이래 현 우티르 입해서 새와 놓앗습데.{그렇게 만들고 말고 그렇지. 이렇게 내가 그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무 꼬쟁이에다 세우고서 이렇게 현웃을 입혀서 새워 놓앗데.}

10201 @ 그건 뭐라구 했습둥? 그게 현우티르 입해서 이렇게 세운 거.{그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현웃을 입혀서 이렇게 세운 것.}

10201 # 그 그거 고려말르느 모르겠소.{그 그거 고려말로는 모르겠소.}

10201 @ 정애 정애라구 했습둥? 헤 헤재비라구 했습둥?{정애(=허수아비), 정애라고 했습니까? 헤재비(=허수아비)라고 했습니까?}

10201 # 노시아말르느 글썽 기게 뿌잘가(пыжало)지마는 고려말르 고려말르느 내 모르지.{러시아 말로는 글썽 그것이 ‘뿌잘가’이지만 고려말로 고려말로는 내 모르지.}

10201 @ 헤재비?{그럼 ‘헤재비’라고 했습니까?}

10201 # 헤, 정말 헤재비우.{헤, 정말 ‘헤재비’오.}

10201 # 헤재비르 헤 새와 놓지.{‘헤재비’를 만들어 새워 놓지.}

10201 # 아하! 헤재비 옳소.{아하! 허수아비 옳소.}

10201 # 거저 고려말으 잇어 더러 잇어뿌렛단 말야.{그저 고려말을 잇어, 더러 잇어버렸단 말이야.}

10201 @ 안 쓰시니까.{안 쓰시니까?}

10201 # 나 나아 먹은 사름두 더러 잇어뿌렛단 말야, 고려말으.{나이 나이 먹은 사람도 더러 잇어버렸단 말이야, 고려말을.}

10201 @ 마우재말으 자꾸 쓰시니까. 그러니까 고려말이 인제 자꾸 없어지지.{러시아 말을 자꾸 쓰시니까. 그러니까 고려말이 이제 자꾸 없어지지.}

10201 # 나아 먹어두 어 고렛말으 더러 잇에빠렸어.{나이를 먹어도 어 고려말을 더러 잇어버렸어.}

10201 @ 그럼 아매는 여기 노인단에 나가무.{그럼 할머니는 여기 노인단에 나가면.}

10201 # 노인단아, 노인단에 나가두 허.{웃음}.{노인단을, 노인단에 나가도 허. (웃음).}

10201 @ 고려말으 하암둥 노서아말으 하암둥?{고려말을 합니까 러시아 말을 합니까?}

10201 # 노시아말두 하구 고려 고려말두 하지, 노인단에 가두.{러시아 말도 하고 고려 고려말도 하지, 노인단에 가도.}

10201 @ 그 어느 말을 더 마이 씬둥?{그 어느 말을 더 많이 씬니까?}

10201 # 아, 저 개두 고려말으 더 하지.{아, 저 그래도 고려말을 더 하지.}

10201 @ 아, 그렇지.{아, 그렇지.}

10201 # 더 하지. 더 하지.{더 하지. 더 하지.}

10201 # 어전은 나아 먹은 사름두 모도 보무 ‘알령하십니까?’ 이 말 아이 하구 ‘즈드라스뜨부이찌(здравствуй те)’ 그럼 멧지. (웃음).{이제는 나이를 먹은 사람도 모두 보면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아니 하고 ‘즈드라스뜨부이찌(здравствуй те)’ 그러면 되었지. (웃음).}

10201 # 이룩기 이룩기 괴러이. (웃음).{이렇게 이렇게 그러니. (웃음).}

10201 @ 그럼 나호드까에 그 고려 마 마을이 아매 사시던 데가 예: 모레(Море)가 있으면은 그 모레(Море) 근처에 있었습둥? 바닷물 근처에 있었습둥?{그럼 나호드까 그 고려 마을이, 할머니 사시던 데가 예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 근처에 있었습니까? 바닷물 근처에 있었습니까?}

10201 # 바 바닷물이 뵈게 다아 있었어.{바 바닷물이 별것이 다 있었어.}

10201 # 이룩기 비나 오구 바닷물이 이룩기 파도치재오?{이렇게 비나 오고 바닷물이 이렇게 파도치잖소?}

10201 # 파도 칠 적, 아아 무섭소!{파도칠 때는 아아 무섭소.}

10201 # 파도 이룩기 조 집때마시 이룩기 높우게 올라갔다 탕 떨어지오.{파도 이렇게 조 집때마냥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 탕 떨어지오.}

10201 # 그래 그게 바닷물이 그렇기 모지리 그럴 적에는 그 담에 비오매 그렇기 바닷물이 뵈러이 할 적에는 그 이튿날에 그 이튿날에는 해 쪼올 나구 그렇기 날이 좋지.{그래 그게 바닷물이

그렇게 몹시 그럴 적에는 그 다음에 비가 오며 그렇게 바닷물이 별나게 굴 적에는 그 이튿날  
에 그 이튿날에는 해가 쫄 나고 그렇게 날이 좋지.}

10201 # 기래 네레가무 경계는 그적 우리 쪼오꼬만 아덜이 새아가덜이구 선사나들이구 거기 어전  
은 그래.{그래 바다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그 때 우리 쪼꼬만 아이들이 계집아이들이고 사내  
아이들이고 거기 이제는 그래.}

10201 # 바닷물이 파도 그렇게 쳐 췌다나무 어전 다아 알지 우리네.{바닷물이 파도 그렇게 췌다 하  
면 이젠 다 알지 우리네는.}

10201 # 아아덜두 알구 자란이두 알구.{아이들도 알고 어른들도 알고.}

10201 # 그래 그 이튿날 네레가무 경계서 물밑에서 벨게 다 나오지.{그래 그 이튿날 내려가면 거기  
에서 물밑에서 벨것이 다 나오지.}

10201 @ 무슨거 나왔습둥?{무엇이 나왔습니까?}

10201 # 오마벨이구. 오마벨.{불가사리고. 불가사리.}

10201 @ 오마벨.{불가사리.}

10201 # 오마벨이.{불가사리.}

10201 # 빼 에따(это) 이래 이래 마우젠 마우젠 게 빼찌까뉴쉐니(пяти конюшенька)라 하지.{음  
이래 이래 러시아 말로 ‘빼찌까뉴쉐니(пяти конюшенька)’라 하지.}

10201 # 오마벨이.{불가사리.}

10201 # 이래 이래 이런 게 이래. 이게 썩 이게 썩 산 게, 산 게.{이래 이래 이런 것이 이래. 이게  
썩 이게 썩 산 것이. 산 것이.}

10201 # 숨우 쉬는 게.{숨을 쉬는 것이.}

10201 # 그래 그거 좇느라구서. 우리 쪼오꼬말 적이.{그래 그거 좇느라고서. 우리 쪼꼬말 적에.}

10201 @ 그걸 뭐라구 했다구?{그걸 무엇이라고 했다고?}

10201 # 아 뭐라하기는 아무 없는 타이. 그저 우리 아아덜이.{아, 뭐라고 하기는, 아무도 없는 땅이,  
그저 우리 아이들이.}

10201 @ 아니! 그거 이름이 오마벨?{아니! 그거 이름이 ‘오마벨’?}

10201 # 오마벨.{오마벨.}

10201 @ 오마벨이.{오마벨.}

10201 # 아하! 오마벨이.{아하! 불가사리.}

10201 @ 오마벨?{오마벨?}

10201 # 기래구서리 그런 (쫌) 에따(это) 고슴도치라 하재오?{그리고서 그런 음 고슴도치라 하잖  
소?}

10201 # 고슴도치 잇으문 까치네(колючка). 그래 그 물이 물에 고슴도치는 또릿또리산 게오. 고슴  
도치.{고슴도치 잇으면. 그래 그 물에 물에 고슴도치는 동글동글한 것이오. 고슴도치.}

10201 # 그저 가시 자뜩난 게. 그것두 숨우 쉬는 게.{그저 가시가 잔뜩 난 것이. 그것도 숨을 쉬는  
거.}

10201 # 벨게 다아 나오지.{별것이 다 나오지.}

10201 # 어떤 때 어떤 건 우리 이럼 모르지. 나이 어린 게 아덜이 이름 모르지.{어떤 때 어떤 것은  
우리 이름 모르지. 나이가 어린 것이 아이들이 이름을 모르지.}

10201 # 이름 모를 게.{이름 모를 것이.}

10201 # 개 모를 이럼이 가뜩 나오무 썩 숨우 쉬는 게.{그래 모를 이름이 가뜩 나오면 썩 숨을 쉬  
는 것이.}

10201 # 썩 숨우 쉬는 게 그런 게.{썩 숨을 쉬는 것이 그런 것이.}

10201 # 그런게, 맥:이두 나오구.{그런 게, 미역도 나오고.}

10201 @ 그렇지 맥:이.{그렇지 미역.}

10201 # 아하! 맥:이두 나오구. {아하! 미역도 나오고.}

10201 # 그러나 맥:이 약~ 에따(это) 선생님! 맥:이 우리 원도~ 원도~ 맥:가 그, 저 한국에 선생님네  
그 끝에 맥:이 따압네.{그러나 미역 응 음 선생님! 미역 우리 원동 원동 미역과 그, 저 한국에  
선생님네 그 곳에 미역이 따네.}

10201 @ 아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01 # 그 마이 차이 잇소.{그게 많이 차이가 잇소.}

10201 # 메:기 이럼이사 썩 한가지지만해두 우 내 쪼오꼬마시적에두 내 맥:이르 원도~서 봤지.{미역  
이름이야 썩 한가지이기는 하지만도 내가 쪼그맷을 적에도 미역을 원동에서 봤지.}

10201 # 개 잉게서두 모도 맥이 원도~서 가져다가 잉게 파재이오? 말리운 거.{그래 여기서도 모두  
미역이 원동에서 가져다가 여기 와 팔지 앗소? 팔린 것.}

10201 # 난 아이 썩 앗만해두.{나는 안 사, 앗만 사라고 해도.}

10201 # 기래 내 어제 그것두 판가 아는가 하무 저어나 우리 우리 내가 성친 한 집안안 한 집안  
윤실개[윤설개]라구 우슈토베(Уш-тобе)에 살았지.{그래 내가 어제 그것도 다른 것을 아는가  
하면 저기 우리 우리 나와 집안 사람이 되는 한 집안 안, 한 집안 사람으로 윤실개라고 하는  
이가 우슈토베에 살았지.}

10201 # 음 윤실개라구.{음 윤실개라고.}

10201 # 기래 그 사름덜이.{그래 그 사름들이.}

10201 # 저 한국에 갔다 왔어.{저 한국에 갔다 왔어.}

10201 # 유즈느이까레이(Южная Корея) 갔다.{남한에 갔다 왔어.}

10201 # 아하! 남조선에 가 갔다왔어.{아! 남조선에 갔다 왔어.}

10201 # 그래 가슬 적에 이롭게 경계서 그 그 윤실개네 그 집에 한국에서 약~ 그 사람이 잇는두  
모르겠어.{그래 가을에 이롭게 거기에서 그 그 윤실개네 그 집에 한국에서 응 그 사람이 지  
금도 잇는지 모르겠어.}

10201 # 그 적에 고려 교살르 우슈토베르 왔댓지.{그 때에 고려 교사로 우슈토베를 왔었지.}

10201 # 고려 글으 배와 줄라.{고려글(한국어)을 가르쳐 주러.}

10201 # 젊은 총각이 한국에서. 음::{젊은 총각이 한국에서. 음.}

10201 # 내 이름 알았어.{내가 그 이름을 알았어.}

10201 # 그 사람이 내게 그 그전에 우리 영계 창가르 그 사람이 내게서 뻗게 갔어.{그 사람이 내게  
그 그전에 우리 여기에 창가를 그 사람이 내게서 베껴 갔어.}

10201 @ 음.{음.}

10201 # 한국에 에따(это){한국에 음.}

10201 # 그적에[그적에] 스물 일곱 살이 됐어.{그 때에 스물 일곱 살이 됐어.}

10201 # 그 서방 아이 간 게. 음.{그 장가를 안 간 사람이. 음.}

10201 # 병학이 김병학이.{병학이, 김병학.}

10201 # 김병학이라구 이런 사람이 서방 아이 간게 스물 일곱 살 먹은 게. 그때 우슈토베에 와서  
교사질 고려교사질 하느라고 기래.{김병학이라고 이런 사람이, 장가를 안 간 사람이, 스물 일  
곱 살을 먹은 사람이 그 때 우슈토베에 와서 선생질,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질을 하느라고  
그래.}

10201 # 끄래 윤실개네 집이 잇었지.{끄래 윤실개네 집에 있었지.}

10201 # 아하! 그 집이다 \*\*중인 \*\*차꾸.{음! 그 집에다 숙소를 잡고.}

10201 # 개그 끄래 먹을 것두 아이 대구 돈두 아이 받구서 반 활동하구 잇었지. 반해르.{끄래 먹을 것두 안 대고 돈도 안 받고서 반(해)를 활동하고 있었지. 반 해를.}

10201 # 한국에 사람이.{한국 사람이.}

10201 # 끄래 이 사름덜이 그 췌인집에 저나 윤실개가 윤실개 부인네 경게르 가게 테이 남조선 가게 테이까나 집에다 그 펜질 싹 썼지 자.{끄래 이 사람들이 그 주인집의 저기 윤실개와 윤실개 부인네가 거기(한국)을 가게 되니, 남조선에 가게 되니까 집에다 그 편지를 싹 썼지, 저 사람이.}

10201 # 그 한국에서 온 총각이. 펜질 썼지.{그 한국에서 온 총각이. 편지를 썼지.}

10201 # 기래 가서 어 그 에미 저 두 부이 다 갓지, 에미스나. 윤실개네. 한국으.{끄래 가서 어 그 어미 저 두 분이 다 갓지, 부부(夫婦)가. 윤실개네. 한국을.}

10201 # 어느 핸두 그건 모르겟소만해두.{어느 해인지 그건 모르겟소만 해도.}

10201 # 끄래 갓다와서리 어 메엑이나 가져왔습데 야~. 메엑기나.{끄래 갓다 와서 어 미역이 등을 가져왔데 응. 미역이나.}

10201 # 그 저나 병학이나 어시덜이 병학이 어시덜이 그 사름덜 간다하더라이까나 마주~ 나왔지. 으흠.{그 저기…… 병학이나 부모들이 병학이 부모들이, 그 사람들이(윤실개) 간다 하더라 하니까 마중을 나왔지. 으흠.}

10201 # 마주~ 나와서 저나 그렇게 아들의 그집이서 그저 반해 동안으 돈 한 글쎄두 아이 받구 아하 기래구 그양 에따(это) 그 집이서 그 집에서 먹었지 자기는 딴 딴 군에 가서 자구.{마중을 나와서 그렇게 아들을 그 집에서 그저 반 해 동안을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리고 그냥 음 그 집에서 그 집에서 먹게 했지. 잠을 자기는 딴 곳에 가서 자고.}

10201 # 끄래 거기 사름덜이 맥:이 말리운 게나 병학이 어시덜 에미구 에비구 다 한국에서.{끄래 거기 사람들이 미역 말린 것 등을, 병학이 부모들, 어미고 아비고 다 한국에서}

10201 # 끄래 그거 보내서.{끄래 그거 미역을 보내서.}

10201 # 끄래 보낸거.{끄래 보낸 것이지.}

10201 # 우리 무스 일이 있어 오라해서 우슈토베(Уш-тобе)에서 윤 윤실개 오라해서 우리 갓했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 오라고 해서, 우슈토베에서 윤실개가 오라고 해서 우리가 갓했지.}

10201 # 끄래 가~이까느 메엑이 야 메엑이 지내 얇운 게 애이구 장물해 먹는 게 애이구 죄:끔 두껍운 게.{끄래 가니까 미역 응 미역이 아주 얇은 것이 아니고 국을 끓여 먹는 것이 아니고 조끔 두꺼운 것.}

10201 # 고런 게 말리운 게 에 그거 말리운 거 저 요래 먹을 적에 다(да) 먹을 적에 누(ну) 모 나모 그렇게 저나 그런거 무스 시락장물 하나 기러문 야 그거 따파:산 물에다 이래 놓오이까나, 그 인치 싹 저나 싹 페지매 매호끼(мягкий ).{고런 거 말리운 것 에 그거 말린 거 저 요렇게 먹을 적에 음 못 그렇게 저기…… 그런 것 뭐 시래깃국을 끓이거나 하면 응 그거 따뜻한 물에다 이렇게 넣으니까, 그것이 이내 싹 저기…… 싹 퍼지면서 부드럽지.}

10201 # 끄래 이래 췌에 보이까 매호(мягкий ) 고롱기 만만하압데.{끄래 이렇게 쥐어 보니까 연하고 그렇게 부드럽데.}

10201 # 영게 메엑이는 저 원도~ 메에기느 그렇제이오.{여기 미역은, 저 원동 미역은 그렇지 않소.}

10201 # 끄래 그거 다아 장물이랑 마싸(мясо)나 다아 끓어서 먹을 임세: 고거 썰:어서 경게다 영습데. 시락장물에다.{끄래 그거 다 국이랑 마싸나 다 끓어서 먹을 무렵에 그거 썰어서 거기에

넣데. 시래깃국에다.}

10201 # 끄래 메엑이 우리 원동 메엑이마 한국에 메에기 따압데.{끄래 보니까 미역이 원동 미역이 한국의 미역과는 다르데.}

10201 # 따압데. 우리 원동맥이는 그렇제이오.{다르데. 우리 원동 산(産) 미역은 그렇지 않소.}

10201 @ 따졌지.{다르졌지.}

10201 # 아하! 더 더 만만하지. 만만하지.{아! 더 연하지. 연하지.}

10201 # 이 이 지마단 겐 다아 한가지지.{이 이 기다란 것이 다 한가지지.}

10201 # 또 에떠(это) 저어나 만만하지 우리 원도~메기마.{또 음 저기 부드럽고 연하지 우리 원동 미역보다.}

10201 # 개 내 어찌 아는가.{끄래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아는가 하면.}

10201 # 내 내 저나 내 내 오래비딸이 오래비딸이무 내게 조캐데지. 다(да) 다(да){내가 내가 저기 내 내 오라비 딸이, 오라비 딸이면 내게는 조카가 되지, 그렇지, 그렇지?}

10201 # 조캐오?{조카가 맞소?}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내 오래비딸이.(내 오라비 딸.}

10201 @ 조캐지.{조카지.}

10201 # 내 오래비딸이 지금 한국에 가 잇소.(내 오라비 딸이 지금 한국에 가 잇소.}

10201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201 # 이 일할라 가서 일 가서 어전으 아홉해[аfоfwe]르 잇는두~.{이 일하러 가서 일 가서 이제 는 아홉 해를 잇는지.}

10201 # 살기는 파시켄트라 하제오?{살기는 타슈켄트라 하지 않소?}

10201 # 파시켄뜨서 살지.{타슈켄트에서 살지.}

10201 # 파시켄뜨서 살기는 파쉬켄뜨서 살지.{타슈켄트에서 살기는, 타슈켄트에서 살지.}

10201 # 기래 마마나따 내 오래비는 다부노(давно) 없소.{끄래 어머니나 오라비는 오래 전에 죽었소.}

10201 # 없은지 오라오, 내 오래비.{죽은 지 오라오, 내 오래비.}

10201 # 개 어머이 경게 사지.{끄래 어머니 거기서 살지.}

10201 # 딸두 경게 사구.{딸도 거기에 살고.}

10201 # 파시켄뜨.{타시켄트.}

10201 # 겐게 파시켄뜨르서 한국으르 일할라 가느라구 갓지. 일할라.{그런데 타시켄트로부터 한국으로 일하러 가느라고 갓지. 일하러.}

10201 @ 그럼 어찌 아홉해르 가서 아이오움둥?{그럼 어찌 아홉 해를 가서 안 옵니까?}

10201 # 기계무 고려말르 미시기오?{그게 고려말로 무엇이고?}

10201 # 노시아 말르느 저나 온부스르(отпуск)지.{러시아 말로는 저기…… 온부스르(отпуск, 휴가).}

10201 # 온부스르(отпуск) 고려말르 미시기오?{온부스르(отпуск)를 고려말로는 무엇이고?}

10201 @ 으음, 온부스끼?{온부스르(отпуск)?}

10201 # 이래 이래, 일년 일하나 이틀 일하나 한달 한달 동안써 이틀기 시우 시우. 시우는 거 주재오.{이렇게 이렇게, 일 년 일하나 이태를 일하나 한 달 한 달 동안씩 이렇게 쉬오, 쉬오. 쉬게 게 하는 시간을 주지 않소?}

10201 @ 월급을 주구?{월급을 주고?}

10201 # 월급은 온부스끄 오프부스노이(отпуск -отпускной) 타구.{월급은 휴가 \*\*\*\*\* 타고.}

10201 # 끄래구서리 한 한 달 동안 시지.{그리고서 한 달 동안 쉬지.}

10201 # 기게 미시기도? 고려말르.{그게 무엇이오? 고려말로.}

10201 # 노시아말르느 오프부스끄(отпуск). 고려말르 나 모르오.{러시아 말로는 온부스끄(отпуск, 휴가). 고려말을 나는 모르오.}

10201 # 그래 그 상 상 상연 그러께 집에 왔다갓지 따시켄뜨. 따시켄뜨.{그래 그 상년(常年, 작년) 그러께 집에 왔다 갓지, 타시켄트.}

10201 # 그래 그래 가 가 내인데르 에따(это) 그거 경계와 일하는 거 우리 가즈 알았지.{그래 그래 그 아이가 그 아이가 나한테로 음 편지를 보내와 거기 가 일한다는 것을 우리 최근에 알았지.}

10201 # 서르 이거 아드레스(адрес) 우리 이새르 했던게 오다나이 아드레스(адрес) 잃에 잃어빠레서 펜지글으 못했:지[모태:지].{서로 이거 주소, 우리가 이사를 했던 것 때문에 이사를 오다 보니 주소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편지를 못 썼지.}

10201 # 기랜게 멧해만에 한국에서 가 글쎄 잉게르 우리 제 제 아드레서(адрес) 우리 그거 펜지 아드레스(адрес) 얻어밧다구.{그러던 것이 몇 해만에 한국에서 그 아이가 글쎄 여기로 우리에게 제 주소, 우리 집 편지 주소를 찾았다고.}

10201 # 하나 얻어밧다구.{하나 찾았다고}

10201 # 잃어빠랬지.{잃어버렸던 것이지.}

10201 # 기랜거 얻어밧지 멧해 지나간. 그래 그 아드레스(адрес) 보구서 한국에서 우리집우르 펜지르 했습데. 으흠.{그런 거 찾았지 몇 해 지나서. 그래 그 주소를 보고서 한국에서 우리 집으로 편지를 했데. 으흠.}

10201 # 그래 가 내 나르 나르 장물 해먹으라구 마른 마른 메에기르 마른 메에기르.{그래 그 아이가 내 나에게 나에세 국을 해 먹으라고 마른 마른 미역을 보냈지.}

10201 # 기랜게 원동메에기마 저 한국에 메에기 더 만만하구 더 더 낫습데.{그러네 원동 미역보다 저 한국의 미역이 더 연하고 더 낫데.}

10201 # 저 원동메에기 우리 원동메에긴 저렇게이오.{저 원동 미역 우리 원동 미역은 그렇지 않소.}

10201 # 마 마 한국에 메에기 맛있어.{한국의 미역이 맛있데.}

10201 # 두껍은 계구 얇은 계구 만만하지.{두꺼운 것이고 얇은 것이고 한국 미역은 연하지.}

10201 @ 그럼 아매! 그 나호드까 거기서: 그:: 핵교르 당길, 땡길 때 웡 그매: 동미들은 기억이 나암둥? 쪼끔?(그럼 할머니! 그 나호드까 거기서 그 학교를 다닐, 다닐 때 웡 그 때 동무들은 기억이 압니까? 쪼끔?)

10201 # 동미덜 어전 한나투 없소. 으흠.{동무들이 이젠 하나도 없소. 으흠.}

10201 @ 그매 동미덜 이름이 어떻게둥? 뉘기 뉘기 있었습둥?{그매 동무들 이름이 어떻게습니까?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10201 # 아, 그전에는 고려이름이 잇엇멋지 야~.{아 그전에는 고려식 이름이 있었었지 웡.}

10201 @ 그렇지 고려이름이.{그렇지 고려식 이름이.}

10201 # 송직이두 잇구 계화두 잇구 예: 금년이두 잇구 옥년이두 잇구 봉, 봉직이두 잇구 봉사~이두 잇구 많했지 무슨.{송직이도 있고 계화도 있고 예 금년이도 있고 옥년이도 있고 봉, 봉직이도 있고 봉산이도 있고 많았지 뭐.}

10201 @ 다 한번 얘기 해 보웁소. 봉직이두 잇구.{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봉직이도 있고.}

10201 # 봉 봉 봉주, 우리 우리 낫거리 된 건 봉주두 잇구 봉사~이두 잇구, 봉철이두 잇구.{봉 봉

봉주, 우리 우리 나이 또래 된 건 봉주도 있고 봉산이도, 봉철이도 있고.}

10201 # 봉철이느 그건 남자, 선스나.{봉철이는 그건 남자, 사내아이.}

10201 @ 선스나구.{사내아이고.}

10201 # 선스나 동미 봉사~이두 잇구.{사내아이 동무 봉산이도 있고.}

10201 # 끄라구 어 옥녀이두 잇구.{그리고 옥년이도 있고.}

10201 # 금녀이두 잇구 나쟈(Надя)두 잇구.{금년이도 있고 나쟈도 있고.}

10201 @ 나쟈?{나쟈?}

10201 # 나쟈, 나쟈. 그건 노시아 노시아 이림이지, 나쟈.{나쟈, 나쟈. 그건 러시아 러시아 이름이지, 나쟈.}

10201 # 내 헤~이두 이림이 나쟈지 노시아 이름.{내 형도 이름이 나쟈지, 러시아 이름.}리고 또 나쟈두 잇구?{그리고 또 나쟈도 있고?}

10201 @ 그리고 또 나쟈두 잇구?{그리고 또 나쟈도 있고?}

10201 # 아하!{음!}애 기래구, 고려 고려이름우느 ‘순나두 잇구, 순나, 순나두 잇구.{그래 그렇고. 고려 고려 이름은 순나도 있고, 순나, 순나도 있고.}

10201 # 개 노시아 이름두 가뜰하지.{그래 러시아 이름도 많지.}

10201 # 순나두 잇구 으 옥순예두 잇구 옥순예두 잇구.{순나도 있고 어 옥순예도 있고 옥순예도 있고.}

10201 # 마 마아넷지.{많았지.}

10201 @ 그럼 아매! 이 동미들이 고려 이름두 가지구 있고 노시아 이름두 가지구 잇구 두 개씩 가지구 있었습둥?{그럼 할머니! 이 동무들이 고려 이름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이름도 가지고 있고 두 개씩 가지고 있었습니까?}

10201 # 그럼 그럼 두기 있어.{그럼, 그럼 두 가지가 있어.}

10201 # 그담 노시아 이름으 가이까나 나느 내 내 빠스포르뜨(паспорт)두 썩 노시아 이림이지.{그다음 러시아 이름이 난 내 신분증도 썩 러시아 이름이지.}

10201 @ 그매 무엇이었습둥? 아매 이름운? 고려식으르.{그 때 무엇이었습니까? 할머니 이름은? 고려식으로.}

10201 # 그것두 어전. 내 원도~서부터 내 내 노시아 이름이 잇멋지. 원도서.{그것도 이젠. 원동서부터 내 내 러시아 이름이 있었지. 원동에서.}

10201 @ 고려이름은 없었습둥?{고려 이름은 없었습니까?}

10201 # 고려이름은 내 모 모르겠어.{고려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

10201 # 내 헤~이두 내 헤~이두 나쟈지 노시아.{내 형도 형도 나쟈지. 러시아 이름이지.}

10201 # 오래비두 오래비 이름두 고려 이림이 없었어.{오라비두 오라비 이름도 고려 이름이 없었어.}

10201 # 미샤, 노시아 이림이 미샤, 내 오래비.{미샤, 러시아 이름이 미샤, 내 오라비.}

10201 @ 그럼 아매! 그: 핵교에서 앙게 뭐 재미 있었던 일이 있었으면은 그매 한번 얘기해 보웁소?{그럼 할머니! 그 학교에서 이렇게 뭐 재미있었던 일이 있었으면 그 때 시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10201 # 그 적이 쪼오꼬만 개 무슨.{그 때 쪼그만 것이 무슨.}

10201 @ 그래두 뭐 이롭게 쪼: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보웁소. 뭐 학, 핵교에 대해서.{그래도 뭐 이렇게 쪼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뭐 학, 학교에 대해서.}

10201 # 핵교서, 그전에 조오꼬말 적에는, 어: 첫반으 땡기메서두 아둥춤이나 챌지.{학교에서, 그전

에 조끄말 적에, 어 1학년에 다니면서도 아둥 춤이나 추었지.}

10201 # 저 무대에서. 저 자란이덜이 자란이덜 구겨~어 오구.{저 무대에서. 저 어른들이 어들들이 구경을 오고.}

10201 # 고려말으 말하랴무 까 까 노시아말르 말하무 까 칸체르뜨(концерт).{고려말로 말하면 까 까 ‘칸체르뜨(концерт, 콘서트)’.}

10201 # 춤두 추구 차 창가두 하니께나 무 무대에서.{춤도 추고 노래도 하니까 무대에서.}

10201 # 원도~ 원도~ 이시적에두 그랬지.{원동 원동에 있을 적에도 그랬지.}

10201 #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 와서두 노시앗글으 이르메서두 그레 연극이두 있구. 그레 칸체르뜨(концерт)두 있구.{아스트라한에 와서도 러시아 글을 공부하면서도 그레 연극도 있고. 그레 콘서트도 있고.}

10201 # 그러니까 그 칸체르뜨(концерт)에서는 무스거 했으까? 연극은 무스거 했으까? 거기서?{그러니까 그 콘서트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연극은 무엇을 했을까? 거기서?}

10201 # 연 연극으……. 정게 와서두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 이시 적에두 연국이.{여 연극을……. 저기에 와서도 아스트라한에 있을 적에도 연국이.}

10201 # 심천전두 하 노 놀구.{심청전도 하고 놀고.}

10201 # 그레 그러메서 심천저이구.{그레 그러면서 심청전이고.}

10201 # 끄래구서 연극으 그 무슨 다머거리 연극이두 있어 잇엇겠지. 잇엇지.{그래고서 연극을 무슨 ‘다머거리’ 연극도 잇엇겠지. 잇엇지.}

@ 그럼 아매! 심청전 줌 생각이 나암둥?{그럼 할머니! 심청전 줌 생각이 납니까?}

# 심천전에, 그게 무 쪼오꼬말 적에 본 게 그저.{심청전에, 그게 뭐 쪼끄말 적에 본 것이 그저.}

@ 내용이 내용이 생각이 나암두?{내용이 내용이 생각이 납니까?}

# 누(ну)! 그 저 아버지 보 보지 못하구 눈 눈이 메서 보지 못하구.{그럼! 그 저 아버지 보지 못하고 눈 눈이 메어서 보지 못하고.}

# 아, 그 저나 어머니는 어 그 이릅이 이릅이 심쳐~이지. 기 심천전이 애이라 심쳐~이.{아, 그 저기 어머니는 어 그 이릅이 이릅이 심청이지. 그 심청전이 아니라 심청이.}

# 새애기 나 그 새애가 이릅이 심쳐이 심쳐저이 다(да) 심쳐~이 심쳐~이 다(да)?{처녀 그 처녀 이릅이 심청이 심청전 그렇지?}

# 그레 심천 그 그 김 애비 김학규, 학규.{그레 심청 그 그 김 아버지는 김학규, 학규.}

@ 심학규.{심학규.}

# 심학, 또 심학규. 심학규.{심학, 또 심학규. 심학규.}

# 기래구 딸이 있구.{그리고 딸이 있고.}

# 딸은 어머이 딸이 난지 이레만에 칠일 만에 애미 죽었지.{딸은 어머니 딸이 난 지 이레만에 칠일만에 어미가 죽었지.}

# 끄래 애비 하분자 딸으 재래우지.{그레 아버 혼자 딸을 키우지.}

# 아 보지 못하는 게.{아! 보지 못하는 사람이.}

# 개 창가두 그런 게 있지.{그레 노래에도 그런 것이 있지.}

# 그라 애비 안구 이 집동에 땡기메 져트 비지. 져트으.{그레 아버가 어린 딸을 안고 이 집 동냥을 다니며 져트를 빌지. 져트를.}

# 이 아해르 살라 살가달라구. 져트 져트으 빌.{이 아이를 살려, 살려 달라고. 져트 져트를 빌지.}

@ 살가달라구.{살려 달라고.}

# 아하! 살가달라구.{아하! 살려 달라고.}

# 연극두 그런 게 있지.{연극도 그런 것이 있지.}

@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레 져트를 이래 이 그렇게 해서 예.{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레 져트를 이렇게 이 그렇게 해서 예.}

# 그렇게 해서 자라서 자라서 어전에 이 새아가 어 아무래 거이 새애긴 거 거이 새애기 나 땡겟소. 아 그런데 무슨 어 협작놈이 협 협작놈이 다(да)?{그렇게 해서 자라서 자라서 이젠 이 처녀가 어 아마 거의 처녀가 거의 처녀 나이가 되었겟소. 아 그런데 무슨 어 협잡꾼이 협 협잡꾼이 그렇지?}

@ 음.{음.}

# 협작놈이, 개 협작이라는 게 거췌뿌레제이지 다(да)?{협잡꾼이, 개 협잡(挾雜)이라는 것이 ‘거짓말쟁이’ 그렇지?}

@ 다(да){네.}

# 옹지 나~? 거췌뿌레 하메서리 그 새애기 욕심 나이까나 나 저 그 새애기르 어 그 새아가르 그 새아가르 저어 제게다 장가 시 시간으 시 새아갈 주무 애비 눈으 \*\*뛰운다 하지.{옹지 옹? 거짓말을 하면서 그 처녀가 욕심이 나니까 그 처녀를 그 처녀를 그 처녀를 저 제게다 결혼하도록 하게 하고, 처녀를 주면 아버 눈을 뜨게 한다 하지.}

# 애비 제 애비 눈 메인 게 눈으 뜯 떠운다구서 그랬지.{아버 자기 아버의 눈 메인 것이 눈을 뜨게 한다고서 그랬지.}

# 그레 이 새아가는 나이 어린 게 정말인가 하구서리 팔게 갖지. 갖지.{그레 이 처녀는 나이가 어린 것이 정말인가 하고서 팔려 갔지. 갔지.}

# 애비 눈으 애비 보라구서 배우게 하자구서 눈으 떠우자구서리.{아버 눈을 아버 앞을 보라고서 보이게 하려고 눈을 뜨게 하려고서.}

# 기래게 거췌뿌레르 했지. 협잡이, 협잡꾼이 그런 게. (웃음).{그런 놈이 거짓말을 했지. 협잡꾼이, 협잡꾼이 그런 놈이.}

@ 그래서 나중에, 근데 나중에 인제 이:: 애비 눈을 땡슴둥 아니 땡슴둥?{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아버가 눈을 땡습니까?}

# 아이! 또 거췌뿌레 했지. 기래 협작군이라 하저?{아니! 또 거짓말을 했지. 그래서 협잡꾼이라 하지 않소?}

# 거췌뿌레르 해. 그 새아가르 가져가길래서 거췌뿌레했지.{거짓말을 해. 그 처녀를 가져가려고 거짓말을 했지.}

# 심청전은 그 새아가르 가져가길래서 애비가 거췌뿌레했지.{심청전은 그 처녀를 가져가기 위해서 심청이의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지.}

# 개 이 딸으는 나 어린 게 정말 그렇게[그러께] 정말 그런가 해서 애비르 눈으 떠우자구서 갖지. 그레 거췌뿌레르 했지.{그레 이 딸은 나이가 어린 것이 정말 그렇게 정말 그런가 해서 아버의 눈을 뜨게 하자고 갔지. 그레 거짓말을 했지.}

@ 눈으 땡는데? 나중에는.{눈을 땡는데? 나중에는.}

# 난 모르겠다. 그 난 눈 땡다는 말은 나느 못 들었소 야~.{나는 모르겠다. 그 난 눈을 땡다는 말은 못 들었소 응.}

# 모르지, 모르지 난 눈 땡다는 말으.{모르지 난 모르지. 난 눈 땡다는 말읍.}

# 협작 협작꾸이[협작꾸이] 와서 거췌뿌레해서. 끄래 딸으 쥼두 딸으 끄래 가져가두 애비 눈은 못 땡지 그양.{협잡 협잡꾼이 와서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딸을 주어도 딸을 그렇게 가져가도 아버가 눈은 못 땡지 그냥.}

# 모르지 글썄. 난 쪼오꼬말 적에 이르 이릉기 들어 난 모르지.{모르지 글썄. 난 쪼그말 적에 이러  
이렇게 들어서 나는 모르지.}

@ 거스뿌래.{거짓말.}

# 거스뿌래. 험작꾸이지. 험작 험작했지.{거짓말. 험잡꾼이지. 험잡, 험잡했지.}

@ 그렇지.{그렇지.}

# 아하! 그 새아가르 가제가길래 거 거스뿌래. 음.{아! 그 처녀를 가져가기 위해서 거 거짓말을 했  
지.}

# 개 연극이사 그 그전에 내지에서두 와서 놀았댜지. 그 춘향전이나.{그래 그 심청이 연극이야 그  
전에 본국(本國)에서도 와서 공연했었지. 그 춘향전이나.}

10201 @ 그러면은 아매! 이젠 나호드까 핵교서 지금 이제 칸쎄르뜨(концерт) 한 거.{그러면 할머  
니! 이제 나호드까 사실 때 학교에서 지금 이제 공연을 한 거.}

10201 # 그전에는 그전에는 저 원도~으르 그저 해삼에서 다(да) 개 직금운 블라디보스토꼬지.{그전  
에는 그전에는 저 원동으로 해삼위에서 웅 지금은 블라디보스토크라 하지.}

10201 # 해삼에서 그 연극 배우덜이 각 각 꼬호 각 이릉기 조합우 뎡기메서 원동 이시적이 와서  
놀았지. 놀았지.{해삼위에서 연극 배우들이 각 콜호스 농장을 다니면서, 원동 있을 적에, 공연  
을 했지.}

10201 # 그적에는 우리네 조오꼬망다구 들에 아이 놓았소. 쿨루부(клуб) 저런 데르 잇는 쿨 쿨루  
부. 고려말르는 기게 무슨 조선말르는 미시기 쿨루부(клуб) 미시기오?{그 때 우리네는 조그  
맏다고 극장에 들여놓지 않았지. 구락부(俱樂部, 클럽) 저런 데 잇는 구락부. 고려말로는 그걸  
무엇이라 하나, 조선말로는 무엇인가 ‘쿨루부’가? 무엇인가?}

10201 @ 구락부라구.{구락부라고.}

10201 # 아하! 구락부. 구락부 우리네 조오꼬망다구 딜에두 아이 낫지.{아! 구락부. 우리네 조꼬맏다  
고 들여놓지 않았지.}

10201 # 거래 그래 연극으 와 놀 적에는 원도~에서는 못 들어갔지. 원동서 못 들어갔지. 딜에 아이  
낫서. {웃음}.{그래 그래 연극을 공연할 적에는 원동에서는 못 들어갔지. 원동에서는 못 들어  
갔지. 들여놓지 않아서. {웃음}.}

10201 @ 그럼 칸쎄르뜨에서 뭐 연극두 하구 또 노래두 불렀습둥? 나호드까 핵교서.{그럼 공연에서  
는 뭐 연극도 하고 또 노래도 불렀습니까? 나호드까 학교에서.}

10201 # 야~ 그때두 불렀지.{응 그때도 노래 불렀지.}

10201 @ 무슨 노래 불렀습둥?{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10201 # 무슨? ‘먹으나 입으나’ 이런 창가두 있구.{뭐? ‘먹으나 입으나’ 이렇게 하는 노래도 있고.}

@ 한번 해 보옵소. 한내만 한번 해 주옵소.{한번 해 보십시오. 노래 하나만 한번 해 주십시오.}

# 잇어 잇어뿌래제오? 내 잇어뿌리지 애인둥 모르겠소. {웃음}.{잇어 잇어버리잖소? 내가 잇어버리  
지 않았는지 모르겠소. {웃음}.}

@ 아이 그냥 한번 해 주옵소.{아니 그냥 한번 해 주십시오.}

# 그거 그 창가는 전체르 조오꼬마시적에 어려시적이 쑤 발써 으 창개르 하제엿지 그 창가. 으흠.  
음 {목청을 가다듬으며}.{그거 그 노래는 전체를 조꼬말 적에 어렸을 적에 하고 노래를 하지 않  
았지 그 노래를. 음. 음. {목청을 가다듬으며}.}

# 내 님어빠래 다아 잇어빠래시끼오.{내가 잇어버려 다 잇어버렸을 것이오.}

# 직금 다른 창가. 웨때(это) 자란이덜 창가르 하지 어른아덜 창가르 아이 하지. {웃음} 직금.{지금  
은, 내가 부르던 노래와 다른 노래, 음, 어른들 노래를 하지 어린아이들 노래를 안 하지. {웃음}}

지금은.}

# “먹으나 입으나 똑같이 살자. 트락토르에 앉아서 논으로 밭으로 왔구나, 왔구나 노력이 세상 트  
랄랄라 이것은 꼬무나이 세상. 땅 우에는 자동차 공중에는 비행기. 그 온 세계 인연은 그 우에  
앉아서 한 손에 라디오 한 손에 전화통 트랄랄라 이것은 꼬무나이 세상.” 이런 게요.{“먹으나 입  
으나 똑 같이 살자. 트랙터에 앉아서 논으로 밭으로. 왔구나, 왔구나 노력이 세상 트랄랄라. 이것  
은 공산주의 세상. 땅 위에는 자동차 공중에는 비행기. 그 온 세계 인연은 그 위에 앉아서 그 위  
에 앉아서 한 손에는 라디오 한 손에는 전화통 트랄랄라 이것은 공산주의 세상.” 이런 것이오.}

@ 아이구!! {박수} 아매! 옛날에 뭐 노래 창개르 많이 했습둥?{아이고! {박수} 할머니! 옛날에 뭐 노  
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 마이 했지.{많이 했지.}

@ 어째 그렇게 창개를 잘하심둥? {웃음} 아이구!{어째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십니까? {웃음} 아이  
고!}

# {웃음}. {웃음.}

@ 예. 아이 정말 창개르 잘 하십니다. {웃음}. 잘 들었습꾸마.{예. 아이고! 정말 노래를 잘하십니다.  
{웃음}. 잘 들었습니다.}

# 어전 나아 먹어서 {웃음}. 젊었을 적에는 내 창가르 잘했소.{이젠 나이를 먹어서 {웃음}. 젊었을  
적에는 내가 창가를 잘했소.}

@ 새애기 목소립구마.{처녀 목소리입니다.}

# {웃음} 새애기?{ {웃음} 처녀?}

@ 새애기 목소리 딱 같습구마. 음정두 아주 잘 맞구 예.{처녀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음정도 아주 잘  
맞고 예.}

10201 @ 그러면 그 나호드까 핵교 다니실 때애두 창가르 했습둥?{그러면 그 나호드까 학교에 다니  
실 때애도 노래를 했습니까?}

10201 # 창가두 하구 춤우두 추구.{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10201 # 게 어른아덜 아드 오드 에따(это) 아동춤 잇제오? 아동춤.{그래 어린아이들, 어린아이 음  
아동춤이 있지 않소? 아동춤.}

10201 @ 그렇지 아동춤. 그리구 뭐 그으 일년에 한번씨 이렇게 에 학생 이 학생아덜이 자란이덜  
어시덜하구 이렇게 막: 다를래기 하구 뭐 이런 건 없었습둥? 다를래기두 하구 뽀채기.{그렇지  
아동춤. 그리고 뭐 그 일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에 학생, 이 학생들이 어른들, 부모들하고 이렇  
게 막 달리기를 하고 뭐 이런 행사는 없었습니까? 달리기도 하고 공차기도 하고.}

10201 # 아하! 그런 것두 잇었지. 그런 것두 잇었지. 매치깨(мячик)치기나. 에 그러 그 고려 고려  
조선말르 매치끼(мячик) 미시기오? 쿠루글리(круглый) 예즈다 매치크(мячик)?{아! 그런  
것도 있었지. 그런 것도 있었지. 공치기나 에 그 고려 고려 조선말로 ‘매치끼(мячик)’는 무엇  
이오? 둥그스름한 매치끼(мячик)?}

10201 @ 공. 불이라구 하압꾸마.{공. 불이라고 합니다.}

10201 # 아! 뽀이. 고 조오꼬만 뽀 뽀 뽀으 친 거 그런 거 제에꼬마시적이 워 원동서 기랬지. 여기  
와선 아이 괴래지.{아! 불. 조꼬만 불을 치는 그런 놀이를 쪼그맷을 적에 원동에서 놀았지. 여  
기 와서는 안 놀았지.}

10201 @ 그거 어 글썄 지금 쪼꼬말 때 애기르 하는 겁니다.{그거 어 글썄 지금 쪼그말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201 # 아하! 쪼꼬말 때.{아하! 쪼그말 때.}

10804 @ 예, 그러면 어떻게 매치꼬놀이르 했습둥?{예, 그러면 어떻게 공놀이를 했습니까?}

10804 # 이래 하대 이래 한내 사름 이룽기 혹 뿌리문 이썸 게 어 탁 치지. 기랍 그 매치까(мячик) 바 받아야 하지. 제 제야하지. 받아제야.{이렇게 하나 한 사람이 이렇게 혹 뿌리면 이썸 사람이 어 탁 치지. 그럼 그 볼을 바 받아야 하지. 쥐 쥐어야 하지. 받아 쥐어야.}

10804 @ 못 받으무?{못 받으면?}

10804 # 아하! 못 받으문 그양 그래. (웃음) 어전 썸 잊어빠랬어. 노는 거.{아! 못 받으면 그냥 그래 (웃음) 이제는 썸 잊어버렸어. 노는 것을.}

10804 @ 그럼 탁 치문 친 사람이 친 사람이.{그럼 탁 치면 친 사람이 친 사람이.}

10804 # 아, 친 사름운 친 사름운.{아! 친 사람은 친 사람은.}

10804 @ 뛰임둥? 달아감둥 어디로?{뛰어잡니까, 달려잡니까 어디로?}

10804 # 친 사름이 친 사름 아이 달아가압데.{공을 친 사람이 친 사람이 달려가지 압데.}

10804 @ 음.{음.}

10804 # 예, 그래 그거 이래 착 가 한나 받아서 또 다른 저썸 사름은 그 매치깁(мячик-르) 쳐야 하지.{예, 그래 그거 이렇게 착 하나가 받아서 또 다른 저썸 사름은 그 공을 쳐야 하지.}

10804 # 괴래 그거 무슨 백혜야 하지. 백히지 못하무 거 저 무스 뉘기마따나 저어나 켜지.{그래 그 거 뭐 맞혀야 하지. 맞히지 못하면 거 저 뭐 누구마따나 저가…… 켜지.}

10804 @ 그렇지. 켜지.{그렇지. 켜지.}

10804 # 켜지.{켜지.}

10804 # 고려말르 노시아말르 뿌라이그라(проиграть) 했다문 켜지. (웃음). 옴소! 켜어. 켜지. (웃음).{켜지. 고려말로, 러시아 말로 ‘뿌라이그라(проиграть)’ 했다면 켜지. (웃음). 옴소! 켜어. 켜지. (웃음).}

10804 @ 고 다음에 무슨 에 다른 무슨 놀음이 있었습둥?{고 다음에 무슨 에 다른 놀이가 있었습니까?}

10804 # 다른 다른 놀음이 기래구 그런 게. 윈도~서 새아가덜이구 선스나덜두 췌외뽀한 게 췌에기 채기르 했지, 췌:기.{다른 놀이가, 그리고 그런 게 있었지. 윈동에서 여자아이들이고 사내아이들이고 췌그만 것들이 제기 차기를 했지, 제기.}

10804 @ 아아.{아아.}

10804 # 그리 추끼(чулки) 같은 거 파이 나무 그거 이룽기 잡아매서 그 안에다가 음 옥수끼나 일리(или) 무스거 거기다 거더 열구. 개구 발르서르 췌기채기르 했지.{그리고 양말 같은 것이 떨어지면 그거 이렇게 잡아매서 그 안에다가 옥수수나 혹은 무엇을 거기다 거두어 넣고. 그리고 발로 제기차기를 했지.}

10804 # 이 선스나덜두 새아가덜두 췌기차기르 하구. 윈동 이시적에. (웃음).{이 사내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제기차기를 하고. 윈동에 있을 적에. (웃음).}

10804 @ 그럼 제기는 그 무스겔르 만들었습둥?{그거 제기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804 # 췌기차기. 기래 이룽기 저나 어 형 형거, 형거췌배길르서 이룽기 이룽기 그 요룽기 요룽기 맨 에따 맨. 누(ну) 이룽기 맨들어두 일없구.{제기차기. 그래 이렇게 저가…… 어 천, 천 조각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그 요룽게 요룽게 만들었지. 아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고.}

10804 # 그래 바 \*\*반도~올르 기래구서는 영게서 \*\*그거야 조썸 내무 거기다 옥수끼낭 몇 개 매 가 가뜩여채잉구 조썸 열구 개구 자뽈라우(завязать?) 기래 \*이러 발르서 찾지. (웃음) 발르.{그래 \*\*반동으로서 그리하고서는 여기서 그거 조썸 내면 거기다 옥수수랑 몇 알 넣고 잡아매거나 가뜩 채우고 조썸 넣고 그리고 잡아매서 그래 발로 찾지.}

10804 @ 아아! 거기다 옥수끼 알으 집어넣구.{아! 거기다 옥수수알을 집어넣고.}

10804 # 아하! 옥수끼나 일리(или) 무스 다르 무스 무스 옥열어나 열서 여기서 기래 거저 제기차개. 기게 고려말르느 지금 그전에 들올라이 제기 제기차개라. 제기차개라. 제기 찬다구.{아! 옥수수나 또는 무슨 다른 무슨 무엇을 넣거나 하여 그렇게 그저 제기차기를 했지. 그게 고려말로느 지금 그전에 들으니 제기, 제기차기라 하더구면. 제기차기라고. 제기를 찬다고.}

10804 @ 췌기.{제기.}

10804 # 아하! 제기 찬다구.{아! 제기를 찬다고.}

10804 @ 췌기네. 음. 그럼 아매! 예:: 음: 췌기차기.{‘췌기’네. 음. 그럼 할머니! 예 음 제기차기.}

10804 # 아하, 제기차기르 했지.{아! 제기차기를 했지.}

10804 @ 그거 말구 또 무슨 다른 놀음이 없었습둥?{그거 말고 또 무슨 다른 놀이가 없었습니까?}

10804 # 개 괴라구 괴라구 더 점 낭그 요만:치 질게 해서 앞썸 뽀오췌하기 췌까치기르 했지. 췌까치기르. (웃음) 새아가덜이. 우스워서 난.{그래 그리고 그리고 더 점 나무를 요만큼 길게 해서 앞썸이 뽀췌하게 해서 자치기를 했지. 자치기를. (웃음) 여자아이들이. 우스워서 난.}

10804 @ 그 어떻게 하는 겐둥, 췌까치기?{그건 어떻게 하는 겐니까, 자치기는?}

10804 # 에 이거 요 요 요런 요만한 요러문 요런거 그런 그렇가구 가구 이룽기 낭그 요마:이 켜 거 \*얄 지지. 개 이거 딱 이래 치무 이 이 저나 이런 썸우 끄스지 이래. 이래 쿠루브(крыт). 이거 이거 메 뻗 개 두 이래 이래 걸어 또 이래 기래구. 또 이룽기 이래구. 쿠루브(крыт) 뻗 개 간 뻗 개 간 토리토리산 게 끄스지 따~에다 끄스.{에 요 요기 요런 요만한 요런 거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무를 요만큼 긴 거 쥐지. 그래 이거 딱 이렇게 치면 이 이 저…… 이런 금을 굵지. 이렇게. 이렇게 쿠루브(крыт). 이거 이거 몇 개도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또 이렇게 그러고. 또 이렇게 그러고. 또 이렇게 이르고. 끌고 몇 개 가 동글동글한 동심원을 굵지, 땅에다, 굵지.}

10804 # 괴래 거기서 그거 홀 이래 저나 췌에뿌리무 기게 어디메 가무 그거 탁 쳐서 먼데 먼데르 가무 하라썸(хорошо). 이르 좋구, 먼데르 가무. 이리 이런 놀음이 노는 췌개치기라는 게 그런 놀음이. \*그래드 그냥 다른 다른 그런 건.{그리고 거기서 그거 홀 이렇게 저가…… 집어던지면 그게 어디로 가면 그거 탁 쳐서 먼 데 먼 데를 가면 좋지. 좋고, 먼 데로 가면. 이렇게 이런 놀이를 노는 자치기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10804 @ 가만 이췌봐. 제가 잘 모르겠습꾸마. 어티기하는 건지. 이룽기 동그란 토리토리마게 금우 굵어서.{가만히 있어 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동그란 동그랴게 금을 그어서.}

10804 # 아 이게 이렇게 냐~. 이룽기 췌구 또 잉게다 이룽기 또 췌구. 또 이룽기 췌구.{아 이게 이렇게 웅. 이렇게 굵고 또 여기에다 이렇게 또 굵고. 또 이렇게 굵고.}

10804 @ 또 넓게 그 그스구, 그런 다음에?{또 넓게 굵고, 그런 다음에는?}

10804 # 그래구서 그래구서 췌 췌까치기르 하지.{그리하고서 그리하고서 자치기를 하지.}

10804 @ 어떻게?{어떻게?}

10804 # 이래 이래 홀 돌아서서 이래 홀 이래지. 기래문 기게 어느 금 어느 \*금일 금우루 간게.{이렇게 이렇게 홀 돌아서서 이렇게 홀 이렇게 하지. 그러면 그게 어느 금 어느 금으로 간 것이.}

10804 @ 이르 이룽기 뒤 잉기 두우루 던집둥?{이러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던집니까?}

10804 # 아하! 에따 야.{아! 음 웅.}

10804 @ 그러면 거기 딱 떨어지무?{그러면 거기 딱 떨어지면?}



10804 # 그러니까 어느 어디메 어느 링 그거 그런 게 떨어지는 거, 거 \*저래. 기래구서 그 답에 경  
게 까빠울까(палка)르 치지. 까빠울까(палка) 후려서 먼데 치지.{그러니까 어디에 어느 그거  
그런 게 떨어지는 거, 거. 그리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까빠울까를 치지. 까빠울까 후려서 먼  
데로 치지.}

10804 @ 먼데 친, 먼데 친 뒤에.{먼 데로 친, 먼 데로 친 뒤에는.}

10804 # 예, 탁 치무 먼데르 가지.{예, 탁 치면 먼 데로 가지.}

10804 @ 가지.{가지.}

10804 # 꿀까.{자치기.}

10804 @ 그렇지.{그렇지.}

10804 # 그전에 그거 원동 이시적이 내 들올라이 그양 꿀까치기르 한다메서. (웃음){그 전에 그거  
원동에 있을 적에 내 들으니 그냥 자치기를 한다면서. (웃음)}

10804 @ 예. 딱 쳐서 멀리 가무 어떻게 뎡등?{예. 딱 쳐서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10804 # 이래 이래 이래 큰 빨가우까 탁 이래 쳐서 그거 받아쳐야 하지.{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큰  
막대기로 탁 이렇게 쳐서 그거 받아쳐야 하지.}

10804 @ 으흠.{음.}

10804 # 으흠, 그래 받아치무.{음, 그래 받아치면.}

10804 @ 그러문 좀 날라갔재임등?{그러면 좀 날라갔습니까?}

10804 # 다. 먼데르 가지.{응. 먼 데로 가지.}

10804 @ 먼데르 가무 또 어떻게 함등? 또 재엠편 그게?{먼 데로 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로  
잡니까? 그거?}

10804 # (한숨) 그거 그렇기 그양 우리 쳤는데. 쪼오꼬마실 적에. 어전 (웃음) 잊어뿌랬어. 어젠등  
어쨌던등. 꿀까치기르 하는데 있어…….{(한숨) 그거 그렇게 그냥 우리 치고 놀았는데. 쪼꼬맷  
을 적에. (웃음) 이젠 잊어버렸어. 어쨌든지. 자치기를 하는데 있어…….}

10804 @ 그게 선스나두 하구 새애기두?{그 자치기를 사내아이도 하고 여자아이도 하고?}

10804 # 선스나두 하구 새애가두 했지. 옴판 선스나덜 놀음이지. 갠 새아가덜 조꼬말 적이무 선서  
나 놀음이 새아가 놀음이 없었지. 거저 선스나덜 하는대를 했댓지.{사내아이도 하고 여자아이  
도 했지. 원래 사내아이들 놀이이지. 그런데 여자아이들 조꼬말 적에 사내아이 놀이와 여자아  
이 놀이가 따로 없었지. 그저 사내아이들 하는 대로 했었었지.}

10804 @ 그렇습지. (종이 넘기는 소리){그렇지요. (종이 넘기는 소리).}

10804 @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많았을 터인데. 여러 가지 놀이가. 많았을 텐데요?{그럼 그 다음에  
또 뭐 많았을 터인데. 여러 가지 놀이가. 많았을 텐데요?}

10804 # 무스기?{뭐?}

10804 @ 그 나호드카에서, 하던 놀음이.{그 나호드카에서 하던 놀이가.}

10804 # 야~ 그 놀음이 글썸 그 놀음이 했지. 제기채기라구 또 빨치기르 하구.{응. 그 놀이가 글썸  
그 놀이를 했지. 제기차기라고 또 공치기를 하고.}

10804 @ 꿀까, 꿀까치기르 하구.{자치기, 자치기를 하고.}

10804 # 꿀까치기르 하구 그래 그랬지.{자치기를 하고 그리하고 그랬지.}

10804 @ 그 답에 또?{그 다음에 또 다른 놀이는?}

10804 # 기래구 이롱기 따~에다 이롱기 이롱기 쳐 놓구 이래 꿈우 꼬수구서니 기래구 그거는 고려  
말르느 미시킨두 모르겠어.{그리고 땅에다 이렇게 이렇게 쳐 놓고 이렇게 금을 긋고 그리고

그것은 고려말로는 무엇인지 모르겠어.}

10804 # 기래 이래 홀 홀 돌아서서 홀 돌아서서 음 돌으 요만:한 거 요런 거 납죽한 거 블로(плос  
кий) 납죽한 그런 돌 이래 홀 돌아서 이라구 뿌리지.{그래 이렇게 홀 홀 돌아서서 홀 돌아  
서서 음 돌을 요만한 거 요런 거 납죽한 거 블로(плоский, 납죽한) 그런 돌을 이렇게 홀 돌  
아서 이라고 뿌리지.}

10804 # 개 어디메 이 이 금우 끈데 가서 떨어지무 뿌라이(проиграть) 저나 져지. 개 그 꿈이 꼬  
는 데 떨어지지 말구 이 클리(круглый) 그 이런 데 떨어지무 기래무 그거 차서 이 잉게꺼  
정 가 이게 이게 이게 이롭게 이롭게 이롭게 해 놓오무 이쪽 꼬스구 그 답에 이롱기 걸지.  
{그래 어디 이 이 금을 그은 데 가서 떨어지면 저기…… 져지. 그래 그 금을 그은 데 가서  
떨어지지 말고 이 윈 그 이런 데 떨어지면 그러면 그거 차서 이 여기까지 가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쪽 굿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지.}

10804 # 그래 열카이두 테구 이래 하 한 줄이 다섯칸씩 다섯칸씩 열 카이 테구 그 거 다아 발르  
차서 금우 꼬 꿈에 떨어지무 져지. 꿈이 그 돌이 꿈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지.{그래 열 칸도  
되고 이렇게 한 줄이 다섯 칸씩 다섯 칸씩 열 칸이 되고 그 거 다 발로 차서 금을 그어 금에  
떨어지면 져지. 금이, 그 돌이 금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지.}

10804 # 기래 그런 놀음오두 놀았지. 쪼오꼬마시적이. 기게 고려 고려말르 무시긴지 모르겠어. 무슨  
놀음인두.{그래 열 칸도 되고 이렇게 한 줄이 다섯 칸씩 다섯 칸씩 열 칸이 되고 그 거 다  
발로 차서 금을 그어 금에 떨어지면 져지. 금이, 그 돌이 금에 떨어지지 말아야 하지. 그래  
그런 놀이도 놀았지. 쪼꼬맷을 적어. 그게 고려말로 무엇인지 모르겠어. 무슨 놀이인지.}

10804 @ 그러면은 그: 폼치올래기나.{그러면은 그 숨바꼭질이나.}

10804 # 폼치올래기두 놀았지.{숨바꼭질도 놀았지.}

10804 @ 어떻게 놀았습등?{어떻게 놀았습니까?}

10804 # 어찌기 \*\*놀어이…… 어 척감에 어찌던가.{어떻게 놀았는가 하면…… 어 처음에 어찌하던  
가.}

10804 # 오! 빨까(палка) 잉기 낭그 낭그 지다만 거 지구서. 이르 아덜 이롱기 이롱기 지지. 이롱  
기 지오. 이롱기 개 마감에 글이 저나 그 차지 못한 아느 눈으 감지. 눈 감구 헤엿우 헤지. \*\*  
근샘이 싹 달아나서 폼치우지. (웃음){아! 막대 이렇게 나무 나무 기다란 거 가지고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쥐지. 이렇게 쥐오. 이렇게 그래 마지막에 저기…… 차지 못한 아이  
는 눈을 감지. 눈을 감고 샘을 하지. 그 사이에 싹 달아나서 숨지. (웃음).}

10804 @ 아! 가만 있어바. 맨 척감에?{아! 가만 있어 봐. 맨 처음에 어찌 한다고?}

10804 # 맨 첫감에 내 이렇지 머. 다른게 지구 이롱기 지구 이롱기 지구 그렇지. 아덜 여래 이롱기  
지구. 기래 마감에 그 잉기 모자라는 게 모자라는 게 눈우 감지[감쥔]. 빠울까(палка) 모자라  
는 게.{맨 처음에 내가 이렇지 뭐. 다른 놀이 쥐고 이렇게 쥐고 이렇게 쥐고 그렇지. 아이들  
이 여럿이 이렇게 쥐고. 마지막에 모자라는 놀이 모자라는 놀이 눈을 감지. 막대가 모자라는  
놀이.}

10804 @ 근데 잘 모르겠습꾸마. 이제 아매가 있구 요렇기 있으면, 요렇기 같이, 아야! 잉게 막대를,  
막대를 쥐구 아야! 그래구 요기에 없오무 가가 눈을 감습등?{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있고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같이, 아! 이렇게 막대를, 막대를 쥐고 아! 요기에 없으  
면 그 아이가 눈을 감습니까?}

10804 # 음. 기래구 샘우 세지. (웃음){음. 그리하고서 샘을 세지. (웃음).}

10804 @ 으음. 으음. 으음. 폼치올래기. 그럼 어디가서 폼치았습등? 대개. 폼치올래기르 할 때?{음.

음. 음. 숭바꼭질. 그럼 어디 가서 숨었습니까? 대개. 숭바꼭질을 할 때?}

10804 # 어디 그 그런…… 집 집 두에두 가 곱치우구. 벨 데 다 가서 곱치우지. 도투굴 두에 가두 곱치우구. (웃음) 집에 저런 구석에다두 직금 가만가만 돌아 구석에다두 곱치우구. 아덜 조오 꼬말 적어.{어디 그 그런…… 집 집 뒤에 가서도 숨고. 벨 데를 다 가서 숨지. 돼지우리 뒤에 가서도 숨고. (웃음) 집에 저런 구석에 가서도. 지금 가만가만 돌아다니며 구석에 가서도 숨고. 아이들이 조꼬말 적어.}

10804 @ 부수깨아구리는 아이 들어감두?(아궁이에는 안 들어갑니까?)

10804 # 아이!, 그런 테는 아이 들어가지. (웃음).{아니! 그런 테는 안 들어가지. (웃음).}

10804 @ 그러면은 어: 그: 이 새아가덜이 그 요만:한 돌으 가지구 다숫개.{그러면 어 그 이 여자아이들이 그 요만한 돌을 가지고 다숫개.}

10804 # 아, 돌으, \*꼬 \*꽁지 풍기주이[풍기쭈이]르, 돌주이[돌쭈이]르 했지. 다숫개르 가지구 돌주이[돌쭈이]르 했지. 그런 놀음두 놀았지, 새아가덜이.{아! 돌을, 공기 공기 줍기를, ‘돌주이’(공기놀이)를 했지. 다섯 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했지. 그런 놀이도 놀았지, 여자아이들이.}

10804 @ 그걸 뭐라구 했슴둥? 돌.(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돌.)

10804 # 그 돌주이[돌쭈이]르 돌주이[돌쭈이]르 \*\*한담둥.{그 ‘돌주이’(공기놀이)를 ‘돌주이’를 한단다 가.}

10804 @ 돌주이? 돌주이르?{‘돌주이’? ‘돌주이’를?}

10804 # 으흠. 돌주이[돌쭈이]르 한다구. 그전이 어전 고려 고려말두 썩 잊어빠래서 쪼오꼬마사적이 하던 말으.{음. ‘돌주이’(공기놀이)를 한다고. 그전에, 이젠 고려 고려말도 썩 잊어버려서 쪼꼬맷을 적에 하던 말을.}

10804 @ 돌쭈이. 돌주이임둥 돌쭈이임둥?{‘돌쭈이’. ‘돌주이’입니까? ‘돌쭈이’입니까?}

10804 # 돌주이.{‘돌주이’.}

10804 @ 돌주이. 음.{‘돌주이’. 음.}

10804 # 기래구서리 이롱기 그 그 돌이 땃 개던둥 그건 다숫 개 애이구 여러 개 기래구서리 이래 이래 띠우는 거. 가참운 돌으 띠우는 거. 그 그런 놀음두 하구.{그리고 이렇게 그 그 돌이 몇 개던지, 그건 다섯 개가 아니고 여러 개 그리고서 이렇게 이렇게 띠우는 거. 가까운 돌을 띠우는 거. 그 그런 놀이도 하고.}

10804 @ 띠우는 거?{띠우는 거?}

10804 # 아하, 띠우는 거. 원둥 잇으 적어. 원둥 잇으 적어.{음, 띠우는 거. 원둥에 있을 적에. 원둥 있을 적에.}

10804 @ 음.{음.}

# 개 선생님덜은 이따가 갈 적에 날 좀 에떠(ετο) 그런 거 선생님 한국에 창가르 날 좀 베와주우 으음?{그래 선생님들은 이따가 갈 적에 날 좀 음 그런 거 선생님 나라 한국의 노래를 나에게 가르쳐 주오. 응?}

@ 즈이 모릅꾸마. 창가를.{저희는 모릅니다. 노래를.}

# 어째?{어째?}

@ 모릅کم. 예.{모릅니다. 예.}

@ 창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즈이는 창가를 잘 모릅꾸마.{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는 노래를 잘 모릅니다.}

# 젊은사람덜 창가를 잘하지. 저 젊은 사름. 고려 고려 내지서 고려 고려 고려: 으:: 고려따~에서 사는 게 어째 고려창가를 모르겠소. 다야 알지.{젊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지. 저 젊은 사람. 본국

에서 고려 고려 땅에서 사는 사람이 어째 고려 노래를 모르겠소. 다 알지.}

@ 요새 젊은 사람덜은 여기두 마찬가지꾸마. 이런 거만 하압꾸마. (몸을 흔드는 시늉 동작을 하며).{요새 젊은 사람들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만 합니다.}

# (웃음).{(웃음).}

10804 @ 그럼 아매! 에:: 그러니까 풍기 돌주이르 하구 곱치올래기두 했구 제기차기두 했구.{그럼 할머니! 에 그러니까 공기놀이를 하고 숭바꼭질도 했고 제기차기도 했고.}

10804 # 제기차기두 하구 꼴가치기두 하고. 꼴가치기.{제기차기도 하고 차지기도 하고. 차지기.}

10804 @ 고 다음에 땅바닥에다가 열칸으 그러가지구 넙죽한 돌으 가지구.{그 다음에 땅바닥에다가 열 칸을 그려 가지고 넙죽한 돌을 가지고.}

10804 # 열칸으 하자무 하구 열두칸으 하자무 하구, 괴래 기게 처 첫반부터 다야 이래 이래서 오무 그담에 둘째반 두 번째 반[뽕]으 올라가지. 두 번째 에따(ετο) 이런 끄스 테르.{열 칸을 하자면 하고 열 두 칸을 하자면 하고. 그래 그게 첫 번부터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으로 올라가지. 두 번째 음 이런 그은 데로.}

10804 @ 그럼 바꿈재놀음이라는 거 했슴둥?(그럼 소꿉질이라는 것을 했습니까?)

10804 # 바꿈재 놀음은 놀았지. 그 쪼외꿈할. 그 물역에 가서 조개나 가뜩 줏으무 파도 치무 물게서 뽕개 다야 나오지. 그래 그 조개덜 줏어서 에따(ετο) 그런 놀음 놀았지. 조오꼬마사적이. {소꿉질 놀이를 했지. 그 쪼꼬말 때. 그 물가에 가서 조개 같은 것을 가뜩 주으면 파도 치면 물에서 별것이 다 나오지. 그래 그 조개들을 주어서 음 그런 놀음을 놀았지. 조그맷을 적에.}

10804 @ 줏어서.{주어서.}

10804 # 줏어서 그러머서 큰거는 이래 얹혀농구서 거기다 밥우 끓이노라: 하구. 쪼꼬만 \*기어느 그 룻이처럼 이래 가스(газ)에 올레농구. (웃음). {주어서 그러면서 큰 것은 이렇게 얹혀 농고서 거기다 밥을 끓이노라 하고. 쪼꼬만 것은 그릇처럼 가스에 올려 놓고. (웃음).}

10804 @ 그제 바꿈재 놀음임둥?(그것이 소꿉질 놀이입니까?)

10804 # 기게 바꿈재 놀음이지. 기게 바꿈재 놀음이지.{그제 소꿉질 놀이이지. 그제 소꿉질 놀이이지.}

10804 @ 너는 에미다 나는 에비다 이런 것두 했슴둥?{너는 ‘어미’이다 나는 ‘아비’이다 이런 것도 했습니까?}

10804 # 그런 거는 나는 모르겠소. 모르겠소.{그런 것은 나는 모르겠소. 모르겠소.}

10804 @ 세간살이 하는 거 했었지.{살림살이 하는 것을 했었지.}

10804 # 누 그제 바꿈재놀음 바꿈재놀음우 그제 놀았지.{음 그제 소꿉질 놀이 소꿉질 놀이 그것을 놀았지.}

10804 @ 바꿈재란 말이 무슨 뜻임둥? 그제?{‘바꿈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제?}

10804 # 아, 그제 모르오 나는. 바꿈재 무시긴둥. 바꿈재놀음 무시긴둥 모르지.{아, 그제 모르오 나는. ‘바꿈재’가 무엇인지. ‘바꿈재놀음’이란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

10804 @ 그럼 사내아들이 이런 막대를 여기다가 사타구니다 이르 농구 뛰어댕기메, \*\*뛰어디는?(그럼 사내아들이 이런 막대를 여기다가 사타구니에다 이렇게 넣고 뛰어다니며, 뛰는 놀이는?)

10804 # 아, 그런 그런 선서나덜이. 선서나덜 그. 내 이름 모르지. 내사 무시기 어젠둥. 거저 그런 거 맞지. 무슨 놀음인거 모르지.{아, 그런 사내아이들. 사내아이들. 내가 이름을 모르지. 나야 무엇을 어쨌는지. 그제 그런 거 봤지. 무슨 놀이인지 모르지.}

10804 @ 아, 그리고 또 다 다른 놀음은 없슴둥?{아, 그리고 또 다른 놀이는 없습니까?}

10804 # 다른 놀음이 무슨 머. 그 조오꼬말 적인 그 놀음밖에 다른 놀음…….{다른 놀이가 무슨 뭐.

조끄말 적에는 그 놀이가…….}

10201 @ 그럼 아매! 학교서 이렇게 그 공비르 하고 시험두 봤습둥? 시험우 츠렸습둥?(그럼 할머니! 학교에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시험도 봤습니까? 시험을 치렀습니까?)

10201 # 시험이, 어느, 소핵교는 시험이 없었소.{시험이, 어느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었소.}

10201 @ 아, 별루 없었습둥?{특별히 없었습니까?}

10201 # 없었뻬소.{없었었소.}

10904 @ 음. 음. 그러문 바당물고기::는 인제 정어리를 제일 많이 잡우셨구. 예.{음. 음. 그러면 바닷물고기는 이제 정어리를 제일 많이 잡으셨고. 예.}

10904 # 아, 싹 정어리. 싹 잡지. 그래무 그 정어리 정어리 그물에 그런 것두 문에두 나오구. 그 이 막씨나 그리 크재~인게. 문에, 문에. 오시미노끄(осьминог). 문에. 문에 퀘두 문에두 나오구. {아, 싹 정어리. 싹 잡지. 그러면 그 정어리 정어리를 잡다 보면 그물에 그런 것도, 문에도 나오고. 그 이만큼씩한 그리 크지 않은 놈이. 문어, 문어. 러시아 말로 오시미노끄(осьминог). 문어. 문어 게도 문어도 나오고.}

10904 # 기래구 저 사~어 사~이 직금 아꼐라(акула) 아꼐라(акула) 하재? 기 사~이 있재이? 사~어. 사~어두 나오구. 개 골배두 이만한 게 나오지. 골배나.{그리고 저 상어 상어 지금 러시아 말로 ‘아꼐라(акула)’, ‘아꼐라(акула)’ 하지 않소? 그 상어가 있잖소? 상어. 상어도 나오고. 그래 골뱅이도 이만한 것이 나오지. 골뱅이 등이.}

10904 @ 골배.{골뱅이.}

10904 # 아하! 구물에. 저~어리 구물에. 골배두 나오구. 다른 고기두 드문드문 나오지.{아! 그물에. 정어리 그물에. 골뱅이도 나오고. 다른 고기도 드문드문 나오지.}

10904 # 그러나 아 전체르 맨 저~어리 저~어리 나오지. 저~어리 잡지.{그러나 아 전체적으로 보면 맨 정어리 정어리가 나오지. 정어리를 잡지.}

10904 @ 그렇쥬요.{그렇쥬요.}

10904 # 고도~이도 혹시 나오. \*\*그가 직금 영게서 그런 에따(это) 예:…… 그 고기르 잊어뿌랬어 야~. 고려말르느 고도에지. 그 고도에두 정어리 그물에 들어오구. 저~어리 그물에 마이 들어오지 무시기.{고등어도 혹시 나오. 그거 지금 여기에서 그런 음 에…… 그 고기를 잊어버렸어 웁. 고려말로는 고등어지. 그 고등어도 정어리 그물에 들어오고. 정어리 그물에 많이 들어오지 무엇이든.}

10904 @ 그럼 아매! 골뱅:하구 고도가 하구 어티기 땀둥? 갈제임둥?(그럼 할머니! 골뱅이하고 고등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10904 # 정어리 구물에 들어오지.{정어리 그물에 들어오지.}

10904 @ 아니! 생긴 게 골배하구 고두~이.{아니! 생긴 것이 골뱅이하고 고등어.}

10904 # 골배 골배는 이렇게 고도에는 이렇게 저나 고도에 고기는 뚜릿뚜릿 \*\*온치지. 거이 싹 거저 뿌리뿌리사서. 이거 이거 이게 배때구 이 이런게. 이렇기 독한 독한 고기 고도~에. 아하. {골뱅이는 이렇게 고등어는 이렇게 저기…… 고등어 고기는 똥글똥글 \*\*하지. 거의 싹 그저 똥글똥글해서. 이거 이거 이게 배때기고 이 이런 것이. 이렇게 투실한 고기 고등어. 음.}

10904 # 에 잉게 그런 게. 새파란 등때기 새파란 새파아, 씨 씨이니(синий) 색이 나는 게 고도~에. 기래 큰 큰 큰 건 모지르 크지. 이막씨 이막씨 크게 고도~에 들어오지. 아하.{ 에 이렇게 그런 게. 새파란 등때기 새파란 새파아란, 러시아 말로 ‘씨이니(синий)’ 색이 나는 것이 고등어. 그래 큰 큰 큰 건 매우 크지. 이만큼씩 이만큼씩 큰 것이, 고등어가 들어오지 웁.}

10904 # 기게 살이 두껍지 그 고도에. 이리 뿌리뿌리서, 뿌리뿌리살다나йка나 살이 두껍지.{그것이

살이 두껍지, 그 고등어. 이리 몸통이 둥글둥글, 둥글둥글하니 살이 두껍지.}

10904 # 아, 원도~오 그거 그런 게는 우리 원동 물에는 그런 게.{아, 원동은 그거 그런 것은 우리 원동 물에는 그런 게 많았지.}

10904 @ 그럼 아매! 골배는?(그럼 할머니 골뱅이는?)

10904 # 가재미낭 땀태낭 기땅뻬히지.{가자미랑 명태랑 기가 막히지.}

10904 @ 아, 땀태.{아, 명태.}

10904 # 나~ 기랴구 게, 게. 다리게 야들 게. 퀘. 영게, 원도~서 떠나서 그 퀘르 못 밧지. 우리 못 구겨~ 했지.{응, 그리고 게, 게. 다리가 여덟 개. 게. 여기에, 원동을 떠나서 그 게를 못 밧지.}

10904 # 난 난 퀘 조오꼬마시적엔 퀘 제일 맛있는 갈습데. 퀘고기 제일 맛있는 갈습데.{우리는 구경을 못 했지. 난 난 게 조끄했을 적엔 게가 제일 맛있는 것 갈데. 게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갈데.}

10904 # 영게는 영게는 그런 그런 저나 크라블리이 빨로취까(краблный палочка)라 하지. 마우재 달은. 크라블리이 빨로취까(краблный палочка). 이래 것으느 쟈쟈빨간게, 기래 먹어 보무개두 퀘엔내 조곰 나오. 마가신(магазин)서 그런 공리사서 파지, 영게서.{여기는 여기는 그런 그런 저기…… ‘크라블라 빨로취까’라 하지. 러시아 사람들은. ‘크라블라 빨로취까’. 이렇게 걸은 새빨간 것이 그래 먹어 보면 그래도 게 내는 조곰 나오. 상점에서 상점에서 팔지, 여기서.}

10904 @ 공리사에서.{상점에서.}

10904 # 공리사서 파지. 기래두, 아! 죄외폼 게에 게 게 맛이 \*\*잇으 나 나오다. 음.{상점에서 팔지. 그래도, 아! 조곰 게의 게 게 맛이 있으며 게 맛이 납니다. 음.}

10904 @ 그럼 아매! 아까 고도~이 애기했습둥? 그럼 골배, 골배는 어티기 생겼습둥?(그럼 할머니! 아까 고등어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럼 골뱅이, 골뱅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10904 # 골배 내 아. 골배 이렇기 요렇기 생겼소 요렇기. \*영태느 뽀오죽한 게. 영게는 뽀오죽한 게. 이렇기. 아, 자 한국에 골배 없소? 없습둥?{골뱅이 내 아. 골뱅이가 이렇게 요렇게 생겼소 요렇게.}여기는 뽀죽한 게. 여기는 뽀죽한 게. 아, 저 한국에는 골뱅이가 없소?}

10904 @ 머 있겠는데, 근데 아매가 말씀하시는 골배:를 그게 어티기 생겼는지 잘 예 생각이 잘 생 각하우재꾸마.{뉘 있기는 있겠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골뱅이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예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10904 # 그 이 그 끝에 나가서는 뽀오죽하구 이렇기 이렇기 이렇기 생겼지. 이렇기 생겼지.{그게 이 그 끝에 나가서는 뽀죽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10904 @ 예.{예.}

10904 # 아하! 그래 그거 그거 살아시적에는 거저 못 꺾어 내지. 산 고기고야 그 고기르 끄서내지. {아! 그래 그것은 살아 있을 적에는 그저 못 꺾집어 내지. 산 고기이어야 그 고기를 꺾집어 내지.}

10904 @ 산거를.{산 것을.}

10904 # 아하 가매애 삶구라서[삼꾸라서] 그 고기르 끄서내지. 아하. 삶기[삼기] 전에는 못 끄서 내지.{ 아, 솥에 삶아야만 그 고기를 꺾집어 내지. 음. 삶기 전에는 못 꺾집어 내지.}

10904 @ 아! 그렇지.{아! 그렇지.}

10904 # 으흠. 기래구 원도~에 이시적에저 어 골배 고기두 맛있지. 문에 고기두 맛있지, 퀘 고기두 맛있지. 퀘고기. 아아.{음. 그리고 원도에 있을 적에는 어 골뱅이 고기도 땀있지. 문어 고기도 맛있지, 게 고기도 맛있지. 게 고기도. 아아.}

10904 # 기래 그래 원도~ 이시적에는 그런 거 그런 저나 (혀 차는 소리)……. 소, 소~에랑 민물에  
있지 다(да)?{그래 원동에 있을 적에는 그런 거 그런 저가…… (혀 차는 소리)……. 소, 송어  
랑 민물에 있지 응?}

10904 @ 그렇지.{그렇지.}

10904 # 소~에 소~에 연어요 소~예요 민물에 있지.{송어, 송어 연어요 송어요 민물에 있지.}

10904 @ 예, 그렇습지.{예, 그렇지요.}

10904 # 강물에 없지 소~에. 내 그거 으 저나 파우집 가시 적이 그런 거 내 봤지. 원도~ 고려 고려  
초이 이림이 파우집이라구 그런게 있어. 갠테 물이 그 그렇기 영 민물이 네레가지. 기래~이께  
소에들이 소에구 연에구 이런 게.{강물에 없지 송어. 내가 그거 음 저기…… 파우집에 갔을  
적에 그런 거 내가 봤지. 원동 고려 고려촌(韓人村)의 이름이 ‘파우집’이라고 그런 것이 있어.  
그런데 물에 그 그렇게 영 민물이 내려가지. 그러니까 송어들이 송어고 연어고 이런 게 (있  
지).}

10904 # 그런 낚실르 아이 잡구 무슬르 찍어 잡테. 무슬르 잡습테. 내 밧소. 내 밧소.{그런 낚시로  
안 잡고 작살로 찍어서 잡테. 작살로 잡터군요. 내가 봤소. 내가 봤소.}

10904 @ 이렇기 탁 띄어서.{이렇게 탁 찍어서.}

10904 # 아하! 물이 물이 거저 민물이 그룽기 영 또 이런 게 크지. 물이. 개 그 물이 소~에구 연에  
구 갠테 무슬르 싹 찍어 낚실르 아이 잡구 싹 무슬르 찍어.{아! 물이 그저 민물이 그렇게 영  
또 이런 게 크지. 물이. 그래 그 물에 송어고 연어고 많은데 그런데 작살로 싹 찍어. 낚시로  
안 잡고 싹 작살로 고기를 찍어.}

10904 @ 무스?{‘무스’?}

10904 # 무슬르.{작살로.}

10904 @ 무스가 뎡등?{‘무스’가 무엇입니까?}

10904 # 아, 무슬르 이렇기 탁 이래지.{아 작살로 이렇게 탁 이러지.}

10904 @ 러시아 말임등? 무스?{러시아 말입니까? ‘무스’라는 것은?}

10904 # 노시아 노시말으느. \*\*하와 노시아말르느 무시긴가. 노시아말르 개서, 고려말르 무시지. 아  
노시아말으느.{러시아 러시아 말은. 러시아 말로는 무엇인가? 러시아 말로 해서, 고려말로 ‘무  
시’지. 아 러시아 말은.}

10904 @ 고려말르 뭐라고요?{고려말로 무엇이라고요?}

10904 # 고려 고려말르 무시.{고려 고려말로 ‘무시’}

10904 @ 무스.{무스.}

10904 # 무슬르 확 찍이지. 확 찍이지. 다(да) 무슬르.{작살로 확 찍지. 확 찍지. 응 작살로.}

10904 @ (혼잣말로) 무시가 뭐까? 음 작 작살 같은 건데.{(혼잣말로) ‘무시’가 무엇일까? 음 작살 같  
은 것인데.}

10904 @1 지다만 그 잘기에 요기 뽀족한 세로?{기다란 그 자루에 요기를 뽀족한 쇠로 만든 것입니  
까?}

10904 # 나~ 나~ 이 이룽기 기래구 이룽기 이룽기 저나 무시 이룽기 하구서 영게 이룽기 이룽기  
생겔습테, 무시. 기래이께 각 찍으무 잉게 걸케서 뺏어지지 말라구. 그룽기 헛습테. 무스. 내  
밧소. 그전에 내 쪼오꼬말 적에.{응, 응 이렇게 이렇게 저기…… 작살을 이렇게 하고서 여기  
에 이렇게, 이렇게 생겔테, 작살. 그러니까 콧 찍으면 여기에 걸려서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헛테. 작살. 내가 봤소. 그전에 내가 쪼꼬말 적에.}

10904 @ 그걸 무시라구 함등?{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0904 # 아하! 무스.{아! ‘무스’(작살).}

10904 @ 그제 마우재말이 아이까?{그것이 러시아 사람의 말이 아닐까?}

10904 # 무시, 마우재말이 아이오. 고려말이오. 무시.{‘무시’, 러시아 사람 말이 아니오. 고려말이오.  
‘무시’는.}

10201 @ 그럼 곱 같은 것두 있었습등? 곱:.{그럼 원동에는 곱 같은 것도 있었습니까? 곱.}

10201 # 내사 못 밧지. 누(ну) 산에 잇다는 소리 들었지. \*보 보지사는 못했지.{나야 못 밧지. 음,  
산에 잇다는 소리는 들었지. 보지는 못 했지.}

10201 @ 그럼 아매가 보신 그 산즙승은 뭐가 있었습등? 그매 나호드까 사실 때?{그러면 할머니가  
보신 그 산즙승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호드카 사실 때?}

10201 # 나호드까 살 적이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잡아온거 밧:갯지. 밧돼지르. 밧돼지.{나호드카 살  
적에 혹시 그런 거 잡아온 거 봤했지. 밧돼지를. 밧돼지를.}

10201 @ 밧도티.{밧돼지.}

10201 # 밧도치 다(да), 밧도치.{밧돼지 응, 밧돼지.}

10201 @ 그럼, 집즙승은 뭐가 있었습등?{그럼, 집즙승은 뭐가 있었습니까?}

10201 # 집즙시: 대애지 잇구 닭이[다기] 잇구 그저 개두 잇구. 누 고렷사람이 원동서 그것백이 더  
무시기.{집즙승으로 돼지 있고 닭이 있고 그저 개도 있고. 고려 사람 원동에서 그것밖에 더  
무엇이…….}

10201 @ 산즙승은 뎡 뎡:이나 여끼나 승내:나…….{산즙승은 범이나 여우나 승냥이나…….}

10201 # 여 여끼나 승냐~이나 그런게사 밧지.{여우나 승냥이나 그런 것이야 봤지.}

10201 @ 아! 밧습등?{아! 봤습니까?}

10201 # 밧지. 여끼르 밧지. 승냐~이두 밧지.{봤지. 여우를 봤지. 승냥이도 봤지.}

10201 @ 무섭게 생겔습등?{무섭게 생겔습니까?}

10201 # 여끼느 한 번으 우리 허재이(хозяин)두 한 번 잡았지.{여우는 한 번은 우리 남편도 한 번  
잡았지.}

10201 @ 누가 잡았다구?{누가 잡았다고?}

10201 # 우리 내 내 남편.{우리 내 남편.}

10201 @ 호새비?{‘호새비’?}

10201 # 내 남편이, 내 남 남편. 내 내 남편. 그거 우리 저: 우슈토베 그 우리 우리 허 내 우리 허  
생이 우리 췌인인데 내 시 시집와서. 네 해르 네 해르 꼬호즈서 살아밧지. 꼬호즈 고려말르  
미시긴가.{내 남편이, 내 남편. 내 남편. 그거 우리 저 우슈토베 그 우리 우리 남 내 우리 남  
편이 우리 주인(=남편)인데 내 시 시집와서. 네 해를 네 해를 꼴호스에서 살아 봤지. 꼴호스,  
고려말로 ‘꼴호스’는 무엇인가?}

10201 @ 꼴호즈라구.{‘꼴호스’라고 하지요.}

10201 # 꼴호즈 꼴호즈서 네 해르 살아밧지. 네 해르 살아바두 난 일은 아이 해밧지. 할릴오다 일  
은 나가 아이 했지.{꼴호스 꼴호스에서 네 해를 살아 봤지. 네 해를 살아 봐도 난 일은 안 해  
봤지. 하루도 일을 나가서 안 했지.}

10201 # 그래 그 산에 산에 산에 허 우리 췌에니 산에 그 꼬호즈 산 산에다 산 채밀의 수무재오?  
채밀의. 채밀의 산에다 수무재오.{그래 그 산에 산에 산에 남(편) 우리 남편이, 산에 그 꼴호  
스 산 산에다 밀을 심지 않소? 밀을. 밀을 산에 심잖소.}

10201 # 기렘 그 채밀의 가슬에 저나 싹 가슬하구서리 거기다 씨 까무 씨르 채밀 씨르 밧 심에 톤  
으 이래 쿠게 쿠게 집우 져었지. 거기다 채밀 씨르 가뜩 거더 열지, 그 안에다.{그럼 그 밀을

가을에 저기…… 썩 가을을 하고서 거기다 씨, 까면, 씨를 밀 씨를 몇 십 톤을 저장할 수 있는 집을 크게 크게 지었지. 거기다 밀 씨를 가득 거두어 넣지. 그 안에다.}

10201 # 개 봄에 나가 또 시무지. 가을에두 수무구. 가을에두 수무구. 그래 경계 가서 채밀 씨르 지켰지.{그래 봄에 나가 또 심지. 가을에도 심고. 가을에도 심고. 그래 거기에 가서 밀 씨를 지켰지.}

10201 # 기래구 기래구 사름 사는 또 집이 한내 잊지 음. 그럴 적이 산에 가서 그런 거 여꼬 잡아 여끼 잡아왔어.{그리고 사람 사는 집이 한 채가 있었지 음. 그럴 적에 산에 가서 그런 거 여우를 잡아, 여우를 잡아 왔어.}

10201 # 여끼 잡아 그래 껌데기 뱃게서 그래 그런 여끼 잡은 거 내 밧지. 승냥이두 와서 땡기지 음.{여우 잡아서 그래 가죽을 벗겨서, 그래 여우 잡은 것을 내가 보았지. 승냥이도 와서 다니지 음.}

10201 @ 뭐가?{뭐가?}

10201 # 승냥이 땡기우. 잉기 산은 산으로 그 그 우리 사는 경계 말구 산으로 그 그런 거 저나 사여~ 여끼 사여~이나 \*가무나 가무 승내덜 땡기는 게 잊지. 음 잡준 못했지.{승냥이 다니오. 이렇게 산은 산으로 그 그 우리 사는 거기 말고 산으로 그 그런 거 저기…… 사냥 여우 사냥이나 가면 승냥이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지. 음, 잡지는 못했지.}

10201 @ 그제 집에 내려와서 무슨 즘승을 잡 잡아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둥?{그제 집에 내려와서 무슨 즘승을 잡아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10201 # 없습집.{없었지 뭐.}

10201 @ 머 도투새끼르 잡아가거나 머 닭으 물어가거나…….{뭐 돼지새끼를 잡아가거나 뭐 닭을 물어가거나…….}

10201 # 니일(нет)! 우리 우리 경계선 우리 허재인(хозяин) 저 우리 남재가 들어 있다나 거기는 집에 저런 즘시~덜 한나투 없었지. 그저 사름만 우리 두올이 그 채밀 씨르 지 지켰지. 채밀 씨르.{아니! 우리 우리 거기선 우리 남편 저 우리 남편과 내가 들어 있다 보니 거기는 집에 저런 즘승들이 하나도 없었지. 그저 사람만 우리 들어 그 밀 씨를 지켰지. 밀 씨를.}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꼬호즈 꼬호즈 채밀 씨르 \*지이. 그거. \*싼 큰집에다 영는 거 그거 집우 지켰지. 기래메시리 경계서 우리 들어 살았맏지. 한 해 한 해 동삼우.{콜호스 콜호스 밀 씨를 지켰지. 그거. 큰집에다 넣는 거 그거 집을 지켰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들어 살았맏지. 한 해, 한 해 겨울을.}

10201 @ 그렇습지. 음.{그렇지요. 음.}

10801 @ 그럼 원둥에서 아매 그:: 멧살날은 무슨거 했습둥? 어티기 뭘 해 잡수셨습둥?{그렇지요. 음. 그럼 원둥에서 할머니! 그 멧절날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뭘 해 잡수셨습니까?}

10801 # 멧살날에 지금은 우 우리 할머니나 이시적이 내 그 적이 할머니 이실 적이 내 조오꼬맏맏지.{멧절날에, 지금은, 우 우리 할머니나 있을 적에 내 그 적에 할머니가 있을 적에 내가 쪼꼬맏맏지.}

10801 # 개래 무슨 어떤 때 무슨 기림인두 무슨 그 적 조오꼬마시때 몰랐지. 어떤 때무 여러 가지 쌀으 영터문. 무슨 아하 입쌀이구 무슨 조이쌀이구 무슨 무슨 쇼 에따(это) 새까만 찰 찰이 새까만 찰두 있더구만 나~. 있어? 경계도 있소? 내지두?{그래 무슨 어떤 때 무슨 기념인지 무슨 그때 쪼꼬맏맏을 때라 몰랐지. 어떤 대 무슨 여러 가지 쌀을 영터군요. 무슨 아 입쌀이고 무슨 쭈쌀이고 무슨 무슨 어 새까만 찰도 있더구만 응. 있어? 거기에도 있소? 내지에도?}

10801 @ 예.{예.}

10801 # 새 김정 찰두 있구 셋노란 찰두 있구.{새(까만) 김정색으로 차진 것도 있고 셋노랑계 차진 것도 있고.}

10801 @ 음.{음.}

10801 # 아, 그래무서 밥시끼구 무시기구 무슨 여러 가질 해서 그거 무슨 날인지 여러 가지 밥우 해 먹습덤. 다스 다숫가지 밥이 아따. 기계 무슨 날이우?{아, 그러면서 수수고 무엇이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거 무슨 날인지 여러 가지 밥을 해 먹더구면. 다섯, 다섯 가지 밥이지 아따. 그게 무슨 날이오?}

10801 @ 보름날. 정월보름날.{보름날, 정월 보름날.}

10801 # 정월 보름날? 오 오각가지 밥우 한다, 다(да)?{정월 보름날? 오, 오곡밥을 한단지, 응?}

10801 @ 오각밥이라구.{오곡밥이라고.}

10801 # 오각밥이.{오곡밥.}

10801 @ 저두 들었습꾸마. 파시켄트에서. 오각밥이라구.{저도 들었습니다. 타시켄트에서. 오곡밥이라고.}

10801 # 오각밥이라구. 다숫가지 다숫가지 썩 열어서.{오곡밥이라고. 다섯 가지를 다섯 가지를 썩 열어서.}

10801 @ 무슨거 무슨거 다숫 가지를 너 넣었습둥?{무엇 무엇 다섯 가지를 넣었습니까?}

10801 # 아, 예떠(это) 그런 거. 내 원동서.{아, 음 그런 거. 내 원동에서.}

10801 @ 뭐 지재~이두 넣구.{뭐 기장도 넣고.}

10801 # 지재~이두 농구..{기장도 넣고.}

10801 @ 조이 농구.{조도 넣고.}

10801 # 조이 농구. 김정지재~이두 농구.{조를 넣고. 김정 기장도 넣고.}

10801 @ 김정지재~이 넣구.{김정기장도 넣고.}

10801 # 차입쌀두 영구 거저 입쌀두 영구.{참쌀도 넣고 그저 입쌀도 넣고.}

10801 @ 거저 입쌀, 그렇지 입쌀르. 차입쌀두 영구. 아아. 그래구 그:: 뭐 설날이나, 설날에는 무슨거 했습둥? 설날? 너버이 고드(Новый год).{그저 입쌀, 그렇지 입쌀로. 참쌀도 넣고. 아아. 그리고 그 뭐 설날이나, 설날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설날? 설날?}

10801 # 너버이 고드(Новый год). 너보이 고드(Новый год). 그전에는 그런 거 무슨 시리떡두 해 애 먹구 기랬지. 아, 직금 너버이 고드(Новый год)느 마우재처를 뱅세르 썩 해 먹지.{새해. 새해. 그전에는 그런 거 무슨 시루떡도 해 먹고 그랬지. 아, 지금 새해는 러시아 사람처럼 뱅세를 썩 해 먹지.}

10801 @ 아, 뱅세르.{아, 뱅세를.}

10801 # 배 뱅세르 메를 \*앞어서는 농구서리 썩으 썩으 얼 얼구 얼구지. 헐리지지 헐리지니르(холодильник) 아이래두 꺾 꺾리토리(коридор)다 농우무 칩아서 썩 얼지.{배 뱅세를, 며칠 \*\*\*\* 농고서 썩을, 썩을 얼리, 얼리지. 냉장고가 아니라도 현관에다 놓으면 추워서 썩 얼지.}

10801 # 기래무 뱅세두 해애 먹구. 노시아. 지 직금 다 다쑤루 노보이고드(Новый год)느 마우재처를 뱅세르 해 먹지. {웃음.}{그러면 뱅세도 해 먹고. 러시아. 지, 지금 다 대부분 새해에는 러시아 사람처럼 뱅세를 해 먹지. {웃음.}}

10801 # 기래구 재빌루 그럴 적이느 저런 차 차입쌀밥이두 해애 먹구. 기래구 무슨 기래구 회두 있구 해 먹으문서.{그리고 자기 고려식으로 해 먹을 때는 저런 참쌀밥도 해 먹고. 그리고 뭐 그리고 회(脛)도 있고 해 먹고.}

10801 @ 회? 무슨거 회이까?{회(脮)? 무슨 회일까?}

10801 # 나는 그 회르 원도~서 원도~서부터 조오꼬말 적부터 어찌 나는 회르 내 입에다 아이 열지. 지금두 아이 먹지. 그거 새 생고길르, 회르 생고길르 하지. 쇠고기.{나는 그 회를 원동에서 원동에서부터 조꼬말 적부터 어찌 나는 회를 입에다 안 넣지. 지금도 안 먹지. 그거 생고기로, 회를 생고기로 하지. 쇠고기.}

10801 @ 응. 다(да), 다(да).{응. 네, 네.}

10801 # 아하! 쇠고길르두 하구. 저 물고길르두 하구. 음. 쇠고길르. 여기서 다쭈루 쇠고길르 하오. 쇠고길르.{아! 쇠고기로도 하고. 저 물고기로도 하고. 음. 쇠고기로. 여기서는 대부분 쇠고기로 하오. 쇠고기로.}

10801 @ 회로?{회로?}

10801 # 아하! 웨엔 뒷달개 고기, 그런 거 그런 게 한나투 없는 거 맨 그런 맨 검정살르서리.{아! 뒷달개 고기(?), 그런 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 맨 그런 맨 살코기로서.}

10801 @ 으음.{음.}

10801 # 그래 쇠고기 회르 다쭈루 영계서 하구. 음. 군일이무, 군일이.{그래 쇠고기 회를 대부분 여기서 하고. 음. 큰일(大事)이 있으면, 큰일이 있으면.}

10801 @ 군일에.{큰일에.}

10801 # 다(да) 군일. 무슨 혼세나 무슨 한갑이나 무시기 무스 그저 군일이무 여러 가지 회르 하지.{응 큰일. 무슨 혼사나 무슨 환갑이나 무슨 무슨 그저 큰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회를 하지.}

10801 @ 으음.{음.}

10801 # 그 기래구 그런 에따(это) 기계 미시기오? 쇠 안찢은 그것두 쇠 안찢은 싹 삶아서 검줄하지. 삶아서.{그 그리고 그런 음 그게 무엇이오? 소 내장은 그것도 소 내장은 싹 삶아서 깨끗하게 하지. 삶아서.}

10801 # 아, 생거는 물고기가 쇠고기르 새 생 생 메아서서 그렇기 하지.{아, 생것은 물고기와 쇠고기를 생것을 무쳐서는 그렇게 하지.}

10801 # 옥수수(уксус)는 옥수수(уксус)다 처서 그렇기 하지.{식초는, 식초에다 처서 그렇게 하지.}

10801 # 아, 그런 거는 쇠고기 그런 안찢이랑 그런 싹 삶아서 삶아서 하지. 기래구 닭이 그런 거 닭이 에 저나 또쨌(тоже) 닭이 안찢 잇재오? 고거 싹 그거 그전 해는 그전 해는 없었어. 영계서 싸재두 싸 먹재두 없어서 못 싸먹었지.{아, 그런 것은 쇠고기 그런 내장이랑 그런 것을 싹 삶아서 삶아서 하지. 그리고 닭 그런 것은 닭 에 저기…… 역시 닭의 안찢이 있잖소? 고거 그거 그전 해에는 그전 해에는 없었어. 여기서 사려고 해도, 사 먹자고 해도 없어서 못 사 먹었지.}

10801 # 기랜게 올헤는 올헤는 저거 드문드문 파는 게 잇단 말이. 난 처음 난 그게 그렇기 소원이 지 나두. 그 그렇기 소원이. 아 기랜게 싸재두 \*없엇담등 없다는, 없었소. 켜게 올헤 올헤 처암 검줄 아이 한 거. 거저 이래 쭉쭉 빼서 거저 빼서 그래 얼거서 저나 실어온 거. 그거 개 올헤 올헤는 \*게게 저 드문드문 잇어. 그전에는 싸 싸 사먹재두 없었어.{그런데 올헤는, 올헤는 드문드문 파는 것이 잇단 말이오. 난 처음 난 그것이 그렇게 먹기 소원이었지. 나도. 그렇게 소원을 했지. 아, 그런데 사려고 해도 없엇단 말이오, 없었소. 그러던 것이 올헤, 올헤 처음 다듬어 썰지 아니한 거. 그저 이렇게 쭉쭉 빼서 그거 빼서 그래 얼려서 저기…… 실어온 것. 그거 올헤, 그전에는 (없었는데), 드문드문 잇어. 그전에는 사 먹으려 해도 없었어.}

10801 @ 그게 아매! 안찢이라구 하는 게 막뒤르 말함둥? 똥집이나?{그거 할머니! ‘안찢’이라고 하는

것이 ‘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혹은 똥집이나?}

10801 # 똥집이!{똥집!}

10801 @ 똥집이지.{똥집이지.}

10801 # 똥집이 기계 기계 저 그 에따(это) 달기계, 달그게.{똥집, 그게 그게 저 거 그 음 닭의, 닭의.}

10801 # 그 오리계랑 못 쓰겠어. 그건 검줄 아이 해지지. 그저 닭이 게 제일 훨지. 닭이 게 제일 좋지.{그 오리의 것은 못 쓰겠어. 그건 무슨 깨끗이 다듬어지지 않지. 그저 닭의 것이 다듬기 제일 쉽지. 닭의 것이 그게 제일 좋지.}

10801 @ 그럼 아매! 이제 설날에는 시르떡두 해 먹구 뽕세두 해 먹구.{그럼 할머니! 이제 설날에는 시루떡도 해 먹고 뽕세도 해 먹고.}

10801 # 개 기래구 오구랑떡은 어느 때 해먹는가? 우리 오구랑떡두 해먹었지.{그래 그리고 오구랑떡은 어느 때 해 먹는가? 우리 오구랑떡도 해 먹었지.}

10801 @ 아! 나호드카에서?{아! 나호드카에서?}

10801 # 나호드카에서두 그렇구 잉게서두 그렇구.{나호드카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10801 @ 잉게서두?{여기서도?}

10801 # 잉게서두. 어느 날이무 오구랑떡 해 먹? (웃음).{여기서도. 어느 날이면 오구랑떡을 해 먹소? (웃음).}

10801 @ 설날 동지 아닐까? 동짓날 오구랑떡을 해 먹는 거 아임둥?{설날 동지 아닐까? 동짓날 오구랑떡을 해 먹는 것이 아닙니까?}

10801 # 그저 무스 어느 어느 뽕슬인두 뽕슬이무 또 저 그런 거 오구랑떡으.{그저 무슨 어느 어느 명절인지 명절이면 또 저 그런 거 오구랑떡을 해 먹지.}

10801 @ 동짓날이라구.{동짓날이라고.}

10801 # 음, 오그랑떡 해먹노라: 기랬지.{음, 오구랑떡을 해 먹노라 그랬지.}

10801 @ 그 오구랑떡은 무스걸르 만들었으까요?{그 오구랑떡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10801 # 오구랑떡으두 저나 그런 거. 갈그 입쌀 갈그 입쌀 그거 입쌀갈게다 그건 차 찹입쌀 조금 섞지. 맛이 잇으라구. 기래 조금 섞어서 그거 갈그 내에서 그 담에 저나 야약간 이룻기 그런 따갑운 물에 잉머리해서 그래 데게 데게 이계야 하지. 기래 요래 비벼서 꼭꼭 눌러서 오그랑떡이.{오구랑떡도 저기…… 그런 거. 가루를 조금 섞어서 그거 가루를 내서 그 다음에 저기…… 약간 이렇게 그런 뜨거운 물에 익반죽을 해서 그래 되게 되게 이겨야 하지. 그래 요렇게 비벼서 꼭꼭 눌러서 오구랑떡이 되지.}

10801 @ 잉기 또웅그렇게 새알처럼?{이렇게 똥그렇게 새알처럼?}

10801 # 그래 이래 이래 누(ну) 새알처럼 해애두 일없구. 잉게서는 요리 꼭 눌러서. 요래 \*\*했잖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음 새알처럼 해도 괜찮고. 여기서는 요리 꼭 눌러서. 요렇게 \*\*했잖아.}

10801 @ 어디르?{어디를?}

10801 # 누(ну) 요 또리또리산 데 요래서.{음. 요 둥글둥글한 데를 요렇게 해서.}

10801 @ 한가운데르.{한가운데를.}

10801 # 아하, 이래서 하지. 그래서두 해애 먹지.{아! 이래서 하지. 그래서도 해 먹지.}

10801 @ 그러니까 거기다 머 패끼는 아이 영슴둥?{그러니까 거기다 뭐 팔은 안 넣습니까?}

10801 # 패끼르 열어나 열코오 열어나.{팔을 넣거나 강낭콩을 넣거나 하지.}

10801 @ 아아, 패끼르.{아, 팔을.}

10801 # 꼭 영어야 하지. 맨 그거 아이 데지. 패끼 패끼두 열지.{꼭 영어야 하지. 맨 그것으로만 하면 안 되지. 팔 팔도 넣지.}

10801 @ 그게 오구램등?{그것이 ‘오구랑’(=새알심)입니까?}

10801 # 기계 오구래.{그것이 오구래.}

10801 @ 오그랑떡임등? 오그램등?{‘오구랑떡’이라 합니까? ‘오구래’라 합니까?}

10801 # 오그랑떡이지. 누(ну) 오그랑죽이. 오그랑죽이.{‘오그랑떡’이지. 음. ‘오그랑죽’(=팔죽). 팔죽.}

10801 @ 얼콩이나 팔올루.{강낭콩이나 팔으로.}

10801 # 패끼 열어나 열코오 열어나. 패끼 없으무 열코~오 열구.{팔을 넣거나 강낭콩을 넣거나. 팔이 없으면 강낭콩을 넣고.}

10801 @ 그렇지.{그렇지.}

10801 @ 음. 그러면은 어티기 하는 검등? 아매. 먼저:: 패끼나 얼콩을 물에다 넣어서 끓임등?{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할머니. 먼저 팔이나 강낭콩을 물에다 넣어서 끓입니까?}

10801 # 다아 끓ैया지. 다아 끓이구 다아 끓이구 그 담에 마감에 이거 열지.{다 끓ैया지. 다 끓이고 다 끓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을 넣지.}

10801 @ 오구래르 열지 마감에.{새알심을 넣지 마지막에.}

10801 # 그 열코~이나 잘 익히야 하지. 패끼나. 일리(или) 패끼나 열코~이나 잘 익히야 하지. 다아 자알 익은 연에 그담에 그거 오구래르 요래 장물에다 널도맥에다 해 뵈:다서 그 담에 그거…….{그 강낭콩 같은 것을 잘 익히야 하지. 팔이나. 혹은 팔이나 강낭콩이나 잘 익히야 하지. 다 잘 익은 연후에 그 다음에 그거 새알심을 요렇게 국에다 널 도막에다 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10801 @ 그러면은 삼월삼진날::에느 무스거 했슴등?{그러면 삼월 삼진날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10801 # 삼월?{삼월?}

10801 @ 삼진날.{삼진날.}

10801 # 삼진날이 무시긴가?{삼진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0801 @ 음력으르 삼월 삼일. 삼월 초사흔날?{음력으로 삼 월 삼 일. 삼 월 초사흔날?}

10801 # 아, 그건 모르지.{아, 그건 모르지.}

10801 @ 아, 모름등?{아 모릅니까?}

10801 # 모르. 그저 저나 여자덜 해 해방 찾는 여자덜 기림이나 아지. 삼월 팔일. 삼월 팔일.{모르. 그거 저기…… 여자들이 해방을 찾는, 여자들이 쇠는 기념일이나 알지. 삼월 팔일. 삼월 팔일.}

10801 @ 삼월 팔일.{삼월 팔일.}

10801 # 누(ну), 삼월팔일.{음, 삼월 팔일.}

10801 @ 여자해방일.{여자 해방일.}

10801 # 누(ну), 여자해방일. 여자해방인 거 여자해방일 기림에 우리 이룩기 싹 이 모다서 모다서 노지. 삼월 팔일. 올해두 놀았지. 해마다 이렇기 저 스톨로보이(столовая)나 이래 까페나 가서.{음, 여자 해방일. 여자가 해방이 된 거 여자 해방 기념일에 우리 이렇게 싹 이 모여서 모여서 놀지. 삼월 팔일. 올해도 놀았지. 해마다 이렇게 저 식당이나 이렇게 카페나 가서.}

10801 @ 스톨로보이(столовая){식당.}

10801 # 톨로보이(столовая) 일리(или) 까페(кафе)나 가서. 모다서. 음. 우리네 올해 노인단이 저 싹 이룩기 해마다.{식당 또는 카페에 가서. 모여서. 음. 우리네 올해 노인단이 저 싹 이렇게 해마다.}

10801 # 노인단에. 기래구서르 오월단오두 올해느 해마다 우리 쇠지. 삼월 팔이구 오월 단오구 그 해마다 우리.{노인단에. 그리고서 오월 단오도 올해는 해마다 우리 쇠지. 삼월 팔일이고 오월 단오구 그 해마다 우리 쇠지.}

10801 # 올해 올해두 정::게 우슈토베 가는데 악또부스(автобус) 앉아서 그거 까라팔 역에 가서 탈 디꾸르간, 까라블라그, 켜에끼리, 우슈토베(Уш-тобе) 이래 오지 전국에서 싹 다. 오월 단오문. 기램 경계 가서 가매나 그 가스 가스 가스 발로낭(баллон) 가져가구 가매나 가져가. 뽀로, 마우재 임석은 뽀로브두 해:먹구. 기래 재비 그런 데 갈 적인 재빌르 싹 가져가지. 음식으.{올해 올해도 저기에 우슈토베 가는데 버스에 앉아서 그거 까라팔 역에 가서 탈디꾸르간, 까라블라그, 켜끼리, 우슈토베에서 이렇게 오지. 전국에서 싹 다. 오월 단오면. 그러면 저기에 가서 술이나 그 가스 가스 가스 \*\*\*를 가져가고 술이나 가져가. 뽀로프, 러시아 사람 음식인 뽀로프로 해 먹고. 그래 자기가 그런 데 갈 적에는 자기가 싹 가져가지. 음식을.}

10801 # 기래 경계 가서는 그거 뽀로브 뽀로브 마싸(мясо)르 가지구 가서 거저 그저 거기서 뽀로브르. 아, 먹을 거두 해엿이구 수올이구 싹 재빌르 가지구 가지. 술한 사람이 싹 다 가지구 가지.{그래 저기에 가서는 그거 뽀로프 뽀로프, 고기를 가지고 가서 그저 거기서 뽀로프를 해 먹지. 아, 먹을 것도 반찬이고 술이고 싹 스스로 가지고 가지. 술한 사람이 싹 다 가지고 가지.}

10801 @ 그렇구나.{그렇구나.}

10801 # 으흠. 그래 오월 단오 보니 해마다 그렇기 세지. 오월 단오. 다른 사람두 머 다른 사람두 그렇기 새갓지. 우리 노인단이 그렇기 새. 노인단이 해마다…….{음. 그래 오월 단오를 해마다 그렇게 쇠지. 오월 단오를. 다른 사람도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쇠갓지. 우리 노인단이 그렇게 쇠어. 노인단이 해마다…….}

10801 @ 그럼 아매! 그:: 나호드까에서는 오월 단이 때는 무스거 했으까?{그럼 할머니! 그 나호드카에서는 오월 단오 때는 무엇을 했을까?}

10801 # 아, 그 적이무 그 적이 내 조오꼬망다나이 무슨 해암이 들었어? 오월 단오구 그거 나는 몰나는 몰랐지. 몰랐지.{아, 그 적이면 그 적에 내 조꼬망다 보니 무슨 철이 들었어? 오월 단오고 그거 나는 몰, 나는 몰랐지. 몰랐지.}

10801 @ 그 굴기 같은 거 매구서.{그 그네 같은 것을 매고서.}

10801 # 구 굴기 떼엿지. 굴기사 떼엿지. 원둥 이실 적에두 그것두.{그 그네를 뛰었지. 그네야 뛰었지. 원둥에 있을 적에도 그것도.}

10801 @ 그거 어티기 맨들었슴등?{그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801 # 기래구 널두 띠구. 널두 띠구. 저 우리 오월 단오는 그전에 우리 허재이(хозяин)는 내 켜엔만 이실 적에는 우리 싹 가문 큰 낭기 이룩기 어떤 거느 이룩기 이룩기 아치 이룩기 나가 지 두 칸 아치. 기래 경계 바아 가지구 가서 경계다가서 굴기르 매구. 굴기 뻗지. 굴기두 띠구.{그리고 널도 뛰고. 널도 뛰고. 저 우리 오월 단오는 그전에 우리 남편은 내 남편만 있을 적에는 우리가 싹 가면 큰 나무가 이렇게 어떤 것은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가지 두 가닥의 가지가. 그래 거기다, 밧줄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그네를 매고. 그네를 뛰었지. 그네도 뛰고.}

10801 # 원도~ 이실적에는 널으 뻗지. 새애가덜이 널으 띠지. 오 오월 단오나 그런 그런 뻗실이무 널으. 널띠기두 하구 굴기두 띠구 그랬뻗지.{원둥에 있을 적에는 널을 뛰었지. 여자아이들이 널을 띠지. 오 오월 그런 단오이니까 그런 명절은 널을. 널띠기도 하고 그네도 뛰고 그랬었지.}

10801 # 오월 단오는 우리 해마다 세지. 해마다 그양 세지. 그 고려 고려 고려 깔린다르(календарь) 깔린다르(календарь) 주지. 우리네르. 해마다 해마다.{오월 단오는 우리 해마다 쇠지. 해마다 쉬지 않고 쇠지. 그 고려 고려 달력, 달력을 주지. 우리에게 해마다, 해마다.}

10801 @ 어디서 줌등? 어디에서?{어디에서 줌니까? 어디에서?}

10801 # 모르지. 저어 저 알마파 어 하 한국에서 온 내지서 온 사름덜이 그 가져, 만들어 주는등? 어쨌등 모르지. 어쨌스던 알마파서 가져오지. 깔린다르(календарь) 해마다~ 해마다 어 우리 정월달이무 우리 썩 가지지. 저 보리실라 바실리찌(Борис Васильевич) 그 썩 다 주지 우리르. 음.{모르지. 저 저 알마티 어 한국에서 온 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가져, 만들어 주는지? 어떤지 모르지. 어쨌든 알마티에서 가져오지. 달력을 해마다 해마다 어 우리 정월달이면 우리가 썩 가지지. 저 보리실라 바실리찌 그 썩 다 주지 우리에게. 음.}

10801 # 가져다가 우리네 썩 다 농가 주지. 노인단 사름덜 썩 농가주지. 그렇다나이 해마다 그거 타지. 음.{가져다가 우리에게 썩 다 나누어 주지. 노인단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지. 그렇다 보니 해마다 그거 타지. 음.}

10801 @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에 여 잉게 와서두 그 굴기르 뻬엿습 뻬엿등?{아, 그러면, 그러면 에 원동에서 여기로 와서도 그 그네를 뻬엿습니까?}

10801 # 뻬재앵구! 노인단이. 이썩 오월단오 가무 저잉게 까라딸기에 물억으르 가무. 그 나 낭기덜이 가뜩 섰지. 개 그 낭게다 에 경게 가서 오월단오르 올해도 새엿다.{뻬죃고. 노인단이. 이 오월 단오에 가면, 저기 까라딸기에 있는 물가로 가면. 그 나무들이 가뜩 섰지. 그래 그 나무에다 에 거기에 가서 오월 단오를 올해도 쇠엿지.}

10801 @ 예, 새엿습 새엿습등?{예, 쇠엿습니까?}

10801 # 음. 네 군에서 온 게. 이 딸디꾸르간이구 까라꿀라구 제에끼리구 우슈토베(Уш-тобе) 사름덜이. 기래 압또부스(автобус)에 모도 실어오지. 아하, 푸~우 크다 지다::만 거 폐구 경게서 앓지. (웃음).{음. 네 곳에서 온 게. 이 탈디꾸르간이고 까라꿀라고 제끼리고 우슈토베 사람들이. 그래 버스에 모두 실어오지. 아! 천막을 크고 기다란 것을 펴고 거기에서 앓지. (웃음).}

10801 @ (웃음) 재미있겠습꾸마.{(웃음) 재미있겠습니다.}

10801 # 재미있지.{재미있지.}

10801 # 개 술 개래 그 무스 영게서는 그리 수울으 무스기 그리 아이 먹소 어전. 나야 먹어서 모도 사름덜이. 개두 수울으 두 사름이 두 사름이 하낙씨 한 평재씨 그래. 그 수울으 무시기 다아 먹개. 먹준 먹준댕는 거. 그래두 맹실이라구 가주 가지. 무슨 수울으 마시는데.{그래 술, 그래 그 무슨 여기서는 그리 술을 뉘 그리 안 먹소 이젠. 나이를 먹어서 모두, 사람들이. 그래두 술을 두 사람이 두 사람이 하나씩 한 병씩 먹지. 그 술을 뉘 다 먹겠소. 먹지는, 먹지도 앓는 거. 그래두 명절이라고 가지고 가지. 무슨 술을 마시는데.}

10801 @ 그럼 아매! 한식에는 무스거 함등?{그럼 할머니! 한식에는 무엇을 합니까?}

10801 # 한식에? 한식에…….{한식에? 한식에…….}

10801 @ 사월 한 초닷셋날쥌.{사월 한 초닷셋날쥌.}

10801 # 아, 그거는 그런 그런 기렘은 우리 아이 섰지.{아, 그거는 그런 기넌은 우리 안 쇠엿지.}

10801 @ 한식날, 아 산에 아이감등?{한식날, 아 산소에 안 갑니까?}

10801 # 아아! 산에, 그건 오 저 사월 초닷셋날?{아아! 산소에, 그건 오 저 사월 초닷셋날?}

10801 @ 그렇지, 사월초닷셋날.{그렇지, 사월 초닷셋날.}

10801 # 아아! 아아! 그럴 적에는 정계 가지. 허새~인인테르 가지.{아아! 아아! 그럴 적에는 거기에 가지. 남편한테로 가지.}

10801 @ 누구?{누구?}

10801 # 집집마다.{집집마다.}

10801 @ ‘허’?{‘허’(=허재인(хозяин))?}

10801 # 췌엔 잇는 데르 내 가지. 사월 사월 초닷셋날에.{남편 잇는 데를 내가 가지. 사월 사월 초닷셋날에.}

10801 @ 그렇지. 근데 아매! 췌엔으 뉘라구 하섰지? 지금? 허생이라구 했습등?{그렇지. 그런데 할머니! ‘췌엔’(=남편)을 뉘라고 하섰지? 지금? ‘허생’이라고 했습등?}

10801 # 이림이?{이름이?}

10801 @ 아니!{아니!}

10801 # 기래.{그래.}

10801 @ 아매 지금 남퍼이르 뉘라구 불르섯습등? 허생이라구 했습등?{할머니가 지금 ‘남편’을 뉘라고 불렀습니까? ‘허생’이라고 했습니까?}

10801 # 허재인(хозяин).{‘허재인(хозяин)’.}

10801 @ 허젠.{허젠.}

10801 # 노시아말르 노시말르 허재인(хозяин), 허재인(хозяин).{러시아 말로 러시아 말로 ‘허재인(хозяин)’ 허재인(хозяин).}

10801 @ 다(да), 다(да).{예, 예.}

10801 # 아, \*재 고려말르사 췌인이지.{아, 재 고려말로야 ‘췌인’이지.}

10801 @ 그렇지!{그렇지.}

10801 # 아하! 췌엔이지.{아! ‘췌인’(=남편)이지.}

10801 @ 췌엔이지.{‘췌엔’이지.}

10801 # 우리 내 췌엔이지. 췌엔이지.{우리 내 남편이지. 남편이지.}

10801 @ 그래 맞아! 허재인(хозяин).{그래! 맞아 허재인(хозяин).}

10801 # 췌엔이지.{남편이지.}

10801 @ 빠루스끼이(по-русски) 허재인(хозяин), 빠까레이스끼(по-корейски) 췌 췌엔이.{남편을 러시아 말로 ‘허재인(хозяин)’, 한국말로 ‘췌엔이’.}

10801 # 췌엔이지. 주인이지.{‘췌엔’이지. 주인이지.}

10801 @ 주인이지.{주인이지.}

10801 # 췌엔.{췌엔.}

10801 @ 췌엔.{췌엔.}

10801 # 췌엔.{췌엔.}

10801 @ 그럼 아매! 그리구 취석에는 뉘 취석에는 뉘하까요? 팔월?{그럼 할머니! 그리고 추석에는 뉘 추석에는 무엇을 할까요? 팔월에?}

10801 # 취석에두 산오르 가는 날이지? 음? 영게서 모도덜 저 오월달 오월 초닷셋날 가구. 어 고 고려는 팔월 보름날이지. 다(да)? 취석이 읍소? 취석인두 일리(или) 무슨 한식인두 야 모르오, 나 미시긴두~. 이게 한식이우? 초 사월 초닷셋날.{추석에도 산소로 가는 날이지? 음? 여기서 모두들 저 오월 달 오월 초닷셋날 가고. 어 고려는 팔월 보름날이지. 그렇지? 추석이 읍소? 추석인지 또는 무슨 한식이지 웅 모르오, 나는 무엇인지. 이게 한식이오? 사월 초닷셋날.}

10801 @ 그제 한식이고.{그것이 한식이고.}

10801 # 이게 한식이구 저썩 건 취썩이, 취썩이구 팔월 어.{후자는 한식이고 전자는 추석, 추석이고 팔월.}



10801 @ 보름.{보름.}

10801 # 고렐르 고렐르 \*싼 \*쓰 팔월보름날이무.{고려로 고려로 치면 팔월 보름날이면.}

10801 @ 그렇죠.{그렇죠.}

10801 # 취석이구.{추석이고.}

10801 @ 취석이구. 큰명절이꾸마.{추석이고. 큰 명절입니다.}

10801 # 글세 그래 내 깔린다레(календарь)다 쓴 게. 깔린다레(календарь)다 고렐글르 쓴 게 약~ 저기 팔월 팔월 추석날이무 기게 에따(это) 어 멍실이날인데 어째 추석 저쪽 저 저런 데 멍 기오? 멍실날이라 멍실인데. 팔월 취석이.{글세 그래 내 달력에다 쓴 것이. 고렐글로 쓴 것이 응 저기 팔월 팔월 추석날이면 그게 음 어 명절날인데, 어째 추석에 저쪽(=산소) 저 저런 데 다니오? 명절날이라 명절날인데. 팔월 추석이.}

10801 @ 멍실이꾸마.{명절입니다.}

10801 # 멍실인데 어째서 모 모오른 어째 가오?{명절인데 어째서 묘(墓), 묘로는 어째 가오?}

10801 @ 멍실이니까 어시덜 돌아가신 어시덜 그 우에 에 할미니 할애비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 동안 펜이 잘 계셨습니까:: 하구 인사하는 거죠.{명절이니까 부모들, 돌아가신 부모들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 동안 편히 잘 계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이죠.}

10801 # 아:: 아!{아, 아!}

10801 @ 우리 민족에 전통이꾸마.{우리 민족의 전통입니다.}

10801 # 거 이 한해 사월은 사월 사월초닷샬날 가구 팔월 보름날 가구.{거 이 한 해 사월 사월 사월 초닷샬날 가고 팔월 보름날 가고.}

10801 @ 그렇습지요. 취석날. 한국에서는 취석날 데무 메칠 노옴꾸마. 아무것도 아이하구.{그렇지요. 추석날. 한국에서는 추석날이 되면 며칠 놀니다. 아무것도 아니 하고.}

10801 # 어, 팔월 보름날?{어, 팔월 보름날?}

10801 @ 그럼!{그럼!}

10801 # 아! 그거 우리 아는가! 우리 모르지.{아! 그거 우리가 아는가! 우리는 모르지.}

10801 @ 여기는 인제 마우재가 다 댜으니까. (웃음).{여기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 다 되었으니까. (웃음).}

10801 # 그거 모르지. 알 알라문사 글세 알았으문사. 그전부터 알았으문 어째 늙은 그전에 늙은이 덜이 어째서 알았겠는데. 아 우리네는 모 모르오지. 나야 가뜰 먹여두 모르지. (웃음). 거저 팔월 취석이무 정계 산으르 가는 날인가. 하지.{그거 모르지. 알려면 글세 알았으면야. 그전부터 알았으면, 어째 늙은이, 그전에 늙은이들이 어째서 알았겠는데 (가르쳐 주지 아니했을가). 우리네는 모 모르지요. 나이를 잔뜩 먹여도 모르지. (웃음) 그저 팔월 추석이면 저기 산소로 가는 날인가 하지.}

10801 @ 그렇죠. 산소에 가는 날이죠.{그렇죠. 산소에 가는 날이죠.}

10801 # 아, 그래구서 거기다는 쓰기는 으 음:: 기게…… 누(ну) 그저 까ㄸ(как) 딱 기럼날처름 썼습데. 기럼날처름 썼습데.{아, 그리고서 거기다가 쓰기는 음 그게…… 음 그저 딱 기념날처럼 썼데. 기념날처럼 썼데.}

10801 @ 기럼.{기념.}

10801 # 아하! 기럼이. 기럼이라는 게 그게 뿌라즈드니ㄸ(праздник)라는 말이지.{아! 기념. 기념이라는 것이 그게 러시아 말로는 뿌라즈드니ㄸ(праздник)라는 말이지.}

10801 @ 그렇지. 뿌라즈드니ㄸ(праздник).{그렇지. 뿌라즈드니ㄸ(праздник).}

10801 # 아하! 그렇기 기럼날처름 경계다 썼습데. 깔린다르. 고려 고려 깔린다르(календарь).{아! 그렇게 기념날처럼 거기에다 썼데. 달력. 고려 고려의 달력에.}

10801 @ 그렇습지. 거기다 썼지 다아.{그렇지요. 거기다 썼지 다.}

10801 # 거기다 다아 썼습데. 거기다 썼습덤.{거기다(=달력에다) 다 썼데. 거기다 썼더군요.}

10801 @ 음.{음.}

## 1.4. 이민족과의 삶

@ 오후 공부르 시작하겠습꾸마. (웃음) 선생님 많이 가르쳐 주옵소 (웃음).{오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선생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웃음).}

# 이후! 재비 선생님이지. 내 아무것두 모르는 게. (웃음).{어이구! 자기가 선생님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웃음).}

@ 아니! 내 선생님이무 제 마러 여기에 왔습등?{아니! 내가 선생님이면 제가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습니까?}

# (웃음).{(웃음).}

@ 아매! 그:: 아까 말씀하실 때에 그 둥간(Дунгане) 얘기 하셨재임등?{할머니!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둥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까?}

# 둥 둥간(Дунгане)들이 이 잇다는 소리는 들어두 내 그 사름덜 말은 못 들었어 어쩐두.{둥 둥간족들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도 그 사람들 말은 못 들었지, 어쩐지.}

@ 어드메 여기 까자 까자흐 어드메 많이 사암등? 둥간(Дунгане)들이?{어디 여기 카자흐스탄 어디에 많이 삽니까? 둥간족들이?}

# 둥간(Дунгане)덜이 둥간(Дунгане)덜이 둥간(Дунгане)덜이 아무래 저어 뻘필로프(Панфилов)라구 있어. 끼따이(китай) 절에. 뻘필로프. 경계 둥간(Дунгане)덜이 살구. 기래구 위구르덜이 마이 살구. 경계. 어 뻘필로프(Панфилов).{둥간족이 둥간족이 아마 저 뻘필로프라고 있어. 중국 곁에. 뻘필로프. 거기에 둥간족이 살고. 그리고 위구르족이 많이 살고 거기에. 어 뻘필로프.}

@ 음. 뻘치?{음. 뻘치?}

# 뻘필로프(Панфилов), 뻘필로프(Панфилов).{뻘필로프, 뻘필로프.}

@ 뻘필로프(Панфилов).{뻘필로프.}

# 아하, 그건 노시아 저나 그런 게지. 곧 이럼이지. 노시아 노시아 무시긴가 잉기 전장 전장 이룽기 큰 큰 일 하던 사름덜이 뻘필로프(Панфилов)라구. 마우, 그 노시아사름이지, 뻘뻘로프(Панфилов). 서이 아무래 뻘필로프(Панфилов)지.{그렇지, 그건 러시아 저기 그런 게지. 지명(地名)이지. 러시아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전쟁 전쟁에서 이렇게 큰일을 하던 사람이 뻘필로프라고. 러시아 사람이지, 뻘뻘로프는. 성이 아마도 뻘필로프지.}

@ 아, 서이.{아, 성(姓)이.}

# 아하, 서이 뻘뻘로프(Панфилов).{그렇지, 성이 뻘필로프.}

@ 파밀리야(фамилия).{성(姓).}

# 기게 기게 고로드(город) 뻘뻘로프(Панфилов) 따앙 고런 게 있어. 중국 중국 중국 그 뻘뻘포프 가무 중국 사름이 거기에 물이 어간에서 건네 배운다우. 아하! 그렇기 가참기 살지. 뻘뻘로프(Панфилов)가 끼따이(китай).{그게, 그게 도시(都市) 뻘필로프 땅이 고런 것이 있어. 중국, 중국, 중국, 뻘필로프를 가면 중국 사람이 강물 사이로 건너다보인다고. 그렇게 가깝게 살지. 카자흐스탄

의 뽀필로프와 중국이.}

@ 끼따이(китай){중국.}

# 으흠, 중국이.{응, 중국이.}

@ 둥간(Дунгане)들은 거기말구 이쪽 안쪽에는 없슴둥?{둥간족은 거기 말고 이쪽 안쪽에는 없습니까?}

# 여 영계선 영계 아 딸디꾸르간(Талдыкорган)에 조금 잇겠지. 그러나 나는 모르지.{여기선 여기 탈디꾸르간에 조금 있겠지. 그러나 나는 모르지.}

# 위그루는 내 아지 잇는 거. 아 둥간(Дунгане)덜은. 둥간(Дунгане)덜두 거저 다른 사름덜 애길 하는데 둥간(Дунгане) 으: 그 민족두 고렷사름덜 딱 고렷사름처럼 임석으 먹는다꾸마. 딱 고렷사름 임석으 먹는거처럼 그렇기 해:먹는다구. 둥간(Дунгане)덜이 그렇다구.{위구르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알지. 아, 둥간족은, 둥간족도 그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둥간 어 그 민족도 고렷사름들 딱 고렷사름들처럼 음식을 먹는답니다. 딱 고렷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 먹는다고. 둥간족이 그렇다고.}

@ 그럼 고렷사람들: 하구 무슨 관계가 있겠슴둥?{그럼 고렷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 모르지 관계 잇는두 없는두. 아 임석으는 고렷사름 임석 먹는 거처럼 그룽기 그룽기 해 먹는다구.{모르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아, 음식은 고렷사람이 먹는 음식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 먹는다고.}

@ 음. 그 사름덜은 무슨 일이 많이 하암둥 그럼?{음.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럼?}

# 아, 모르지. 무슨 일을 하누두~.{아, 모르지. 무슨 일을 하는지.}

@ 우리 고렷사름들처럼 뭐 고본질이나:: 뭐 이런 건 아이 하구?{우리 고렷사름들처럼 뭐 고본질(=임차 농업)이나 뭐 이런 건 안 하고?}

# 지, 모 모르긴 하지만은 직금은 이런 농세질 아이 하는 민족이 잇는 갈재이꾸마. 다(да)? 위구르구 까자꾸구 둥간(Дунгане)두 이거 모도 따~아 가지구서 숭귀서 숭귀 파느라구.{모 모르긴 하지만 지금은 이런 농사질을 안 하는 민족이 잇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위구르족이고 카자흐사람이고. 둥간족도 이거 모두 땅을 가지고서 무엇을 심어 심어서 파느라고.}

@ 그렇겠습지.{그렇겠지요.}

# 으흠. 씨메치끼(семечки)두 수무구 벨거 다아 수멋지.{음. 해바라기도 심고 벌거 다 심었지.}

@ 무스거 싱구구?{무엇을 심고?}

# 씨, 해, 그 고려말르 해자부리지. 다(да)? 해자부. 내 씨메치끼(семечки), 씨메치끼(семечко) 그 해자 해. 고렷사름 그전에 내 들올라이, 내 쪼꼬마실 적이 들올라이 해자부리, 해자부리.{해바, 해 그 고려말로 말하면 해바라기지. 그렇지? 해바라기. 러시아 말로는 ‘씨미치끼(семечко, 해바라기 씨)’, 고려말로는 ‘해자불’. 그전에 내가 듣자니, 내 쪼그말 적에 듣자니 ‘해자부리’, ‘해자부리’라 하더군.}

@ 다(да), 다(да). 해자부리.{예, 예. ‘해자부리(해바라기)’.}

# 해자부리. 다(да){해자부리(해바라기). 예.}

@ 요령::기 해르 따라가는 거.{요렇게 해를 따라가는 것.}

# 아하. 기개 해자부리. 고렷사름덜이.{그렇지. 그개 해바라기. 고렷사름들이 그렇게 말하지.}

@ 그럼 아매! 아까 말씀하실 때 아주 재밋게 들었는데 그 쯔간(цыган)덜 있제임두?{그럼 할머니! 아까 말씀하실 때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집시가 있잖습니까?}

# 아하, 쯔 쯔간(цыган)덜은 쯔간(цыган)덜은 그저 벨루 일으 아이하구 저렇기 사지. 거저 집두

그룽기 그룽기 이룽기 이룽기 따 이래 한 한 끝에 그렇기 뿌릴 잡아 모 오라 아이 잇구 자꾸 떠 땡기지. 이새르 해: 땡기지, 쯔간(цыган)덜이. 으음. 일하긴 싫구 어 다른 사름덜 얼리구 도둑질 하구 이 까따(гдание?) 손금우 보구 이르메 사지, 쯔간(цыган)덜이.{음, 집시들은, 집시들은 그저 별로 일을 아니 하고 저렇게 살지. 그저 집도 그렇게, 그렇게 땅에서 이렇게 한 곳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오래 못 있고 자꾸 떠다니지. 이사를 해 다니지, 집시들이. 음. 일하긴 싫고 다른 사람들을 얼리고 도둑질을 하고 이 손금을 보고 이러면서 살지, 집시들이.}

@ 노래를 부르구.{노래를 부르고.}

# 노래두 부르구.{노래를 부르고.}

@ 춤두 추구.{춤도 추고.}

# 춤우 추구. 야 춤두 추구.{춤을 추고. 응, 춤도 추고.}

# 쯔간(цыган)덜 춤우 잘 취.{집시들은 춤을 잘 취.}

@ 잘 취.{잘 취.}

# 으흠. 쯔간(цыган)덜 춤우 잘 취.{음. 집시들은 춤을 잘 취.}

@ 어디에 그 사람덜이 많슴둥?{어디에 그 사람들이 많습니까?}

# 그저 사척에 온, 웬: 웨지 웨지에 다아 살지, 쯔간(цыган)덜이.{그저 사방(四方)에 온, 외지(外地)에 다 살지, 집시들이.}

@ 여기저기 사척에.{여기저기 사방에.}

# 사척에 사척에 다아 땡기지. 개 기래두 우리 우리 쏜세진(сосед-н) 노시아 여자 그 쯔간(цыган)게 시집와서. 시집가서 새아가덜이 스무살씩 넘은 게 둘이. 그렇기 오래 살지. 쯔간(цыган). 쯔간(цыган). 으흠. 쯔간(цыган), 쯔간(цыган) 나그네 어 고웁운게. 으음. 그런게 노시아 여자르 해서. 스무살 넘어난 딸이 둘이나 있지.{사방에, 사방에 다 다니지. 그래 그래도 우리 우리 가까운 이웃은 러시아 여자가 그 집시에게 시집와서. 시집가서 처녀들이 스무 살씩 넘은 것이 둘이나 되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 집시. 집시. 음. 집시, 집시인 남편은 어 고운 사람이지. 음. 그런데 러시아 여자를 취해서. 스무 살 넘은 딸이 둘이나 있지.}

@ 뉘기?{누가?}

# 그 쯔간(цыган)이게. 노시아 여자가 사는 게. 아덜이 새아가 둘이 있지. 기랜게 이십살이 넘은 개, 새아가덜이. 안죽 시집아이 갖지.{그 집시에게. 러시아 여자와 사는 사람. 아이들이 처녀가 둘이나 있지. 그런데 스무 살이 넘은 게, 처녀들이. 아직 시집을 안 갖지.}

@ 그럼 아매! 그 쯔간(цыган)들은 무스거 해먹구 사암둥?{그럼 할머니! 그 집시들은 무엇을 해 먹고 삽니까?}

# 무스거 해먹구 \*새는 지 모르지. 그저 저래 자꾸 마술기르 가지구서 자꾸마 바라땡기지.{무엇을 해 먹고 사는지 모르지. 그저 저렇게 자꾸 말이 끄는 수레를 가지고 자꾸만 싸돌아다니지.}

@ 아아! 마술기르 가지구.{아! 말 수레를 가지고.}

# 으흠. 마술게다 이래 풍~우 이래 처가지구서리. 기애 기까이까는 노시아 사름은 쯔간스끼(цыганский) 따보르(табор)라구 하지.{음. 말 수레에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서. 그래 그러니까 러시아 사름은 ‘집시의 무리’라고 하지.}

@ 아아! 쯔간스끼(цыганский) 따보르(табор){아아! ‘집시의 무리’.

# 쯔간스끼(цыганский) 따보르(табор)라 하지.{‘집시의 무리’라 하지.}

# 이래 마술기에다 이래 \*뜨래(тряпка) 푸~우 이래 처가지구, 해 비치지 말라구 이래 마술기에다 말으 들씨 메와서 기래가지구서 그것덜 땡기지, 쯔간(цыган)덜이. 기래 직금 시대는 개두 어 어 떠 어떤 것들은 일ிர랑 하는 게 있지. 기관에서 일두 하구. 음. 직금. 그전에는 그저 집두 저래

없이 떠돌이, 썩간(цыган)덜이.{이렇게 말 수레에다 이렇게 장막을 이렇게 쳐서, 해가 비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 수레에다 말을 돌씩 매워서 그레가지고서 그것들이 다니지, 짐시들이. 그레 지금 시대는 그레도 어떤 것들은 일을 하는 것들이 있지. 기관에서 일도 하고. 음. 지금. 그전에는 그저 집도 저렇게 없이 떠다니고, 짐시들이.}

@ 아아. 생긴 거는 그러문 까자꼬 사람하구 비슷함등, 고렷사람하구 비슷함등?{아. 생긴 것은 그러면 카자흐 사람하고 비슷함니까, 고렷사람하고 비슷함니까?}

# 네옴(нет)! (혀차는 소리) 생긴 게 저저 저어 따지꼬 뻔뻔하게. 생기기는 그 사람덜이 여자나 남자나 곱운 사람덜이. 낫으는 곱운 사람덜이. 개 우리네마 조곰 우리두 우리두 히제인제 우리만 더 더 검지[검지], 썩간(цыган)덜이.{아니! 생긴 것이 그저 저 타지크 사람과 비슷하게. 생기기는 그 사람들이 여자나 남자나 고운 사람들이지. 낫은 고운 사람들이지. 그레 우리네보다 조곰 우리도 우리도 회지 않은데 우리보다 더 검지, 짐시들이.}

@ 더 검습등?{더 검습니까?}

# 더 검소.{더 검소.}

# 남자구 여자구. 아! 곱기는 곱습꾸마.{남자고 여자고. 아! 곱기는 곱습니다.}

@ 음::, 으음. 그러면 아매! 저쪽 우즈벡스만이나 머 끼르기스 이쪽에두 그 썩간(цыган)덜이 있습등?{음, 음. 그러면 할머니! 저쪽 우즈베키스탄이나 뒤 키르기스 이쪽에도 그 짐시들이 있습니까?}

# 어디메던지 다 있습꾸마. 따시켄뜨(Ташкент)두 가뜩하얏꿈.{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타슈켄트에도 가뜩합니다.}

@ 따시켄뜨(Ташкент)두.{타슈켄트에도.}

# 따시켄뜨(Ташкент)두. 썩가이 아이 사는 데 없스꼬마.{타슈켄트에도. 짐시가 안 사는 데가 없습니다.}

@ 그렇습지.{그렇지요.}

# 어 이 땅덩어리에 썩가이 아이 사는 데 없소. 다아 사아. 어느. 이 사그란(загран) 이쪽두 다아 \*사썩.{어 이 땅덩어리에 짐시가 안 사는 데가 없소. 다 살아, 어느 곳이나. 이 외국 이쪽에도 다 살지.}

@ 이 사그란(загран)?{이 외국?}

# 으, ну(ну)! 그거 고려말르 미시긴가. 노시아말르 사그란(загран) 잇엇지. ну(ну), 다른 국에, 다른 국에 가서두 가뜩 사지.{음. 그거 고려말로 무엇인가. 러시아 말로 ‘사그란(загран)’이 잇엇지. 음. 다른 국(國)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가뜩 살지.}

@ 음, 음.{음. 음.}

# 고렷사람덜두 또 뵈데서 다. 고렷사람두.{고렷사람들도 또 뵈 데서 다 살지. 고렷사람도.}

# 웨엥그리아(Венгрия)구, 웨지에 고렷사람덜이 살구.{헝가리고 (어디고) 외지(外地)에 고렷사람들이 살고.}

@ 많:습지 머. 끼따이(китай)에 두 밀리온(миллион)이 잇구.{많지요 뭐. 중국에 2백만이 있고.}

# 끼따이(китай)서 더 말이 없지. 더 말이 없지. 많. 음.{중국에서는 더 말이 필요 없지. 더 말이 필요 없지. 많지. 음.}

@ 그 답에 아메리카(Америка){그 다음에 미국.}

# 아메리카(Америка)구.{미국이고.}

@ 거기에두 두 밀리온(миллион) 잇구.{거기에도 2백만이 있고.}

# 음::{음.}

@ 야뽤이아(Япония), 일본에두.{일본, 일본에도.}

# 일본에두 가뜩하얏지.{일본에도 가뜩하지요.}

@ 가뜩하구.{가뜩하고.}

# 고렷사람 없는 어 \*나라에 뵈루 잇는 갈재이꾸마. 어느 나라던지 고렷사람. 조꼬막써 살아두 다 살아.{고렷사람 없는 나라가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고렷사람이 있지. 조곰씩 살아두 어느 곳에나 다 살아.}

# 그적에[그적에] 그적에[그적에] 우리 내 마마 오래비. 맘마 오래비 아들이문 에따(это) 어티기 네는가?{그 때, 그 때, 우리 내 엄마의 오라비. 엄마 오라비 아들이면 음. 나와는 어떻게 되는가?}

@ 조개?조카?}

# 우리 내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오래비 아들이 군대르 뚝 갖지. 군대르 가서 어: 그런데서는 어 에따(это) 일했지. 탄끄(танк) 탄끄(танк)서 일했지. 그레 그 이 루미니아(Румыния)구 웅:그리아(Венгрия)구 이거 썩 이래 취 췌지. 그 그런 저나 탄끄(танк), 탄그(танк) 췌리(цели) 아프리에(артиллерия)지. 췌리(цели) 그런 탄끄(танк) 술한 땅끄(танк) 그렇기 그 사그란(загран) 이쪽으 그렇기 땡기지.{우리 내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오라비 아들이 군대를 뚝 갖지, 군대를 가서 어 그런 데서 음 일을 했지. 탱크에서 기갑병으로 근무했지. 그레 그 이 루마니아고 헝가리고 이거 썩 이렇게 추엇지. 그 그런 저기…… 탱크, 탱크 포수(砲手)지. 목표물, 그런 탱크 술한 탱크가 그렇게 외국 이쪽을 그렇게 다니지.}

# 그레 개 웅그리아(Венгрия) 가서 에따(это) 그런 거 뚝 서게 땡지. 술 탄그(танк) 가뜩 이 노시아 탄끄(танк)는 그건 술다뜨(солдат) 아덜이 군대 아덜이. 땅크(танк)르 술한 땅끄(танк)르 경게르 웅가리아(Венгрия)구 루미니아(Румыния)구 췌 이래 둘러서 기레 땅끄(танк) 타구 땡. 그 랫는데. 우리 가야, 키르스탄(Киргизстан) 가두 조개지 그 머시마. 그레 가 군대가서 그 땅끄(танк)서 일하메서리 웅그리아(Венгрия) 가이간 \*웅그리(Венгрия) 그레 땅끄(танк) 술한 게 가뜩 이게 줄으 쳐서. 췌르 아프리에(артиллерия)쳐름 줄으 쳐서 보이간, 그저 아덜이 채다:만게 새 아가덜이구 선서나구 채다:만게 가뜩 달아나왓지. 그거 보느라구. 땅끄(танк) 이렇게 큰길르 뚝 네레오는 거 보 보느라구. 귀란데 한내 선스나 대가리 새까만게 잇거든요. 기레 야 제에나 물어 밧지. 우리 조개. ‘네 고려아이야?’ 하йка나 고려아라하디. 웅그리아(Венгрия)서.{그레 그레 헝가리에 가서 음 그런 거 서게 되엇지. 술한 탱크 가뜩하지. 러시아 탱크는 그건 군인들이 군대 아 이들이 탱크를 술한 탱크를 거기 헝가리고 루마니아고 죄 이래 둘러서 그렇게 탱크를 타고 다녀. 그랬는데 우리 그 아이가, 키르기스스탄에 사는 그 아이두 조카지 그 사내아이. 그레 그 아이가 군대를 가서 탱크에서 복무하면서 헝가리에 가니까 헝가리 그레 탱크 술한 것이 가뜩 이게 줄을 지어서. 저 대포처럼 줄을 지어서 보니까, 그저 아이들이 자잘한 여자아이들이고 사내아이고 자잘한 놈들이 가뜩 달려나왓지. 그 탱크를 보느라고. 탱크가 이렇게 큰 길로 뚝 내려오는 거 보느라고. 그런데 사내아이 하나가 대가리 새까만 것이 잇거든요. 그레 웅 일부러 물어보앗지. 우리 조카가. ‘네 고려 아이냐?’ 하니까 고려 아이라고 하더랍니다. 헝가리에서.}

@ 허허허.{허허허.}

# 개 고려아라 하더라구. 개 개 어디메 사느야. 보까쉬와엘(показывает), 산다메 고 쯔:꼬만 선스나. 개 대에일곱살 레뜨 췌스 췌(лет шесть семь) 이런 게 달아나와서 그거 구겨~하느라구. 기랜데 머리 새까만게 대갈 새까만게 그런게 잇지. 개 고려아 가톨해서 개 물어보이까나 제 고렷사람이라구 하더라구. 개 어시덜은 잇냐? 잇다. 개 어디메 사느야. 정게 산다구. 기레 야 그거 저녁때까지 저녁때 그거 땅끄 세와 농구 들어가 밧으 췌겻는데 어티기 어티기 어쩔 수 없어 가다 조곰 가다가서 탄끄(танк) 그런 기계 미시긴가 기 바키 \*마구 그 레뵈(ремень) 잇재오? 레뵈

(ремень). 기계 땅끄(танк) 잉기 기다만 도는 게 잇재요? 거기다 가 돌으 떡 쳐 열었다우. 내 조개 아. 쉬토브(чтоб) 경게서 레몬드(ремонт) 하무 그 고렷사름 집엘 들어가 보자구. (웃음)스 뽀잔나(специальный) 제에나. 그 아무 크일 나지 그 꼬네쉬나(конечно).(그래 고려 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그래 어디에 사느냐 하나까 가르쳐 주며 어디에 산다고, 쪼그만 사내아가. 대 일곱 살, 예닐곱 살 먹은 이런 놈이 달려나와서 그거 구경하느라고. 그런데 머리 새까만 놈이 대 가리 새까만 놈이 그런 놈이 있지. 그래 고려 아이 같아서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가 고려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부모들은 있냐? 있다. 그래 어디에 사는가. 저기에 산다고. 그래 웬 그거 저녁때까지 저녁때 그거 탱크를 세워 놓고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어떻게 어쩔 수 없어 가다가 조금 가다가서 탱크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바퀴 말고 그 무한궤도(無限軌道, 캐터필러)가 있잖소? 무한궤도. 그게 탱크에 이렇게 기다란 것이 있잖소? 거기다 돌을 떡 쳐넣었다오. 내 조카 아이가. 거기에서 수리를 하면, 그 고렷사람 집엘 들어가 보자고. 특별히 일부러. 그 누가 알면 큰일나지, 그게 틀림없이.}

# 개 나찰스뜨보(начальство)나 아이 볼 적에 레멘(ремень)이 도는 데 거기다 돌으 떡 거더 열었지. 그러다나이가 레멘(ремень)이 쪼끔 가다가 레멘(ремень) 뚝 꼬너졌짐. 땅끄. 레몬드(ремонт)트 해야 하지. 헤! 레몬드(ремонт) 저녁에 하메서리 기래 저녁에 가가 물어보이까 아무데 아무데 산다하지. 그래 야 찾아 들어갔다 왔지. 내 \*\*니가 고렷사름덜 어시네 사는 데르. 들어가이까나. 여스 호이, 여스 호이, 여스 호이 고렷사름덜이 모로:기 경게 산다구. 그래 그 사름덜 거기서 산지 오랏걸라서 그 사름덜으 어시덜이 다아 죽어서 거기서 파묻었지.{그래 상급자(上級者)가 안 볼 적에 무한궤도가 도는 데 거기다가 돌을 떡 주어 넣었지. 무한궤도가 조금 가다가 뚝 끊어졌어. 탱크. 수리를 해야 하지. 허! 수리를 저녁에 하면서 그래 저녁에 그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무 데 아무 데 산다고 하지. 그래서 찾아서 들어갔다 왔지. 내 \*\* 고렷사름들 부모네 사는 데를. 들어가니까 여섯 호 여섯 호 여섯 호가 고렷사름들이 한군데 가지런히 모여 거기에 산다고. 그래 그 사람들 거기서 산 지 오래 되었기에 그 사람들의 부모들이 다 죽어서 거기에 파묻혔지.}

@ 아하!{아하!}

# 웅그리아(Венгрия)서. 괴래 괴게 그전이부터 살았지. 델루 네레오메서 살지.{헝가리에서. 그래, 그래 그 전부터 살았지. 대(代)를 이어 내려오면서 살지.}

@ 그렇습지.{그렇지요.}

# 으음. 어시네는 다아 죽어서 다 빠하라니찌(похоронить) 해엿지. 기래 이상 어시 잇어 난 아덜이 경게서 여스 호이 살지. 술한 라드나(родня) 아이구 땀 땀 사름이 땀 사름이. 고렷사름이 여스 호이 경게 사더라고. 기래, 야! 고렷사름 산 오란만에 밧다구 조선 사람 오란만에 밧다구. 그렇게 반갑아서 그러지. 그래 그래 그 제 어저느 땅크(танк)르 어저느 레몬드 레멘이(ремень) 손질해서 어전 가야 데겻는데 아 이 그 고렷사름덜 여스 호이 여스 호이 아이 글썽 간다구서리 그런 거, 먹을 거 글썽 여스 집이서 먹을 거 한 땅크(танк)르 끄서왔다구 먹으라구서. 기래 야덜이 야! 그렇게 가져왔는데. 야덜 무스걸르 인공으 갓갓는등. 기래 그 사름덜이 고렷사름 산 게 마시나(машина)두 모도 잇구 트락토르(трактор) 재빗게 다아 잇지. 웅그리아 사는 게.{음. 부모네는 다 죽어서 다 묻혔지. 그래 윗대에 부모들이 있어서 난 아이들이 거기에서 여섯 호가 살지. 술한 친척이 아니고 땀 땀 사람이 땀 사람이. 고렷사름들 여섯 호가 거기에 살더라고. 그래, 야! 고렷사람 오랜만에 봤다고, 조선 사람 오랜만에 보았다고. 그렇게 반가워서 그러지. 그래 그래서 그 자기는 이제 탱크를 이제는 수리 수리를 손질을 해서 이젠 가야 되겠는데 아 이 그 고렷사름들 여섯 호가 여섯 호가 아니 글썽 간다고 그런 거 먹을 것을 여섯 집에서 먹을 것을 한 탱크를 끌어왔다고. 먹으라고서. 그래 이 아이들이 야! 그렇게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 은공을 무엇으로 갓

아야 되겠는지. 그래 그 사람들이 고렷사람 사는 것이 자동차도 모두 있고 트랙터도 자기 것이 다 있지. 헝가리에 사는 사람들이.}

# 기래 야덜이 야아! 무스거르 무스거르 인공으 갓갓는가. 저렇기 먹을 거 가져다가 땅끄 안에다가 뜯 가져다 열었는데. 기래 야덜이 양백 리뜨라(литра)짜리 양백 리뜨라짜리 그런 보취까(бочка) 이런 게 잇었지. 빈진(бензин)두 무신두 그거 가져다 컷지. 그 사름 고렷사름덜이 여섯 집에서 여섯 집에서 저어나 에따(это) 어불어 쓰라구. 어불어 쓰라구. 그래 양백리뜨라(литра)짜리 거기다 또 두구 왔다구. 고 고렷사름덜 컷다꾸마. 누(ну) 줄진 없지, 어찌. 기래 그거 컷다메서. {그래 이 아이들이 야! 무엇으로 은공을 갓갓는가. 저렇게 먹을 것을 가져다가 탱크 안에다가 뜯 가져다 넣었는데. 그래 이 아이들이 200리터짜리 200리터짜리 그런 병(瓶), 이런 것이 있었지. 벤젠인지 뭔지 그 거 가져다 주었지. 그 사람 고렷사름들이 여섯 집에서 여섯 집에서 저기…… 음 어울어 쓰라고. 어울어 쓰라고. 그래 200리터짜리 거기다 또 두고 왔다고. 고렷사름들을 주었다니다. 음 줄 것은 없지.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었다면서.}

@ 그거 어티기 웅그리아(Венгрия)까지 갔으까야?{그거 어떻게 헝가리까지 갔을까?}

# 웅그리아(Венгрия) 가서 발써 땀 십년 사는 게지. 델루 네레오메 살지. 어시덜은 어 아물다물 썩 다 썩 거기다 거기다 모셨지. 저렇기 오래 사는. 웅그리아(Венгрия)두 고렷사름이 저렇기 사는 게. 기래 이 고렷사름 아이 사는 텐 뽀루 잇는 갈채이더꾸마. 어느 나라든지 조끔 살아두 다 살지. 다아 잇지.{헝가리 가서 발써 몇 십 년 사는 것이지. 대를 이어 내려오며 살지. 부모들은 어 \*\*\*\* 썩 다 썩 거기다 모셨지. 그렇게 오래 사는. 헝가리도 고렷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그래 이 고렷사람이 안 사는 데는 별로 있는 것 같지 않더군요. 어느 나라든지 조끔 살아두 다 살지. 다 있지.}

@ 음, 음. 그럼 아매! 여기:: 위그루족들은 주로 뭐하구 많이 사암둥?{음, 음. 그럼 할머니! 여기 위그루족들은 주로 무얼 하고 많이 삼니까?}

# 위그루두, 위그르두 영게는 열매 없습꾸마. 여기 죄애편 그저 메 메 호이가 잇지. 우리 정게서 \*\* 옛김 사 적에{사적에} 체레스 쟁끼(через стенки) 남자는 까자끄구 여자 위그르 저렇기 살았습꾸마. 개 위그르덜은 마 마이 사는 거는 저 썩 뽀필로프(Панфилов)서.{위구르도, 위구르도 여기는 열매 없습니다. 여기 조끔 그저 몇 호가 잇지. 우리 저기에서 살 적에 건너편에 사는 남자는 카자흐 사람이고 여자는 위구르 사람인데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위구르들 많이 사는 데는 저 썩 판필로프서.}

@ 뽀필로프(Панфилов).{판필로프.}

# 기래구 끼따이(китаи)서 살구 저렇지. 여기는 그저 조고막써 메 땀이간 데지. 위구르 그리 많재 잉구. 까자끄덜이지 제 썩 다.{그리고 중국에서 살고 저렇지. 여기는 그저 조금씩 몇이 되지. 위구르 그리 많지 않고 카자흐 사람들이지 죄 썩 다.}

@ 근데 까자끄 사름덜두 어저께 저녁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조끔 조끔 좀 따압꾸마.{그런데 카자흐 사름들도 옛저녁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조끔 조끔씩 다릅니다.}

# 어떤건 따구.{어떤 것은 다르고.}

@ 눈두 따구. 예.{눈도 다르고. 예.}

# 어떤 거느 췌심 고렷사름 같은 것두 잇구. 또취노(точно) 고렷사름 같은 게.{어떤 것은 흡사 고렷사름 같은 것도 있고. 정말 고렷사름 같은 게.}

@ 여기가 뭐 민족이 뭐 백.{여기가 뭐 민족이 뭐 백.}

# 백.{백.}

# 백, 백 민족이 남아 산.{백, 백 민족이 남아 산.}

@ 넘어산다구 그러는데.{넘어 산다고 그러는데.}

# 벨란 벨란 민족이. (웃음) 어떤 건 우리 모르지, 모르지. 모르재잉구.{별난 별난 민족이 다 있지. (웃음) 어떤 건 우리도 모르지, 모르지. 모르잖고.}

@ 우즈벡사람두 있겠구.{우즈벡 사람도 있겠고.}

# 우즈벡크구 따지끼구 그저 끼르끼즈구 벨게 다아 있지. 나자르바예브(Назарбаев) 우스투빠엘(выступает) 할 때 그렇게 말했지. 이 카자흐스탄이 일 백 몇 민족이 산다구. 이 까자끄스판이. 그러니 제 해게없지. 무슨 민족이 있는지 어찌기 알개……. 우리는 생전 들어두 못 보구. 벨란 민족이 다아 있지.{우즈베크고 타지크고 그저 키르기스고 별것이 다 있지. 나자르바예프가 접견할 때 그렇게 말했지. 아 카자흐스탄에 일 백 몇 민족이 산다고. 이 카자흐스탄에. 그러니 제 셀 수 없지. 무슨 민족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소. 우리는 생전 들어도 못 보고. 별난 민족이 다 있지.}

@ 음. 민족끼리는 왕기 잘 어울려 잘 사담둥?{음. 민족끼리는 이렇게 잘 어울려 잘 삼니까?}

# 저 미 그.{저 미 그.}

@ 서르 서르?{서로 서로?}

# 술한 게 있어두 다아 거저 정말 그렇기 이 이 영게 까자끄스판에는 기래두 내 생각에는 민족차별이 그리 없단 말이.{술한 것이 있어도 다 그저 정말 그렇게 이 이 여기 카자흐스탄에는 그래도 내 생각에는 민족차별이 그리 없단 말이오.}

@ 없습지.{없지요.}

# 없습꾸마, 음.{없습니다, 음.}

@ 좋습지 뭐.{좋지요 뭐.}

# 좋습꾸마. 그러나 어전 까자끄가 고렷사람덜이 민족차별이 할 데 없습꾸마. 싹 라드냐(родня) 이젠. 그러제에두 그전에 나자르바예브(Назарбаев) 그전에 우스투빠엘 뽀쨈리비조르(выступает по телевизору)서. 그 시장 내지, 한국에 아무래 이 에따(это) 나베르나(наверно) 미니스뜨리(министр)나 일리(или) 무슨 한국에 수령이나. 수 수령이더만. 그래 그때 영게 까자끄스판에 와서, 나자르바예브(Назарбаев)가, 나자르바예브(Назарбаев)가 무슨 무슨 얘기르 하는데 누(ну) 그렇게 말하문서. 까끄(как) 우제처를 그저, 저 그 그 고렷사람은 나쉬(наши) 까레이즈(корей цы)라 하지. 이 까자끄산이 까레이즈 다(да)? 그러니까 나자르바예브(Назарбаев) 무시기라 하는가 하무, ‘네트(нет)! 나쉬 까레이즈(наши кореец), 에따(это) 크로브느이(кровный ) 까레이즈(кореец) 나쉐이. 나자르바예브(Назарбаев). 나자르바예브(Назарбаев) 그렇게 그래.{좋습니다. 그러나 이젠 카자흐 사람과 고렷사람들이 서로 민족 차별을 할 데가 없습니다. 싹 친척이지, 이젠. 그렇지 않아도 그전에 나자르바예프가 그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지. 그 지금 본국, 한국에 아마 장관이나 또는 무슨 한국의 수령이나. 수령이더구먼. 그래 그때 여기 카자흐스탄에 와서, 나자르바예프와, 나자르바예프와 무슨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음 그렇게 말하면서. 농담처럼 그저, 그 고렷사람은 ‘우리 한국인’이라 하지. 이 카자흐스탄에 사는 한인(韓人)을, 응? 그러니까 나자르바예프가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아니오! 우리의 한인, 피로 맺은 한인 우리의’. 나자르바예프가 그리 말하지. 나자르바예프가 그렇게 그래.}

@ 그 고려말르 번역해 보옵소.{그 말을 고려말로 번역해 보십시오.}

# 고려말르 에 크 크로브느이(кровный ) 저나 에따(это) 까레이즈(кореец) 저 우리 ‘크로브느이 까레이즈(кровный кореец) 나쉬(наши)’라 하무, 기게 기게 어전은 어저느 정말 그렇게 데엿지. 까자끄 어느 고렷사람집이나 어느 까자끄 집이 고려 고렷사람이나 까자끄 없는 집이 에따(это) \*\*마오, 조오꼬마오. 싹. 개 기게 크로브느이 까레이즈(кровный кореец)라 할 적에무 저어 저어 피라는 말이지. 저어 사깨덜 피 피라는. 크로 크로브느이(кровный ) 까레이즈(кореец)라 하

무 저어 저 크로브느이(кровный ) 에따(это) 저어 피 까레이즈(кореец)라 하지. 그 저 내지 사람이 우리 나시 까레이즈(кореец), 네뜨(нет)!, 와쉬 까레이즈(ваши кореец). 에따(это) 나쉬 까레이즈(кореец). 크로부느이(кровный ) 까레이즈(кореец) 나쉬(наши). (웃음) 고렷사람은 저 저 나세이 까레이즈(кореец)라구. 저 나자르바예브(Назарбаев){고려말로 에 ‘혈연의’ 저기…… 이 한인(韓人), 저 우리 ‘혈연관계의 한인 우리’라 하면 그게, 그제 이젠, 이젠 정말 그렇게 되었지. 카자흐나 어느 고렷사람 집이나 어느 카자흐 집에 고렷사람이나 카자흐 사람이 없는 집이 음 조곰 있소. 조곰 있소. 싹. 그래 그제 ‘혈연관계의 한인’이라 할 적에는 자기, 자기 피라는 말이지. 자기 카자흐 사람들 피라는. ‘크로브느이 까레이즈(кровный кореец)’라 하면 자기, 자기 피 음 자기의 피로 맺은 한인이라 하지. 그 저 본국 사람이 우리 ‘나세이 까레이즈’(우리의 한인), ‘아니오 당신에 한인’. ‘이 우리의 한인’. ‘피로 맺은 한인, 우리의’. (웃음) ‘고렷사람’은 자기, 자기의 한인이라고. 나자르바예프가 말하기를.}

@ 우리야 저두 ‘우리’ 하제임둥? ‘우리 민족’ 하제임둥? 그러니까 한국에 뽀레지덴트(президент)가 와가지구 나쉐이 까레이스끼(корей ский ) 그렇게 얘기한 거지.{우리야 저도 ‘우리’라고 하잖습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통령이 와 가지고 ‘우리의 한인의’이라고 말한 것이지.}

# 누(ну), 누(ну). 고렷사람이니가 그랫겠지. 아 그저 우리, 우리 모르지. 우리 우리 한애비 할미 싹 다 그 내지서 내지서 들어온 사람덜이지.{그렇지, 그렇지. 고렷사람이니가 그랫겠지. 아 그저 우리, 우리 모르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싹 다 그 본국에서 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지.}

@ 다(да), 다(да){예, 예.}

10201 # 우리 큰아매랑 클아바니랑 싹 내지서 들왔지. 우리 뽀빠두 내지서 나서 두 살인두. 우리 뽀빠. 두 살일 적에 웅겻다구. 우리 아버지 두 살일 적이 우리 큰아매 클아바이 웅게 들어왔지. 기래구서 따 딸이느 딸이 여섯 살이구 우리 아버지 두 살이구. 요런거 가지구 들어왔지.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싹 본국에서 들어왔지. 우리 아버지도 본국에서 나서 두 살인지. 우리 아버지 두 살일 적에 러시아로 옮겼다고. 우리 아버지 두 살일 적에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러시아로 옮겨 들어왔지. 그러고서 딸은, 딸이 여섯 살이고 우리 아버지는 두 살이고. 요런 거 데리고 들어왔지.}

10201 @ 그렇지.{그렇지.}

10201 # 내지서.{내지(內地, 본국)에서.}

10201 @ 근데 내지 어딤둥? 내지 어디서 사다가 원동으로 들어갔습둥?{그런데 본국 어딤니까? 본국 어디서 살다가 원동으로 들어갔습니까?}

10201 # 아, 글썸…….{아, 글썸…….}

10201 @ 뽀빠?{아버지?}

10201 # 내지 어디메 어 그런 그런 끝이 있습둥? 단천이 어디메 있습둥?{본국 어디에 어 그런 곳이 있습니까? 단천(端川)이 어디에 있습니까?}

10201 @ 아우! 단천이 있습지.{아! 단천(端川)이라는 곳이 있지요.}

10201 # 단천.{단천(端川).}

10201 @ 아, 있습꾸마.{아, 있습니다.}

10201 # 단천. 우리 우리 그런 고 끝이 음 그런…….{단천. 우리, 우리가 떠난 곳이 음 그런…….}

10201 @ 아얍꾸마. 단천을 내 아얍꾸마.{압니다. 단천을 내가 압니다.}

10201 # 단천, 단천. 개 성은 패평 윤가.{단천, 단천. 성은 패평 윤가.}

10201 @ 그렇지. 패평 윤가. 패평은, 패평은, 패평은 직급 유즈느이 까레이(Южная Корея)에 있

구.{그렇지. 파평 윤가. 파평은, 파평은. 파평은 지금 남한에 있고.}

10201 # 아아!{아아!}

10201 @ 단청은 세베르느이 까레이(Северная Корея)에 있습꾸마.{단청은 북한에 있습니다.}

10201 # 음:.{음.}

10201 @ 파평은 우리집에서 내 사는 곳에서 가챗이 있습꾸마.{파평은 우리 집에서 내 사는 곳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10201 # 패평 윤가.{파평 윤가.}

10201 @ 파평.{파평.}

10201 # 파평.{파평.}

10201 @ 패평윤가라구 하는 게 패평이 무슨 말이나 하면은 고로드(город) 이름입꾸마. 그러니까 아매 먼:: 옛날 조상이 있재임둥? 빠르브이(первый) 조상, 조상이 살던 데엿꾸마 그게. 그게 패평입꾸마. 내 집에서 가깝 가까이 있습꾸마. 그 아매 그 단천이라구 하는 데는 세베르느이 까레이(Северная Корея)에 있습꾸마, 즉금. 옛날에는 이게 나라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게 갈가졌습꾸마. 아압지?{파평 윤가라는 것이 파평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먼 옛날 조상이 있잖습니까? 첫 조상(시조), 그 조상이 살던 댁니다. 그게 파평입니다. 내 집에서 가까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 그 단천이라고 하는 데는 북한에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이게 나라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게 갈라졌습니다. 알지요?}

# 누(ну), 세베르느이(Северная)가 유즈느이(Южная).{북(北)과 남(南)이.}

@ 또 하 이제 합치겁꾸마, 인제.{또 이제 합칠 겁니다, 이제.}

# 하 합했으문[하페스문] 어찌 좋겠슴둥.{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아이! 더 없이 조 좋습지.{아이! 더 없이 좋지요.}

# 그, 그렇게잉구! 제, 제 사람찌리 그거 홀 하나 맨들었음 어찌 좋겠슴둥. 서르 서르 돌아두 주구. (혀 차는 소리).{그 그렇고 말고! 제, 제 사람끼리 그거 홀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서로 도와도 주고. (혀 차는 소리).}

@ 지금 많이 돌아 주옵꾸마. 비료, 쌀, 약.{지금 많이 도와 줍니다. 비료, 쌀, 약.}

# 이북.{의북.}

@ 약, 약.{약, 약.}

# 약, 약으.{약, 약을.}

10105 @ 메디시인(medicine). 그런 거 많이 가압꾸마. 예:: 그럼 아매 우리 고렷사람들하구 다른 민족 사람들 하구 이 결혼은 많슴둥?{약. 그런 것이 많이 갑니다. 예 그럼 할머니 우리 고렷사람들하고 다른 민족 사람들하고 이 결혼은 많습니까?}

10105 # 많채왕구!{많고 말고!}

10105 @ 이제 많아졌슴둥?{이제 많아졌습니까?}

10105 # 많:스꼬마. 어저는 네: 집에 사께 여자나 사께 남자나 없는 집이 레드까(редко), 레드까(редко). 드무단 말시오. 기래 고렷사람 집에 까자끄 여자 메눌러 들어오지. 까자끄 집에 고려 고레남자 싸윰려 들어가지. 그 기땅만해. 음. 그래 나자르바 나자르바에브 말이 옳지. 크로브느이 까레이츠(кровный кореец). 개 저 피 크 크로브느이(кровный)라는 게 기개.{많습니다. 이제는 네 집에 카자흐 여자나 카자흐 남자나 없는 집이 보기 드물어, 드물어. 드물단 말입니다. 그래 고렷사람 집에 카자흐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지. 카자흐 집에 고려 남자가 사위로 들어가지. 그 기가 막혀. 음. 그래 나자르바에프의 말이 옳지. 혈연으로 맺은 한인. 그래 ‘크로브느이(кровный)’라는 게 그것이지.}

10105 @ 피.{피(血).}

10105 # 한 피란 말이지. (웃음) 어저는 어전 정말 라드냐(родня) 데서 한 피나 다름없지. 그렇기 말했지.{한 피란 말이지. (웃음) 이제는 이젠 정말 친척이 되어 한 피나 다름없지. 그렇게 말했지.}

10105 @ 그렇기 데야지 머 인제.{그렇게 되어야지 뭐 정말.}

10105 # (웃음) 어전 어전 그렇게 데지.{(웃음) 이젠 이젠 그렇게 되지.}

10105 @ 이 나라에 사니까.{이 나라에 사니까.}

10105 # 이 나라에 살다나이. 이 이 사는 까자끄덜이 좋은 사름덜이. 수수럽운 사름덜.{이 나라에 살다 보니. 이 이곳에 사는 카자흐 사람들이 좋은 사름들이지. 스스로운 사름들이지.}

10105 @ 뭐 없는 사름?{뭐가 없는 사름?}

10105 # 수수럽운 사름덜이. 순한 사름덜이.{스스로운 사름들. 순한 사름들.}

10105 @ 아아! 수수럽운 사름.{아! 스스로운 사름.}

10105 # 수수럽운 사름덜이. 그리 강 강하재잉구 사름덜이. 사름덜이 좋은 사름덜이. 까자끄덜 좋은 사름덜이오. 어 바까 농구 아 그러문 아, 우 우리 우리 이 우리 고렷파~이구 저래 까자끄덜 나와 있으문 별낭게 이저 그렇기 그렇지이. 갠데 이 사름덜은 수수럽운 사름덜이라 아이 그렇소. 사께덜 까자끄덜이. 순한 사름덜이.{스스로운 사름들이지. 그리 강하지 않고, 사름들이. 사름들이 좋은 사름들이지. 카자흐 사름은 좋은 사름들이오. 어, 처지(處地)를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아, 우리, 우리, 이곳이 우리 고렷땅이고 저렇게 카자흐 사름들이 우리 땅에 나와 있다면 별나게 굴지. 그런데 이 사름들은 스스로운 사름들이라 안 그렇소. 카자흐 카자흐사름들이. 순한 사름들이지.}

10105 @ 그렇습지.{그렇지요.}

10105 # 그래 까자끄덜이 어 어 까자끄 여자덜 어떤 거느 사 사둔두 아이 데는데, 고렷사름 보구, ‘사돈임둥?’ 사돈이라구. (웃음).{그래 카자흐 사름들이 어 어 카자흐 여자들 중에 어떤 사름은 사돈도 안 되는데 고렷사름을 보고 ‘사돈입니까?’라고 말하지. 사돈이라고 하지. (웃음).}

10105 @ 그렇슴둥?{그렇습니까?}

## 2. 의식주 생활

### 2.1. 농사

10302 @ 그럼 아매::! 그:: 논, 농사짓는 거느 아까 조금 물어봤습지? 저쪽에서, 나호드까(Находка)에서.{그렇습니까? 그럼 할머니! 그 논, 농사짓는 거 아까 조금 물어봤지요? 저쪽에서, 나호드까에서 살때의.}

10302 # 나호드까(Находка)에서, 예, 아께.{나호드까에서, 예, 아까.}

10302 @ 아까 조금 조금 얘기하셨었지. 그때, 그럼 아매! 이쪽에 들어오서 가지고:: 농사짓는 것을 보셨습지? 농사 짓는 거 좀 보셨습지?{아까 조금 조금 이야기하셨었지. 그때에 그럼 할머니! 이쪽에 들어오서 가지고 농사짓는 것을 보셨지요?}

10302 # 보기사 맞습지. 채빌르 하재잉지만해두 보기사 보기사 거저. 잉게서 우슈토베(Уш-тобе)(Уш-тобе)르 가는데두 그런 밭에 가뜩하재임둥? 기래 숨은 게 음.{보기야 봤지요. 손수 하지는 않았지만 해도 보기야 그저 보았지. 여기서 우슈토베를 가는 데에도 밭이 가뜩하지 않습니

까? 그렇게 심은 것이 음.)

10302 @ 그럼 옛날에, 옛날부터 아메 본대르 그냥 그:: 베질의 어티기 했슴등? 여기 침 들어와가지 구 고렷사람덜이?(그럼 옛날부터 할머니가 본 대로 그냥 그 벼농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처음 들어와 가지고 고렷사람들이.)

10302 # 그거사 내 모르지. 처암 나는 이기르 원도~서 이기르 우슈토베(Уш-тобе)르 온 게 에이라 내사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다른 데르 왔지.{그거야 내 모르지. 처음 나는 여기로, 원동에서 여기 우슈토베로 온 것이 아니라, 나야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이라는 다른 데로 왔지.}

10302 @ 그렇습지.{그렇지요.}

10302 # 으음. 기래 첫감에서 음 에따(это) 모 모르지. 첫감이 데서.{음. 그래 처음에야 음 모르지. 처음이(처음 러시아로 이주한 사실)이 돼서.}

10302 @ 그러면 나중에 아메 인제 스집가서 저 밧을 거 아임등? 베질하는 거를?(그럼 나중에 할머니가 이제 시집가서 저 농사짓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10302 # 베질하는 거 밧지.{벼농사를 짓는 거 밧지.}

10302 @ 밧지? 어티기 하 하압덤등?{밧지? 어떻게 하딘가요?}

10302 # 보 봄에 오월달이 오월달이 그런 거 베 베 이런 그 고려말르 기게 미시간가. 베 클레드카(клетка)덜. 이래 베 한 담우. 베 담우 이룽기 하자? 한 클레드카(кледка)씨 한 클레드카(кледка)씨. 그런 거 만저 저나…….{봄에 오월 달, 오월 달 그런 거 벼, 벼 이런 그 고려말로 그게 무엇인가. 벼를 심을 땀기를, 이렇게 벼 한 담(畝)을. 벼 한 담(畝)을 이렇게 하지 않소? 한 땀기씩 한 땀기씩. 그런 거 먼저 저기…….}

10302 @ 베밭이.{논.}

10302 # 베밭으 그거 이거 이거 똑으 똑으 이래 맨들어서 싹 베 한 한 클레드카(кледка)씨 한 클레드카(кледка)씨 이거 싹 맨들어 농구. 그거 다야. 그 담에 물으 열더구만해두. 으흠. 물으 열구서리 기래구서리. 그 이 어구! 그 찬물에 나는 난 그런 데서 일으 아이한 것두. 이 뿌리 불야뜨(поля болят)질 했는데. 그 찬물이 여자덜이 들어가서 그 물으 물으 저나 어즈럽게 어즈럽게 맨들어야 하지.{논을 그거 이거 똑을 똑을 이렇게 만들어서 싹 벼 심을 논 한 땀기씩 한 땀기씩 이거 싹 만들어 놓고. 그거 다. 그 다음에 물을 넣더구먼. 음. 물을 넣고서 그리 고서. 그 이 어이구! 찬 물이, 나는 나는 그런 데서 일을 아니 했지만두. \*들일을 했는데. 그 찬 물이 여자덜이 들어가서 그 물을 물을 저기…… 어지럽게 어지럽게 만들어야 하지.}

10302 # 이른 이른 저나 기게 미시기도? 꼭두기 같은 거 낭그 낭그 그런 거 지다망게 루취까(ручка) 이룽기 꽤 지다:망게 해 가지구 영게 이 이룽기 해 그걸르써 자꾸 이룽기 물으 자꾸 흐리 우지. 그래 흐리와 농구 모:지리 모지리 흐리와 농구 그 담에 저나 베씨르 뿌리더구만. 베씨르. 거저 맑은 물에다 아이 기래구. 그거 모:지리 모지리 갱치 일귀서 그 하 그 클레드카(кледка)마다 여자덜 갱치 일귀서. 개 남자덜 두에 이룽기 그런 거 베 베씨르 메구서 중태에다 메구서 이래 이래 저나 뿌리더구만. 그런 계사 내 밧지. 내 일이사 아이 했지만 그저 밧지. {이런 이런 저기…… 그게 무엇이오? 고무래 같은 거 나무를 나무를 그런 거 기다랗게, 손잡이를 이렇게 꽤 기다랗게 해 가지고 여기 이 이렇게 해, 그것으로써 자꾸 이렇게 물을 자꾸 흐리지. 그렇게 흐리게 해 놓고 몹시 몹시 흐리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저기……. 뽕씨를 뿌리더구먼. 뽕씨를. 그저 맑은 물에다 안 뿌리고. 그거 몹시 몹시 논 밑바닥의 퇴적 흙을 일어나게 해서 그렇게 하더구먼, 그 뽕기마다 여자덜이 바닥의 퇴적 흙을 일어나게 해서. 그래 남자들도 뒤에 이렇게 그런 거 뽕씨를 메고서 중태기에다 뽕씨를 넣어 메고서 이렇게 이렇게 저기……. 뿌리더구먼. 그런 것이야 내가 보았지. 내가 일이야 아니 했지만 그저 보았지.}

10302 # 그렇기 베르 숨어. 직금사 그렇기 아이 숨엇겠지. 그적에 그랬겠지. 직금사 기겔르 따게 그러지. 그적엔 고렷사람덜이 꼬호즈(колюз) 산 산 여자 새아가덜이구 선스나덜이구 고사~했지. 그 침운 물에 그 찬물에 그거 들어서서. 이휴! 기차맥히지. 난 그런 일으 못해 밧지 그제.{그렇게 벼를 심어. 지금이야 그렇게 안 심겠지. 그 때에 그랬겠지. 지금이야 기게로 그때와는 다르게 뿌리지. 그 때에는 고렷사람들이 콜호스에 사는 여자 처녀들이고 사내아이들이고 고생했지. 그 추운 물에 그 찬 물에 거기에 들어서서. 어휴! 기가 막히지. 난 그런 일을 못해 보았지. 그 때.}

10302 @ 그러니까 맨 처음에: 베밭을 만드는 거죠?(그러니까 맨 처음에 논을 만드는 거죠?)

10302 # 베밭으 맨들구 싹 이래 빠안 뽕뽕 싹 맨들구 싹 파서 싹 치끄맨(кетмень)인두 강차윌 싹 파서 싹 그래 농구.{논을 만들고 싹 이렇게 뽕뽕하게 싹 만들고 싹 파서 싹 치끄맨이지 삼으로 싹 파서 싹 뽕뽕하게 해 농고.}

10302 @ 치끄맨하구 강차윌 가지구?{치끄맨하고 삼을 가지고?}

10302 # 강차윌.{삼.}

10302 @ 잉게 파서?{이렇게 파서?}

10302 # 으흠. 그래 그래구서리 모지리 모지리 흙물으 싹 맨들어 농지. 그담에 물으 거뒤 열지. 크레드까마다. 개 물으 거뒤 열구. 그거 모지 모지리 걸:게스리 그룽기 흙물[흙물]으 싹 맨들지. 사람이 탱기메서. 여자덜만 탱기메서. 그렇게 흙물으 모지리 해 농구 그 담에 씨르 뿌립덤. 그거 내 밧지. 모:지지 모지리 흙물으 맨들어 농구, 걸:게 걸게. 그 담에 두울루 가메 인츠 씨르 뿌립덤무. 내 그거 밧지.{으흠. 그래 그리하고서 몹시 몹시 흙물을 싹 만들어 농지. 그 다음에 물을 거두어 넣지. 뽕기마다. 그래 물을 거두어 넣고. 그저 몹시 몹시 걸게끔 그렇게 흙물을 싹 만들지. 사람이 다니면서. 여자들만 다니면서. 그렇게 흙물을 몹시 흐리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더군요. 그거 내가 보았지. 몹시, 몹시 흙물을 만들어 놓고, 걸게, 걸게. 그 다음에 뒤에서 따라가며 곧장 씨를 뿌리더군요. 내 그거 보았지.}

10302 @ 아메! 그러니까 이렇게 뽕레(поле)가 있으면은 들이 있으면은 예:: 그 드럭을, 드럭이라구 그래섯.{할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 있으면 들이 있으면 예 그 똑을, 똑이라고 그래섯.}

10302 # 아, 드럭이 드럭이. 다(да). 드럭으 맨들어. 그 드럭으르 사람이 탱기더문.{아, 똑이, 똑이. 예. 똑을 만들어. 그 똑으로 사람이 다니더구먼.}

10302 @ 그렇지. 사람이 탱기지. 고게.{그렇지. 사람이 다니지. 고게.}

10302 # 개 그래구 \*클래(кледка) 잉게 이래 짚:때기라 클레드카(кледка)마다 거기 낭글르서리 낭글르서 요랑기 이르 요 요런 데지. 개 그거 지다:망게 네모이 다 낭가지. 이 한 이거는 이쪽 에두 비구 이쪽에두 단책이지 이거. 개 질게 해서 그 똑에다가 거기다가 파묻더구만 해두. 그거 저 에따(это) 낭글르 맨든 거 이르 지다:만 이거. 기래 파묻으문 겹겹르서 물이 이 클 이쪽 클레드까(кледка)르 오구 저쪽 클레드까(кледка)다 이룽기 이룽기 하더구만. 으흠. 거기다 그런 거 낭글르 해서, 널르 낭그 널르 널르 절쭈한 널르 그렇기 맨들어서 기게 무시간가 하문 수토~이 수토~이 하더구만 해두.{그래 그리하고 뽕기 이렇게 이렇게 \*\*\* 뽕기마다 거기 나무로, 나무로 요렇게 이렇 요 요런 데지. 그래 기다랗게, 네모가 다 나무지. 이 한쪽 이거는 이쪽에도 비고 이쪽에도 모판이지 이거. 그래 길게 해서 그 똑에다가 거기다가 파묻더구만 해도. 그거 저 음 나무로 만든 거 이렇게 기다란 거. 그래 파묻으면 거기로 물이 이 뽕기 이쪽 뽕기로 오고 저쪽 뽕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더구먼. 음. 거기다 그런 거 나무를 해서, 널로 나무를 널로 널로 길쭉한 널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무엇인가 하면 ‘수통(水筒)’, ‘수통’ 하더구먼 해도.}

10302 @ 수통이.{수통.}

10302 # 수토~이. 내 들올라이 그렇게 말하더문 그전에 사름덜이. 음. 수토~오 그래 클 클래드까(к.л.едка)마다 수토~오 파묻지. 기래 물이 들어가구 나가구 이리 이룻기 그러라우서리 으흠.(수통. 내 듣자하니 그렇게 말하더구면 그전에 사름들이. 음. 수통을 그래 꽤기마다 수통을 파묻지. 그래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리 이렇게 그러라고서 음.)

10302 @ 드럭이 드럭 한쪽이.{똑 똑 한쪽에.}

10302 # 드럭에다 파묻어야 하지. 물이 그 그럼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마이 고마이 그거 이 수토~오 파묻지. 기래 수토~올로써 물이 들어가구 나오구 이룻지.{똑에다 파묻어야 하지. 물이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할만큼 고만큼 그거 이 수통을 파묻지. 그래 수통으로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룻지.}

10302 @ 으음. 으음. 음. 그런데 예 그럼 아매! 드럭두 잉게 이건 네 베발이오 이건 내 베발이오 해서 고거 구분하느라구 맨들어 놓은 그 드럭이 있고. 차나 머 술기 같은 게 이게 다니게 만든 큰 드럭이 있구. 드럭두 있재임둥? 그건 머라구 했으까?{음. 음. 음. 그런데 예 그럼 할머니! 똑도 이건 네 논이오 이건 내 논이오 해서 고거 구분하느라고 만들어 놓은 똑이 있고. 차나 뭐 수레 같은 것이 다니게 만든 큰 똑이 있고. 똑도 있잖습니까?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10302 # 술기랑 맨드는 거는 그거 술기랑 맨드는 그런 거 에따(это) 그 어째 술기랑 가지구 땡기는가 하문 내 지금 생각하이 비로나 싫구 땡기느라구 그러지. 비로나 싫구 땡기느라구. 술기 에다. 마шина(машина) 개에다가 싫어다가 어디다 부리우문 그 담에 그거 시 싫구 \*\*땡기갓어. 그거 사책에다 그래지. \*양 주지.{수레랑 만드는 거는 그거 수레랑 만드는 그런 거 음 그 어째 수레를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내 지금 생각하니 비로나 싹고 다니느라고 그러지. 비로나 싹고 다니느라고. 수레에다. 차를 가져와 실어다가 어디다 부리면 그 다음에 그거 싹고 다녔어. 그거 사방에다 그러지. 그냥 나누어 주지.}

10302 @ 그렇게 큰 드럭을 장성이니 무슨 토담이니 토성이니 이런 \*말이라구 이런 말은 아이 썼슴둥? 쪼그만 건 드럭이구 잉게 큰 거 술기나 땡기구 하는 건 장성이니 무슨 토 토성이니 머 그런 말은 아이 썼슴둥?(그렇게 큰 똑을 ‘장성’이니 무슨 ‘토담’이니 ‘토성’이니 이런 말은 이런 말은 안 썼습니까? 쪼그만 건 ‘드럭’이고 이렇게 큰 거, 수레나 다니고 하는 건 ‘장성’이니 무슨 ‘토성’이니 뭐 그런 말은 안 썼습니까?}

10302 # 장드럭이.{장똑.}

10302 @ 아! 장드럭이.{아! 장똑.}

10302 # 장드럭이, 다(да). (웃음) 장드럭이. 조끄만 드럭이문 그렇지 그런 큰 건 장드럭이. 잇어뿌랬어.{장똑, 웅. (웃음) 장똑. 조끄만 똑이면 그렇지 그런 큰 건 ‘장드럭’(장똑). 그말을 잇어버렸어.}

10302 @ 안 쓰시니까. 음 드레이. 음 장드레이.{안 쓰시니까. 음, 똑. 음 장똑.}

10302 @ 그러면 아매! 그렇게:: 물을 흐리우구 거기다 인제.{그러면 할머니! 그렇게 물을 흐리고 거기다 이제.}

10302 # 모지리 하구 물이 까란주 까란주 말게 마알간 물이 데기 전에 그 모지리 이룻기 지나 거 일게서리 그룻기 캁치르 모지 일귀서 그 일귀 놓오무 그 사름 두에 저 캁치 모질 일곤 그 사름 두우 땡기메서 남자덜 베르 씨르 치지.{몹시 물을 흐리게 하고 물이 가라앉지, 가라앉지 말게 맑은 물이 되기 전에 그 몹시 이렇게 저기…… 걸게끔 그렇게 바닥에 퇴적 흙을 몹시 일어나게 해서 그 일어나게 하면 그 사람 뒤에 저 바닥 흙을 일어나게 한 그 사람 뒤를 따라 다니면서 남자들이 버를 씨를 치지.}

10302 @ 그렇습지.{그렇지요.}

10302 # 으흠. 씨르 치지. 내 그런 건 밧소.{음. 씨를 치지. 내가 그런 것은 보았소.}

10302 @ 씨르 친 뒤에는 무스거 함둥? 고 다음에는? 씨를 친 뒤에?{씨를 친 뒤에는 무엇을 합니까?}

10302 # 씨를 친 뒤에, \*오 나, 기게 씨르 쳐 놓오무 기게 나기르 지달구지. 베 나기르 지달구지.{씨를 친 뒤에, 그제 씨를 쳐 놓으면 그제 밧아하기를 기다리지. 벼가 나기를 기다리지.}

10302 @ 지달구지.{기다리지.}

10302 # 그러지.{그러지.}

10302 @ 음.{음.}

10302 # 베 나오구야 일하지.{벼가 싹을 띄워 싹이 나와야 일하지.}

10302 @ 그렇습지. 그런데 베가 이제 나오면은 뭘 해 줘야 대재임둥?(그렇지요. 그런데 벼가 이제 나오면 뭘 해 주어야 되잖습니까?}

10302 # 음 베 나오문서 밧써 조금 크문 그 담에 지슴매야 하지. 뱃지슴 매야 하지. 그 그 사모 직금 그전에 내 들올라 사모재 사모재 그런 풀이. 사모재 풀두 잇구. 돌피두 나구. 여러 가지 풀이 가뜩 나지.{음 벼가 나오면서 밧써 조금 크면 그 다음에 김을 매야 하지. 벼 김을 매야 하지. 그 지금 그전에 내 듣자니 ‘세모재비(골풀)’, ‘세모재비’ 그런 풀이. 세모재비 풀도 있고. 돌피도 나고. 여러 가지 풀이 가뜩 나지.}

10302 @ 그렇지.{그렇지.}

10302 # 음. 기래구 그 으 그저 쳄십 돌피같은 그런 풀이 또 잇지.{음. 그리고 그 으 그저 천상 돌피 같은 그런 풀이 또 잇지.}

10302 @ 그렇슴둥?(그렇습니까?}

10302 # 돌피 말구. 아하! 그런 풀두 잇지. 뱄란 풀이 다 나지. 사모재구.{돌피 말고. 아! 그런 풀도 잇지. 뱄란 풀이 다 나지. 세모재비고.}

10302 @ 사모재?{세모재비(골풀)?}

10302 # 으흠. 사모재라구 내 그전에 들었어. 사모재. 사모재 풀이.{으흠. 세모재비라고 내 그전에 들었어. 세모재비. 세모재비 풀.}

10302 @ 음. 음. 그럼 그놈덜::이 나오면은 지슴메서 다야 없애버려야 데지요. 다 없애야 데구.{음. 음 그럼 그놈들이 나오면 김을 매서 없애버려야 되지요. 다 없애야 되고.}

10302 # 다 없애지 앓구 그래.{다 없애지 앓고 그래(다 없애고 말고).}

10302 @ 그렇지. 겐데 베하고 돌피는 어떻게 구분했을까?(그렇지. 그런데 벼하고 돌피는 어떻게 구분했을까?}

10302 # 그담에 저나.{그 다음에 저기…….}

10302 @ 비젯한데?{비슷한데?}

10302 # 아하! 비젯 비젯해두 돌피 돌피는 이룻기 지나 곱만 조오꼬만할 적이 자랄 때부터 이 쭈울 폐지. 베 베는 아이 폐지. 이게 이건 이 풀은 쭈 폐지메 돌피 쭈 폐지메서. 기래구 한판에 이런 새하얀 줄이.{아! 비슷, 비슷해도 돌피 돌피는 저기…… 조오말 적에 자랄 때부터 쭈 퍼지. 그러나 벼 벼는 안 퍼지. 이게 이건 이 풀은 쭈 잎이 퍼지며 돌피 쭈 퍼지면서. 그리고 한가운데에 이런 새하얀 줄이 있지.}

10302 @ 아하!{아!}

10302 # 돌피.{돌피.}

10302 @ 돌피, 돌피.{돌피, 돌피.}



10302 # 다(да), \*달피.{예, 돌피.}

10302 # 돌피 베마 따지. 베문 베 베잇우는 전 우린 우린 남 남페이 그런게 베잇우는 그 저나 짹 짹:하다구 하더구만. 베잇이 짹짹하다구. 그래 우리 허재인(хозяин) 그 전인 내가 그거 누이 메인 사람이 이 누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지슴으는 못 매두 뱃지슴은 땀다구. 누이 보지 못한 사람이.{돌피가 벼와는 다르지. 벼이면, 벼 잎은 전에 우리 우리 남 남편이 그랬는데, 벼잎은 그 저기…… 짹짹하다고 하더구면. 벼잎이 짹짹하다고. 그래 우리 남편이 그 전에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거 누이 먼 사람이 이 누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김은 못 매도 벼 김은 땀다고. 누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10302 @ 만저서.{만저서.}

10302 # 아하! 이래매서. 우리 허재인(хозяин) 그전에 그러매 내가 이래. 눈맥재 그거는 다른 지슴으 다 못 매두 뱃지슴은 땀다구.{아!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남편은 그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해. 소경 그거는 다른 김을 다 못 매도 벼 김은 땀다고.}

10302 @ 눈맥재.{소경.}

10302 # 아하! 눈우 보지 못하는.{음! 눈으로 보지 못하는.}

10302 # 그런 소리르 내 들었어.{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

10302 @ 돌피를. 그렇기 가려내는구나!{돌피를. 그렇게 가려내는구나!}

10302 # 뱃지슴은 땀다꾸마. 보지 못하는 눈 먼 사람이 다른 지슴은 못 매두 뱃지슴은 땀다구. 그 그거 아는 사람이 그랬었지. 알구야 그렇지 그렇구 \*그럼? 그것두 자꾸 매 \*놔구 그래서 췌에 이래 췌에 바야 알지. 그 저 베가 그거.{벼 김은 땀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 먼 사람이 다른 김은 못 매도 벼 김은 땀다고. 그 그거(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랬었지. 알구야 그렇지 그렇고 그렇지? 그것두 자꾸 매 놓아서 그래서 쥐어 이렇게 쥐어 봐야 알지. 그 저 벼와 그거(돌피).}

10302 @ 돌피.{돌피.}

10302 # 돌피 그거르. 그런 소리르 하얏다마. 옛날 그거 다 옛날 늑은이들이 그렇게 말했겠지.{돌피 그걸. 그런 말을 하더군요. 옛날 그거 다 옛날 늑은이들이 그렇게 말했겠지.}

10302 @ 그럼 아매! 그 돌피를 그룻기 뿔아 내구. 그리구나서 뭐 인제 세모재비 이런 것들을 다 뿔아 내구. 예. 베가 좀 컷을 때 또 어 지슴우 매엿지?{그럼 할머니! 그 돌피를 그룻기 뿔아 내고. 그리고 나서 뭐 인제 세모재비(꿀꿀) 이런 것들을 다 뿔아 내고. 예. 벼가 좀 컷을 때 또 어 김을 매지요?}

10302 # 그거 풀이 잇으문 그양 매지. 음. 뽀까:(пока) 저나 베 이룻기 이색이 나올 때껴정 그양 그양 풀 매지.{그거 풀이 잇으면 그냥 매지. 음. 저기…… 벼가 이렇게 이삭이 나올 때까지 그냥 그냥 풀을 매지.}

10302 @ 그러면은 그리구나서: 어: 뭐 만약에 가물어서 물이 없다 그러면은 어더게 물을 댕슴둥? 베발에?{그러면 그리하고 나서 어 뭐 만약에 가물어서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물을 댕슴니까? 논에?}

10302 # 물이 없는 때 없겠지. 큰 도 이런 그런 기 미시긴가. 큰도라~올르, 짚우지. \*\*그릇두 너르다:만 그런 도라~올르 물이 네레오다나 물이 없으 때 없지. 베 벼농사라는 게 물이 없으문 아이 데지. 기래 물이사 그양: 잇지. 큰 도 에따(это) 그런 데르 네레가지.{물이 없는 때 없겠지. 큰 도랑 이런 그런 무엇인가. 큰 도랑으로 (물이 흐르는데) 갇지. \*\*그릇도 널따란 그런 도랑으로 물이 내려오다 보니 물이 없을 때가 없지. 벼 벼농사라는 것이 물이 없으면 안 되지. 그 래 물이야 그냥 항상 있지. 큰 도랑 음 그런 데로 내려가지.}

10318 @ 그러면 아매! 그: 추수할 때는 어더게 추수함둥?{그러면 할머니! 그 추수할 때는 어떻게 추

수를 함니까?}

10318 # 그답에 그.{그 다음에 그.}

10318 @ 거더들일 때.{거두어들일 때.}

10318 # 거더들, 거더, 베 거이 데루 밭써 누우렇게 데루 그 답에 물우 짹 빼지.{거두어들일, 거두어, 벼가 거의 되면 벌써 누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물을 짹 빼지.}

10318 @ 물으 먼저 빼구.{물을 먼저 빼고.}

10318 # 물으 짹 빼지. 물으 빼구 메출 잇으문 조끔 들어설만 하문 메출 잇으문 그 답에 베가슬으 하지.{물을 짹 빼지. 물을 빼고 며칠 잇으면 조끔 들어설 만하면 며칠 잇으면 그 다음에 벼가 물을 하지.}

10318 @ 그 가슬은 어더기 했을까?{그 가을은 어떻게 했을까?}

10318 # 가슬은 내 그전에 \*볼라이는 내 우리 우리 남편이네 꼬호즈(колхоз) 가 딱 네해르 \*날앗 습꿈. 네해르 살구 이새르 췌겔리 이새르 해 갔지. 개 나느 일은 밭에 나가 일은 할렐두 아이 했지. 네해 그저 집에서 저나 정슴이나 거구두 시 시격이나 끓이구. 기래구 시애끼가 우리 우리 남편이 그양: 일했지.{가을은 내가 그전에 보니 내 우리 우리 남편네 꼴호스에 가 딱 네해를 살았습니다. 네 해를 살고 이사를 췌겔리로 이사를 해 갔지. 그래 나는 일은 밭에 나가 일은 하루도 안 했지. 네 해를 그저 집에서 저기…… 점심이나 거두고 끼니나 짓고. 그리고 시동생과 우리 우리 남편이 그냥 일했지.}

10318 @ 그러니까 그때:는 날을르 빼 빼엿지?{그러니까 그 때는 낫으로 베 베엿지?}

10318 # 낫을르 빼엿다마. 그전에 짹 낫을르 베에. 낫을르 빼에 짹 묶어서 이래 조배기르 땀았음. 그 답에 그답에는 마술게다두 실어덜이구. 뱃단 으. 짹 낫을르 비문 다른 겔르 무스거 베에. 그전이 직금 와서 캄빠인(комбайн)이나 잇는둥. 그전에는 내 기계 어느 때인가. 아구! 전장 후에 마흔 일곱해에 마흔 아홉해에[야드페에] 그 무스겔르 무스겔르 그리했겠소! 그저 짹 낫을르 그래.{낫으로 베더군요. 그전에 짹 낫으로 베어. 낫으로 베어 짹 묶어서 이렇게 15 단씩 무지를 지어 놓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말 수레 따위로 실어들이고. 뱃단을. 짹 낫으로 베면, 다른 겔로 뭇 베어(=낫 외에는 뭇 것이 없다는 말). 그전이, 지금 와서 콤파인이나 잇는지. 그전에는 내 그게 어느 때인가. 아이고! 전쟁 후에 1947년, 1948년에 그 뭇로, 뭇로 그리했겠소(베었겠소)! 그저 짹 낫으로 베지.}

10318 @ 그레가지구 마술기에다가 실어가지구 집이 와서 그렇게 해서 어더기 털었슴둥?{그레 가지고 말 수레에다 실어 와 가지고 집에 와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털었습니까?}

10318 # 집우르 아이 실어오지. 그래 그거 저 그런 게 잇지. 마쉬나(машина) 잇지. 두디리는 마쉬나(машина). 캄바인(комбайн)은 마시나(машина) 두디리는 게 잇지. 빼 베기느 손을르 빼에두 아 두디리는 건 캄바인(комбайн)으르 두디레. 으음.{집으로 안 실어오지. 그래 그거 저 그런 게 잇지. 곡식을 터는 기계. 콤파인이라는 기계, 터는 것이 잇지. 베기는 손으로 베어도 아, 터는 건 콤파인으로 털어. 음.}

10318 @ 아아! 음. 음.{아! 음. 음.}

10318 # 즉금은 어전둥 그전에 내 시집가서 경계 와서 조끔 살 적에는 짹 다 낫을르 뽀:더구마. 낫을르 빼구 두디릴 적에는 톨리꼬(только) 캄바인(комбайн)으르 두디리지. 캄바인(комбайн)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올레보내는 게 잇구 경계서 또 뱃단으 이래 무슨 칼론둥 낫인둥 쿡 쿡 짜개서 거뒀 영구 거뒀 영구. 그건 내 밭지.{지금은 어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내가 시집가서 거기에 와 조끔 살 적에는 짹 다 낫으로 베더군요. 낫으로 베고 털 적에는 오직 콤파인으로 털지. 콤파인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서 올려보내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또 뱃단을

이렇게 뭐 칼인지 낫인지 쿡쿡 쪼개서 거두어 넣고. 그건 내가 보았지.}

10318 @ 그러니까 무슨 잉게 예: 잉게 이 줄루 잉게 뱃단으 묶어서 잉게 땅땅 내려친다거나 아니면 도리겔르 잉게 내리치는 건 없었습둥?(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이 줄(매끼)로 이렇게 뱃단을 묶어서 이렇게 땅땅 내려친다거나 아니면 도리께로 이렇게 내리치는 것은 없었습니까?)

10318 # 그런 것 못 봤어. 내 무스거 밧는가 하문 도리겔르 치는 거 못 보고 그전에 잉기 오고로드(огород) 오고로드(огород) 밧으 재비 밧으 주는 게 다(да) 고 고렷사름덜이 경계서 재비 밧에다가 베르 숨어. 거 뱃 소뜨까(сотка)씨 쫓는두~ 모르지 내사. 그 적엔 내 아무 세상두 몰랐어. 뱃 소뜨까(сотка)씨 주는 거.{그런 것은 못 봤어.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도리께로 치는 것은 못 보고 그전에 텃밭, 텃밭을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밧을 주었는데 웅 고렷사람들이 거기 자기 밧에다 벼를 심어. 거 밧 소뜨까씨 주었는지는 모르지 나야. 그 때에 내 세상 물정을 몰랐어. 밧 소뜨까씨 주는지 몰랐지.}

10318 # 그래 경계다 베르 송귀서 베르 송귀서 그담에 베르 썩 빼에서 고런 거 단으, 단으 요매씨 하압더구마, 다(да). 썩 마른 담에 그런 데 돌으 크 이런 게 이롱기 저나 뽕뽕한 이런 거 돌에다 메에칩더마. 다야 마른 거. 요 단으 요매씨 해에서. 그거 내 밧습꾸마.{그래 거기에다 벼를 심어서 벼를 심어서 그 다음에 벼를 베어서 단을 요만큼씩 짓더군요, 웅. 썩 마른 다음에 그런 데 돌을 크, 이런 게 이런 저기…… 뽕뽕한 이런 거 돌에다 메어치더군요. 다 마른 거. 요 단을 요만큼씩 해서. 그거 내가 보았습니다.}

10318 @ 아, 어디서? 어드메지 그제?(아, 어디서? 어디지 그제?)

10318 # 그 저 내 시집가서. 우리 우리 남편네 꼬호즈(колхоз)서.{그 저 내 시집가서. 우리 우리 남편네 콜호스에서.}

10318 @ 꼬호즈(колхоз)에서.{콜호스에서.}

10318 # 아하! 아, 그거 내 밧습꾸마.{아! 아, 그거 내가 봤습니다.}

10201 @ 거기가 아까 어디라구 그러셨지? 아……. 거기 시집가신 데가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거기가 아까 어디라고 그러셨지? 아……. 거기 시집가신 데가 아스트라한?}

10201 # 넬(нет)!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서는 그 내 조꼬마시적이 조꼬마시적이. 윈도~서 싫게 들어와서 거기서 살았지.{아니! 아스트라한에서는 그 내 조끄맷을 적이. 윈동서 실려 들어와서 거기서 살았지.}

10201 @ 아니! 아매 시집가신 데는 어디였었지?{할머니가 시집간 데는 어디였었지?}

10201 # 시집간 데는 저 우슈토베(Уш-тобе).{시집간 데는 저 우슈토베.}

10201 @ 맞아.{맞아.}

10201 # 꼴호즈 바로실로바(Варшилова)라구 잇었습꾸마. 열야들째[열야들째] 열야들째[열야들째] 하는 게. 뷔십나드차썰(восемнадцать) 열야들째[열야들째] 깔호즈(колхоз)지. 개 이름은 꼴호즈(колхоз) 이름은 발로실로바(Варшилова)지.{콜호스 바로실로바라고 있었습니다. 18번째 18번째라고 하는 것이. 18번째 18번째 콜호스지. 그래 이름은 그 콜호스 이름은 ‘바로실로바’지.}

10201 @ 바로실로바(Варшилова).{바로실로바.}

10201 # 바로실로바(Варшилова). 아이 노시아 기래 장군이 기애 에파(это) 바로실로바(Варшилова)라구 잇제이?{바로실로바. 아이, 러시아 그래 장군이 그 음 바로실로바라고 있잖소?}

10201 @ 모르겠습꾸마.{모르겠습니다.}

10201 # (웃음) 노시아 장 장교 그 전에. 바로실로바(Варшилова)라구 초~오 잘 놓는 사람이, 그

전에 그전에 노시아에, 노시아에 초~오 잘 놓는 사람이 바로실로바(Варшилова)라 하지. 그 그 바로, 그 꼴호즈 바로실로바(колхоз Варшилова)라구 그런데 가 살았지.{(웃음) 러시아 장교, 그 전에. 바로실로바라고 총을 잘 쏘는 사람이, 그 전에 그 전에 러시아에, 러시아에 총을 잘 쏘는 사람을 바로실로바라 하지. 그 그 바로, 그 콜호스 바로실로바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살았지.}

10318 @ 그렇셨구나. 음. 네. 그 그러니까 어 스집가서 댄 처음에는 이렇게 빼썩 말려 가지구 잉기 치는 것두 좀 보셨다구.{그러셨구나. 음. 네. 그 그러니까 어 시집가서 댄 처음에는 이렇게 벼를 빼썩 말려 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도 좀 보셨다고.}

10318 # 치는 거 밧습꾸마 내. 이래 따~에다가 무스거 가:뜩 폐농구서 무슨. 그거 따:르 따이 그러지 말라구. \*그 스 기래두 프쑤론느(всё равно) 딱 \*\*부리 안 나가지. 누(ну) 기래두 바:~이 그거 너르게 폐구선 기래구 돌으 저나 뽕:뽕하게 그전에 돌이 큰 게 잇제? 그 그 돌에다가 요매씨난 단 행 거 썩 말리워서 말리워서 기래 그거 그양, 아, 썩 썩 떨어지드만. 베 베알이 다야 떨어져.{치는 거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땅에다가 무엇을 가뜩 퍼 놓고서 무슨. 그거 땅을 땅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어쨌든 딱 \*\* 안 나가지. 그래도 방에 그거 너르게 폐구선, 그리고 돌을 저기…… 뽕뽕하게 그 전에 돌이 큰 것이 있잖소? 그 그 돌에다가 요만큼씩한 단을 한 것(단을 지은 것) 썩 말려서 말려서 그래 그거 그냥, 아, 썩 썩 떨어지더구먼. 벼알이 다 떨어져.}

10318 @ 저두 했습꾸마.{저도 했습니다.}

10318 # 난 아이 했어.{나는 아니 했어.}

10318 @ (조사자가 자신을 가리키며) 내, 내.{내, 내.}

10318 # 재빌르 했어?{손수 했어?}

10318 @ 내 어렸을 때 내 했습꾸마.{내 어렸을 때, 내 했습니다.}

10318 # 우리 저냐 거기 꼬호즈(колхоз) 사름덜두[뚜] 그래는 거 밧지.{우리 저기…… 콜호스 사름들두 그리하는 것을 봤지.}

10318 @ 그러면은 그 단을 이롱기 묶 묶는 바 잇제임둥 밧줄. 그게 있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제 임둥?{그러면 그 단을 이렇게 묶는 밧줄이 있잖습니까? 밧줄. 그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습니까?}

10318 # 누(ну), 글썬 이래 메치더군.{음, 글썬 이렇게 메치더군.}

10318 @ 예, 밑에 있는 돌은 무스거라구 불렀구 그 뱃단을 감는 줄은 무스거라구 불렀습둥?{예. 밑에 있는 돌은 무엇이라 불렀고 그 뱃단을 감는 줄은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10318 # 돌은 그저 돌으 그런 어디서 난 난 뽕뽕:한 납주구러한 거 이롱기 큰 거 어디가 얻어바 오지 머. 그래문 그거 따~에다 무스거 푸~이 같은 가뜩 피군 너르게 폐구 기래구 그거 다야 잘 말리워서 뱃단 요썩 요맨씨나게 요렇게 해서 잘 말리워서 거기다 잘 잘 털어지더문. 베알 베알 아이 지구 잘 털어지더만.{돌은 그저 돌을 그런 어디서 난 뽕뽕하고 납죽하게 생긴 이렇게 큰 것을 어디 가 찾아서 가지고 오지 뭐. 그러면 그거 땅에다 뭐 장막 같은 것을 가뜩 펴고 너르게 펴고 그리고 그거 다 잘 말려서 뱃단의 요썩을 요만큼씩하게 요렇게 해서 잘 말려서 거기다 치면 잘 잘 털어지더구먼. 벼알, 벼알이 안 지고 잘 털어지더구먼.}

10318 @ 도리겔르 이롱기 두두리는 거 못.{도리께로 이렇게 두드리는 것을 못.}

10318 # 도리께 두두리는 건 난 못 밧소.{벼를 타작할 때 도리께로 두드리는 건 난 못 보았소.}

10318 @ 못 보셨지?{못 보셨지?}

10318 # 못 밧습꿈. 그저 윈도~서느 그거 무스거 내 밧는가 하무 도리께 돌르 그 코~. 코~ 메지코~

이 잇지? 메지코~이나 승귀서. 내 도리깬르 두디리는 거 밋지. 우리 클아바이 생존에. 그런 거. 아, 이 베르 이 도리께 두디리는 건 내 못 밋지. (웃음){못 보았습니다. 그저 원동에서는 그저 무얼 내가 보았는가 하면 도리께 둘로 그 쿵. 쿵 메주콩이 있지? 메주콩이나 심어서. 내 도리께로 두드리는 것은 보았지. 우리 할아버지가 생존해 게실 때. 그런 거 보았지. 아, 이 버를 이 도리께로 두드리는 것은 내 못 보았지. (웃음).}

10318 @ 못 밋지. 없을 겁니다, 아마. (웃음) 어 그러면 아매! 여기서 아매 시집가신 시집에서는 베질만 했슴둥? 그 남편하구 시애끼하구 베질만 했슴둥?(못 보았지. 없을 겁니다, 아마. (웃음) 어 그러면 할머니! 여기서 할머니 시집가신 시집에서는 벼농사만 했습니까? 그 남편하고 시동생하고 벼농사만 했습니까?)

10201 # 베질은 내 내 시집가서는 밋 해 밋 헬 아이 하구 인츠 이세르 갖지. 그 어째 기뤼는가 하무, 아 우리 시애끼 시애끼가 우리 허재인(хозяин) 일 잘했습꾸마. 개 일년에 양천 푸르두(трудо)두 남아 남아 벌었지, 개 무스거 아완스(аванс)르 타두 아이 먹었는디 가슬이 가슬 돌아오문 그양 빈이 잇다구. 무슨 아무것두 타두 아이 먹었는데 그양 빈이 잇다구. 괴래 우리 허재인(хозяин) 너무 \*\*개으러나서 그담에 바로쉴로브 꼬호즈(Варашилов/а колхоз) 저어 따쉬켄트르 에따(это) 그 꼬호즈(колхоз) 딱 갖지. 열 열아홉째 바로쉴로브 꼴호즈.{벼농사는 내 내 시집가서는 밋 해 밋 해를 아니 하고 이내 이사를 갖지. 그 어째 그랬는가 하면 아, 우리 시동생 시동생과 우리 남편이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 일 년에 농동을 하고 2,000 푸르드도 넘어 넘어 벌었지. 그래 뒤 선불금(先拂金)을 타 먹지도 않았는데 가을, 가을이 돌아오면 그냥 빚이 있다고 하지. 무슨 아무것도 타 먹지도 않았는데 그냥 빚이 있다고. 그래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발로실로바 콜호스, 저 따시켄트로 음 그 콜호스로 딱 갔지. 19 번째 바로실로바 콜호스.}

10201 # 딱 갈 적이 기계 켜 켜 한 해, 켜 한 해, 저기 열아홉째 꼴호즈 정계 딱 간다 하지. 괴애 우리 남편이 무시기라 말하는가, ‘우리 경계르 가지 마자. 밋 해르 일해두 일은 밋 천 푸르드씨 벌어두 아완스(аванс)두 아무것두 타두 아이 먹어두 아! 그양 이 빈이 잇다이. 이거 어티기 헤어나겠는가. 우리네 월급 생활루 가자. 그래 어디르 가겠는가. 제깎리 가자구’. 개 제깎리 가서 살았지. 제깎리 가서 우리네 오폴로 드바드차찌 레프(около двадцати лет) 괴래 제깎리 가서 첫감엔 가서 저런 끼리사보드(кирзавод)서 우리 허재인(хозяин) 일했지. 으흠. 끼리사보드서 일하구. 끼리사보드서 조끔 일하다 그 담에 마선노이 꼬란(машинный кран)서 일했지. 크라노프식(крановщик)질했지 허재인(хозяин). 아, 기래머서 기래 크라노프식(крановщик)질 으지하메서 거기서 자우취노(заочно) 글두 이르구 괴래메 괴래메 그 제깎리서 살메서리. 그담에 제깎리에 살다가 두산베(Душанбе) 가 살았지, 따지크스탄에.{ 딱 갈 적에 그게 1951년, 1951년, 저기 19번째 콜호스 저기에 딱 간다고 핫. 그래 우리 남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거기로 가지 말자. 밋 해를 일해도 일은 밋 천(千) 푸르드씨 벌어도 선불금도 아무것두 타먹지 않아도 아! 그냥 이 빚이 있다. 이거 어떻게 헤어나겠는가. 우리네 월급 생활로 가자. 그래 어디로 가겠는가. 제깎리 가자’고. 그래 제깎리 가서 살았지. 제깎리 가서 우리네 한 스물 두어 살에 그래서 제깎리 가서, 처음엔 가서, 저런 끼리사보드에서 우리 남편이 일했지. 으흠. 끼리사보드 조끔 일하다 기증기를 다루는 곳에서 일했지. 기증기 운전기사의 일을 했지, 남편이. 아, 그러면서 그래 기증기 기사 일에 의지하면서 거기서 통신 교육으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제깎리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제깎리에서 살다가 두산베로 가서 살았지, 타지크스탄에.}

10201 @ 맞아! 두산베르 가셨지, 아까.{맞아! 두산베로 가셨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10201 # 아하! 그 담에 두산베에서 이 딸디꾸르간(Талдыкорган)으로 이세르 해 왔지.{음! 그 다음에 두산베에서 이 탈디꾸르간으로 이사를 해 왔지.}

10201 @ 따지크에서 두산베르 오신게 밋 년도일까?(타지크에서 두산베로 오신 것이 몇 년도일까?)

10201 # 예?(예?)

10201 @ 따찌꼬 예 따찌꼬에 두산베에서 여기 딸디꾸르간(Талдыкорган)으로 언제.{타지크, 예, 타지크의 두산베에서 여기 탈디꾸르간으로 언제.}

10201 # 언제 이세르 해 왔는가구?(언제 이사를 해 왔느냐고?)

10201 @ 예, 이세르 오셨슴둥?(예, 언제 이사를 오셨습니까?)

10201 # 치, 칠십년도에.{칠 칠 십 년도에.}

10201 @ 아이구!{아이고!}

10201 # 칠십년도에.{1970년도에.}

10201 @ 일찍 오셨네. 영겔르.{일찍 오셨네. 여기로.}

10201 # 칠십, 칠십년도에.{70, 1970년도에.}

10318 @ 음, 음. 음. 그럼 아매! 그거:: 벼농사 말구 다른 농사는 아이 겠슴둥? 베질할 때? 아이 했슴지? 베질만 했슴지?(음, 음. 음. 그럼 할머니! 그 벼농사 말고 다른 농사는 안 겠습니까? 벼농사할 때? 안 했지요? 벼농사만 했지요?)

10318 # 거:서 그뎌 그 꼬호즈(колхоз) 사름덜으느 베 베 베두 하구 베질두 하구 에 떠(это) 그런 거 스료꼴라스 농세질두 했지. 저 꼬호즈(колхоз)서, 꼬호즈(колхоз)서. 어, 나는 벼농세질두 모 못 나가구 스료꼴라스두 못 승귀 보구.{거기서 그뎌 그 콜호스 사람들은 벼 벼 벼도 하고 벼농사도 하고 에 음 그런 거 스료꼴라스 농사질도 했지. 저 콜호스에서, 콜호스에서. 어, 나는 벼농사에도 못 나가고 스료꼴라스도 못 심어 보고.}

10318 @ 그럼 아매! 고본질이라는 건 아심둥?(그럼 할머니! ‘고본질’이라는 건 아십니까?)

10318 # 고본질이라는 거 모 해 밋지.{고본질이라는 거 못 해 보았지.}

10318 # 우린 저 기관에서 기양 일하다나이 고본질 모 해 밋지. 고본질이라는 것도 없었짐.{우리는 기관에서 그냥 일하다 보니 고본질을 못 해 보았지. 고본질이라는 것도 없었지 뒤.}

10318 @ 고본질이라는 게 뭇둥? 아매.{고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머니.}

10318 # 고본질이라는 게 어: 이룽기 누(ну) 따~아 싸가지구서 거기다 그런 거 루꾸(лук)두 수무구 씨메치끼(семечки)두 수무구 일해서. 기래구 얼마 한 겹파르(гектар)에서 얼마마:치 국가 저주지. 그담 그담에 짚은 건 제 먹구. 이룽기 일으 고본질, 고렷사름덜 이룽기 고본질했지.{고본질이라는 것이 어 이렇게 음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그런 거 파도 심고 해바라기도 심고 일해서. 그래 얼마 한 헥타르에서 얼마만큼을 국가에 바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자기가 먹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고본질이라 하는데 고렷사람들이 이렇게 고본질을 했지.}

10318 @ 그럼 아매! 제가 이 꼴호즈에 살구 있습꾸마, 나쁘레메르(например){그럼 할머니 제가 이 꼴호스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318 # 어, 어.{어, 어.}

10318 @ 이:: 꼴호즈에 살구 있는데 여기서 에 이 꼴호즈에 땅을 빌림둥? 빌림둥?(이 꼴호스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에 이 꼴호스의 땅을 빌립니까? 빌립니까?)

10318 # 아! 따~아 따~아 잉게서두 직금두 잉게서두 따~아 팔지 그 사름게다. 머 밋 겹파르(гектаp) 암만이라:구 이룽기 밋 천이라:구 이룽기 딱 그 사름덜게다 팔지. 기래문 그 사름덜은 이

렇게 따~아 쓱 저래 메 얼마라고서 따~아 주구 싸무 그담엔 따~아 제 재비르 그 따~아 싸무  
직금으느 주는 게 없지. 다 \*지기지. 따~아 싸재애잉겏소? 싸다나이 제 따~이지.{아! 땅을, 땅  
을 여기서도 지금은 여기서도 땅을 팔지, 그 사람에게다. 뒤 몇 헥타르 아무 만 큼이라고 이렇  
게, 값이 몇 천이라고 이렇게 딱 그 사람들에게다 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땅을 쓱  
저렇게 얼마라고서 땅을 주고 사면 그 다음에는 땅을 자기가 스스로 그 땅을 사면 지금은 국  
가에 바치는 것이 없지. 다 자기 것이지. 땅을 사지 않겠소? 사다 보니 자기 땅이지.}

10318 @ 직금?{직금?}

10318 # 아하! 직금은. 개 이런 국가는 아이 주지. 아이 주지. 재비 재비 따~아 썻짐. 비싸게 주구  
썻는데. 그 담에 어전 안 데지.{그럼! 지금은. 그래 음 국가에는 안 바치지. 안 바치지. 자기,  
자기 땅을 샀지 뭐.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 다음에는 이젠 안 되지{자기가 샀기 때문에 국가  
에 주면 안 되지}.}

10318 @ 언제부터 그럼 국가가 따~아 팔았습둥?{언제부터 그럼 국가가 땅을 팔았습니까?}

10318 # 아! 나는 모르지. 농세질의 하재없다나이 어느때 팔구 어느때 어졌는둥~ 모르지.{아! 나는  
모르지. 농사질을 하지 않다 보니 어느 때 팔고 어느 때 어졌는지 모르지.}

10318 @ 그럼 옛날에 고본질할 때에.{그럼 옛날에 고본질할 때에.}

10318 # 응, 옛날에.{응, 옛날에.}

10318 @ 예, 고본질할 때…… 제가 지금 이: 꼴호즈에…… 칩습둥? 칩우문 꼬 꼬자구.{예, 고본질할  
때…… 제가 지금 이 콜호스에…… 출습니까? 추우면 {에어컨을} 끄려고.}

# 아, 받습소.{아, 그냥 바람을 받으세요{죄세요}.}

@ 아니, 흐히두 전 필요 없습꾸마. 아매 때문에 컷습꾸마.{아니 저희도 전 에어컨 바람이 필요 없습  
니다. 할머니 때문에 컷습니다.}

# 아아니! 일없소!{아니! 괜찮소.}

@ 그럼 꼬오.{그럼 꼬오.}

10318 @ 그럼 아매! 이렇게 이케 꼴호즈무 제가 꼴호즈에 있습꾸마. 그러면 이 꼴호즈 땅을 일년  
동안 빌리는 거업둥? 고본질이라고 하는 게?{그럼 할머니! 이렇게 이케 콜호스라면 제가 이  
콜호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콜호스 땅을 일 년 동안 빌리는 것입니까? 고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

10318 # 고본질하는 사름덜이, 다(да). 어 어떤 사름덜으느 저래 따~아 싸서 누(ну) 일년이나 이티  
나 이룽기 고본질 하 하지. 고본질 하 그렇기 도거버리썻(договориться)하구서리 에 따~아  
그러 수무지. 음. 그담에 그거 이티나 이 이 일년이나 그만한 돈으 물구서르 싸무 싸구서는  
돈이 잇으무 돈으 물구. 돈이 없으문 못 수무지.{고본질하는 사름덜이, 응. 어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땅을 사서 음 일 년이나 이 년이나 이렇게 고본질을 하지. 고본질 하오 그렇게 계약  
(契約)을 하고서 에 땅에다 심지. 음. 그 다음에 그거 이태나 이 일 년이나 그만한 돈을 물고  
서 사면, 사고서는 돈이 있으면 돈을 물고. 돈이 없으면 못 심지.}

10318 @ 그렇지.{그렇지.}

10318 # 그렇지.{그렇지.}

10318 @ 그러면 자기 꼴호즈 말구 다른 사람 꼴호즈에 가서두 고본질을 할 수 있습둥?{그러면 자  
기 콜호스 말고 다른 사람 콜호스에 가서도 고본질을 할 수 있습니까?}

10318 # 그렇재앵구 그래! 저 여기 영계 사름덜이 우리네는 아이 그랬지. 우리 고렷사름덜은 저어  
기 라씨아(Россия)나 벨 데 다 가서 농세질했지. 벨 데 다 가서는. 이 싸라:또꼬구 어디메구  
다아 가서.{그렇지 않고 그래(그렇고 말고)! 저 여기 여기에 사름덜이 우리네는 안 그랬지. 우

리 고렷사름덜은 저기 러시아나 벨 데 다 가서 농사질했지. 벨 데 다 가서는. 이 사라토르고  
어디고 다 가서.}

10318 @ 그러니까 거기가서 일년동안 땅을 양게 돈을 주구 빌림둥?{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 년 동  
안 땅을 이렇게 돈을 주고 빌림니까?}

10318 # 기래구서리 농세질의 해애 가지구 오지. 그 그 담에 그 이듬해느 또 다른 테르 가지.{그리  
하고서 농사질을 해 가지고 오지. 그 그 다음에는 그 이듬해에는 또 다른 테로 가지.}

10318 @ 그렇습지.{그렇지요.}

10318 # 다른 데 가서 또 얼마만한 따~아 싸 싸가지구서 노 농세질의 하지. 그렇기 그. 이 노시아  
땅두 벨 데르 다아 돌아댕기지 영계 고렷사름덜이. 이 딸디꾸르간(Талдыкорган) 고렷사름  
덜이.{다른 데 가서 또 얼마 만한 땅을 사 사 가지고서 농사질을 하지. 그렇게 그. 이 러시아  
땅도 벨 데를 다 돌아다니지 여기 고렷사름덜이. 이 탈디꾸르간 고렷사름덜이.}

10318 @ 부지런하재임둥 고렷사름덜이.{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고렷사름덜이.}

10318 # 그 무스거 숨는다든가?{그 무엇을 심는다든가?}

10318 @ 루꾸(лук){파.}

10318 # 루꾸(лук)두 수무구. 수박두 수무구, 수박 참에나 수무구. 누(ну) 그래서 기래지. 그래가지  
구.{파. 수박도 심고, 수박 참외나 심고. 음, 그래서 그래지. 그래 가지고.}

10318 @ 근데 어제 이렇:게 알마따에서 탈디꾸르간 가는데, 아매! 수박으 많이 파압데. 길에서.{그런  
데 어제 이렇게 알마티에서 탈디꾸르간을 가는데 할머니! 수박을 많이 팔데. 길에서.}

10318 # 질에서 해! 여기 시장 가무 알마따까지 파오. {웃음} 질에서, 질에서. 아하! 그전에 나두 알  
마따 땡길 적이. 그전에두 괴래. 직금두 그렇구. 그전에두 괴래. 저어기 깡차가이 지나서 저깡  
기양.{길에서 해! 여기 지금 가다 보면 알마티까지 파오. {웃음} 길에서, 길에서. 아! 그전에 나  
도 알마티 다닐 적에 보면 그전에도 그래. 지금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래. 저기 깡차가이 지  
나서 저쪽까지 그냥 {사름덜이 물건을 팔지.}

10318 @ 그럼 고본질을 하문 대개 얼마르 에 그 꼴호즈에 바침둥? 국가에다 바침둥?{그럼 고본질  
을 하문 대개 얼마를 에 그 콜호스에다 바칩니까? 국가에다 바칩니까?}

10318 # 아, 모르지. 내 재비르 농세질의 아이하다 나이 그게사 모르지.{아, 모르지. 내 자신이 농사  
질을 안 짓다 보니 그런 것이야 모르지.}

10318 @ 그러니까 아매 말씀은 고렷사름덜이 제일 마이 하는게 인제 루꾸(лук)구 파이트 많이 하  
구. 고 담에는 수박.{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은 고렷사름덜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파고,  
파농사를 많이 하고. 고 다음에 수박.}

10318 # 수박 참에구.{수박 참외이고.}

10318 # 고담에 어떤 사름덜으느 마르꼬프(морковь)나 짓재임둥?{고 다음에 어떤 사름덜은 홍당무  
등을 짓잖습니까?}

10318 @ 마르꼬프(морковь). 음.{홍당무. 음.}

10401 @ 그럼 아매! 그:: 목하라든가 머.{그럼 할머니! 그 목화라든가 뭐.}

10401 # 목하.{목화.}

10401 @ 께남(конопля)이라든가.{삼[麻]이라든가.}

10401 # 그거느 파시겐뜨(Ташкент)에 잇지. 파시겐뜨(Ташкент)에 잇지 잉게는 없어. 잉게 까자  
흐스판은 어디메 잇는가 하무 저 칙켄트서 경계서 목하르 스무지. 저 그 딱 절에, 파시겐뜨(Т  
ашкент) 절에.{그것은 타슈켄트에 있지. 타슈켄트에 있지. 여기는 없어. 여기 카자흐스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침켄트에서 거기서 목화를 심지. 저 그 딱 곁에, 타슈켄트 곁에.}

10401 @ 절이지.{절이지.}

10401 # 아하! 절에 저 침켄트. 경계서 목하르 스무지. 거기 까자흐스탄은 경계서 목하르 스무지 다른 데서느 목하 아이 데지. 침켄트 톨리카(только)지. 그게 덤재애이오?{아! 곁에 저 침켄트. 거기에서 목화를 심지. 거기 카자흐스탄은 거기서 목화를 심지 다른 데서는 목화가 안 되지. 침켄트에서만 오직 심지. 그곳이 덤지 않소?}

104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401 # 으음. 다른 데. 개구 께납(конопля)이라는 거는 잉게는 까자흐스탄에서 못 구경했어. 내 그전에 따지흐스탄에 놀라 가길래 경계 가 밧지. 께납(конопля)인등 무시켄등. 아하! 께납(конопля)은 거 형겅트스 맨드는가? 어찌는가?{음. 다른 데. 그리고 삼이라는 것은 카자흐스탄에서는 구경하지 못했어. 내 그전에 타지크스탄에 놀러 가서 거기서 보았지, 삼인지 무엇인지. 아! 삼은 거 천을 만드느가? 삼을 가지고 어찌하는가?}

10401 @ 그렇습지. 베 우티.{그렇지요. 베웃을.}

10401 # 아아! 나는 그 노릇은 못하겠습더구마. 어우! 사름덜 일하는 거 보이, 이 께납(конопля)키 네 메따라(метре) 다숫 메따라(метре) 데엠크마. 그리 꽃꽂이 올라간게. 기랜데 요꺼 조꿈 다치무 이게 살이 가람아서 모 못 견디겠어. 살이 가람아. 켜테 경계 사름덜 고렷사름덜 어티기 그렇게 했는두~ 모르지. 아아! 기차더문. (혀 차는 소리).{아! 나는 그 노릇은 못하겠더군요. 어우! 사람들 일하는 것을 보니, 이 삼은 키가 4미터, 5미터가 됩니다. 그렇게 꽃꽂이 올라간 것이. 그런데 요기 있는 것을 조꿈 견드리면 이게 살이 가려워서 못 견디겠어. 살이 가려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고렷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일했는지 모르지. 아! 기차더구먼. (혀 차는 소리).}

10414 @ 그럼 아매! 그 느베치기 머 이런 건 해 보셨습등?{그럼 할머니! 그 누에치기 뭐 이런 것은 해 보셨습니까?}

10414 # 그런 건 모 해 모 해봤어. 따시켄트(Ташкент)서 그전에 그거 그랬었지.{그런 것은 못 해 못 해보았어. 타슈켄트에서 그전에 그거(누에) 그랬었지(쳤었지).}

10414 @ 따시켄트(Ташкент)에서.{타슈켄트에서.}

10414 # 따시켄트(Ташкент)서.{타슈켄트에서.}

## 2.2. 과일과 나물

10307 @ 그럼 아매! 그 아매 오구르드(огород)에서는 지금 뭘 질 길러냄등?{그럼 할머니! 그 할머니 텃밭에서는 지금 무엇을 길러냅니까?}

10307 # 우리 집에? 내 내 집에서? 내 집에 해우! 난 저런 고치르 고치르 이제 우 첫감에 식문 \*거덩 다아 얼어 빠졌지. 잉게 얼귀 얼구메해서 잉게. 그래 다아 얼어빠진 그담에 그래 다시 승귀 놓오이 게 안죽은 이제 꽃이 피우. 그것두 재비 막을 \*거마이두만. 그전에 그전에 췌엔이 잇을 적이느 에따(это) 췌엔이 그런 거 뻘시(пенсия) 나와서 기래 뻘시(пенсия) 나오기 전 에두 일 일 하메서리 저 저 정게 옐친 살적에 \*오구르(огород) 지나 밭에다 그 땅딸기, 고려말르느 기게 땅딸기지. 지금은 마우재덜 굴루부니까(клубника) 굴루부니까(клубника) 하재임등? 이게 땅딸기지. 땅딸기 승귀서 저 파 팔았지. 으음. 기래구 잉게 고로드(город) 이세르 오이까나 땅딸기두 아이 숨어. 아무것두 아이 숨었어.{우리 집에? 내 내 집에서? 내 집에 어

휴! 난 저런 고추를, 고추를 이제 처음에 심은 게 다 얼어 버렸지. 여기서 얼리어 얼음을 만 들어서 여기서. 그래 다 얼어 버린 그 다음에 그래 다시 심어 놓으니 그게 아직은 이제 꽃이 피오. 그것도 자기가 먹을 것만큼이지만 해도. 그전에 그전에 남편이 살아 있을 적에는 음 남편이 그런 거 연금이 나와서 그래 연금이 나오기 전에도 일 하면서 저 저 저기 옐친에 살 적에 텃밭, 저기…… 밭에다 그 땅딸기, 고려말르느 그게 땅딸기지.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이 ‘굴루부니까(клубника)’, ‘굴루부니까(клубника)’라 하잖소? 이게 땅딸기지. 땅딸기를 심어서 저 팔았지. 음. 그리고 여기 도시로 이사를 오니까 땅딸기도 안 심어. 아무것도 안 심었어.}

10307 # 그저 제 먹을 거 아고르뜨(огород) 한고라~, 거저 고치르 뒤: 고라~: 이릉기 수무무. 상언에는 다드베채나 승겅텃어. 아, 다드베채 승구이까 그 이 저나 다아 다아 이 여무무 다아 싹 터지지. 기래 올해는 내 상언에 기랬지 아:덜까. 야! 올해는 돌아오는 해에는 야 식무지 말자. 다드베채르. 아, 바자르(базар) 가서 가슬이무 녹은데 그 이거 저나 그 \*\*배준땃:지. 다아 따개지. 다아 따개지. 아, 이거 거저 그거 고사~한 바렘두 없지. 가슬에 가서 바자르(базар)서 싸자. 기래 올해는 다드베채두 아이 숨어. 기래구서 그 아이 저나 밭에다 무스거 그거 무스거 수무겠어.{그저 자기 먹을 거 텃밭 한 고랑, 그저 고추를 두어 고랑 이렇게 심으면. 작년에는 양배추나 심었었어. 아, 양배추를 심으니까 그 이 저기…… 다 다 이 여물면 다 싹 통이 터지. 그래 올해는 내 작년에 그랬지, 아이들에게. 야! 올해는 돌아오는 해에는 심지 말자. 양배추를. 아, 가을에 시장에 가면 썬데 그 이거 저기…… 그 \*\*땃지. 다 쪼개지. 다 쪼개지. 아, 이거 그저 그거 고상한 보람도 없지. 가을에 가서 시장에서 사자. 그래 올해는 양배추도 안 심었어. 그리고서 아이 저기…… 밭에다 무엇을 그 무엇을 심었어.}

10307 # 그래서 올해는 옥수꾸 조꿈 승겅지. 기래구서리 그런 거 앞올르느 내 그 밭으 에따(это) 싸아드(сад) 맨들자구. 이런 열매 낭그 승구자구. 열매 낭그 올해는 내 네 천 네 천 네천네천 싸다가서 에따(это) 옹겨놋지. 이 그루샤구(груша) 야블로쨍(яблоко)구 어 체시냐(черешня)구. 아하! 돌아오는 해는 아구로트(огород) 없어. 내 그거 낭그덜 싸다가 싹 쏴아 났어. 그 어찌지 못하겠는데. 풀이 자꾸마 나지, 팔이 아프지, 허리 아프지. 헤이! 난 아무것도 안 해. (웃음).{그래서 올해는 옥수수를 조꿈 심었지. 그리고 그런 거 앞으로는 내 그 밭을 음 정원(庭園)을 만들자고. 이런 열매 나무(=果實樹)를 심자고. 과일수를 올해는 내 4000, 4000 탕게를 주고 사다가 음 옮겨 놓았지. 이 배나무, 사과나무고 어 뱃나무고. 아! 돌아오는 해에는 텃밭이 없어. 내 그거 나무들을 사다가 싹 쏴아 놓았어. 그 어찌하지 못하겠는데. 풀이 자꾸만 나지, 팔이 아프지, 허리 아프지. 에이! 난 아무것도 안 해. (웃음).}

10307 @ 아매! 야블로까(яблоко)하구 체리 줌 달겠습등 올해?{할머니! 사과하고 버찌가 줌 달렸습니까? 올해?}

10307 # 올해사 그게 언제. 돌아오는 해에 \*\*땃 게. 올해 옹게 논게. \*\*깰리올리한 거. \*\*깰리올리한 거 싸다가 싹 다 옹겨 났지. 앞올루느 싹 테제. 오구르드(огород) 없어. 누기 그거 누기 그거 어찌겠어.{올해야 그게 언제 (열리겠소). 돌아오는 해에 \*\*땃 게. 올해 옮겨 놓은 게. \*\*\*\*한 거 \*\*\*\*한 거 사다가 싹 다 옮겨 놓았지. 앞으로는 텃밭의 것을 싹 버리려 하지. 텃밭이 없어. 누가 그거 누가 어찌하겠어(그 텃밭을 누가 가꾸겠소).}

10504 @ 그렇습지. 그럼 아매! 어:: 나물 이 산에 가서 머 뜯어오는 거. 들이나 산에 가서 머 뜯어오는 거.{그렇지요. 그럼 할머니 어 나물 이 산에 가서 뭐 뜯어오는 거. 들이나 산에 가서 뭐 뜯어오는 거.}

10504 # 산에 가서 나물 캐는 거?{산에 가서 나물 캐는 거?}

10504 @ 예, 예, 예.{예, 예, 예.}

10504 # 산에 잉게 나물이 잇슴둥?[산에 여기에 나물이 있습니까?]

10504 @ 그런걸 해 보셨슴둥?[그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10504 # 산에 나물이 없습꾸마 잉게. 무슨 나물이. 거저 잇다는 게 거저 저 사척에 집오래나 거저 저런 계랑 무슨둘레 잇지. 무슨둘레 잇지. 기래구 다른 나물이 미시기 잇슴둥, 없스꼬마.[산에 나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나물이 있겠어. 그저 잇다는 것이 그저 사방에 집 주위 등에 저런 것이랑 민들레가 있지. 민들레가 있지. 그리고 다른 나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0504 @ 뭐 세투리두 잇구.[뭐 씀바귀도 있을 것이고.]

10504 # 세투리나 그런 게 잇지. 세투리가: 무슨둘레 잇구. 기래구 나시 잇구. 나시라는 풀.[씀바귀나 그런 것이야 있지. 씀바귀와 민들레 있고. 그리고 냉이가 있고. 냉이라는 풀.]

10504 @ 봄에.[봄에.]

10504 # 그거 그건 그건 나시라는 나물이 잇지. 기래구 다른 나물이사 원동 나물이사 잉게 없지. 원동나물은 잉게 없지. 영계 나물은 그것밖에 없지 무슨.[그거 그건 그건 냉이라는 나물이 있지. 그리고 다른 나물이야 원동 나물이야 여기에 없지. 원동 나물은 여기에 없지. 여기에 나물은 그것밖에 없지 뭐.]

10504 @ 그거 아매! 원동 나물도 애:기 좀 해 주옵소.[그거 할머니! 원동 나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10504 # 원동나물은 내 조오꼬마스 적이 에따(это) 조오꼬만 게 나무판에 땡길 적이지. 원동나물으는 보선나물두 잇구. 제비나물이두 잇구. 닥지썰기두 잇구.[원동의 나물은 내가 조꼬맷을 적에 음, 조꼬만 것이 숲에 다닐 적이지. 원동 나물은 ‘보선나물’도 있고. 제비나물도 있고. 모싯대의 썩도 있지.]

10504 @ 아아! 예.[아아! 예.]

10504 # 닥지썰기 잇구. 지름고비두 잇구, 개 고사리두 잇구. 그래 그거 그거 봄이무 그거 나물 켈라 땡갯갯지. 쪼오꼬만게 모도. 기래구 원도~ 이시적에는 그게 그래 많갯지. 어 산에 멀귀. 비노그라드 지꺤(виноград дикий).[모싯대의 썩이 있고. 기름고비도 있고, 그래 고사리도 있고. 그래 그거 그거 봄이면 그거 나물을 캐러 다녔지. 쪼꼬만 것들이 모두. 그리고 원동에 있을 적에는 그게 그래 많았지. 어, 산에 머루. 러시아 말로 비노그라드 지꺤(виноград дикий, 머루).]

10504 @ 다(да), 다(да).[예, 예.]

10504 # 아하! 산에 산에 비노 에따(это) \*말드 멀기 멀. 지 지금 그거 원도~ 잇으 적에는 기게 멀귀지. 지금은 기게 저 마우재덜이따마나 지끼비노그라드(дикий виноград)지. 산에 잇다나이 산에. 개 깨앰 뜰을라 땡갯지. 다래 뜰을라두 땡기구. 에이구! 땅딸기구 가시달기구 쪼오꼬마 실 적이 이래 뜰을라 땡갯지. 다래두 잇었지.[아! 산에 산에 비노그라드(виноград) 음 머루 머루. 지금, 그거 원동에 있을 적에는 그게 머루지. 지금은 저 러시아 사람들 말따마나 ‘지끼비노그라드(дикий виноград, 머루)’지. 산에 잇다 보니 산에. 그래 개암 따러 다녔지. 다래도 있었지.]

10504 @ 그렇습지.[그렇지요.]

10504 # 으흠. 원동에 잇으 적이 다래두 잇었지. 깨앰두 잇었지. 깨앰 뜰을라 땡갯지. 멀귀 뜰을라 땡갯지.[으흠. 원동에 있을 때 다래도 있었지. 개암도 있었지, 개암 따라 다녔지, 머루 따라 다녔지.]

10504 @ 근데 아매! 그 처음에 말씀하신 보선나물이라구 하는 거는 무슨, 어티기 생겼슴둥?[그런데

할머니! 그 처음에 말씀하신 ‘보선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습니까?]

10504 # 정말 까끄부떠(как--). 어: 무슨따마나 에 이룽기 누(ну) 잉게 이룽기 잉게 대 잇지. 기래 그거 어째 고 고렷사름덜이 보선나물이라 했는두 내 나두 모르지. 보선나물으 보선나물이라 하지.[정말 어떻게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 어 뭐따마나 에 이렇게 음 잉게 이렇게 여기에 대 (줄기)가 있지. 그래 그거 어째 고렷사람들이 ‘보선나물’이라고 했는지 내 나도 모르지. 보선나물을 보선나물이라 하지.]

10504 # 제비나물이라는 건 요 우이는 우이는 새파랗게 에 잉게 풀색이 나구 이 이래 이썩 두우홀 기래무 거 제 제비색이 나지. 제비 이룽기 양보라 색이 나는 같은 게 제비 그런 여러 가지 색이 나는게 곱재임둥 제비? 개 그 이래 홀 헤치무 이래 홀 데디무 거기 제비 제비 색이 나지. 한썩, 한썩으는 새파란 계구, 한썩으는 제비 제비 새 저나 에 색처름 고통기. 그래 그런 두 제비나물이라구 하더만.[제비나물이라는 것은 요 위는 위는 새파랗게 에 이렇게 풀색이 나고 이 이렇게 이썩 뒤를 홀 헤치면 홀 버리면 거 제비 제비 색이 나지. 제비 이렇게 양보라 색이 나는 것 같은 게 제비 그런 여러 가지 색이 나는 것이 곱잖습니까 제비? 그래 그 홀 켓히면 홀 던져 놓으면 거기 제비 제비 색이 나지. 한 썩, 한 썩은 새파란 것이고, 한 썩은 제비 제비 \*\*새 저기…… 에 색처럼 고통게. 그래 그런지 제비나물이라고 하더구먼.]

10504 # (웃음) 개구 무슨 닥지썰기요 무스 무시기구 많지 무슨. 기래구 고사리두 원동 이시 적이 는 두 가지 태갯지. 두 가지가 왜 두 가진두 모르지. 내 세상 모르는 게. 지름고비 잇구, 거저 고사리 잇구 그저 그랬지. 기래구 낭그두 이름 더러 잇어버썰습꾸마. 더 잇엇갯습꾸마. 갠데 이림이…….[(웃음) 그리고 무슨 닥지썰기요 뭐 무엇이고 많지 뭐. 그리고 고사리도 원동에 있을 적에는 두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가 왜 두 가지인지 모르지. 그 때는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 것이어서. 고비가 있고, 그냥 고사리 있고 그저 그랬지. 그리고 나무도 이름을 더러 잇어버썰습니다. 더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10504 @ 많았갯지 머.[많았갯지 뭐.]

10504 # 많지. 고려에. 원도~사 나물이 많지, 산이.[ 많지. 고려에. 원동에야 나물이 많지, 산에.]

10504 @ 그럼 아매 이 보선나물은 어떻게 해먹었슴둥?[그럼 할머니 이 보선나물은 어떻게 해 먹었습니까?]

10506 # 무슨둘레두 잇구.[민들레도 있고.]

10506 # 개 어떤 어떤 나물으는 에따(это) 저나 씹운 게 잇구. 어떤 나물으는 아이 씹지. 데와서 썩 썰어서 저래 \*테 저 장물으 해먹을만 하지. 어떤 나물으는 저 무슨둘레처름 무슨둘레 씹재임둥? 무슨둘레처름 우레야 하지. 세투리랑 썩 우레야지. 데와서 우레야지. 그런 거 그런 나물덜두 잇었지.[그래 어떤, 어떤 나물은 음 저기…… 쓴 것이 있고. 어떤 나물은 안 쓰지. 데쳐서 썩 썰어서 바로 저 국을 해 먹을 만하지. 어떤 나물은 저 민들레처럼 민들레 쓰지 않습니까? 민들레처럼 우려야 하지. 씀바귀랑 썩 우려야지. 데쳐서 우려야지. 그런 거 그런 나물들도 있었지.]

10506 @ 그러니까 어떻게 메웠을까? 데와서 뭘?[그러니까 어떻게 무쳤을까? 무엇을 데쳐서?]

10506 # 데와서.[데쳐서.]

10506 @ 어떤 양념을 넣어서 잉게 메웠을까?[어떤 양념을 넣어서 이렇게 무쳤을까?]

10506 # 데와서 무스 고치두 농구 마늘으 농구 루 루꾸(лук)두 파이 그 고렷사름 그거 파이라 하지. 루꾸(лук)르 파이라 하지. 파이두 농구. 아! 지름은 지름으 답답아서 잉게 뉘아서.[데쳐서 뭘 고추도 넣고(넣고) 마늘도 넣고 파도, 파 그 고렷사람은 그거 ‘파이’(파)라 하지. ‘루꾸(лук)’를 ‘파이’라 하지. 파도 넣고. 아! 기름은 기름은 여러 번 뒤어서.]

10506 @ 지름은 무슨 지름이까 그제?{지름은 무슨 기름일까? 그제?}

10506 # 지름은 원도~에 잇으 적이는 지림이 콩지림이 잇구 깨지림이 잇었습꾸마. 깨. 아하! 거저 깨나 그전에 가뜰 모도 그저, 그저 에따(это) 그저 제 재빌르 숲에 아이 하루 열매라두 따아 뚜지구 수무지. 깨 재빌르 숲에하무 어 밭이두 조꼬말지. 원도~서사 기랸지. 음.{기름은 원동에 있을 적에는 기름이 콩기름이 있고 깨기름이 있었습니다. 깨. 아! 그저 깨나 가뜰 모두 그저, 그저 음 그저 제 스스로, 싫어 아니 하면 얼마라도 땅을 파고 심지. 그래 제 스스로 일하기 싫어하면 어 밭도 조꼬말지. 원동에서야 그랬지. 음.}

10307 @ 근데 여기선 지금은 깨지름 아이 심지?{그런데 여기선 지금은 기름을 짜는 깨를 안 심지?}

10307 # 깨르 무시기 숨어. 그거 어디다가 그렇게 마이 승귀서 지름우 짜래르 그래겠어. 원도~서는 아야! 그 산에다가서리 밭으 맨들어서 가:뜰 수무무 그룽기 잘 데지. 이래 굶다망게스리[굶다 마케스리]. 그러이까 원도~서는 정말 저나 저나 일하기 좋아하는 집우는 깨지름 기양 잇었지. 일하제인은 집우는, 일하기 숲에하는 사름 집은 깨지름 없지. 콩지름이나 잇지.{깨를 누가 심어. 그거 어디다가 그렇게 많이 심어서 기름을 짜려고 그러겠어. 원동에서는 아! 그 산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가뜰 심으면 그렇게 잘 되지. 이렇게 굶다랄게. 그러니까 원동에서는 정말 저기…… 일하기 좋아하는 집은 깨기름이 그냥 있었지. 일을 하지 않는 집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름 집은 깨기름이 없지. 콩기름이나 잇지.}

10307 @ 그렇지.{그렇지.}

10307 # 그래 아무 때 아무데서두 그렇지. 아무데서두 그렇지. 원도~으느 콩지름가 깨지름이 잇었습꿈[이서스꿈]. 다른 지름은 못 봤어. 내 그 쪼외꼬만 게 세상 모르는 게 무신 다른 지름이 잇었는둥 어했는둥. 그저 깨지름가 콩기름백이 모르지. (웃음) 영게르 들어오이까나 콩지름두 없구 그저 세메취까(семечка) 지름이 잇지. 해자부리 지림이 잇지. 해자부리 지림이 잇지.{그래 아무 때 아무 데서도 그렇지. 아무 데서도 그렇지. 원동은 콩기름과 깨기름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름은 못 봤어. 내 그 쪼꼬만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무슨 다른 기름이 있었는지 어했는지 알겠나. 그저 깨기름과 콩기름밖에 모르지. 그저 여기로 들어오니까 콩기름도 없고 그저 해바라기 씨를 쥔 기름이 잇지. 해바라기 기름이 잇지. 해바라기 기름이 잇지.}

10307 @ 음, 음.{음, 음.}

10307 # 기래구 그전에는 그전에는 마가신(магазин)에 저나 에따(это) 목하지름이 잇었습꾸마. 직금 없어. 직금 없습꿈. 그전에 목하지름이 공이사서 팔앗스. 으흠.{그리고 그전에는, 그전에는 상점에 저기…… 음 목화지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 직금 없습니다. 목화지름을 상점에서 팔았습니다. 음.}

10307 @ 공이사.{상점.}

10307 # 아하! 마가신(магазин)에서 팔앗지. 공이사.{아! 상점에서 팔앗지. 상점}

10504 @ 음, 이 보선나물예, 아매! 꽃이 핏둥?{음, 이 보선나물예, 할머니! 꽃이 핏니까?}

10504 # 꽃이 피는 거 못 맞습꾸마.{꽃이 피는 거 못 맞습니다.}

10504 @ 아아, 제비나물 요거는 꽃이 피입지? 파랗게 피입지?{아, 제비나물 요거는 꽃이 피지요?}

10504 # 피던두 어찌던두. 아, 그러나 그 언제 꽃이 필 시 필 새 잇는가. 꽃이 피기 전에 썩 다 저네 다 캐다나. 술한게 다 가 \*캐다나우.{피었던지 어했든지. 아, 그러나 그 언제 꽃이 필 시간 이 잇는가. 꽃이 피기 전에 썩 다 사람들이 캐다 보니, 술한 사람이 다 가서 캐다 보니.}

10504 @ 다(да), 다(да). 그러면 이 닥지썰기라는 거 이거는 제가.{예, 예. 그러면 이 모싯대의 썩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10504 # 닥지썰기라구서리 이룽기 그거 닥지썰기 모도 어떤 사름덜으느 데우쟁구서르 이제 이제

저나 선 선생이 정말 썩이르 해 먹제임둥? 그렇기 장이다 찍어서 썩이르 해 먹는, 썩이두 해 먹구. 데와서 이룽기 저나 채두 해먹구. 으흠. 닥지썰기. 개구 무 삼 닥지썰기두 잇구 삼지라던두~ 그런 그런 나물두 잇구. 삼진둥 무시긴둥 음.{모싯대의 썩이라고 이렇게 그거 모싯대의 썩을 모두 어떤 사람들은 데치지 않고서 이제 이제 저기…… 선생이 정말 지금 썩을 해 먹잖습니까? 그렇게 장에다 찍어서 썩을 해 먹는, 썩도 해 먹고. 데쳐서 이렇게 저기…… 반찬도 해 먹고. 으흠. 모싯대 썩. 그리고 뭐 모싯대의 썩도 있고 삼주라던가 그런 그런 나물도 있고. 삼주인가 무엇인가 음.}

10504 @ 삼지. 음. 삼지르 많이 해 잡수셨네. 그럼 원동에서는 많이 해 잡수셨네요.{삼주. 음. 삼주를 많이 해 잡수셨네. 그럼 원동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해 잡수셨네요.}

10504 # 많:습꼬마. 깨 내 잇어뿌레짐.{많습니다. 그래 내 잇어버렸지 뭐.}

10504 @ 보선나물, 제비나물, 닥지썰기, 지름고지, 고사리, 삼취 많이 해 잡수셨네.{보선나물, 제비나물, 모싯대의 썩, 고비, 고사리, 삼주 많이 해 잡수셨네.}

10504 # 많:습꼬마. 내 안죽 모르이 그렇지 썩 잇어뿌레. (웃음) 나아 먹어, \*\*어려썩사, 들어왔으무 알지. 내 쪼오꼬말적에 들어온 게 머. 몰라서.{많습니다. 내 아직 모르니 그렇지 썩 잇어버려서. (웃음) 원동에서 나이를 먹어, \*\*다면야, 이곳으로 들어왔으면 내가 알지. 내가 쪼꼬말 적에 들어온 것이 뭐. 몰라서 (말을 못하지).}

10504 @ 그래두 켜꼬망게, 쪼꼬말 때 들어오셨어두 지금 말하실 건 다 말하시잖ాయ. 한나투 아이 빼 놓고 다아 말씀하시잖ాయ, 지금. 지금 보선나물, 제비나물, 닥지썰기 지름고비 삼취 얘기 하셨는데. 겐데 비쉬케크(Бишкек) 아매는 보선나물이요 제비나물이요 이런 건 얘기 아니 하시더라고요. 아매가 말씀하셨지. 삼지하구 지름고비는 말씀하셨는데. 아매는 갱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꾸마. 하라쇼(харашо) 라보따에뜨(работает). 마마! 골로바 하라쇼 라보따에뜨 시보드나(мама! голова харашо работает сегодня). (웃음) 맞습니까? 틀렸습지? 맞습둥? (웃음) 어: 아! 그러니까 원동에서두 산에서두 산에서 캐:내는 나물들이 꽤 많았었군요.{그래도 쪼꼬망게 쪼꼬말 때 이곳 중앙아시아로 들어오셨어도 지금 말하실 것은 다 말하시잖ాయ. 하나도 안 빼 놓고 다 말씀하시잖ాయ. 지금 보선나물, 제비나물, 모싯대의 썩, 고비, 삼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키르기스의 비슈케크 할머니는 보선나물이요 제비나물이요 이런 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지. 삼지하고 지름고비는 말씀하셨는데. 할머니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 오늘 머리를 잘 쓰십니다. (웃음) 맞습니까? 틀렸지요? 맞습니까? (웃음) 어, 아! 그러니까 원동 산에서도 산에서 캐:내는 나물들이 꽤 많았었군요.}

10506 # 개래구 그 무슨 잉기 시굼치요 무시기요 하는 것두 잇구. 시굼치라구 이르 이룽기 이 손가락마:이 독하지. 기랜게 이룽기 이룽기 자라지. 개래 그거 꺾테기 \*뽕겨서 기게 먹으무 맛이, 우리 기양 먹었지. 맛있대구. 약간 약간 취 시 췌에폼 시 시 시군 맛이 나지 야약간. 개구 달 달한 게 맛있지. 그저 쪼오꼬마실 적엔 새아가덜이구 선스나덜이 기름 쓰구 그저 췌채. 췌채, 췌채하메서르.{그리고 그 무슨 시굼치요 무엇이요 하는 것도 있고. ‘시굼치’라고 이렇게 이 손가락만큼 굵지. 그런데 이렇게 자라지. 그래 그거 꺾테기를 벗겨서 그걸 먹으면 맛이, 우리 그냥 먹었지. 맛있다고. 약간 약간 신, 조금 신 맛이 나지 약간. 그리고 다달한 것이 맛있지. 그저 쪼꼬맷을 적엔 여자아이들이고 사내아이들이 기름 쓰고 그저 수영. 수영, 수영 하면서.}

10506 @ 췌채르.{수영을.}

10506 # 아하! 시굼치구 무슨 시굼치라는 건 이룽기 이룽기 잎이 잇는 계구, 이진 낭기 한나 올라가무 췌채라 하구. 그런. 아매 그럽덜. 시굼치느 이룽기 잎이 난 거 그거 가져다가 데와서 무

슨 도로 해먹구. 아, 쉼체는 거저 거저 직접 먹지. 뜯어서 저 서랑서랑 직접 먹지. 그거 쉼체, 쉼체 하지.{아! 시금치고 무슨, 시금치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잎이 있는 것이고, 이건 나무(줄기)가 하나 올라가면 수영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지. 할머니 그러더군요. 시금치는 이렇게 잎이 난 거 그거 가져다가 데쳐서 무슨 \*\*도로 해 먹고. 수영은 그거 그거 직접 먹지. 뜯어서 저 설렁설렁 직접 먹지. 그거 ‘수영, 수영’ 하지.}

10506 @ 개니까 요 줄기르 똑 끊어서 먹습둥? 아니면은.{그러니까 요 줄기를 똑 끊어서 먹습니까? 아니면은.}

10506 # 이래 껌테기 발라서. 껌테기 껌테기 발라지지.{이렇게 껌테기를 발라서. 껌테기 껌테기가 발라지지.}

10506 @ 아! 껌테기 발라서.{아! 껌테기를 발라서.}

10506 # 아하! 껌테기 발라서 그 안에 거 먹지. 으흠. 쉼체 괴롭 맛있지.{아! 껌테기를 발라서 그 안에 거 먹지. 으흠. 수영 그럼 맛있지.}

10506 @ 고게 하:얌둥?{고것이 하얌습니까?}

10506 # 새파:란게오.{새파란 것이오.}

10506 @ 새파:란 검둥?{새파란 것입니까?}

10506 # 아하! 파:란 게.{아! 파란 것이.}

10506 @ 그러니까 쉼체는 줄기가, 줄기가 있습둥?{그러니까 수영은 줄기가 있습니까?}

10506 # 쉼체 쉼체 줄기 있지. 이리 이렇기 이마:이 이렇기 독 독한 게 이막:씨 자라지. 괴래 기계 그렇기 맛있지. 껌테기 바르무 안에 게 속대 맛있지.{수영 수영은 줄기가 있지. 이리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굵은 게 이만큼씩 자라지. 그래 그게 그렇게 맛있지. 껌테기를 바르면 안의 것이 속대가 맛있지.}

10506 @ 속대.{속대.}

10506 # 속대 안엿 게.{속대 안엿 것이.}

10506 @ (혼잣말로) 이게 뭐까? 음.. (웃음) 뽕긴줄 알았더니 아니네. 음. 음. 그럼 아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제 나시는 말씀 안 하셨는데.{(혼잣말로) 이게 무엇일까? 음. (웃음) 뽕기인줄 알았더니 아니네. 음. 그럼 할머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냉이는 말씀 안 하셨는데.}

10506 # 나 나시.{내 냉이.}

10506 @ 어티기 해먹는지.{어떻게 해 먹는지.}

10506 # 나시 그젠 쏘재인 게지. 나시는 캐서 무슨 메와두 먹구 나시르 머 고렷사름덜 어떤 사름덜은 보이가 어떤 집에서는 김치르 해먹덜. 나시는 김치르 해먹덜.{냉이 그것은 쓰지 않은 것이지. 냉이는 캐서 무슨 무쳐도 먹고 냉이를 뒀. 고렷사름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김치를 해 먹더구먼. 냉이는 김치를 해 먹더구먼.}

10506 @ 메와서 먹기두 하구.{무쳐서 먹기도 하고.}

10506 # 아하! 메와서두 \*멕기두 하구 아 저나 소곰 쳐서 쳐서 마늘이랑 고치나 열구 지 김치두 해 먹습덜. 나시 김치르 해먹습덜. 난 아이 해 먹소만 내 그렇기 해먹는 집우 바 밧지.{아! 무쳐서 먹기도 하고 아 저기…… 소곰을 쳐서 쳐서 마늘이랑 고추 등을 넣고 김치도 해 먹더구먼. 냉이 김치를 해 먹더군요. 난 안 해 먹소만 내 그렇게 해 먹는 집을 보았지.}

10506 @ 그럼 아매! 달리라구 하는 건 없었습둥?{그럼 할머니! 달래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10506 # 달리두 달리두 원도~ 이시적엔 달리두 잇었지. 달리두 잇구 쪽지두 잇구.{달래도 있고 달래도 원동에 있을 적에 달래도 있었지. 달래도 있고 산마늘도 있고.}

10506 @ 쪽지?{산마늘?}

10506 # 쪽지. 쪽지는 달리만 따게 생겼지.{산마늘. 산마늘은 달래와 다르게 생겼지.}

10506 @ 어터게 어터게 팍둥 그거느?{어떻게 어떻게 따릅니까? 그것은?}

10506 # 달리는 이렇기 이렇기 이렇기 저나 요렇기 잎이 나서 이렇구 용게두 그러무 대가리 앓지. 달리 달리는 대가리 앓지. 쪽지는 대가리 아이 앓지. 대가리 아이 앓지. 이래 홀 빼무 저 저 마늘이 \*\*댄 쪽지 아이 앓재임둥? 그릉기 쪽지 안, 이렇기 요런게 요런게 없을 적에, 쪽이, 마늘쪽이 없일 적이 자라는 거처름 쪽지 그릉기 자라지.{달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기…… 잎이 나서 이렇고 대가리가 앓지. 달래 달래는 대가리가 앓지. 산마늘은 대가리 안 앓지. 대가리 안 앓지. 이렇게 홀 빼면 저 저 마늘이 \*\*(다 자라기 전에) 마늘통이 안 앓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늘통이 안 생겼서, 요런 게(마늘통) 요런 게 없을 적에, 쪽이, 마늘쪽이 없을 적에 자라는 것처럼 산마늘이 그렇게 자라지.}

10506 @ 산마늘이라는 건네. (혼잣말로), 어:~{산마늘이라고 하는 것인데. (혼잣말로), 어.}

10506 # 달리라구 잇었습꾸마. 원도~이. 달리두 잇구.{달래라고 있었습니다. 원둥. 달래도 있고.}

10506 @ 아! 그릉습둥?{아! 그릉습니까?}

10506 # 으흠! 달리. \*달리 대가리 또리또리산 게. 그거 대가리 대가리 먹지.{으흠! 달래. 달래 대가리 둥글둥글한 것이. 그거 대가리 대가리 먹지.}

10506 @ 대가리 먹구. 음. 그러면 아매! 산에 가서: 따 먹는 그 여르매는 아께 아매 말씀하신 것이 멀기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구 그랬습지? 예. 고 다음에 구름낭기:~{대가리 먹고. 음. 그러면 할머니! 산에 가서 따 먹는 그 열매는 아까 할머니 말씀하신 것으로 머투라는 것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랬지요? 고 다음에 귀룽나무.}

10506 # 구름낭기.{귀룽나무.}

10506 # 구름낭기 열매는 난 먹진 애벳습꾸마. 재다:만 게. 재다:말게 까뜯 여업꾸마 구름낭기. 다 익으무 새까만 게 새까만 구름낭기.{귀룽나무 열매는 난 먹지는 않았습니다. 자잘한 것이. 자잘한 것이 가뜯 엽니다. 다 익으면 새까만 게 새까만 귀룽나무.}

10506 @ 그것들 많이 따먹었다구 그러던데?{그것들을 많이 따먹었다고 그러던데?}

10506 # 나는 아이 먹었습꾸마. 다른 게 가뜯한데. 구름낭게 그 열매 재다:만 게. 게 그 강태는 뜯어 먹었어.{나는 안 먹었습니다. 다른 것이 가뜯한데. 귀룽나무에 그 열매 자잘한 것이. 그래 그 까마중은 따 따 먹었어.}

10506 @ 강태!{까마중!}

10506 # 다(다). 강태. 익으문 새까만 게. 강태 그게 맛있지, 음. 다달한게. 강텐 잘 뜯어먹었지.{예. 까마중. 익으면 새까만 것이. 까마중 그게 맛있지, 음. 다달한 것이. 까마중은 잘 따 먹었지.}

10506 @ 가무잡잡하면은 감수래: 하면은 따먹습지.{가무잡잡하면 감수그레하면 따 먹지요.}

10506 # 이 익으무 새까말지. 강태.{익으면 새까말지. 까마중.}

10506 @ 강태가 있었습둥?{까마중이 있었습니까?}

10506 # 기래구 맷가:지구 그저 파:리구 그런 계상 거반 집에 집에서 자랐지.{그저 맷가지고 파리고 그런 것이야 거반 집에 집에서 자랐지.}

10506 @ 파리하구 뒀하구?{파리하고 뒀하고?}

10506 # 파리가, 파리는 파리는 저 익으무 재빨깁지. 맷가지는 이렇기 그것두 그건 익어두 새파:라지. 맷가지라는 건.{파리와, 파리는 파리는 익으면 재빨깁지. ‘맷가지’는 이렇게 그것도 그건 익어도 새파랄지. ‘맷가지’라는 것은.}

10506 @ 맷가지?{맷가지?}



10506 # 으흠. 뱀가지 새파랗다가 익으문 아악간 스베뜨리(свет.льи) 데지. 그램 기계 익은 게지. 기계 그렇게 뱀가지 맛있지. 옴판 맛있지.{으흠. 뱀가지는 새파랗다가 익으면 약간 밝은 색이 되지. 그럼 그게 익은 것이지. 그게 그렇게 뱀가지 맛있지. 본디 맛있지.}

10506 @ 뱀가지?뱀가지?}

10506 # 예. 뱀가지. 거저 파아리는 이룰기 그전에 우리 아:일 적에 그저 이래 우베서는 그저 안엿 거 뿔아저 씨르 \*뿔아저서는 입에다 불메 땡기지. 그게 파아리지. 이견 메 뜰어먹는 것은 뱀가지. 이 거저 파아리두 \*그제 재빨강게 다 익으무 먹는다해두 쏘른노(все равно) 쓰 쏘른노(все равно) 씹 씹더구마. 씹쓰레하지. 그저 파:리는. 아, \*뱀까리느 뱀가지 저거는 달구.{예. 뱀가지. 그저 파리는 이렇게 그전에 우리 아이일 적에 그저 이렇게 우베서는 그저 안엿 것을 뿔아서 씨를 뿔아서는 입에다 넣고 불며 다니지. 그게 파리지. 이 따 먹는 것은 뱀가지. 이 그저 파리도 그게 재빨강게 다 익으면 먹는다 해도 어쨌든 쓰, 어쨌든 쓰더군요. 씹쓰레하지. 아 뱀가지는 뱀가지 저것은 달고.}

10506 @ 뱀가지는 얼마나 크음둥?뱀가지는 얼마나 큼니까?}

10506 # 뱀가지는 키 요령기 가뜩.{뱀가지는 키가 요렇게 가뜩.}

10506 @ 땅딸기 비슷하게.{땅딸기 비슷하게.}

10506 # 가뜩 이룰기. 거저 거저 파리는 키 크지. 가뜩 달기는 게.{가뜩 이렇게 달리지. 그저 그저 파리는 키가 크지. 가뜩 달리는 것이.}

10506 @ 모르겠습꾸마. 뱀가지.{모르겠습니다. 뱀가지.}

10506 # 뱀가지 모르겠어? 뱀가지는 맛있는 게. 뱀가지 맛있는게.{뱀가지를 모르겠어? 뱀가지는 맛있는 것. 뱀가지는 맛있는 것.}

10506 @ 열매는 얼마나 큼둥?열매는 얼마나 큼니까?}

10506 # 열매 열매 요매, 요막씨.{열매 열매가 요만, 요만하지.}

10506 @ 여르매. 아, 요막씨 함둥?열매. 아, 요만합니까?}

10506 # 요막씨. 뱀가지. 기계 맛있는게.{요만하지. 뱀가지. 그게 맛있는 것이지.}

10506 @ 땅딸기 비슷하구?{땅딸기와 비슷하고?}

10506 # 땅딸기두 거기 윈도~에 잇었지.{땅딸기도 거기 윈동에 있었지.}

10506 @ 아니, 뱀가지 이 이놈이 땅딸 땅딸기와 비슷함둥?{아니, 뱀가지 이 이놈이 땅딸기와 비슷합니까?}

10506 # 넬(нет)! 아이 같우지 아이꾸마. 빠투름 아이하압꾸마. 땅딸기는 재빨강재임둥? 이거는 다 아 익으무 아이 익을 적이는 새파:랗지. 다 익으무, (혼잣말로) 어뜨기 말하나, 블레드느이(бл.едный) 이룰기 다 다 익으무 약간 노루무리하지. 아이 익을 적엔 새파랗구. 개 다 먹게텐 익으무 노루무레하지, 이거 뱀가지. 음.{아니! 같지 않습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땅딸기는 새빨강잖습니까? 이것은 다 익으면 안 익을 적에는 새파랗지. 다 익으면, (혼잣말로) 어떻게 말하나, 파리한 다 익으면 약간 노르스름하지. 안 익었을 적엔 새파랗고. 다 익으면 노르스름하지, 이 뱀가지라는 것이. 음.}

10506 @ 머까?{무엇일까?}

10506 # 그저 내지에서스 그런 뱀가지라 없었슴둥?{그저 내지에서는 그런 뱀가지라는 것이 없었습니까?}

10506 @ 으음:: 없는 같습꾸마.{음. 없는 것 같습니다.}

10506 # 우리 윈도~으는 우리 우리네 우리 우리 오고르드(огород) 밭에두 잇었지. 밭에 잇었지.{우리 윈동은 우리 우리네 우리 우리 텃밭에도 있었지. 밭에 있었지.}

10506 @ 아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10506 # 음.{음.}

10506 @ 그러니까 열매가 처음에는 무슨 색임둥 색깔이?{그러니까 열매가 처음에는 무슨 색임니까, 색깔이?}

10506 # 뱀가지? 처음에 거저 거저 풀색이 풀색이 나지. 새파랗지 익기 전에는. 익으무 노루무레하지. 다아 익으무. 으흠. 다아 익으무 노루무레하지. 처음엔 첫감엔 새파랗습꿈. 이 파:리두 새파랗구. \*\*싸우당 그저 새파랗지.{뱀가지? 처음에는 그저 그저 풀색이 풀색이 나지. 새파랗지, 익기 전에는. 익으면 노르스름하지. 다 익으면. 으흠. 다 익으면 노르스름하지. 처음에 처음에는 새파랗습니다. 이 파리도 새파랗고. 어땡든 그저 새파랗지.}

10506 @ 음. 음. 그렇지. 뭇든지 다 처음 첫감에는 점 푸르스름하지.{음. 음. 그렇지. 뭇든지 다 처음 첫감에는 좀 푸르스름하지.}

10506 # 푸루지. 다 익으무 노오랄게 익어지지.{푸루지. 다 익으면 노랄게 익지.}

10506 @ 그렇지. 아후! 그럼 아매! 지금 갱장히 많이 얘기하셨꾸마 지금. 뱀가지, 파리:, 예, 예, 쪽지 말씀해 주시구. 달리 말씀하시구, 나시 말씀하시구, 쉼체 말씀하시구, 시금치 말씀하시구, 쉼투리, 무순둘레, 지름고비에 에 나시, 보선나물, 제비나물 뭇 한 스무 가지 얘기하셨꾸마. (웃음)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면서 한 스무 가지 얘기하셨습꾸마. 어째 그렇게 기억력이 좋습둥? 아이구!(그렇지. 어후! 그럼 할머니!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뱀가지, 파리, 예, 예, 산마늘을 말씀해 주시고. 냉이 말씀하시고, 달래를 말씀하시고, 수영을 말씀하시고, 시금치 말씀하시고, 씀바귀, 민들레, 고비에 에 냉이, 보선나물, 제비나물 뭇 한 스무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웃음) 안 하신다 안 하신다 하면서 한 스무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째 그렇게 기억력이 좋습니까? 아이고!}

10506 # 좋기는 무슨.{좋은는 뭇.}

10517 @ 아아! 그렇구나! 그럼 아매! 그:: 윈동에서 윈동에서 낭게 그 달기는 열매는 또 뭇 없었슴둥? 아까 구름낭기 여르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낭게서 열리는 건 뭇가 없었슴둥? 패실이 다 포함해서?{아! 그렇구나! 그럼 할머니! 그 윈동에서 윈동에서 나무에 달리는 열매는 또 뭇가 없었습니까? 아까 귀룽나무 열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나무에서 열리는 것은 뭇 없었습니까? 과일을 다 포함해서?}

10517 # 패실이 글썽나 저 저 산에 개실으느 모르지. 집에 개실으느 잇었지만해두. 산에 패실으느 무시기 다래 잇구.{과일이 글썽 저 산에 과일은 모르지. 집에 과일은 있었지만 해도. 산에 과일은 뭇 다래가 있고.}

10517 @ 아! 그렇지 다래. 산에 가면.{아! 그렇지 다래. 산에 가면.}

10517 # 다래 잇구. 께얌이 잇구, 멀기 잇구, 가시달기 잇구.{다래가 있고. 개얌이 있고, 머루가 있고, 산딸기가 있고.}

10517 @ 아아! 가시달기.{아! 산딸기.}

10517 # 으~. 아 고답에 무시기 다른 게 잇었슴두~?{응. 아 고 다음에 무엇이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10517 @ 그렇습지. 멀기 잇구, 다래, 가시달기 있었구.{그렇지요. 머루, 다래, 산딸기가 있었고.}

10517 # 누(ну), 글썽. 구름낭기 구름 구름이 구름두 잇지만 해두. 그건 우린 먹준대엿습꿈. 재 재 다:맨 게 열매. 감구 새카만 게, 다(да){귀룽나무 귀룽이 있지. 그건 우리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자 자잘한 것이 열매가. 감고 새카만 것이, 응.}

10517 @ 음. 그렇구나. 그럼 아매 능금은 없었슴둥? 그때는?{음. 그렇구나. 그럼 할머니 능금은 없

있습니까? 그 때는?

10917 # 우 우리 우리 사던 데는 어째 그런 사 산에 능감이 없었습꾸마. 개 그러구서 그런 그런 열매 잇었습꾸마. 들쭉이 들쭉이 하는 그개 무슨 열매등? 들쭉이라는 게?{우 우리 우리가 살던 데는 어째 그런 산에 능금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러고 그런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들쭉 들쭉 하는 그개 무슨 열매입니까? 들쭉이라는 것이?}

10917 @ 그런 게 있습꾸마.{그런 것이 있습니다.}

10917 # 들쭉이.{들쭉.}

10917 @ 저 북조선에…….{저 북조선에…….}

10917 # 다래 잇구 들쭉이 잇구.{다래가 있고 들쭉이 있고.}

10917 @ 아아! 들쭉이 있었구나. 아아!{아! 들쭉이 있었구나. 아아!}

10917 @ 그 북조선 있재임등? 거기선 들쭉이라구 하는 것을 이렇게 파압꾸마.{그 북조선이 있잖습니까? 거기선 들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팝니다.}

10917 # 예:.{예.}

10917 @ 아주 좋은 좋은 거라구해서 이렇게 파압꾸마. 특산품이라구 해서.{아주 좋은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팝니다. 특산품이라고 해서.}

10917 # 내 원도~에 이실 적이 내 들을라이, 들쭉이오 머 다래오 이래메서리. 어. 깨앰이두 깨앰이두 원동 우리 살 적에는 두 가지 깨앰이 잇었습꾸마. 거저 거저 이런 거저 거저 깨앰이 잇구 털깨앰이 잇었습꾸마. 털깨앰이르 그 무시기라 하는가 하무 고렷사름덜 보리괘이 보리괘이라 하압덜마. 원도~ 잇으 적에 내 그런 소리 들었지. 내 원도~에서 자란이덜께서 싹 다아 들었지. 내 조오꼬마실 적이.{내가 원동에 있을 적에 듣자하니, 들쭉이오 뭐 다래요 이러면서. 개 압도 개압도 원동 우리가 살 적에는 두 가지 개압이 있었습니다. 그저 그저 이런 그저 그저 개압이 있고 털개압이 있었습니다. 털개압을 그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고렷사람들은 ‘보리괘이, 보리괘이’ 하더군요. 원동에 있을 적에 내 그런 소리를 들었지. 내가 원동에서 어른들에게서 싹 다 들었지. 내 조끄맷을 적에.}

@ 그런데 그걸 다아 어더게 기억하고 계심등?{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 {웃음} 원도~에서 들은 게 잇으이 어떤 건 잇어지구 어떤 건.{원동에서 들은 것이 있으니 어떤 것은 잇히고 어떤 건.}

@ 난 열 살 거[꺼] 한나투 기억이 안 나압꾸마. 지금.{나는 열 살 때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 내 내 우리 아버지 내 네 살에 상새났는데 어티기 늙어 앓던가 이 아버지 낮이 알깁꾸마 내 지금. 네 살에 내 네 살에 아버지 상새났. 그래 어티기 늙어서 앓던 게구 낮 얼굴이 어티기 생긴 거 내 알구. 아버지 그적에 앓던.{내 내 우리 아버지 내가 네 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누워 앓던가 이 아버지 낮이 알아집니다 내 지금. 네 살에 내가 네 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 어떻게 누워서 앓던가 하는 것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 그 때 앓던.}

@ 으음. 아우! 아매 무섭습꾸마. {웃음} 무섭운 아매꾸마. 그걸 다아 기억하구 있으니.{으음. 아이고! 할머니 아주 대단합니다. {웃음} 아주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

10504 # 아아! 원도~으는 그 원도~에 이시 적에는 산으르 가무 정말 벨란 게 먹을 게 다아 잇지. 아아! 그렇기 좋지. 영계사 어저 어디메서 그. 원도~은 벨이벨난 게 다 잇지. 산으르 올라가문 봄에두 연나물이 땃 가지 나물인두 모르지. 개 열매 열 적인 땃 가지 열매 여는등. 어떤 건 이름두 이름두 모르지. 거저 어떤 건 들구 어떤 건 들지두 못하구.{아! 원동은 그 원동에 있을 적에는 산으로 가면 정말 벨난 것이 먹을 것이 다 잇지. 아! 그렇게 좋지. 여기야 어디서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소. 원동은 별의별 것이 다 있지. 산으로 올라가면 봄에도. 연한 나물이 몇 가지나 있는지 모르지. 그래 열매 열 적엔 몇 가지 열매가 여는지. 어떤 건 이름도 이름도 모르지. 그저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도 못하고.}

10504 @ 들구. 들구. {웃음}.{듣고. 듣고. {웃음}.}

10917 # 이 이쪽 깨앰치름 쪼끔 저나 쪼끔 쪼끔 잘지. 이쪽 이쪽 거저 깨앰마, 보리깨앰미. 그 래두 알이 그렇기 오보사지, 보리깨미. 그걸 원도~서는 자란이덜이 보리깨미, 보리깨미라 하압덜. 개 내 그래 그 말으 들었지 원도~서. 원도~ 이시 적이. 보리깨미라 하압덜마. 나 나아 잡순 사름덜이 보리깨앰미라 하압더구마 그거. 기래 내 그거 잇어 아이 뿌렛지.{이 이쪽 개앰처럼 쪼끔 저기……. 쪼끔 쪼끔 잘지. 이쪽 이쪽 보통 개앰이보다, 보리개앰이. 그래도 알이 그렇게 오붓하지, 보리개앰이. 그걸 원동에서는 어른들이 ‘보리괘이’, ‘보리괘이’라 하더군요. 그래 내 그래 그 말으 들었지 원동에서. 원동에 있을 적에. ‘보리괘이’라 하더군요. 나 나이를 잡순 분들이 ‘보리괘이’라 하더군요, 그거. 그래 내 그거 잇어버리지 않았지.}

10917 @ 그러니까 한 한내는 보리치름 이렇게 보리치르.{그러니까 하나는 보리처럼 이렇게 보리처럼.}

10917 # 썩썩하지. 이쪽거는 아이그렇재임등? 그개 그런. 깨앰미 송치두 아이 그렇지. 저쪽거는 이 룡기 가시 같이 찌르꾸마. 기래이가 기게 썩썩하이하나. 보리 게 그렇재임등? 보리.{썩썩하지. 이쪽 것(개앰)은 안 그렇잖습니까? 그개 그렇지. 개앰 알을 싸고 있는 받침도 안 그렇지. 저 쪽 것(보리개앰)은 이렇게 가시 같이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개 썩썩하이하. 보리 그것이 그렇잖습니까? 보리.}

10917 @ 거스레미.{꺼끄러기.}

10917 # 거 거출지. 기게 보리계야. 보리깨앰미라 하지. {웃음} {거 거칠지. 그개 보리일 거야. 보리 개앰이라 하지.}

10917 @ 보리깨앰미.{보리개앰이.}

10917 # 보리깨앰미.{보리개앰이.}

10917 @ 보리깨앰미.{보리개앰이.}

10917 @ 깨앰미.{개앰이.}

10917 # 깨앰미두 두 가지꾸마, 원도~이.{개앰도 두 가집니다, 원동은.}

10917 @ 아, 그러네. 그럼 아매! 그 왜애지 뭐.{아 그러네요. 그럼 할머니! 자두 같은 것은 뭐 없었습니까?}

10917 # 아, 왜애지 무슨 놀이구 무슨 원도~ 이시 적이.{아, 자두, 무슨 ‘놀’(자두의 한 종류)이고 무슨 원동에 있을 적에 {맷았지.}

10917 @ 그것 좀 얘기해 보옵소.{그것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10917 # 아, 그 원도~의 집에 집에 집에 저어나 과실덜이. 집에 온긴 과실덜이. 으음.{아, 그 원동의 집에 집에 집에 저기……. 과일들이. 집에 옮겨 심은 과실들이. 응.}

10917 @ 아. 왜애지하구 또?{아. 자두고 또?}

10917 # 왜애지하고 놀:이 놀:이구 무슨 능금이구 무슨 \*\*그니 그런 게. 어떤 거는 이 그 때는 조오 꼬맷다나니 이름두 알았어? 이름두 모르꾸마.{자두고 놀, 놀이고 뭐 능금이고 무슨 그런 게 있지. 어떤 것은 그 때는 내가 조끄맷다 보니 이름을 알았겠어? 이름도 모릅니다.}

10917 @ 머어지라는 건 없었습등?{‘머지’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10917 # 머어지 그 소리는 나 못 들었습꾸마.{‘머지’ 그 말은 내가 못 들었습니다.}

10917 @ 못들었습등? 음.{못 들었습니까? 음.}

## 2.3. 음식

- 10510 @ 그러면. 그럼 그 아매! 그 당시 원동에서는 우리 고렷사람들이 저 무슨걸 제일 많이 해먹구 살았습둥? 무슨 어떤 음식을, 보통, 매일 매일 해먹는 음식 있재입둥?{그러면. 그럼 그 할머니 그 당시 원동에서는 우리 고렷사람들이 저 무엇을 제일 많이 해 먹고 살았습니까? 무슨 어떤 음식을, 보통 매일 매일 해 먹는 음식이 있잖습니까?}
- 10510 # 매일 매일 해먹는 게 기래두 글썸 그전이나 지금이나 밥이지. 밥이지. 밥이. 기래구서 그런 걸루두 난 이제 나아 먹어시니까나 그렇지 그전에는 그 나느 피나지랑 그런 걸르 떡으 못하는 가 했습꼬마. 켜데 피났으 그런 데다 성매애다 싹 찢서 쌀으 내서 그 피났으 갈그 내에서 그래 그 시르떡에 그 해애먹습터구마. 피났으 숭군 것두. 피나지두.{매일 매일 해 먹는 것은 그래도 글썸 그전이나 지금이나 밥이지. 밥이지. 밥. 그리고 그런 것으로도, 난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전에는 그 나느 피랑 그런 것으로 떡을 못 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그런 데다가 연자방아애다 싹 찢어서 쌀을 내서 그 피를 다시 가루를 내서 그래 그 시루떡을 해 먹더군요. 피를 심은 것도. 피도.}
- 10510 # 개구 다른 게사 그거 그런 지재~이 김정 지재~이구 노룡 지재~이구 그거는 찢서 밥우 해애 먹구. 어떤 때무 후시. 그 그것두 찰떡이나 한가지입덤마. 그렇기 풀이 있습덤마. 채담~한 찰이 있재입둥? 그 셋노란게. 재담:한 찰이. 그것두 저것두 지재~이느 모지리 굵지[굵썸]. 그래 그것두 채다만 지재~이처름 그렇기 찰이 있는 게지. 싹. 기래 떡두 해먹구 밥두 해먹구 그래. {그리고 다른 것이야 그거 그런 기장이, 김정 기장이고 노른 기장이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찢서 밥을 해 먹고. 어떤 때면 후시. 그 그것도 찰떡이나 한가지이더군요. 그렇게 풀기가 있더군요. 자잘한 찰기장이 있잖습니까? 그 셋노란 것이. 자잘한 찰기장이. 그것(기장)도 저것(찰기장)도 기장은 알이 아주 굵지. 그래 그것도 자잘한 기장처럼 그렇게 찰기가 있는 것이지. 싹. 그래 떡도 해 먹고 밥도 해 먹고 그래.}
- 10510 @ 그러면은 해엠티는 뭘: 해 잡수셨으까?{그러면 반찬은 무얼 해 잡수셨습니까?}
- 10510 # 해엠티는, 해엠티는 우리네는 원도~ 이시적이 으: 그으 고기두 먹어, 재빌르 대애지나 자래우다나 고기두 먹었지만 해두. 그 동삼애 머 먹는 거느 저 저 불루깬루서르 그런 반찬으 절구지. 응 \*\*으 절굽지. 기래구 배첼르두 절구구. 기래구서리 그런 거…… 그애구서리 우리네는 원도~애 이시적이 난치라구 아암둥? 난치. 여기 노시아 노시아 사름덜 노시아 이름우느, 지금 두 마가진(магазин)애 있습꾸마, 모이바(мой ва)라 하압꾸마. 에따(это) 소곰 소곰친 르바(рыба). 요막:씨난게. 그거 원도~서 고렷사름덜 그거 난치라 하지. 난치라구. 그거는 봄애 봄애 메를 어 메 메를 밤 고저 딱 메를 어가이지. 메를 어간에 그거 사름덜이 내 조오꼬마시 적이 우리 삼촌이랑 이릉기 빠알까(палка)다 이릉기 무슨거 마따(мота?)해서 가래 불으 떡 어디다 켜서 기래 사척애 드문드문 쫌아 놓고 그 난치 막 들어온다 할 적에는 막 잡힐 적에는 이릉기 그 이릉기 구물으 틀어서 예 구물 구양 재다:맴게 틀어서 예 기래 재다맴게 틀어서 네 네 사모 이 너벽지느 요마이 하압터구마. 개 질씨는 이 이릉기 질기 하압터구마 예? 기래 네 모이 다 기계 낭기지 이러. 기래 잉게다 저나 대르 지다:맴게 해에서 이리 두 칸 두 칸 그런 까끄(как) \*\*강 음식마파나 강차이잘기처름 지다:맴게 이래 부랴모이(прямой) 이런. 개 그걸르 자꾸 퍼넵터구마. 지내 물억애 물애 지내 기차지. 셋하얏지 난치, 난치. 그걸르 대애구 퍼내서 그거 싹 이릉기 싹 김줄해서 싹 절구지. 절귀서 어 절귀서 그래 보치까(бочка)랑 절귀서 기래루 동삼애 그릉기 그게 그게 저어나 고려말르 미시긴가? 살이 지지. 고기는 요만:하지 [요마:나지] 요마이 크지. 켜게 그릉기 쥘르느이(жирный) 쉬런지 모이바(мой ва). 지금 마우

재덜 지금 마가진(магазин)에서 모이바(мой ва)라 하압꾸마. 모이바(мой ва).{반찬은, 반찬은 우리네는 원동에 있을 적에 으 그 고기도 먹어, 자기 스스로 돼지를 기르다 보니 고기도 먹었지만 해도. 그 겨울애 먹는 것은 저 불루깬라고 그런 물고기반찬을 절이지. 그리고 배추로도 담그고. 그리고서 그런 거…… 그리고서 우리네는 원동에 있을 적에, ‘난치(은어과에 속하는 작은 물고기)’라고 압니까? ‘난치’. 여기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은—지금도 상점에 있습니다—모이바(мой ва)라 합니다. 음 소곰 소곰을 친 물고기. 요만큼씩 한 개. 그거 원동에서 고렷사람들이 ‘난치’라고 했지. ‘난치’라고. 그것은 봄애 봄애 며칠 어 며칠 밤, 그애 잡히는 기간은 딱 며칠 사이이지. 며칠 사이에 그거 사람들이 내 조꼬맷을 적애 우리 삼촌이랑 이렇게 막대기애다 이렇게 무엇을 감아서 그애 불을 떡 어디다 켜서 그애 사방애 드문드문 쫌아 놓고 그 난치가 막 해안으로 들어온다 할 적에는 막 잡힐 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물을 틀어서 그물 구멍을 아주 잘게 틀어서 응 그애 잘게 틀어서 네모 네모 이 너비는 요만큼씩 하더군요. 길이는 이 이렇게 길게 하더군요 예? 그애 네모로 된 것이 다 나무지. 그애 여기다 저기…… 대를 기다랗게 해서 이리 두 칸 두 칸 그런 \*\*\*처럼 삼자루처럼 기다랗게 이렇게 끝은 이런 거. 그애 그것으로 자꾸 퍼내더군요. 아주 물가에 물애 (난치가) 아주 기차게 많지. 새하얏지 난치, 난치. 그것으로 자꾸 퍼내서 그거 싹 이렇게 싹 켜고 다듬어서 싹 절이지. 절여서 어 그애 물통 등에 절여서 그러면 겨울애 그애 저기…… 고려말로 무엇인가, 살이 내리지. 고기는 요만하지 요만큼 크지. 그런 것이, 그렇게 기름진 은어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상점에서 모이바(мой ва)라 합니다. 모이바(мой ва).}

10510 @ 모이바(мой ва).{은어.}

10510 # 모이바(мой ва). 모이바(мой ва). 잉게 마가진(магазин)서두 지금두 파압꾸마. 그 모이바 그렇기 비싸지. 인제서사 없다나이. 그거 대애구 퍼내지. 하 하룻저녁애두 땃 쿠우대 퍼내지 그거. 그거 거저 딱 메를 어간이지. 메를 메를 밤이구. 기래구 없어지 없지. 없어지. 기래 까즈드이(каждый год) 조곰 봄애 메를 메를 밤 메를 밤우 그거 퍼내지. 그래구서느 없지. 해마다 그렇지. 해마다 봄마다 그렇지. 기래구 그 이 저~어리.{은어. 은어. 여기 상점에서도 지금도 팝니다. 그은어가 그렇게 비싸지. 이제는 그 고기가 없다 보니. 그거 자꾸 퍼내지. 하룻저녁애도 몇 자루를 퍼내지 그거. 그거 그거 딱 며칠 사이이지. 며칠 밤이고. 그리고는 없어지지, 없지. 없어지. 그애 매년 조곰 봄애 며칠 며칠 밤 며칠 밤을 그거 퍼내지. 그래고서는 없지. 해마다 그렇지. 해마다 봄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이 정어리.}

10510 @ 정어리, 아까 말씀하신.{정어리, 아까 말씀하신.}

10510 # 정어리 정어리두 저 싸게 하구.{정어리 정어리도 저 사게 하고.}

10510 # 기래구 맹태가 가재미는 내 그전에 원도~서 조오꼬마실 적이두 그거 불라이, 그거 소곰물으 맞침 소곰 맞침 쳐서 그래서 그거 소곰 소곰 소곰 쳐서 그런 담연 그거 저런 데다 싹 이런 그런 노~오 노~오 께에서 노~오 싹 께서 땃 달암이씨 싹 달아맴덤마. 싹 말리와서. 그건 두디래 먹느라구. 그렇기 밥 해엠티나 이래 먹는 게 애이라. 가재미가 맹태느 이릉기 그런 게 \*작 빼대 없재이오? 누(ну) 가재미두 이런 이런 이거 한판애 포즈바노슈니(позвончик)나 그런 빼대는 잊지만 해두 가재미, 이게 살이 \*자대미 빼대 없지? 맹태두 토쥬(тоже) 자대미 빼대 없지. 그런다구서 그거는 말리와서 싹 집집마단 땃 달암이씨 말리우지. 그애 그건 싹 두디래 먹지. 마른 거 두디래 먹지. 으흠. 마른. 그 어째 조오꼬말 적인 마른 맹태르 두디래 먹으무 그렇기 맛있던둥.{그리고 맹태와 가재미는 내 그전에 원동에서 조꼬맷을 적애 그거 보니까 그거 소곰물을 마침맞게 소곰을 마침맞게 쳐서 그래서 그거 소곰 소곰 소곰을 쳐서 그런 다음애 그거 저런 데다 싹 이런 그런 노끈을 켜서 노끈을 싹 켜서 몇 두름씩 싹 달아매

더군요. 썩 말려서. 그건 두드려 먹느라고. 그렇게 밥 반찬이나 이래 먹는 것이 아니라. 가자미와 명태는 이렇게 그런 게 작은 뼈대가 없잖소? 음, 가자미도 이런 이런 이거 한가운데에 척추 뼈나 그런 뼈대는 있지만 가자미 이게 살에 자잘한 뼈대가 없지? 명태도 역시 자잘한 뼈대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말려서 집집마다 몇 두름씩 말리지. 그래 그건 썩 두드려서 먹지. 마른 거 두드려 먹지. 그 어찌 조끄말 적엔 마른 명태를 두드려 먹으면 그렇게 맛있던지.}

10510 @ 아, 직금두 맛있습꾸마.{아, 지금도 맛있습니다.}

10510 # 아, 직금 \*어서.{아 지금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

10510 @ 한국에 많습꾸마.{한국에 많습니다.}

10510 # 한국에 아, 거기 명태나 잡아 잡아내지.{한국에 아, 거기 명태 등을 잡아내지.}

10510 @ 저어기 아매 사시던데 있지? 나호드까(Находка){저기 할머니 사시던 곳 있지? 나호드까.}

10510 # 아! 나호드까(Находка){아! 나호드까.}

10510 @ 그 근처에서 잡습꾸마.{그 근처에서 잡습니다.}

10510 # 거기 명태 기땃매해. 가재미나. 기땃매해.{거기 명태가기가 막히게 많아. 가자미 등도기가 막혀.}

10510 @ 거기서 잡아 가지구 (와서){거기서 잡아 가지고 와서.}

10510 # 난치두 경계 있어. 난치. 난치는 봄에 딱 고게 들어오는 \*\*고반밖에 못 잡습꾸마. 그담엔 없어. 없습꾸마. 어디르 갖는두~.{난치도 거기에 있어. 난치. 난치는 봄에 딱 고게 들어오는 고매밖에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 없습니다. 어디로 갖는지.}

10510 @ 모이바(мой ва){은어.}

10510 # 모이바(мой ва). 아하! 마가신(магазин)서 모이바(мой ва)라 하압꾸마. 직금 난치르 그거 파는 거.{은어. 음! 상점에서 ‘모이바’라 합니다. 지금 난치를 그거 파는 거.}

10506 @ 아매! 아가 말씀하신 쉼채있재임둥? 시굼치 뭐 쉼채 말씀하실 때.{할머니! 아가 말씀하신 수영 있잖습니까? ‘시굼치’니 뭐 수영을 말씀하실 때.}

10506 # 쉼채, 쉼채.{수영, 수영.}

10506 @ 쉼채.{수영.}

10506 # 아하! 쉼채.{음! 수영.}

10506 @ 그거는: 쉼채는 이게 노시아 말로 뭘까? 혹시 아심둥?{그것은 ‘쉼채’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말로는 무엇일까? 혹시 아십니까?}

10506 # 노시아 말르느 끼실리차(кисли́ца)지 끼실리차(кисли́ца)라 하지 시쿠다나йка나. 아무래 그렇겠지. 시쿠다나이. 끼실리차(кисли́ца). 저 마우재덜 시군 거 무스거 그래무 끼실리차(кисли́ца)라 하나까두. 기래 모르지 끼실리찬(кисли́ца-ㄴ)두~. 고려말르 세채.{러시아 말로는 끼실리차(кисли́ца)지 끼실리차(кисли́ца)라 하지 시니까. 아마도 그렇겠지. 시다 보니 이름이 그렇겠지. 끼실리차(кисли́ца). 저 러시아 사람들이 신 무엇을 말할 때 끼실리차(кисли́ца)라 하나까. 그래 모르지 끼실리차(кисли́ца)인지 어떤지. 고려말로르 ‘세채’.}

10506 @ 그렇지 세, 쉼채지.{그렇지 세, ‘쉼채’지.}

10506 # 아하! 쉼채.{음! ‘쉼채’.}

10506 @ 쉼, 쉼, 쉼채.{쉼, 쉼, 쉼채.}

10506 # 쉼채라구. 어찌 쉼채라 한두 모르지 글썬. 윈도~에서 들을라이까 쉼채, 쉼채.{‘쉼채’라고. 어찌 ‘쉼채’라 했는지 모르지 글썬. 윈동에서 들으니까 ‘쉼채 쉼채’라 하더군.}

10506 @ 그렇지. 소가 먹는거라구래서 쉼채라구 했으گا? 쉼 잇재임둥? 소, 볼까(вол). 음.{그렇지.

소가 먹는 것이라고 해서 ‘쉼채’라고 했는가? 소 있잖습니까? 소, 황소. 음.}

10510 @ 그럼 아매! 어:: 식해니 뭐 젓국디요 이런거는?{그럼 할머니! 어 식해(食醢)니 뭐 젓국지요 이런 것은?}

10510 # 젓국지는 기게 나베르나(наверно) 그게 그겔게에꾸마. 젓국지는 저 저 세 신 신 고기르 소곰친 고기 말구 신 고기르 에 그 좋은 거 쓰 쓰…… 고려말이 기게 미시긴가. 누(ну), 노시아 말르 스웨즈(свежий) 스웨즈(свежий) 곰만 잡아온 고기 잇재임둥?{젓국지는 그게 아마 그게 그것일 것입니다. 젓국지는 저 저 신선한 고기를 소곰친 것 말고 신선한 고기를 에 그 좋은 거 쓰…… 고려말로 그게 무엇인가. 음 러시아 말로 ‘스웨즈(свежий, 신선한)’, 신선한 금방 잡아온 고기가 있잖습니까?}

10510 @ 생선?{생선?}

10510 # 아하! 그거 그거 저나 썩 검줄해서 저나 그거 이 한판으 그거 썩 짜개서 그래서 그 저 누(ну) 칼르 그저 이룽기 썩 썩 쓰을지 그거. 그 고기르, 물고기르. 기래서, 아, 한국에서두 그런 거 하겠는데 다(да)? 아이 함? 기래 그거 기래 소곰쳐서 소곰쳐다가서리 그 이튼날에, 밤 채와서 소곰 막 치면 찹찹하게 쳐서 그 이튼날에 그 이튼날에 그담에 저 로바 잇재오? 로바. {아! 그거 그거 저가…… 썩 다듬어서 저가…… 그거 이 한가운데를 그거 썩 쪼개서 그래서 그 저 음 칼로 그저 이렇게 썩 썩 썰지 그거. 그 고기를, 물고기를. 그래서, 아, 한국에서도 그런 거 하겠는데 응? 안 합니까? 그래 그거 그래 소곰을 쳐서 소곰을 쳤다가 그 이튼날에, 밤 동안 채워서 소곰을 막 치면 찹찹하게 쳐서 그 이튼날에 그 이튼날에 그 다음에 저 무가 있잖소? 무.}

10510 # 누(ну) 한국에 로바덜 더 더 좋은 게 있지. 윈게 네에즈느이(нежный) 저나 소오치느이(сочный) 그런. 기래 나는 지금 담가두 한국에 로오바르 얻어보옵꾸마. 한국에 로바르 우슈토베(Уш-тобе) 바자르(базар)에서 얻어보옵꾸마. 내 한국에 로 한국에 내 배채르 어저느 먹어본 지 열 다섯해두 녀슴꼬마. 저 우리 내 내 한 집안 안에 한 집안 한 에따(это) \*\*사백미져 저기서 윤셀게, 아니, 한국에 멩겜지. 유즈느이(Южная) 에따(это) 까레이야(Корея). 기래 경게 가서 씨르, 그 무스거 그 씨르 기래니까 일본, 우리 윈도~에 이이 적엔 그 무꾸 일본무끼라 했습꾸마, 윈동사름덜은. 갠데 내지서 그 무꾸 무시기라 하는두~ 모르지. 이마:이 독하구 이마:이 진 거. 그 무슨 무끼라 함둥?{음 한국에 무가 더 더 좋은 것이 있지. 부드럽고 물기가 많은 그런 무. 그래 나는 지금 김치를 담가도 한국에 무를 찾습니다. 한국에 무를 우슈토베 시장에서 찾습니다. 내 한국에 무 한국에 내 배추를 이제는 먹어본 지 열 다섯 해가 녀습니다. 저 우리 내 내 한 집안에 한 집안 한 음 \*\*\*\* 저기서, 윤실개, 아니, 한국에 다녔지. 남쪽의 음 한국. 그래 거기에 가서 씨를, 그 뭍 그 씨를 그러니까 일본, 우리 윈동에 있을 적에는 그 무를 일본무라 했습니다, 윈동사람들은. 그런데 본국에서 그 무를 무엇이라 하는지 모르지. 이만큼 굵고 이만큼 긴 것. 그것을 무슨 무라고 합니까?}

10510 @ 그거 일본무끼라 하압꾸마.{그거 ‘일본 무’라 합니다.}

10510 # 글썬 그 우리는 윈도에 잇으 적이 일본무끼 일본무끼 했지. 개 요 이마:이 이룽기 이룽기 생긴 건 그건 로오바지. 기래구 또 어 내 윤셀개네 \*\*숙이 들을라이까네 그 그 그 배 그 무꾸느 으: 나박김치 담그는 무끼 잇슴둥? 나박김치 담그, 요매씨나 새하얀 게 다(да)? 자! 고게 그렇기 맛있습더꾸마.{우리 윈동에 있을 적에 ‘일본 무’라고 ‘일본 무’라고 했지. 그래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 ‘로바’지. 그리고 또 어 내 윤실개네서 들으니 그 그 그 배 그 무는 어 나박김치를 담그는 무가 있습니까? 나박김치를 담그는, 요만큼이나 하고 새하얀 거 응? 야! 고게 그렇게 맛있더군요.}

10510 @ 아매! 나박김치르 어티기 아암둥?[할머니! 나박김치를 어떻게 압니까?]

10510 # 그거는 나 우리 저 한 성친에 집에와서 내, 윤씨네 저나 그거 총객이 우리 그집에 와서 저 나 으 저 조사질하는 그집에 잇엇다구 하재엿던둥?[그것은 나 우리 저 한 일가(一家)가 되는 사람 집에 와서, 내, 윤 씨네 저기…… 그 총각이 우리 그 일가 집에 와서 저기…… 어 저 조사를 하기 위해 그 집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10510 @ 아아! 그래서 거기서 들으셨슴둥?[아! 그래서 거기서 들으셨습니까?]

10510 # 그러재잉그[그러재이끄]. 가야게서.{그렇고 말고. 그 아이에게서 들었지.}

10510 @ 그걸 다 기억하구 잇슴둥? 나박김치. (웃음).{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박김치라는 말을.(웃음).}

10510 # 나박김칠. 무끼 요매씨 요매씨 셋하얀게. 그렇기 만만하구 꾸스느이(кушанье).{나박김치를. 무가 요만큼씩 새하얀 것이. 그렇게 무르고 먹을 만한 식품이지.}

10510 @ 만만하구.{무르고.}

10510 # 만만하압담마. 그래 내 그거 알지. 그 무꾸, 나박. 나박김치.{무르더군요. 그래 내 그거 알지. 그 무, 나박. 나박김치.}

10510 @ 제 한번 까작스판 오면은 나박김치 하나 아니 무끼 하나 들구 오겠습꾸마. 비행기로 부치던지. (웃음).{제가 한번 까작호스탄에 오면 나박김치 하나, 아니 무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비행기로 부치든지. (웃음).}

10510 # 비행기르 부치던지.{비행기로 부치든지.}

10510 # 그래 그거 그 무끼. 그 무끼.{그래 그거 그 무. 그 무.}

10510 @ 예.{예.}

10510 # 아하! 나박김치 담는.{아! 나박김치 담는.}

10510 @ 젓국지.{젓국지.}

10510 # 젓국지는 그룽기. 기래구서는 그 이틀날에 그거 로바르 씨얼어서 거저 야약간 소곰 치지, 그 로바 물이 물이 빠졌다구. 기랩 반찬하무 물이 많아지지. 그거 그양 영어무. 기래 기래 기래 그거 물고기 싹 그거 저 소곰 찢던 거 그거 싹 이래 푹:푹 짜서 그래 이 로오바 약:간 에따(это) 소곰친 거기다 한테 섞지. 개 한테 섞어서 거 검정 초르느이빠레즈(чёрный перец) 검정 \*빠르(перец) 쓰구 벌거 벌건 \*빠(перец), 벌건고치구 검정고치구 벌건고치구 상채구 마늘이구 그래 그래 영구서 싹 해. 그래 영어서 어떤 사람운 그것두 재빌르 제마끔 제 소원대르 하지. 나는 그룽기 그룽기 하 하무 그게 제재비르 맛이들때꺼전 아이 다치지 난. 푹푹 이래 영구서르 경계다 무스거 덮구 그 담에 우에다 저나 돌으 썰어서 이 빨린찐 메쇼즈크(по лиэтиленовый мешочек)다 돌으 열어서 기래 거기다 지달구지. 지 지달과 놓지. 기래무 나는 하 한달이 넘어가서 두달이 테구야 그거 열지. 나는 그룽지. 다아 제 재빌르. 어떤 사람우는 초르 열지. 기게 시자~ 마우재말르 옥수수(уксус), 고려말르 초지?[젓국지는 그렇게 하지. 그리고서는 그 이틀날에 그거 무를 썰어서 그저 약간 소곰을 치지. 무의 이 물이 빠졌다고 하면. 그럽 물고기 반찬을 하면 물이 많아지지. 그거 그냥 넣으면. 그래 그래 그래 그거 물고기 싹 그거 저 소곰 찢던 거, 그거 싹 이렇게 푹공 짜서 그래서 무를 약간 음 소곰을 친 거기다 한테 섞지. 그래 한테 섞어서 거 검정 검정 후추 검정 후추를 쓰고 벌건 후추, 고추, 검정 고추고 벌건 고추고 고수풀이고 마늘이고 그렇게 넣고서 싹. 그렇게 넣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도 자기 스스로 저마다 제 소원대로 하지. 나는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게 제 스스로 맛이 들 때까지 안 건드리지 난. 푹푹 이렇게 넣고서 거기에다 무엇을 덮고 그 다음에 위에다 돌을 썰어서 비닐 봉투에다 돌을 넣어서 거기다 지지르지. 지 지질러 놓지. 그러면 나는

한 달이 넘어가서 두 달이 되어야만 그거 열지. 나는 그렇게 하지. 다 제 저절로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초를 넣지. 그게 지금 러시아 말로 ‘옥수수(уксус)’, 고려말로 초(醋)지?]

10510 @ 다(да).{예.}

10510 # 초? 시군게 초지. 어떤 사람덜은 그거 초르 영구 난 초르 아이 열지. 난 아이 영구 게 제 재빌르 맛이 들때꺼저 가마이 봐 빼레 두지. 초르 아이 열지 내. 어떤 사람덜은 초르 아이 영구서리 오래 잇구 먹지. 나는 초르 아이 영구서 두달이나 잇다가서 그 담에 다아 제재빌르 제맛이 들무 우리네는 먹지. 개 사람마단 췌엔집 안간덜마다는 다아 제 제마끔 하지. 제마끔 하지.{(醋) 신 것이 초지. 어떤 사람들은 초를 넣고 나는 초를 안 넣지. 나는 안 넣고 제 저절로 맛이 들 때까지 가만히 놔 버려 두지. 초를 안 넣고서 오래 있다가 먹지. 나는 초를 안 넣고 두 달이나 있다가 다 제 저절로 제맛이 들면 우리네는 먹지. 그래 사람마다 주인 집 아낙네들마다 다 제각기 하지. 제각기 하지.}

10510 # 기래 그 식행둥 무시긴둥 하는 건 그 식해라는 거느 에따(это) 기게 밥우 밥우 해에서 밥우 해에서 그래 저 에따(это) 싹 \*식해서 밥우 해:서 \*식해서 어떤 사람우는 거기다 무슨 그런 그런 게나 무슨 리바(рыба) 영는 고 물고기 영는두 아이 영는두. 어떤 사람은 아이 영구서리 그 밥이 싸약 \*식은 다음에 거기다 고치구 검정고치구 벌건고치구 마늘이나 상채나 싹 열어서 그래서 그거 이렇게 싹 섞어서 해 놓오무 메출 그거는 밤에다 식해다나아 하 한 이틀 잇으무 인츠 맛이 들지. 그거 식해는 그룽기. 이 반차이라는 거느 고기르 물 물고기 좋:은 거 가즈 잡은 거 그런 거 영구. 그런 거 가지구 하지.{초 그래 그 식해(食醃)인지 무엇인지 하는 것은 그 식해라는 것은 음 그게 밥을 밥을 해서 밥을 해서 그래 저 음 싹 삭혀서 밥을 해서 삭혀서 어떤 사람은 거기다 무슨 그런 그런 게나 무슨 물고기를 넣는, 고 물고기를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떤 사람은 안 넣고서 그 밥이 싹 삭은 다음에 거기다 고추고 검정 고추고 벌건 고추고 마늘이나 고수풀이나 싹 넣어서 그래서 그거 이렇게 싹 섞어서 해 놓으면 며칠, 그것은 밤에다 한 식해다 보니 한 이틀 있으면 이내 맛이 들지. 그 식해는 그렇게 하지. 이 물고기 반찬이라는 것은 고기를 물 물고기 좋은 것, 갓 잡은 거 그런 것을 넣고. 그런 거 가지고 하지.}

10510 @ 그럽 아매! 여기서는 그 젓국지하구 식해 하기가 좀 바쁘겠습꾸마.{그럽 할머니! 여기서는 그 ‘젓국지’하고 식해(食醃)를 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10510 # 개 젓국지 이게.{그래 ‘젓국지’ 이게.}

10510 # 그런거 어찌 바쁘겠소?[그런 거 어찌 힘들겠소?]

10510 @ 고기가 잇슴둥 여기?[고기가 있습니까? 여기?]

10510 # 아이그! 고기 바자르(базар) 가무 다아 잇지.{아이고! 고기는 시장에 가면 다 있지.}

10510 @ 바자르(базар) 가무 다아 잇슴둥?[시장에 가면 다 있습니까?]

10510 # 다아 잇꺈구! (웃음) 바자르(базар) 가무. (웃음) 다아 잇, 여러 여러 가지 고기 가뜩하지. {다 있고 말고! (웃음) 시장에 가면. (웃음) 다 있, 여러 여러 가지 고기가 가뜩하지.}

10510 @ 다(да). 다(да).{예. 예.}

10510 @ 그럽 아매!: 지금은 보통 그 집에서 잡수실 때, 무스거르 많이 해, 무스거 무스거르 주로 많이 해 잡수심둥?[그럽 할머니! 지금은 보통 그 집에서 잡수실 때, 무엇을 많이 해, 무엇을 무엇을 주로 많이 해 잡수십니까?]

10510 # 나느.{나는.}

10510 @ 햄:이, 햄:이.{반찬이, 반찬이.}

10510 # 해앨이.{반찬이.}

10510 @ 집에서 잡숫는 거. 즉금.{집에서 잡숫는 거. 지금.}

10510 # 내 즉금 집에서 먹는 거는 우리네 저 그 한국에, 한국에 그런 이런 한국엿 거 싸기 전에 그전에 영게 저 그 저 저네는 저네는 선생님네는 알아못들소. 모르지. 그 그 크다:만 할라지니꼬 절모스꼬바(Зил Москва)라구 잇었습꼬마. 기래구 민스크 민스크 할라지니꼬(Минск холодильник) 그렇기 큰 게지.{내가 지금 집에서 먹는 것은 우리네 저 그 한국에, 한국에 그런 이런 한국엿 거 사기 전에 그전에 여기에 저 그 저 당신네는 당신네는 선생님네는 알아들지 못하오. 모르지. 그 그 커다란 냉장고 '절모스꼬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스크 민스크 냉장고는 그렇게 큰 것이지.}

10510 @ 민스크에서 나오는 거?{민스크에서 생산되는 거?}

10510 # 러시아(Россия). 다(да) 민스크(Минск)서 그 할라지니꼬(холодильник) 맨들지. 절(Зил) 나베르노(наверно) 그건 모스크바(Москва)에서 맨드는 모양이야. 아, 이 민스크(Минск)는 민스크(Минск)가 에따(это) 에따(это).{러시아. 응, 민스크에서 그 냉장고를 만들지. 틀림없이 절(Зил)이라는 공장, 그건 모스크바에서 만드는 모양이야. 아, 이 민스크는 민스크와 음 음.}

10510 @ 우꼬라이나?{우크라이나?}

10510 # 넬(нет)!{아니!}

10510 # 민스크가 저 저…….{민스크가 저 저…….}

10510 @ 벨로루시?{벨로루시?}

10510 # 모 모스크바. 그게 그 그 그 할라지리니꼬(холодильник) 같으지 딱. 같으지. 개 내는 내는 민 민스크 잇구, 개래 한국엿거 내 에 저 아까 그래재엿덤등? 어시덜이 어시덜이 자 저 이무세스트보(за имущество) 내 탕다구. 개 그 돈 타메서리 그 한국에 할라지리니꼬(холодильник) 또 하나 또 샀지. 그매 마흔 마흔 땀 천 주구 샀는가. 어전 어전 땀 해간 지나갔어. 마흔 땀 천 주구. 개 기래 큰 큰 할라지니꼬 두울이 크다:만 게 잇지 내게. 기래 어 즉금은 무 무스거 먹는가 하무, 그러나 그룽기 나느 부재 부재처를 살준 못해두 이 고기 없이는 난 못 살겠어. 고기 없이는. 기래 저나 쇠고기 싸지, 도투고기 싸지. 에 저 저 이제 시장 저 닭이 그거.{모스크바. 그게 그 그 그 냉장고와 같지 딱. 같지. 그래 나는 나는 민스크 냉장고가 있고, 그래 한국엿 거 내 에 저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들이, 부모들이 강제로 이주 당한 대가로 받은 그 돈을 탕다고. 그래 그 돈을 타면서 그 한국에 냉장고를 또 하나 샀지. 그 때 40,000 몇 탱게를 주고 샀는가. 이제는 이제는 몇 해간 지나갔어. 40,000 몇을 주고. 그래 그래 큰 냉장고 둘이 커다란 것이 있지 내게. 그래 어 지금은 무엇을 먹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게 나는 부자, 부자처럼 살지는 못해도 이 고기 없이는 나는 못 살겠어. 고기 없이는. 그래 저기…… 소고기를 사지, 돼지고기를 사지. 에 저 저 이제 지금 저 닭 그거.}

10510 @ 안집.{내장.}

10510 # 아! 닭이 안집으 싸지. 개구 아까라치까(окорочка) 닭이 달걀으 팔채오? 마가신(магазин)에서. 그거 싸 그거 싸지. 그래 세 가지 네 가지 마싸(мясо) 거기다 싸 거더 열지. \*두우카는 데다. 기라 어떤 때무 쇠고기 무스거 할 적이무 쇠고기 꼬서내구 도투고기 꼬서 그럴 적이무 도투고기 꼬서내구. 그담에 아까라치까(окорочка)두 잇지. 지금 닭이 켈루도브(желудок)두 잇지.{아! 닭의 내장을 사지. 그리고 허벅지살 닭 달걀을 팔잖소? 상점에서. 그거 사 그거 사지. 그래 세 가지 네 가지 고기를 싸 거기다 거두어 넣지. 볶는 데다. 그래 어떤 때면 쇠고기로 무엇을 할 적이면 쇠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돼지고기를 꺼내는 그럴 적이면 돼지고기 꺼내고. 그 다음에 허벅지살도 있지. 지금 닭의 위(胃)도 있지.}

10510 @ 그런 거 잡숫구.{그런 거 잡숫고.}

10510 # 나. 개구 이 배집치나 잇구. 자, 자~이두 자~이두 난 낸 거저 자~이두 잇구 고치자~이두 잇구. 그건 내 싹 저런 메지코~올로 재빌르 싹 한게지.{응. 그리고 이 오이김치나 있고. 장, 장도 장도 난 난 그저 장도 있고 고치장도 있고. 그건 내 싹 저런 메주콩으로 내 스스로 한 것이지.}

10510 @ 재빌르.{스스로.}

10510 # 아, 그러재이무 아 저 보토리 서이 잇는데 내 스 스무한살에 시집간, 누기 나르 맨들어 주갯소. 시에미두 없지 내 마마두 없지. 무시기 나르 맨들어 줘. 기래 잘 하던지 그전엔 그적에는 곱만 전제~이 글이 나서 마흔 일곱 해나 그런 게 코~이 없어. 메지르 하는 코~이 없었습꼬마.{아, 그렇지 않으면 아 저 홀아비가 셋이 잇는데 내가 스물 한 살에 시집간 것이 누가 나에게 장을 만들어 주갯소. 시어미도 없지 내 어머니도 없지. 무엇이 나에게 장을 만들어 줘. 그래 잘 하든지 (내가 하고) 그전에는 그 때에는 금방 전쟁이 끝이 나서 1947년이나 그런 게 콩이 없어. 메주를 하는 콩이 없었습니다.}

10510 # 기래 무스걸르 했는가 하무 채밀르, 채밀으 삶아서 채밀르 자~아 햇밧습꼬마. 음. 개 거기서 채밀자~으 내 두 핸두 세 핸두 햇땀어. 그담에 켈질리 이사르 해 가이까네 고렷사름덜이 켈질리에서 농세질하는 사름덜 치더구만 예. 개 그 사름덜이 그 메지코~오 승거서 궤압더구마. 기래 그 메지코~오 싸서 이 이날 이때까지 기양 메지코~오 나무. 개 나느 재빌르 싹 하지. 생 저 고치자~이구 거저 자~이구 싹 메지코~올로 난 재빌르 하지.{그래 무엇으로 했는가 하면 밀로, 밀을 삶아서 밀로 장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 거기서 밀장을 내 두 핸 지 세 핸 지 했었어. 그 다음에 켈질리로 이사를 해 가니까 고렷사름덜이 켈질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거두어 쓰더구만 예. 그래 그 사람들이 메주콩을 심어서 팔터균요. 그래 그 메주콩을 사서 이 이 날 이 때까지 그냥 메주콩이 나면. 그래 나는 스스로 싹 하지. 저 고추장이고 그 저 장이고 싹 메주콩으로 난 내 스스로 하지.}10510 @ 음. 음.{음. 음.}

10510 # 그래 기래 웨집치나 해 먹구. 음 기래구 어떤 때 까 까폴(капуста-르) 싸당 마싸(мясо) 두 씨르(тушить) 해서두 그래 먹구.{그래 그래 오이김치 등을 해 먹고. 음 그리고 어떤 때는 양배추를 사다가는 고기를 볶아서도 그리해 먹어.}

10510 @ 까푸스(капуста)?{까푸스(양배추)?}

10510 # 다드배채. 다드배채. 다드배채다 마싸(мясо) 닭아서.{양배추. 양배추. 양배추에다 고기를 닭아서.}

10510 @ 맛있는 거는 전부 다 해잡수시네요! 아아, 다드배첼르두.{맛있는 것은 전부 다 해 잡수시네요! 아, 양배추로도.}

10510 # 아, \*다드배첼두.{아, 양배추로도.}

10518 @ 그러문 동삼에는 머 그 짐치 같은 거.{그러면 겨울에는 뭐 짐치 같은 거.}

10518 # 동삼에느, 가슬 가슬이 저 저 한국에 배채르 우슈토베(Уш-тобе) 사름덜이 승귀서 저기다 이 탈디꾸르간(Талдыкорган) 실어다 팔채오?{겨울에는 가슬 가슬에 저 저 한국에 배추를 우슈토베 사람들이 심어서 저기다 이 탈디꾸르간으로 실어다 팔지 않소?}

10518 @ 그렇습둥?{그렇습니까?}

10518 # 그으렇습꼬마! 여기는 아이 데엿꼬마. 그 배채 한국에 배채씨 여기는 아이 데엿꼬마. 이긴 칠구 우슈토베(Уш-тобе)느 덤채이오? 그담에 그렇기 잘 데지. 한국에 배채씨 우슈토베(Уш-тобе). 개 그 사름덜 저어서 잉게 자꾸 팔지. 기랩 우리 싸지. 싸. 싸 싸서 절구지. (웃음).{그렇습니다! 여기는 한국 배추가 안 됩니다. 그 배추 한국에 배추씨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긴 출고 우슈토베는 덤지 않소?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되지. 한국에 배추씨가 우슈토베에서. 그래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여기에 와 자꾸 팔지. 그럼 우리가 사지. 사서 절이지(담그지). (웃음.)}

10510 # 기래구 물고기 싸서 반찬하지. 반찬. 아! 기래구 마찰(мясо-리) 무슨 자~이두 끓여 먹구 장물도 끓여 먹구 그러지. 그릇기 먹지.{그리고 물고기를 사서 물고기 반찬을 하지. 물고기 반찬. 아! 그리고 고기로 무슨 장도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러지. 그렇게 먹지.}

10510 @ 아아!, 그러면 머 게장히 맛있게 잡숫네요.{아! 그러면 뭐 평장히 맛있게 해 잡숫네요.}

10510 # 개 달 달갈오두 내 마이 싸압꿈. 달갈. 달갈오 개란이라 하지? 다(да)? 내지서 개란? 개란으 어떤 마 마가신(магазин)에서는 아아! 굶은 거 파압꿈. 굶은 거 파. 열 개에 일백 싼냥씨 이룻기 굶은 거. 열 개 열 개 일백싼내~. 일백마흔냥씨두 하는 이두 있구. 일백 일백 스 스무 냥짜리두 있구. 웬: 굶은 개 일백 싼 내~이지, 열 개. 기래 그 그거 싸구. 그거 싸서 먹어.{그래 달갈도 내 많이 샅니다. 달갈. 달갈을 개란이라고 하지? 그렇지? 본국에서 개란이라고 하지? 개란을 어떤 상점에서는 아! 굶은 거 팝니다. 굶은 거 팔아. 열 개에 150뎡계씩, 이렇게 굶은 것을. 열 개 열 개 150뎡계. 140뎡계씩도 하는 이도 있고. 120뎡계짜리도 있고. 가장 굶은 것이 150뎡계지, 열 개에. 그래 그 그거 사고. 그거 사서 먹어.}

10510 @ 아아! 그렇구나. 음. 그럼 아매는 무끼 가지구는 머 입석으 아이함둥?{아아! 그렇구나. 음. 그럼 할머니는 무를 가지고 뭐 음식을 안 합니까?}

10510 # 무꾸 가지구는 벨루 아이 하압꾸마. 아, 그거 반찬할 적이 그거 그래지. 아 따끄(а так) 무 무꾸 가지구 무스 무스거 무꾸 무꾸 무꾸 어터게 \*\*붓어.{무를 가지고는 별로 아니 합니다. 아, 그거는 물고기 반찬을 할 적에 그 무를 가지고 요리하지. 그런데 무 무를 가지고 뭐 무엇을 무를 무를 무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나.}

10519 @ 동삼에 절구지 아이함둥?{겨울에 김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10519 # 동삼에서 글썤 먹지.{겨울에야 글썤 먹지.}

10519 @ 글썤 어떻게 당궁둥?{글썤 어떻게 담급니까?}

10519 # 난 이룻기 그 그전에는 그전에 영계 영계 로바는 아이 아이 좋꼬마. 파:파잔 게. 유즈느이(Южная) 꺼마 그 모 에파(это) 한국에 꺼맘 땅땅해서 못쓰겠어. 기래 나는 저 인제 그 한국에 그 일본무까나 이실 적에 그거 썰어서 싸알아 기래서는 이래 요막씨 길게 해서 여래: 토맥이르 기래 내서 기래 고치갈그두 아이 열지 난. 그런 거, 음 이래 그런 거 (혀 차는 소리. 고려말이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한 듯이) 아이구! 고치르 저나 짐치 속이나 열느라구 매소루브까(мясорубка)다 통고치르, 통고치르 갈 갈재임둥? 싹 썰어서 그거 갈재이오? 그거 그 통고치르 갈아서, 거기다 마늘으 마이 작게 아이 열지 내. 마이 열지. 마늘으 열구 검정고치르 열구 기래구 상채르. 상채르 갈고 내서 마이 열구. 기래 그거 당고치에 한데 섞어서 개 당 당고 칠르써 나는 그래 가지구 한국에 그거 그거 절굴 적에는 내 소곰 아이 열구, 개 이거 이 고치르 갈재이오? 고치르 갈, 치스노크(чеснок) 거 마늘이랑 영인 거. 개 그거 난 찹게 하지. 벤하지 말라구. 곰톨 곰톨래기 나지 말라구 찹게 하지. 일본무까르 절굴 적에 나는 소곰 아이 열지. 소곰으 아이 열구 그거 고치르 간 거 그 찹게 찹게 해서 그걸 그걸로 열지. 소곰으 아이 열지. 그릇기 난.{나는 이렇게 그전에는 그전에 여기 여기 무슨 안 안 좋습니다. 뽕뽕한 것이. 남한 것만 그 음 한국옛 것만 판판해서 못 쓰겠어. 그래 나는 저 이제는 그 한국에 그 일본 무나 있을 적에 그거 썰어서 썰어서는 이렇게 요만큼씩 길게 해서 여러 토막을 내서 고춧가루도 안 넣지 난. 그런 거, 음 이렇게 그런 거 (혀 차는 소리. 고려말이 생각이 안 나서 답답한 듯이) 아이고! 고추를 저기…… 김치 속 등에 넣느라고 분쇄기(粉碎機)에다 통고추를, 통고추를 갈지 않습니까? 싹 썰어서 그거 갈지 않소? 그거 그 통고추를 갈아서 거기다 마늘

을 많이 작게 안 넣지 내가. 많이 넣지. 마늘을 넣고 검정고추를 넣고 그리고 고수풀을. 고수풀 씨를 가루를 내서 많이 넣고. 그래 그거 고추에 한데 섞어서 그래 고추로 나는 그래 가지고 한국에 그거 그거 담글 적에는 내 소곰 안 넣고, 그래 이거 이 고추를 갈잖소? 고추를 갈아, 마늘 거 마늘이랑 넣은 거. 그래 그거 난 찹게 하지. 벤하지 말라고. 곰팡이 나지 말라고 찹게 하지. 일본 무를 절일 적에 나는 소곰을 안 넣지. 소곰을 안 넣고 그거 고추를 간 거 찹게 찹게 해서 그걸 그걸로 넣지. 소곰을 안 넣지. 그렇게 난 하지.}

10519 @ 음.{음.}

10519 # 개 어떤 사름덜은 아이 그렇지 그저. 그저 소곰 그래구 그 담에 그. 난 맨 그거 거기다 그저 자꾸 고치르 상구 양념 내 열어서 찹게 하지. 찹게 해서 그 그 저 일본무꾸 짐치르 하지. 소곰은 아이 열구. 맨 소곰은 아이 열구 맨 난 그거. 기래 그저 사름마다 췌 췌엔집 췌엔집 안간덜마단 다아 제 제채비르 뽀스 뽀스바이(по-своей ски) 하지. 싹 제 채비르. 제 소원대르 하지. 으흠.{그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그저 소곰을 그래고 그 다음에 그. 난 맨 그거 거기다 그저 자꾸 고추를 늘 양념을 내 넣어서 찹게 하지. 찹게 해서 그 그 저 일본 무로 김치를 하지. 소곰은 안 넣고. 맨 소곰은 안 넣고 맨 난 그거 하지. 그래 그저 사름마다 주인 집 주인 집 아낙네들마다 다 제 식으로 하지. 제 식으로 하지. 싹 자기 식으로. 제 소원대로 하지. 으흠.}

10519 @ 제 소원대로.{제 소원대로.}

10519 # 소원대르. 어티기 제 하기 싶은 대르 소원대르 하지.{소원대로. 어떻게 제 하고 싶은 대로 소원대로 하지.}

10510 @ 그럼 아매! 그 장이 있제임둥? 장에다 잉게 박는 거는 없슴둥? 고치나 무끼 조각이나 이런 거?{그럼 할머니! 그 장이 있잖습니까? 장에다 이렇게 박는 것은 없습니까? 고추나 무 조각이나 이런 거?}

10510 # 찹먹느라구 거?{찹 먹느라고 그거?}

10510 @ 아니!{아니!}

10510 # 기래.{그래(그러면).}

10510 @ 장 속에 집어 넣어 가지구 이렇게 오래: 뒤 가지구 삭혀 가지구.{장 속에 집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오래 두어 가지고 삭혀 가지고.}

10510 # 오오! 장밑에다 영는 거!{오! 장 밑에다 넣는 거?}

10510 @ 예.{예.}

10510 # 아! 장밑에다 영는 거. 나는 우 우리 아덜으는 어째 그전에는 내 장 밑에다 그전에 영엇뎃지 장밑에다, 무슨 그런 거. 저어나 새파란 루크(лук)나 이룻기 크 조꼬팡지 새까만 요매냥지. 그런 거 싹. 기래 장 밑에다 야약간 소곰 찢다가 물 꼭 짜서 장밑에다 그리 영엇지. 기래 그 우에 보오 폐구서. 아, 개랜데 우리 식기는 하나투 아이 먹지. 기래 싹 뽕아 테뎃뎃지. 기래구 그 후에는 암 아이. \*\*먹준썰 해서 우찌갸소. 아이 먹소.{아! 장 밑에다 넣는 거. 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째, 그전에는 내 장 밑에다 그전에 넣엇었지, 무슨 그런 거. 저기…… 새파란 파나 이렇게 조꼬팡지 새까만 요만하지. 그런 거 싹. 그래 장 밑에다 약간 소곰을 찢다가 물을 꼭 짜서 장밑에다 그리해서 넣엇지. 그래 그 위에 보를 폐고서. 아, 그런데 우리 식구는 하나도 안 먹지. 그래 싹 뽕아 버렸었지.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 먹지도 않는 것을 해서 어찌하겠소. 안 먹소.}

10510 @ 아이 먹지.{안 먹지.}

10510 # 아이 먹어. 우리 아 둘이 저런 거 저 이런 거 세렌이(зелень) 푸 푸룬 푸룬 나물으 아이

먹는단 말이오, 아덜이. 그저 마싸(мясо). 거저 고기라구. 그저 마싸(мясо).{안 먹어. 우리 아이 둘이 저런 거 저 이런 거 푸성귀 푸른 나물을 안 먹는단 말이오, 아이들이. 그저 고기. 그저 고기라고. 그저 고기.}

10511 @ 그럼 아매! 그: 우리 조선사람덜 음식 말구 그: 머 어:: 까자크 음식이나 우즈벡사람덜 음식 같은 거는 아이 해먹습둥?(그럼 할머니 그 우리 조선사람들 음식 말고 그 뭐 어: 카자흐 음식이나 우즈베크 사람들 음식 같은 것은 안 해 먹습니까?)

10511 # 어째 아이 해먹겄소. 해먹지.{어째 안 해 먹겄소. 해 먹지.}

10511 @ 그 중에서 좀 예.{그 중에서 좀 예.}

10511 # 그 우즈베끄덜이나 그 빨롭(плов) 빨로쁘(плов) 하지. 빨로쁘(плов) 우리 재빌르 해먹지. 까그다(кагда) 맥기 싶을 적이무 그거. 그거.{그 우즈베크 사람들 등이 해 먹는 그 플로프, 플로프를 하지. 플로프를 우리 스스로 해 먹지. 먹고 싶을 적이면 그거 그거 해 먹지.}

10511 @ 어티게 함둥? 그거. 작년에 한번 파시켄트에서 먹어보았습니다. 켄테 하는 방법은 잘 모름 꾸마.{어떻게 함니까? 그거. 작년에 타슈켄트에서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10511 # 그러나 저 저 재빌르 해 먹는 게사 고기르 많이 열어야 하지.{그러나 제 제 스스로 해 먹는 것이야 고기를 많이 넣어야 하지.}

10511 @ 무슨 고기까?{무슨 고기일까?}

10511 # 쇠고기. 쇠고기르. 쇠고기르 그저 저냐 이룽기 (한숨) 마싸(мясо)르 썩 싸알아서 그래 가매 애다 지름 마:이 붓지. 쌀으 씻어서 쌀으 보메서 그래서 지름우 마:이 열구서르 그담에 이 고기 고기 썩 거 열지. 개 지름애다 오래: 오래 에따(это) 그저 기게 지름 마이 붓다나йка나 끓는 게나 한가지지. 지름에서 끓는 게나. 기래 자알 넣어 익혀서 그담에 루끄(лук) 거더 열구. 그 담에 루끄(лук) 거더 이룽기 조옴 이래 저냐 기래진 담면은 그 담에 마르꼬프(морковь) 썰어 열, 저 마르꼬프(морковь). 고려말이 마르꼬프(морковь) 미시gio?{쇠고기. 쇠기르. 쇠기르를 저기…… 이렇게 (한숨) 고기를 썩 썰어서 그래 솔애다 기름을 많이 붓지. 쌀을 씻어서 쌀을 보면서 그래서 기름을 많이 넣고서 그 다음에 고기를 썩 것을 넣지. 그래 기름애다 오래 오래 음 그저 거기에 기름을 많이 붓다 보니 끓는 것이나 한가지지. 기름에서 끓는 것이나. 그래 잘 넣어 익혀서 그 다음에 파를 거두어 넣고. 그 다음에 파를 거두어 이렇게 조끔 이렇게 저기…… 그래진 다면은 그 다음에는 당근을 썰어 넣지, 저 당근. 고려말로 마르꼬프(морковь)는 무엇이라 하오?}

10511 @ 마르꼬프(морковь)는 마르꼬프(морковь)꾸마.{마르꼬프(морковь)는 마르꼬프(морковь)입니다.}

10511 # 마르꼬프(морковь) 미시gio?{마르꼬프(морковь)가 무엇이오? 고려말로?}

10511 # 거저 거 이 색은 거저 거저 고려 블루개 같은 게. 저 마르꼬프(морковь)는 바자르(базар)서는 가뜰 팔재이오? 마르꼬프(морковь). 이 이마:이 크게 이막씨 독한 게 이래 이래, 마르꼬프(морковь).{그저 그 이 색은 그저 블루개 같은 것. 저 당근은 시장에서는 가뜰 놓고 팔잖소? 당근. 이 이만큼 큰 것이 이만큼씩 굵은 것이 이래 이래, 당근은.}

10511 @ 내지에는 없습꾸마.{내지에는 없습니다.}

10511 # 없소? 아, 원도~ 이스 글썬 기게 원도~ 이시적애 내 그 우리 저 우리 한애비나 할머니 이스 적애 블라이. 그 원도~ 이시 적애는 저 블루개 블루개 색으느 딱 블루개 색이지 마르꼬프(морковь). 또취느(точно) 그렇지. 개 그저 쓰릴 거저 거저 기래 먹으, 깎아서 먹어도 다달한 게 블루개처럼 맛있지. 지금 그 마르꼬프(морковь)라는 게, 지금 마르꼬프(морковь)라는 게

바자르(базар)서 지금 파는게. 그 마르꼬프(морковь) 썩 채르 쳐서.{없소? 아, 원동에 있을, 글썬 그개 원동 있을 적애 내 그 우리 저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있을 적애 보니. 원동에 있을 적애는 블루개, 블루개라는 것이 있는데, 색은 딱 블루개 색이지 마르꼬프(морковь). 확실히 그렇지. 그래 그저 그저 그저 그래 먹을 때 깎아서 먹어도 다달한 것이 블루개처럼 맛있지. 지금 그 당근이라는 것이, 지금 당근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지금 파는데. 그 당근은 썩 채를 쳐서.}

10511 @ 아아! 모르꼬프(морковь) 내지에 있습꾸마.{아! 마르꼬프(морковь)는 본국에도 있습니다.}

10511 # 잇으? 음::{잇소? 음.}

10511 @ 예. 머 \*붉은무라우라구두 하구 홍당무라구두 하구. 예. 당근이라구두 하구.{예. 뭘 붉은무라고도 하고 홍당무라고도 하고. 예. 당근이라고도 하고.}

10511 # 난 우리는 고려말으 모를 모르다나йка, 그저 고려이름으 모르다나йка 그저 마우채처럼 기양 모르꼬프 모르꼬프 하지.{난 우리는 고려말을 모르다 보니, 그저 고려이름을 모르다 보니 러시아 사람처럼 그냥 마르꼬프(морковь), 마르꼬프(морковь) 하지.}

10511 @ 당근이라구 하압꾸마.{당근이라고 합니다.}

10511 # 음. 기래 이래 이래 썩 싸알아서 얹기[얹기] 썩 싸알아서 채르 쳐서 거기다 한테 열지. ну), 마싸(мясо)다. 마싸(мясо)다 한테 열어서 그 담애 그저 자알 그저 썩 이룽기 자알 기게 닦아진 다음엔 그 담애 쌀으 씻어서 열지. 쌀으 씻어서 열어서 난 쌀으 씻어서 썩 열구서르 그 매야싸(мясо)나 고기 에따(это) 골레까(горелка)라구 난 썩 젓혀서 농구 그담애 물으 붓지. 물으 마침치 물게두[묵게두] 하지 마구. 기래구 기래 밥처럼 기래 지름 마이 열구 기래 해 노문 기게 빨롭(плов)이지 빨롭(плов)이지.{음. 그래 이래 이래 썩 썰어서 얹게 썩 썰어서 채를 쳐서 거기다 한테 넣지. 음, 고기애다. 고기애다 한테 넣어서 그 다음애 그저 잘 그저 썩 이렇게 잘 그개 볶아진 다음에는 그 다음애 쌀을 씻어서 넣지. 쌀을 씻어서 넣어서, 난 쌀을 씻어서 썩 넣고서 그 고기나 고기 음 버너를 난 썩 젓혀서 농고(버너를 틀어 불을 켜 놓고) 그 다음애 물을 붓지. 물을 마침맛게 물게도 하지 말고. 그리고 그래 밥처럼 그래 기름 많이 넣고 그렇게 하면 그개 플로프지 플로프이지.}

10511 @ 그렇게 만드는구나. 쇠고기르.{그렇게 만드는구나. 쇠기르를.}

10511 # 쇠고기나 야~아 고기나. 음.{쇠고기나 웡 고기나. 음.}

10511 # 기래구 쌀으 쌀 저런 마르꼬프(морковь)나 다아 거더 열구 쌀으 열기 전에 개구 물으 물으 쌀으 보메서르 물으 얼마간 열구 소곰 열어야 하지. 소곰 열어서 소곰 맛으 보메 그 물으 맛으 바야 하지. 그래구서 쌀으 썩 씻어 씻어열구 열어무 그담애 밥처럼 데우 잉게 소곰 소곰 소곰 연게 알기지.{그리고 쌀을 쌀 저런 당근이나 다 거두어 넣고 쌀을 넣기 전에 그리고 물을 물을 쌀을 보고 물을 얼마간 넣고 소금 넣어야 하지 소금 넣어서 소금 맛을 보며 그 물을 맛을 보아야 하지. 그리고 쌀을 씻어 넣고 넣으면 그 다음애 밥처럼 되면 이렇게 소금 소금 소금 넣은 것이 알아지지.}

1051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511 # 아하! 기르 기룽기 빨롭(плов)우 하지.{음! 그렇게 플로프를 하지.}

10511 @ 그럼 그저 말구 또 우리 고렷사람덜이 해먹는 그 까자끄나 우즈벡 음식은 또 뭐가 있습둥?(그럼 그저 말고 또 우리 고렷사람들이 해 먹는 그 카자흐나 우즈베크 음식은 또 뭐가 있습니까?)

10511 # 아, 무슨.{아 뭘.}

10511 @ 플로프(плов) 말구.{플로프 말고.}



10511 # 베스빠르마끄(бешпармак)두 잊지.{베스바르마크도 있지.}

10511 @ 비 베스빠르마끄(бешпармак) 아하!{비 베스바르마크 아하!}

10511 # 베스빠르마끄(бешпармак) 까자끄 음식이지.{베스바르마크는 카자흐 음식이지.}

10511 @ 그건 어티기 함둥?(그건 어떻게 합니까?)

10511 # 그 그 세 세고기나 바라니(барани) 고기나 야~이 고기나 세고기나 야~이 고기나 그거 싸다가서리 거저 까그(как) 뽕롭(плов)한 거처름 그렇기 저나 자알 삶아서 썰은 아이하구. 거저 그래 자알 삶아서 고기 고기 거반 세고기나 일리(или) 야~아 고기나 고기 더 거반 다아 익어서 적이 다 익으 적에 저 갈글르서 갈기 이계서 갈그 이계서 데:게 데게 이계서 밀델르 자꾸 밀어서 얹다:말게 그룽기 하집 그거. 개 이 고기낭 다아 익구 양념이나 다 열어서 다아 익은 다음에는 이 저어나 이거 이거 같그 미채웁소?(그 쇠고기나 양고기나 양(羊)의 고기나 쇠고기나 양의 고기나 그거 사다가서 그저 플로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저기…… 잘 삶아서 썰은 안 하고. 그저 그래 잘 삶아서 고기 고기 거반 쇠고기나 또는 양의 고기나 고기가 거반 익었을 적에 저 가루로 가루 이겨서 가루를 이겨서 되게 되게 이겨서 밀대로 자꾸 밀어서 알따랄게 그렇게 하지 뭐 그거. 그래 이 고기나 다 익고 양념이나 다 넣어서 다 익은 다음에는 이 저기…… 이거 이거 가루를 밀지 않았소?)

10511 @ 음.{음.}

10511 # 아하! 같그 민 거 이래 칼르 칼르 싹 이룽기 썰어서. 누(ну) 요래 요래 그저 저 그런 거처름 이룽기 싹 썰어서. 개래 그 그 저나 그거 고 고기 물이 장물이 끓을 적에 거기다 열지. 다아 고기나 다아 먹게 텐언에 텐 담에 그 담에 그거 대엿개 밀어서 이래 싸알아서 이래 크바크바드라뜨느이(квадратный ) 이래 써얼어서 기래 열지. 기래 움 먹을 적에느 그거 저나 매마싸(мясо)가 베스빠르마끄(бешпармак) 켄스파(тесто) 같그 이긴 거 연 거 그거 익은 거 개 그거 빠스노쁘(посуда)다가 퍼서 먹지. 게 베스빠르마끄(бешпармак)지.{음! 가루를 민 거 이렇게 칼로 칼로 싹 이렇게 썰어서. 음 요렇게 요렇게 그저 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싹 썰어서. 그래 그 그 저기…… 그거 고기 물이 국이 끓을 적에 거기다 넣지. 다 고기 등이 다 먹게 된 연후에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땃 개를 밀어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네모지게 이렇게 썰어서 그리해서 넣지. 그래 음 먹을 적에는 그거 저기…… 고기와 베스빠르마끄 반죽, 가루를 이긴 거 넣은 거 그거 익은 거 그래 그거 그릇에다 퍼서 먹지. 그래 베스빠르마크지.}

10511 @ 베스바르마끄(бешпармак). 아아!{베스빠르마크. 아!}

10511 # 까자끄덜으느 까자끄덜으느 다썰루 야~:고길르 하지.{카자흐 사람들은 대부분 양의 고기로 하지.}

10511 @ 야~:고기.{양고기.}

10511 # 아하! 까자끄덜은.{음! 카자흐 사람들은.}

10511 @ 양고기.{양고기.}

10511 # 양고기. 으흠. 개구 쇠고기르두 하구.{양고기. 으흠. 그리고 쇠고기로도 하고.}

10511 @ 무슨 고기?{무슨 고기?}

10511 # 쇠고 쇠고고 소고기길.{쇠고 쇠고 소고기로.}

10511 # 쇠고기.{쇠고기.}

10511 @ 예?{예?}

10511 # 소고기, 소. 쇠고기르두 베 에따(это) 그것덜두 베스빠르마크두 하구 그렇지. 쇠고기르두 해두, 우리네두 해에 먹어 밋어. 개 쇠고기르 해에두 너무나 맛있습덤. 저 까자흐덜은 다썰루 야~아고기 먹제임둥? 기래. 개 그것들은 베스빠르마끄나 야~:고길르두 하지. 야~고기 없으무

쇠고기루두 일없습덤. (웃음){소고기, 소. 쇠고기로도 음 그것들도 베스바르마크도 하고 그렇지. 쇠고기로 해도, 우리네는 (쇠고리로) 해 먹어 보았습니다. 그래 쇠고기로 해도 너무나 맛있더군요. 저 카자흐 사람들은 대부분 양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그 사람들은 베스바르마끄 등을 양고기로도 하지. 양고기가 없으면 쇠고기로도 해도 괜찮더군요. (웃음).}

10512 @ 그럼 아매느 국시르 아이 해 잡습둥?(그럼 할머니는 국수를 안 해 잡수십니까?)

10512 # 어째! 우리네는 국시 하는 게 우리두 잊지만 해두 재빌르 이룽기 한. 그랜것두 그 그것들 숯에서 국실르 파는 거 싸지. 이 깔로브까(коробка). 한 깔로브까(коробка) 열 열 킬로(кило) 씨 열었지[여:쥬]. 약하다:만 거. 국시 좋은 게. 요래 한 깔로브까(коробка). 열 열킬(кило)로 씨 열린 거.{어째 안 해 먹겠습니까! 우리네는, 국수를 하는 사람이 우리도 있지만, 자기가 손수 이렇게 한 것. 그리한 것도 그것도 싫어서 국수를 만들어 파는 것을 사지. 상자, 한 상자 10킬로씩 넣지. 약하게 생긴 것. 국수 좋은 게. 요렇게 한 상자. 10킬로그래씩 넣은 거.}

10512 @ 열킬로(кило){10킬로그램.}

10512 # 아하! 꼴로브까(коробка) 쥬 싸지. 기래 한 깔로브까(коробка) 싸무 오래: 먹지 무슨. 열 열킬로(кило) 땀 마른게 국시 열킬로(кило). 그래 그래 한 한 한 요만한 요만:한 요런 까로돈느(кардонный ) 까로브까(коробка) 열킬로(кило) 들지. 이천백냥씨 하.{음! 상자로 파는 것이 제일 싸지. 그래 한 상자를 사면 오래 먹지 뭐. 10킬로그램, 땀 마른 것이 국수 10킬로그램. 그래 그래 한 한 한 요만한 요만한 요런 두꺼운 종이로 만든 한 상자가 10킬로그램이 들지. 2,100뎡게씩 하지.}

10512 @ 아후! 이천백냥?(어휴! 2,100뎡게?)

10512 # 열 열킬론게!(10킬로그램인데!)

10512 @ 그렇지. 열킬로(кило){그렇지. 10킬로그램.}

10512 # 열킬론게 싹 마른국시 열킬론게 이천 백냥씨.{10킬로그램인데 싹 마른 국수 10킬로그램인데 2,100뎡게씩.}

10512 @ 그럼 아매! 그걸 어떻게 해먹습둥?(그러면 할머니! 그걸 어떻게 해 먹습니까?)

10512 # 고려국실 해먹는 거처름 그룽기 해먹지.{고려 국수를 해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 먹지.}

10512 @ 그러니까 어티기? 물에다 삶은 다음에, 우선 건제 내서.{그러니까 어떻게? 물에다 삶은 다음에, 우선 건져내서.}

10512 # 경제내서 그 담에 경제내서 찬물에다, 찬물에다.{건져내서 그 다음에 건져내서 찬물에다, 찬물에다.}

10512 @ 다(да), 다(да){예, 예.}

10512 # 서너 번 씻지. 찬안물에다.{서너 번 씻지. 찬물에다.}

10512 @ 아! 다(да) 다(да){아! 예, 예.}

10512 # 아하! 서너 번 씻어서 사리르 해 놓지. 그런 이런 조 조리 같은 데다 무 물이 찌라구. 기래구선 기래구서는 추미르 하지. 추미르 추미르 만저 싹 해애놓구 고담.{음! 서너 번 씻어서 사리를 해 놓지. 그런 이런 조리 같은 데다 물이 빠지라고. 그리하고서는 그리하고서는 꺾미를 하지. 꺾미를 꺾미를 먼저 싹 해 놓고 고 다음에.}

10512 @ 무스걸르?{무엇으로?}

10512 # 무스걸르, 도투고기르나. 도투고기르. 도투고기 이 저 그거 추미두 추미두 집집마다 따게 하압꾸마. 집집마다 다(да). 집집마다 따게. 제 소원대르. 나느 난 도투고기르 이룽기 싹 싸알아서 닭아서 거이 익을 적에 으 다드배채느 다드배채느 만저 이룽기 싹 싸알아서 소곰 쳐놓지. 소곰 약약간 짭게 하지 마구 그 담에 맞침 소곰 쳐놓지. 소곰 쳐놔다가 기계 소곰 다아

두무 매흐싸(мяхса) 그거 익으무 고거 싹 짜서 거기다 다드베채르 싹 소곰 친거 짜서 기래 거기다, 기래 거기다 양념우 싹 열지. 한국에 양념이. 그 한국에 \*양금이구 검정고치구 붉은 고치구 저런 거 상채 켜 게구. 그 싹 양념 다 열지. 기래 기래 우리 아덜은 또 그 그렇기 추미르 하구라서 우리 아덜은 좋아하지. 내 그룽기 첫감부터 그룽기 맥에 놔서. 음. 다른 집우느 그런 거 이 까푸사(капуста)나 테우재잉구 생겔르 하지. 생겔르 채르 쳐서 소곰 소곰 쳐서 이룽게 그렇기 하지. 아이, 우리 아덜은 생거 아이 먹겠다 \*\*허거이 많지. 저 저래 두실한게 많아서 마싸(мяхса) 두실한 게. 그래 그래 집마당 집마당 어티기 제 소원대르 하다나이까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무엇으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이 저 그거 꺼미도 꺼미도 집집마다 다르게 합니다. 집집마다 예. 집집마다 다르게. 제 소원대로. 나는 난 돼지고기를 싹 썰어서 볶아서 거의 익을 적에 어 양배추는 양배추는 먼저 이렇게 싹 썰어서 소금을 쳐 놓지. 소금을 약간 짜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침맞게 소금을 쳐 놓지. 소금을 쳐 놓았다가 그제 소금을 다 두면 고기 그거 익으면 고거 싹 짜서 거기다 양배추를 싹 소곰 친 거 짜서 그래 거기다 그래 거기다 양념을 싹 넣지. 한국의 양념. 그 한국에 양념이고 붉은 고추고 저런 거 고수풀 쫄은 것이고. 그 양념을 싹 넣지. 그래 그래 우리 아이들은 또 그렇게 꺼미를 하고야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지. 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먹여 놔서. 음. 다른 집은 양배추 같은 것을 데치지 않고 생겔로 하지. 생겔로 채를 쳐서 소곰 소곰 쳐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아이, 우리 아이들은 생것을 안 먹겠다 하는 게 많지. 저 저래 붉은 것이 많아서 고기를 붉은 것이. 그래 그래 집마다 집마다 어떻게 제 소원대로 하다 보니 여러 가지지. 여러 가지.}

10512 @ 으음. 예. 알겠습꾸마.{음. 예. 알겠습니다.}

## 2.4. 가옥 구조

- 10604 @ 그럼 아매! 그 원동에 사실적에 집이 어떻게 생겼습등? 집안이 어티기 생겼습두?(그럼 할머니! 그 원동에 사실 적에 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집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 10604 # 워 원도~에 이시적에는 그저 집이 그저 지금처럼 이룽기 모 못 그렇지. 기래두 두벌 예영이지. 예여~은 두벌 예여~이지. 아하, 두벌 예여~이. 저 우에 저 저 저 꼭대기에는 잉게 널르썬 싹 싹 다 했지 널. 원도~ 이시적이 싹 널르.{원동에 있을 적에는 그저 집이 그저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못했지. 그래도 두 벌 이영을 이었지. 이영은 두 벌 이영이지. 음 두 벌 이영. 저 위에 저 저 꼭대기에는 이렇게 널로 싹 싹 다 했지 널. 원동 있을 적에는 싹 널로.}
- 10604 # 기래구 그적에는 무슨 여러 칸으 맨들었습등? 어디메? 바~이 한내 잇구 이게 이게 정지구 그렇기 살았지. 원도 이시 적이.{그리고 그 때에는 무슨 여러 칸을 만들었습니까? 어디? 방이 하나가 있고 이게 이게 정지고 그렇게 살았지. 원동에 있을 적에.}
- 10604 @ 지금은 아매! 예영은 무스걸르 맨들었습등?{지금은 할머니! 이영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 10604 # 아, 직금은 쉬피리(шифер)지. 거 고려말르 미시긴지 모르지. 지금? 원도 이시적이? 일리(или) 지금?{아, 지금은 함석이지. 거 고려말로는 무엇인지 모르지. 지금 아니면 원동에 살 적에? 또는 지금?}
- 10604 @ 원동 있을 때.{원동에 있을 때.}
- 10604 # 원도~ 이시 때 글썬 널르 널르.{원동 있을 때, 글썬 널로, 널로 했지.}

- 10604 @ 아! 널르. 전부.{아! 널로. 전부.}
- 10604 # 널르, 널르.{널로, 널로.}
- 10604 @ 쉐르 아이하구?{새[草]로 아니 하고?}
- 10604 # 넬(нел)! 앙기 널르. 널 이룽기 농구 기래구 또 이 어간에다 룽기 널어 농구. 바깥에 예영 예영 싹 다 그렇기. 예영이라함? 저 저 바깥에 저 예 예예~. 예예~? 이룽기.{아니! 이렇게 널로. 널 이렇게 농고 그리고 또 이 사이에다 이렇게 늘어 농고. 바깥에 이영 이영 싹 다 그렇기. ‘이영이라고 합니까?’ 저 저 바깥에 저 이영, 이영?}
- 10604 @ 예영.{이영.}
- 10604 @ 이룽기 쉐르 아이했습등?{이렇게 새[草]로 아니 했습니까?}
- 10604 # 쉐르느 아이 했습꾸마. 우리 동네선 쉐르 아이 했스꿈.{새로는 안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새로 아니 했습니다.}
- 10604 @ 그럼 잘살았습꾸마.{그럼 잘 살았습니다.}
- 10604 # 싹 널르. 널 이래 둘 이래 한판 이룽기 농구. 이룽기 싹 널르썬.{싹 널로. 널 이렇게 둘을,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농고. 이렇게 싹 널로썬.}
- 10604 @ 둘 조각 같은 걸르느 아이했습등? 이 둘 뽀죽한 둘 조각 같은 거느.{둘 조각 같은 것으로는 안 했습니까? 이 둘 뽀죽한 둘 조각 같은 것은.}
- 10604 # 아, 넬(нел)! 아이 아이!{아, 아니. 아니. 아니!}
- 10604 @ 아이 했습등?{안 했습니까?}
- 10604 # 아이! 싹 널르 예여~으 싹.{아니! 싹 널로 이영을 싹.}
- 10608 @ 그럼 아매! 이룽게 사름 사는 집이 이룽게 잇습꾸마, 그러면은 요랑:게 집 주위에 답이요 뭇요 산증승이요 들어오지 못하게 뭇 둘러친 거 잇재임등?{그럼 할머니! 이렇게 사람 사는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집 주위에 답이요 뭇요 산짐승이요 들어오지 못하게 뭇 둘러친 것이 있잖습니까?}
- 10608 # 아, 이룽기 이래 둘과 조곰 막았지. 마다~: 마다~: 재비 마다~: 이룽기.{아, 이렇게 이리해서 둘러서 조곰 막았지. 마당을 마당을 자기 마당을 이렇게.}
- 10608 @ 그렇습지.{그렇지요.}
- 10608 # 나~.{응.}
- 10608 @ 이룽기 돌과서 막은 걸 뭇라구 했습등? 그거를 이름을?{그렇지요. 이렇게 둘러서 막은 것을 뭇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이름을?}
- 10608 # 장제르 한다 했지.{‘장제(널로 만든 울타리)’를 한다고 했지.}
- 10608 @ 아! 장제르.{아! 장제를.}
- 10608 # 장제르 한다.{‘장배’(닐문)를 한다.}
- 10608 @ 무수걸르?{아! 장제를. 무엇으로?}
- 10608 # 저나, 아, 그 낭그덜게다서 이룽기 저나, 고려 노 고려말르 기게 미시긴가. 그런 캉재나 하는 거처럼 이룽기두 했지. 낭그르 빼에다가.{저기…… 아, 그 나무에다서 이렇게 저기……, 고려 러시아 고려말로 그게 무엇인가? 그런 광주리 같은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했지. 나무를 베어다가.}
- 10608 @ 아아! 캉재하는 것처럼 이룽기 저어 농구 저어 농구, 아아!{아! 광주리를 엮는 것처럼 이렇게 지어 농고 지어 농고, 아아!}
- 10608 # 그전에 원도~ 싸리낭기 싸리낭기 잇재엿습등? 싸리낭기. 그 싸리낭그 싸리낭기 가져 완 게 그 싸리낭그 그룽기 그룽기두 했지. 개 어떤 사름덜으느 널르두 또 막았지 널르 이룽기. 누(и

y) 이렇기 이렇기 이렇기 딱 붙이재임구[부치재이쿠] 요렇기 요렇기 요렇기 요렇기 요렇기  
막 막기두 하구 그렇기.{그전에 원동에 싸리나무가 싸리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싸리나무. 그  
싸리나무를 싸리나무 가져 온 것, 그 싸리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도 했지. 그래 어떤 사  
람들은 널로도 또 막았지. 널로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붙이지 않고 요렇게 요  
렇게 요렇게 요렇게 막 막기도 하고 그렇게.}

10608 @ 음. 그걸 배재:라구는 아이했슴둥?{음. 그걸 ‘배재’(바자울)라고는 안 했습니까?}

10608 # 기계 배재애임둥?{그게 ‘배재’가 아닙니까?}

10608 @ 배재지 그게.{‘배재’이지요. 그게.}

10608 # 이게 이게 돌과 맨든 배재, 배재. 배재.{이게 이게 돌려서 만든 ‘배재, 배재, 배재’.

10608 @ 아.{아.}

10608 # 배재.{바자.}

10608 @ 배재.{바자.}

10608 # 배재.{바자.}

10608 @ 그럼 배재태라구 하는 건 무스걸 배재태라구 했슴둥?{그럼 ‘배재태’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지고 ‘배재태’라고 했습니까?}

10608 # 배재태 무시긴가?{‘배재태’가 무엇인가?}

10608 @ 음. 몰라서 여쭙보는 겁꾸마. 음. 말은 들었는데 잘 몰라서 여쭙 보는 겁꾸마. 음. 어: 그러  
면은 어:: 이 배재는 그래니까 싸리낭글르두 하구 널 널빤지 널르두.{음. 몰라서 여쭙어보는  
겁니다. 음. 말은 들었는데 잘 몰라서 여쭙어 보는 겁니다. 음. 어 그러면 어 이 배재는 그러  
니까 싸리나무로도 하고 널빤지 널로도 하고.}

10608 # 돌우 막기두 하구.{돌을 가지고 막기도 하고.}

10608 @ 막기두 하구. 예:.{막기도 하고. 예.}

10608 @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드나드느 알기 문을 맨들어 났재임둥? 문이 있었재임둥?{그러면 그  
사람이 드나드느,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문이 있었잖습니까?}

10608 # 그렇지.{그렇지.}

10608 @ 그 문은 뭐라구 했슴둥?{그 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608 # 장재문이라 했지.{널문이라 했지.}

10608 @ 아, 장재문이라구.{아, 널문이라고.}

10608 # 장재문이라구 했지.{널문이라 했지.}

10608 @ 예?{예?}

10608 # 그전에 내 내 조오꼬 들올라이가 장재문이라 허더. 짐 들어오는 문은 저거는 바당무이구.  
{그전에 내 내가 조끄뻬을 때 듣자니 널문이라 하더군요. 줌 들어오는 문은 저거는 ‘바당문’  
이고.}

10608 @ 예, 그건 이따 여쭙보구. 아, 예, 예.{예, 그건 이따가 여쭙어보고. 아, 예, 예.}

10608 # 저거는 바당무이라 하구. 장재라구서리 문으 한 것은 장재무이라구 하더만.{저거는 바당문  
이라 하고. 장재라고 하고 문을 만든 것은 널문이라고 하더구먼.}

10608 @ 장 장재무이라구.{장 ‘장매문(널문)’이라고.}

10608 # 아하! 장재문이라 하더만. 장재문. 문. 문이. 음 그렇기. 그렇기 나느 그전에 들었지 쪼오꼬  
매시 적이.{음! 널문이라고 하더구먼. 널문. 문. 문. 음 그렇게. 그러게 나느 그전에 들었지. 쪼  
끄뻬을 적에.}

10608 @ 음:, 음. 아. 그러문 거기 장재문, 문우 열구 들어오무 문우 열구 들어오무 어:: 그 마다~

에.{음:, 음. 아. 그러면 거기 널문,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 그 마당에.}

10608 # 마다~이지.{마당이지.}

10608 @ 뭐, 뭐가 있었슴둥?{뭐, 뭐가 있었습니까?}

10608 # \*마당에 무슨 아무것두 없었지. 개 마다~아 조곰 내애농구 마 마다~이 이 집에서 얼마간  
마다~: 내애농구 그담에는 밭이지{바치지}. 밭이다나{바치다나} 밭으 알기 막았지.{마당에 무슨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 마당을 조곰 제외하고 마당이, 이 집에서 얼마간 마당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는 밭이지. 밭이니까 밭을 이렇게 막았지.}

10608 @ 아아!{아아!}

10608 # 밭으 막았지. 개 마다~이만 내 농구. 음. 장, 이 오고로든{огород-н} 막았지 이롭게. 그런  
게나 승귀농구 그렇기.{밭을 막았지. 그래 마당만 내놓고. 음. 장, 이 텃밭은 막았지. 그런 게  
나 심어 놓고 그렇게.}

10608 @ 그럼 아매! 거기 무슨 허덕가이오 무슨.{그럼 할머니! 거기 무슨 헛간이오 무슨.}

10608 # 허덕가이느.{헛간은.}

10608 @ 사랑간이오.{광이오.}

10608 # 싸랑까이랑 어째 원도~ 이시적이느 허덕가이, 허덕가이 우리 잇었슴꾸마. 우리네 잇어두  
어티기 허덕가이 잇었는가 하무 이렇기 집우루 홀 들어와서 이게 지금은 워 원도~이 지금.  
이게 이렇기 저나 어 불우 때는 정지구, 정지구 그 정질르서리 저쪽 백에다가 예 저나 저쪽  
에다 이렇기 붙여[부쳐] 짓구[지꾸] 기애구 그 정질르서리 문우 했지. 그 허덕가이구 머 궁게  
들어갔다 나왔다. 개구 그 즘승게, 즘승게덜 그 닭구굴안이 또 판 데 잇었지.{광이랑, 어째 그  
런지 원동 있을 적에는 헛간, 헛간이 우리에게 있었습시다. 우리네 있어도 어떻게 헛간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홀 들어와서 이게 지금은 원동이이라면, 지금. 이게 이렇  
게 저기…… 어 불을 때는 정지고, 정지고 그 정지로서 저쪽 백에다가 예 저기…… 저쪽에다  
이렇게 붙여서 짓고 그리고 그 정지로 드나드느 문을 냈지. 그 헛간이고 뭐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그리고 그 짐승에게, 짐승들에게 그 닭장이 또 판 데 잇었지.}

10608 @ 그렇습지.{그렇지요.}

10608 # 아하! 그렇기 원도~ 이시 적이.{음! 그렇게 헛간이 있었지, 원동에 있을 적에.}

10608 @ 그러니까 아매!, (가옥 구조 그림을 그리며) 요렇게:: 이렇게 이제 배재가 있습꾸마.{그러니  
까 할머니! (가옥 구조 그림을 그리며) 요렇게 이렇게 이제 바자울이 있습니다.}

10608 # 약~{응.}

10608 @ (계속 그림을 그려가며) 그림 이게 장재문이꾸마 이렇게. 이 오래에서 이렇게 이 들어오오  
꾸마 이렇게. 그러문 이게 마당이구.{(계속 그림을 그려가며) 그림 이게 사립문입니다, 이렇게.  
이 오래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마당이고.}

10608 # 아하! 마다~이구. 집이 경계 있지.{음! 마당이고. 집채가 거기에 있지.}

10608 @ 아니. 예, 예, 예.{아니. 예, 예.}

10608 # 저쪽에 집이 있지.{저쪽에 집이 있지.}

10608 @ 저쪽에 여기 집에 집이 있지? 사람 사는 집이 있지? 여기는 인제 이 오고로드{огород}지  
이게. 그림 허덕간은 어디에 있었슴둥? 이게 마당이구.{저쪽에 여기 집에 집이 있지? 저쪽에  
사람이 사는 집채가 있지? 여기는 이제 이 텃밭이지, 이게. 그림 헛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마당이고.}

10608 # 허덕간은 그게 이게 집이 애임둥? 개 집우 이거 이거 문울루 홀 들어가무 집 두에다가 이  
집에다 집에다 한테 붙에서[부쳐서] 이렇기 겨었지.{헛간은 그게 이게 집이 아닙니까? 그래

그 집을 문으로 들어가면 집 뒤에다가 이 집에다 집에다 한테 붙여서 이렇게 지었지.)

10608 @ 아아!{아아!}

10608 # 개 개 들어가는 데는 정질르 들어가게 했지.{그래 들어가는 데는 정지로 들어가게 했지.}

10608 @ 그렇습지.{그렇지요.}

10608 # 저쪽 저쪽에다 문우 아이 하구. 이 정질르 들어가게. 개 정질르 홀 들어가서 그쪽에다 저쪽에다 문우 했지. 허덕가이 문. 개 정지 정질르 이래 이래 바당문의 열구 정지르 들어오구 정지에서 이쪽 쪼끔 이래 이래 저쪽 벙으르 가무 저쪽 벙에 또 무이 있지. 허덕간으르 들어가는 무이.{저쪽, 저쪽에다 문을 안 하고. 이 정지로 들어가게. 그래 정지로 들어가서 그쪽에다 저쪽에다 문을 했지. 헛간 문을. 그래 정지, 정지로 이렇게, 이렇게 바당문을 열고 정지로 들어오고 정지에서 이쪽 쪼끔 이래서 저쪽 벙으로 가면 저쪽 벙에 또 문이 있지. 헛간으로 들어가는 문이.}

10608 @ 그렇습지.{그렇지요.}

10608 # 그룽기 우리네 원동에 이시적이.{그렇게 우리네 원동에 있을 적에.}

10608 @ 아아, 그랬구나.{아아, 그랬구나.}

10608 # 그룽기.{그렇게.}

10608 @ 그러문.{그러면.}

10608 # 그러문 달기굴으란 땀 데다가서.{그러면 닭장은 집채와 떨어진 땀 데다가서.}

10608 @ 달기굴으는 어느쪽에 있었으까?{닭장은 어느쪽에 있었을까?}

10608 # 기래구서리 그런 거 대에지굴으는 장재 밖에 나와서 나와서 나와서 도투굴, 대지굴은 저었지. 나와서. 이 집에 마다~에다 아이 짓구.{그리고서 그런 거 돼지우리는 널문 밖으로 나와서 나와서 돼지우리, 돼지우리를 지었지.}

10608 @ 그렇습지.{그렇지요.}

10608 # 아하! 그랬지.{음! 그랬지.}

10608 @ 그럼 세쇠굴은 오양간은?{그럼 오양간 오양간은?}

10608 # 쇠, 쇠 있어두 오양간은 나느 어째 나느 어째 아이 알기꾸마. 쇠 잇엇밋습꼬마. 젓짜는 쇠 애인 개 애이라 에파(это) 두 등굴쇠. 등술쇠 잇엇습꾸마. 젓짜는 쇠는 없었구. 갠데 그 쇠는 어째서 그 쇠 쇠 오양간은 잘 어째 알기재이꾸마.{소, 소 있어두 외양간은 나느 어째 나느 알아지지 않습니다(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소가 있었었습니다. 젓을 짜는 소인 것이 아니라 음 두 마리의 황소. 황소가 있었습니다. 젓을 짜는 소는 없었고. 그런데 그 소는 어째서 그 소 소가 있는 외양간은 잘 어째 알아지지 않습니다.}

10608 @ 그럼 아매! 봉간은 어디 있었습둥?{그럼 할머니! 변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10608 # 봉간이 저 이 이게 이게 저나 집이 애임둥? 개 오고르드(огород) 나가느디 저쪽에. 저어쪽에 있지. 개 경게서 저쪽으르 더 나가무 석매 잇구. 우리 원도~ 이시적이.{변소가 저 이 이게 저거…… 집이 아닙니까? 그래 텃밭으로 나가는 데 저쪽에. 저쪽에 있지. 그래 거기에서 저쪽으로 더 나가면 연자방아가 있고. 우리 원동에 있을 적에.}

10608 @ 아아 아! 집 안에 있었습둥?{아아 아! 집 안에 있었습니까?}

10608 # 에이! 바글에. 바글에.{에이! 바깥에. 바깥에.}

10608 @ 석매 있었고. 어.. 그럼 아매! 인제 이 마당에서 직금 바당문의 열구 들어갔습꾸마.{연자방아가 있었고. 어. 그럼 할머니! 인제 이 마당에서 바당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0608 # 예에.{예.}

10608 @ 그러면은 바당문 열구 들어가면 첫감에 이 나오는 게 바 바당입지.{그러면 바당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이 ‘바당’이지요.}

10608 # 바다~이 바 바다~이 잇구. 그 바다~이 한 군에 그 임석으 끓이는 데. 마우재마따나 지금 꾸흐냐(кухня)지. 정지, 정지. 그 \*정 \*정지 그 워석 끓이는 카이지. 임석 끓이는 칸 이게 바다~이 잉겔르 들어가무 임석 끓이는 카이 아임둥? 개 임석 끓이는 카에 이 이 집에다 저 집에다 한테 이 이래서 잉게 이 바다~울르 들어가 영게 또 저쪽 칸에 지 지은 개 잇구 이쪽에다 이쪽에다 문우 잉게다 하구 바글울르 문우 아이했지. 정질르 저쪽으 허덕간으 들어가게 했지.{‘바당’이 ‘바당’이 있고. 그 ‘바당’ 한 곳에 그 음식을 만드는 데가 있고. 러시아 사람들 말마따나 지금 ‘꾸흐냐(кухня, 부엌)’지. 정지, 정지. 그 정지는 음식을 끓이는 칸이지. 음식을 끓이는 칸. 이게 ‘바당’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음식을 끓이는 칸이 아닙니까? 그래 음식 끓이는 칸에 이 집에다 저 집에다 한테 이 이래서 여기에 이 바당으로 들어가 여기에 또 저쪽 칸에 지은 것이 있고 이쪽에다 이쪽에다 문을 여기에다 하고 바깥으로 문을 안 했지. 부엌으로 저쪽에 있는 헛간을 들어가게 했지.}

10608 @ 그렇습지.{그렇지요.}

10608 # 그렇게 \*지이.{그렇게 지은 게지.}

10608 @ 그러니까 바당에서 네레가무 불때는 데가 있습지. 불때는 데르 무스거라 함둥?{그러니까 바당에서 내려가면 불 때는 데가 있지요. 불 때는 데를 무엇이라 합니까?}

10608 # 부수개.{부엌.}

10608 @ 아아! 이렇게 쭈 바당에서 내려가면은 쭈 쪼지. 이렇게.{아! 이렇게 쭈 바당에서 내려가면 쭈 쪼지. 이렇게.}

10608 # 아이! 아이 쪼지. 아이 쪼어. 아이 쪼엇땡어.{아니! 안 쪼지. 안 쪼어. 안 쪼엇땡어.}

10608 @ 그러문?{그러면?}

10608 # 아, 누(ну), 그저 쪼곰 요렇지.{아, 음, 그저 쪼곰 요렇지(쪼다고 할 수 있지).}

10608 @ 아, 쪼곰 그렇습둥?{아 쪼곰 깊습니까?}

10608 # 쪼곰 그렇지.{쪼곰 그렇지(깊지).}

10608 @ 아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불우 영는 데가 있지.{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불을 넣는 데가 있지.}

10608 # 기래구 기래 이거 부수개구 이게 집이 애임둥? 이 집이 이 벙이. 이 집이 벙인데 저 벙은 저 벙은 저쪽에다 에파(это) 허덕간으 저었지.{그리고 그래 이것이 부엌이고 이게 집이 아닙니까? 이 집이 이 벙이. 이 집의 벙인데 저 벙을, 벙에 잇대어 저쪽에다 음 헛간을 지었지.}

10608 @ 그렇습지.{그렇지요.}

10608 # 예. 허덕간으 저어서 기래 이 정질르서 이 부수개 이거 지나서 이 이 벙이 애이우? 이게 이게 벙이. 집에 벙이. 집에 벙이 다(да). 이 집에 벙에다가 이 이기다가서 문우 내구 저쪽에 허덕가이지. 바글울르 문우 아이 내구.{예. 헛간을 지어서 그래 이 정지로 해서 이 부엌을 지나서 이 벙이 있잖소? 이게 이게 벙이지. 집의 벙. 집의 벙 음. 이 집의 벙에다가 여기다가서 문을 내고 저쪽에 헛간을 났지. 바깥으로 문을 안 내고.}

10608 @ 그럼……, (일어서서 집의 구조를 설명하는 구술자에게) 아매!, 앓습소!{그럼……, (일어서서 집의 구조를 설명하는 구술자에게) 할머니! 앓으세요.}

10608 # 일없소.{괜찮소.}

10608 @ 그럼 아매! 이게 이 부수개르 내려와서 잉게 불때는 데 있대님둥? 이틀게.{그럼 할머니! 이게 이 부엌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불을 때는 데가 있잖습니까? 이렇게.}

10608 # 예, 예.{예, 예.}

10608 @ 그건 뭐라구 함등? 불우 넣는 데는? 불우 넣는데, 넣는데?{그건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을 넣는 데는? 불을 넣는 데, 넣는 데?}

10608 # 정계 가매 잇구 잉계 불우 때지.{저기에 술이 있고 여기에서 불을 때지.}

10608 @ 불우 넣는 데는 무스거라 했슴등? 부수깨아구리지라 했슴등?{불을 넣는 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수깨아구리’라 했습니까?}

10608 # 부수깨아구리지. 불우 열는 데 부수깨아구리지.{‘부수깨아구리’지. 불을 넣는 데가 ‘부수깨아구리’지.}

10608 @ 아야! 그럼 아매! 여기 인제 가매가 땃 개 걸려 있었슴등?{아야! 그럼 할머니! 여기에 술이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까?}

10608 # 거게 무 저 그런개 잊지. 가 가매두 걸구 뿌리따(плита)두 잇구. 기래구 저쪽에는 구들이 구들이 정지지. 구들이 구들이 놓은 게 정지지. 그담에 또 구들루서리 우리네는 구들루두 저쪽 칸 들어가구, 개 저쪽칸으르 \*들어갓쯔문 바글을르두 문우 해엿지 또. 바갈을르 또 문우 또. 잉겔르드 들어가구 저쪽 칸으 바글을루두, 기게 지끔 말하무 로시아(Россия) 마우재말르 기게 잘르(зал)라는 게지. 잘르(зал). 까꼬 잘르(как зал)처럼 그렇지. 그룻기 우 우리네는 집 우 그룻기 맨들엇멋지, 우리 집우.{거기에 뭐 저 그런 것이 있지. 술 술도 걸고 번철(燐鐵)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방구들을, 방구들이 정지지. 방구들을 놓은 것이 정지지. 그 다음에 또 방구들로, 우리네는 방구들로도 저쪽 칸으로 들어가고, 저쪽 칸으로 들어갔다면 바깥으로도 문을 했지(냈지) 또. 바깥으로 또 문을 또. 여기로도 들어가고(정지를 통해서 정지와 이어진 방으로 들어가도) 바깥으로도. 그게 지금 말하면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 말로 그게 잘르(зал, 큰 방, 홀)라는 것이지. 홀. 홀처럼 그렇지.}

10608 @ 그래 이 가매가 몇 개였슴등?{그래 이 술이 몇 개였습니까?}

10608 # 나~ 정계, 정계. 정계.{응 거기에, 거기에. 거기에.}

10608 @ 몇 개? 땃 겐등?{몇 개? 몇 겹니까?}

10608 # 아, 뿔리따(плита) 하내구 고려가매 하내.{아, 번철 하나고 고려 술이 하나.}

10608 @ 아.{아.}

10608 @ 그래 가매 한내는 밥을 끓이구.{그래 술 하나는 밥을 끓이고.}

10608 # 큰가매, 큰가매르 걸구. 그담에 잉계는 뿔리따(плита)르 놓구. 추구나(чугунка, 주철제 스토브)덜. 그전에 기게 \*추구(чугунка), 조끄만 가매 잇으무 이룻기 아이 하구. 마우재 가매 이게 추구나(чугунка). 이런 추구나(чугунка). 아구! 이게 이게 이게 \*\*든, 이게 이게 밀이느 요마:이 또리또리산 요마:이 놓지. 이눔이 이르 이룻기 생겼지. 노시아 추구나(чугунка). 노 노시아가매. 개 뿔리따(плита)다 그거느 거지. 이 추구나(чугунка)느 뿔리따(плита). 웬쪽에 느 고려가매르 걸구. 그룻기 기랫지.{큰 술, 큰 술을 걸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곤로를 놓고. 쇠로 만든 술. 그전에 그게 술, 조끄만 술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고. 러시아 사람 술 이게 추구나(чугунка)지. 러시아 술. 이런 술. 아이고! 이게 이게 이게 \*\*, 이게 이게 밀은 요만큼 동글동글한 것을 요렇게 놓지. 이눔이 이러 이렇게 생겼지. 러시아 술. 그래 번철 위에다 그거느 걸지(놓지). 왼쪽에는 고려 술을 걸고. 그렇게 그랬지.}

10608 @ 그랬었쥬. 그러면은 이 가매가 있는 데에 이 주변, 여기를 뭐라구 했슴등? 이걸 가매전이라 했슴등? 아니면 가매목이라 했슴등?{그랬었쥬. 그러면 이 술이 있는 데에 이 주변, 여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걸 ‘가매전’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매목’이라 했습니까?}

10608 # 가매목이라구 하지.{‘가매목’(아랫목)이라 하지.}

10608 @ 가매목이.{‘가매목’.}

10608 # 가매목이라 하지.{‘가매목’이라 하지.}

10608 @ 가매전이라구 아이 하구?{가매전이라 아니 하고?}

10608 # 가매전이라 아이하 가매목이라 함더마. 늘쌔.{‘가매전’이라 안 하고 ‘가매목’이라 하더군요. 늘.}

10608 @ 가매목이라구.{‘가매목’이라고.}

10608 # 가매목이라구.{‘가매목’이라고.}

10608 @ 그러면은 이계 가매가 있으면은 이쪽에는 인제 사람이 앉아서 애기두 하구.{그러면 이계 술이 있으면 이쪽에는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10608 # 정계서 거기 저…….{저기에서 거기 저…….}

10608 @ 늑어 자기두 하구.{누워 자기도 하고.}

10608 # 늑어 자기두 하구 정계서 먹지. 저 저 구들에서. 아하.{누워 자기도 하고 거기에서 먹지. 저 저 방구들에서. 음.}

10608 @ 그러면은 예:: 이계 이계 여기 인제 가매가 잇구 여기두 가매 있제임등?{그러면 예 이계 이계 여기 이제 술이 있고 여기도 술이 있잖습니까?}

10608 # 예, 예.{예, 예.}

10608 @ 그리고 여긴 구들이제임등?{그리고 여기는 방구들이잖습니까?}

10608 # 예, 예. 구들이. 개 구들이지.{예, 예. 방구들. 그개 방구들이지.}

10608 @ 그럼 여기 앙기 가매가 있는 데를 여기는 무스거라 함등? 이룻기 가매가 걸려 잇는 데르 무스거라 함등? 그개 가매목임등?{그럼 여기 이렇게 술이 있는 데를 여기는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 술이 걸려 잇는 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가매목’입니까?}

10608 # 기게 가매목이지. 기게 가매목. 개 \*개매르 거는 데 기게 가매목이지.{그개 ‘가매목’이지. 그개 ‘가매목’. 그개 술을 거는 데 그개 ‘가매목’이지.}

10608 @ 음. 그러면은: 예: 이진 구들이구.{음. 그러면 예 이진 방구들이고.}

10608 # 구들이구.{방구들이고.}

10608 @ 구들에다 무스거 깔았슴등?{방구들에다 무엇을 깔았습니까?}

10608 # 노전으 깔앗지.{삿자리를 깔앗지.}

10608 @ 아! 노전으.{아! 삿자리를.}

10608 # 기게 노전이라는 게 저나 저 깔르 깔르 그전에 원도~서 깔르 깔으 이래 기래서 깔르.{그개 삿자리라는 게 저기…… 저 갈대로, 갈대로 그전에 원동에서 갈대로 갈대를 이렇게 그래서 갈대로.}

10608 @ 절어서.{걸어서.}

10608 # 기게 절어서 노전 노전으 싹 깔앗지. 원도 이시 적엔.{그개 갈대를 걸어서 삿자리 삿자리를 싹 방바닥에 깔앗지. 원동에 있을 적에는.}

10608 @ 그 늑기 만들었슴등?{그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10608 # 아, 그전에 나아 잡슨 사름덜이 그거 싹 틀 틀더구만, 노 노 노전 노전 쥘더구만. 으흠. 우리두 우리 클아바이 잇으 적이 재빌르 깔으 이룻기 지내 독한 거 말구 약하두: 한 깔으 그런 거 싹 가져다 그래 이래 그런 목도기 같은 거 놓구서리 이래 조폼 두디레 마스구서는 그담에 그거 쭈루루 이르 이저 잡아맹기구. 이저 딱 담 꼭 누루구서 이저 잡아맹기덤. 그래 그거 다 아 맨들어가지구 그 담에 그거 노전 틀덤.{아, 그전에 나이를 잡슨 사람들이 그거 싹 틀더구만, 삿자리, 삿자리를 걸더구만. 으흠. 우리두 할아버지가 게실 적에 손수 갈대를 이렇게 너무 굵은 것이 아니고 약하다 싶은 그런 갈대를 그런 것을 싹 가져다가 그래 이렇게 그런 나무토

막 같은 것을 놓고 이렇게 조금 두드려 부수고서는 그 다음에 그거 쭈루루 이거 잡아다니고. 이거 딱 콧 누르고서 이거 잡아당기더구먼요. 그래 그거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찢자리를 틀더구먼요.}

10608 @ 음. 아, 그랬구나. 그럼 아매! 여기 인저 구들이 잇구, 구들이 잇구. 근데 예 클아배나 누구 삼추이.{음. 아, 그랬구나. 그럼 할머니! 여기 이제 방바닥이 있고, 방바닥이 있고. 그런데 예 할아버지나 누구 삼촌이.}

10608 # 우리 우리는 어티기 그랬는가 하무 예 이롱기 시자~ 이게 이게 우리 이게 이것마 너르지. 너르기 하구. 정게 정게 가맏목이 잇구. 여기두 구들이 잇구. 기래그 구들르서리 저쪽 칸으 한 칸으 또 맨들었지. 아하, 한 칸으. 개 구들르서리 저쪽 칸으르 들어가지.{우리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예 이렇게 지금 이게 이게 우리 이게 이것보다 너르지. 너르게 하고. 저기 저기 아랫목이 있고. 여기도 방바닥이 있고. 그리고 구들로 저쪽 칸을 한 칸을 또 만들었지. 음, 한 칸을. 그래 방바닥으로 해서 저쪽 칸으로 들어가지.}

10608 @ 그렇습지.{그렇지요.}

10608 # 기래구 저쪽 칸에 들어가서 또 카이 잇지. 우리는 우리는 그렇기 맨들었지, 우리집우. 개 저쪽으르 저쪽으르 들어갈 저쪽으르 홀 저쪽칸으르 들어가무 저쪽칸으는 바글올르 문우 하구. 손님덜이 기래. 지금 마련하무 까끄 잘(как зал), 까끄 고스찌니(как гостинный, гостиница)처름.{그리고 저쪽 칸에 들어가서 또 칸이 있지.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 집을. 그래 저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갈 저쪽으로 저쪽 칸으로 들어가면 저쪽칸은 바깥으로 문을 하고. 손님들이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홀처름, 여관처름.}

10608 @ 그렇지.{그렇지.}

10608 # 그렇기. 기래 저쪽으르두 들어가구. 이쪽으르두. 저쪽으르 손님덜 오무 저쪽으르 바깥으 문우르 들어오구. 아하, 이쪽으는 임석이나 나르는 그런 문우 하구. 그렇기, 그 그전에. 우리집우는 그래. 다른 집우는 그렇기 아이 그랜 우리집우는 그렇기 그래.{그렇게. 그래 저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정지)으로도 들어가고. 저쪽으로, 손님들이 오면 저쪽으로 바깥으로 낸 문으로 들어오고. 음, 이쪽은(정지에서 낸 문) 음식 등을 나르는 그런 문을 하고. 그렇게, 그 그전에. 우리 집은 그래. 다른 집은 그렇게 안 그랬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그래.}

10608 @ 그럼 아매! 이 구들이 있재임둥? 정지. 구들으 지나서 저쪽 칸이 있재임둥?(그럼 할머니! 이 방구들이 있잖습니까? 정지. 방구들을 지나서 저쪽 칸이 있잖습니까?)

10608 # 싹 구들이지. 그게 칸마다 구들이지.{싹 방구들이지. 그게 칸마다 구들을 놓은 방구들이지.}

10608 @ 그 칸 이름은 뭇둥?(그 칸 이름은 무엇입니까?)

10608 # 응? 칸이?응? 칸?}

10608 @ 정지하구 불은 칸은 안방, 굿방이, 앞방이 뭇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재임둥?(정지하고 불은 칸은 안방이요, ‘굿방’이요, ‘앞방’이요 뭇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습니까?)

10608 # 누(ну), 기래 기래 야덜 이게 이 정지구. 그 담이 게[게] 앞방이, 그담이 게[게] 무슨 방이. 저어짜게 앞바~이구, 저어짜게. 저어짜게 앞바~이구. 이 이 두번째 꺼는 (한숨)…… 두 번째. {누, 그래 그래 이 아이들이 있는 이게 이 정지고. 그 다음엿 것이 앞방, 그 다음엿 것이 무슨 방. 저쪽엿 것이 앞방이고, 저쪽의 것이. 저쪽 것이 앞방이고. 이 이 두 번째 것은 (한숨)…… 두 번째.}

10608 @ 굿방이 잇구 고방이 잇구 하눗고방이 잇구.{‘굿방’이 있고 ‘고방’이 있고 ‘하눗고방’이 있고.}

10608 # 이게 다~여이 두 번째께 고배~이구. 저짜거는 이제 이제 곱만 말했지 이제 무슨…….{이것

이 당연히 두 번째 것이 ‘고방’이고. 저쪽 것은 이제 이제 금방 말했지. 이게 무슨…….}

10608 @ 앞방이.{앞방.}

10608 # 앞바~이. 이거 고배~이구 저짜께 앞바~이구. 그렇기. 이건 정지구.{앞방. 이건 고방이고 저쪽 것이 앞방이고. 그렇게. 이것은 정지고.}

10608 @ 그렇지.{그렇지.}

10608 # 음식이나 끓이는 데는 그 플리따(плита)나 이 가매나 거는 건 그건 정지라 하더만. 늘쌩. 내 들올라이.{음식 등을 끓이는 데는, 그 번철이나 이 솥을 거는 데는 그건 정지라 하더구먼. 늘. 내가 듣자니.}

10608 @ 다(да), 다(да). 음. 그럼 정지가 잇구 고 다음에 앞방이구. 고담이 고방이구.{예, 예. 음. 그럼 정지가 있고 고 다음에 ‘앞방’이고. 고 다음에 ‘고방’이고.}

10608 # 고바~이구. 저어짜 고바~이.{고방이고. 저쪽이 ‘고방’.}

10608 @ 그러면은 정지 다음에 이 앞방에는 뉘기 잠을 잤습둥?(그러면 정지 다음에 이 앞방에는 누가 잠을 잤습니까?)

10608 # 어 경게서 어 내 삼 삼추이. 우리 빠빠(папа) 셋째 동새:.{거기에서 내 삼촌이. 우리 아버지 셋째 동생.}

10608 @ 그렇지.{그렇지.}

10608 # 삼추이지. 기래구 내 오래비가. 기래 우리 사[za] 사 삼촌이가 삼촌댁은 저어짜 저어 다른 다른 칸이[카니] 잇구. 정게서 \*지구. 개구 큰아매:구 클아바이구 우리 우리 아덜으는 정지에서 찾지. 정지르 크:게 했지. 컷:맏지. 그래 거기서 자. 클아매가 클아매가 잉게서 쉬구, 우리 내 헤~이가 내 그때 조오꼬만 게 잉게서 이 이쪽에서 살구 그랬지.{삼촌이지. 그리고 내 남동생과. 그래 우리 사 삼촌과 작은어머니는 저쪽 저 다른, 다른 칸에 있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우리 우리 아이들은 정지에서 잤지. 정지를 크게 했지. 컷었지. 그 래 거기서 잠을 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여기(정지)서 쉬고, 우리 내 형(언니)와 내가 그 때 조꼬만 것이 여기서 이 이쪽(정지)에서 살고 그랬지.}

10608 @ 정지칸에서 살구.{정지칸에서 살고.}

10608 # 정지칸에서.{정지칸에서.}

10608 @ 구들에서.{방구들에서.}

10608 # 으음.{음.}

10608 @ 따뜻한 데. 제일 좋은 데지 뭇. (웃음) 따뜻하구. 저두 그런 데서 마이 잤습꾸마.{따뜻한 데. 제일 좋은 데지 뭇. (웃음) 따뜻하고. 저도 그런 데서 많이 잤습니다.}

10608 # 잤습둥?{잤습니까?}

10608 @ 중국에 가서. 중국은 즉금두 그렇습꾸마.{중국에 가서. 중국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10608 # 즉금두 그렇습둥?{지금도 그렇습니까?}

10608 # 그래 원도~서 구들에서 자보구는 못 자밧지. 우리네 못 자 밧지.{그래 원동에서 방바닥에서 자 보고는 못 자 보았지. 우리네 못 자 보았지.}

10608 @ 아, 그렇습지.{아, 그렇지요.}

10608 # 못 자밧지. 싹 이런 장 장판 장판집에서 살았지. 구들집에서 못 살아밧지.{못 자 보았지. 싹 이런 장판, 장판집에서 살았지. 구들을 놓은 집에서는 못 살아 보았지.}

10608 @ 으음. 그럼 아매! 그:.. 아까 이제 아매 부수칸 얘기하섯었지.{음. 그럼 할머니! 그 아까 이제 할머니가 부엌을 이야기하섯었지.}

10608 # 부수께?{부엌?}

10608 @ 아참! 부수께. 그 부수께:: 그러니까 이게 인제 부수께면은 여기가 부수께면 잉게 가매가 있구 구둘이재임등? 반델루, 반델루 이쪽에 이쪽에는 그:…….{아참! ‘부수께’(부엌). 그 부엌 그러니까 이게 부엌이면 여기가 부엌이라면 술이 있고 그리고 방구들이잖습니까? 반대로, 반대로 이쪽에 이쪽에는 그:…….}

10608 # 이쪽에는 바다~ 에따(это) 바다~이지.{이쪽에는 음 ‘바당’이자.}

10608 @ 그래 바당이구. 또 바당 이쪽에는.{그래 ‘바당’이고. 또 바당 이쪽에는.}

10608 # 바당. 이쪽에는 내 직금 생각 생각하이 이래 구들 우리 집이 컷:뻬지.{'바당'. 이쪽에는 직금 생각 생각하니 이렇게 구들을 놓은 우리 집이 컷었지.}

10608 @ 거 큰집이지.{그거 큰 집이지.}

10608 # 큰집. 이래 바당 이쪽에는 이쪽 이 이 이것쳐름 이거쳐름 이렇기 짓지. 이게 시자~ 바당이구 이 \*\*\* 이 백을르서리 이 백에다 또 문우 했지. 내 아께 잇어빠리구 말으 했습꿈, 선생님가. 이 이 백에다두 문우 내구. 저쪽에다 저 이 백으 문우 내구 이 문 이 문을르써 홀 나가무 에따(это) 오양까이.{큰 집. 이렇게 ‘바당’ 이쪽에는 이쪽 이 이것쳐름 이것쳐름 이렇게 짓지. 이게 지금 ‘바당’이고 \*\*\* 이 벽으로 이 벽에다 또 문을 했지. 내가 아까 잇어버리고 말을 못 했습니다, 선생님과. 이 이 벽에다도 문을 내고. 저쪽에다 저 이 벽을 문을 내고 이 문으로 홀 나가면 음 외양간.}

10608 @ 다(да), 다(да), 다(да).{예, 예, 예.}

10608 # 누(ну)! 그런데 아께 잇어뿌리구 세굴으 못밧다구. (웃음).{아! 그런데 아까 잇어버리고 외양간을 못 밧다고 (했지). (웃음).}

10608 @ 생각이 나셨습지?{생각 나셨지요?}

10608 # 세짝이 오양까이지. 음. 그룽기 살았지.{소가 있는 쪽이 외양간이지. 음. 그렇게 살았지.}

10608 @ 다(да), 다(да). 다(да).{예, 예, 예.}

10608 # 세굴이 잇었는데 어디메 잇었는데 거 몰라. (웃음) 이 정지 바당을르서리 저쪽 세굴르 들어 가게 댄들었지. 이게 문 우에다 문우 했지. 개 저쪽에는 세덜이 잇었지.{외양간이 잇었는데 어디에 잇었는지를 몰라. (웃음) 이 정지의 ‘바당’을 통해서 저쪽 외양간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지. 이게 출입문 위쪽 방향으로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문을 댔지. 그래 저쪽에는 소들이 잇었지.}

10608 @ 다(да), 다(да).{예, 예.}

10608 @ 그럼 발바이~는 없었습등?{그럼 디딜방아는 없었습니까?}

10608 # 발바이~두 잇었지. 발바~이는 이렇게 장재문을르 홀 들어오다가 왼쪽에. 왼쪽에.{디딜방아도 잇었지, 디딜방아는 이렇게 널문으로 홀 들어오다가 왼쪽에. 왼쪽에.}

10608 @ 왼쪽에.{왼쪽에.}

10608 # 왼쪽에 발바~이 있구. 그답에 오고로(огород) 이 저 저쪽에는 오고로드(огород) 오고로드(огород) 수문 데다가, 오고로드(огород) 다 아이 수무구 석매 잇었지.{왼쪽에 디딜방아가 있고. 그 다음에 텃밭, 이 저 저쪽에는 텃밭, 텃밭 심은 데다가, 그 텃밭을 다 심지 않고 그 안 심은 자리에 연자방아가 잇었지.}

10608 @ 석매 잇었구. 다(да), 다(да). 밧다. (웃음).{연자방아가 잇었고. 예, 예. 밧다. (웃음).}

10608 # (웃음) 오양간 잇었는데 어드메 잇었는데. (웃음).{(웃음) 외양간이 잇었는데 어디에 잇었는데. (웃음).}

10608 @ 옛날이라. 그럼 큰집에 게섯네.{옛날이라. 그럼 큰 집에 게섯네.}

10608 # 큰집에 게섯구마. 에이구! 그런.{큰 집에 잇었습니다. 에이구! 그런.}

10608 @ 노전이 잇었구.{샷자리가 잇었고.}

10608 # 그 그전에는 썩 노전.{그 그전에는 썩 샷자리.}

10608 @ 썩 노전이이지.{썩 샷자리지.}

10608 # 썩 \*내. 이런 클리온까(клеёнка)라는 거 없었지. 그저 노전이이지.{썩 \*\* 내. 이런 비닐 장판이라는 것이 없었지. 그저 샷자리지.}

10608 @ 음, 음:. 그러문 아매! 에:. 야! 집이 이렇게 컷네. 그러면은.{음, 음. 그러면 할머니! 에. 야! 집이 이렇게 컷네. 그러면은.}

10608 # 거저 오양간이구 무시기구 썩 불에[부채] 짓다나이. 으흠.{그저, 외양간이고 무엇이고 썩 불 여서 짓다 보니. 으흠.}

10608 @ 음. 음:. 그럼 아매! 이 집 앞운::?{음. 음. 그럼 할머니! 이 집 앞은?}

10608 # 그건 오고로드(огород).{그건 텃밭.}

10608 @ 오고로드(огород).{텃밭.}

10608 # 밭이지[바티지]. 집 앞이 다 밭이[바티]. 마다~ 쪼끔 내놓구선 밭이[바치] 댔지.{밭이지. 집 앞이 다 밭이지. 마당을 쪼금 제외하고는 밭이 되었지.}

10201 @ 그럼 이웃집은 어디에 잇었습등? 이게 아매집이 이게 아매집이었다면은 이웃집이 바로 옆에 잇었습등? 떨어져 잇었습등?{그럼 이웃집은 어디에 잇었습니까? 이게 할머니 집이, 이게 할머니 집이었다면 이웃집이 바로 옆에 잇었습니까? 떨어져 잇었습니까?}

10201 # 다른 사름덜 집이?{다른 사람들 집이?}

10201 @ 예.{예.}

10201 # 우리네는, 우리는 우리 삼촌네 우리 \*주주 우리 뻘뻘네 집우는 이 저나 그 (기침) 그래 우리 이래 살구 우리 집이 그거 그 크지. 그래 우리네는 다른 집우는 썩 다 이렇기 널루 이렇기 이래 널루두 이랬지. 우리네두 이 널루 이래. 기래 그 집우 우리 우리 뻘뻘 우리 아버지 느비 그렇기 저었지. 그렇기 크기 썩 저었지. 개 느비 이세르 가다나йка나 우리 오래비네 그 집우 췌겠지. 그적에는 어 큰아매 클아매 다야 생존할 적에. 아하! 재기 재기 뻘뻘네 주구서느 원동 아께 신영고라 하재앿소? 신영고 꼰호즈 경계서 살았지. 신영고에 가 살지. 개다나 우리집이 크게 댔어. 오양까이구 무시기구 다야 잇었지.{우리네는, 우리는 우리 삼촌네 우리 주구 우리 아버지 집은 이 저기…… 그 (기침) 그래 우리 이렇게 살고 우리 집이 그거 그 크지. 그래 우리네는, 다른 집은 썩 다 이렇게 널로 이렇게 이래 널로도 지었지. 우리네도 이 널로 이렇게. 그래 그 집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이가 그렇게 지었지. 그렇게 크게 썩 지었지. 그래 누이가 이사를 가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오라비인 우리 아버지에게 그 집을 주었겠지. 그 때에는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생존해 계실 적이지. 음! 자기, 자기 아버지에게 집을 주고서는 원동, 아까 신영고라 하지 앿소? 그 신영고 꼰호즈 거기에서 살았지. 신영고에 가서 살지. 그렇다 보니 우리 집이 크게 되었어. 외양간이고 무엇이고 다 잇었지.}

10201 @ 그러네 큰집이니까.{그러네 큰 집이니까.}

10201 # 큰집.{큰 집.}

10201 @ 음. 그럼 이 마을에는 아매! 에:: 몇 댕 호나?{음. 그럼 이 마을에는 할머니! 에 몇 호(戶)나?}

10201 # 우 우리는 우리는 딸루 살앗습꼬마. 절에 절에 저 절에 집이 어 없었어. 딸루.{우리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따로 살았습니다. 곁에 곁에 저 곁에 집이 어 없었어. 따로.}

10201 @ 딸루 잇었구나.{따로 잇었구나.}

10201 # 아하! 개 절에 집이 이렇기 두 집씨 세 집씨 이래갓구 국가서 국가서 제에 주무 썩 널루

이렇기 하구. 개래 경계 어 두:세간씨 이렇기 세 \*\*시간씨 나웨르나(наверно) 세 \*시간씨. 세 세 호이 이렇기 한 집이 이렇기 잇었지.{음! 그래 곁에 집이 이렇게 두 집씩 세 집씩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어 주면 싹 널로 이렇게 하고. 그래 거기에 어 두세 칸씩 이렇게 세 칸씩 아마 틀림없이 세 칸씩. 세, 세 호(戶)가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있었지.}

10201 @ 아하.{아하.}

10201 # 아하! 그렇기 그렇기 원도~ 이시적이[쩍이].{음! 그렇게 그렇게 원동에 있을 적에.}

10201 @ 으음. 그러면 그:: 아매 살던 거기는 전부 그 고렷사름덜 집이 몇 호나 땀었슴둥?{음. 그러면 그 할머니가 사시던 거기는 전부 그 고렷사람들 집이 몇 호나 땀었습니까?}

10201 # 마 땀었습꿈마[마내쓰꿈마].{땀었습니다.}

10201 @ 땀었슴둥?{땀았습니까?}

10201 # 땀었스꿈. 땀었스꿈. 개 그 무스거 우리 조오꼬말 적이 무슨 얼마나 데는두 그거 알앗답, 알앗답둥? 기계 꼬호스(кo.лxo3)지. 우리 그 그 전 꼬호스(кo.лxo3)지.{땀았습니다. 땀었습니다. 그래 그거 무슨 우리 조꼬말 적에 무슨 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알앗답니까? 그게 콜호스지. 우리 그 그 전의 콜호스지.}

10201 @ 그러면은 아매! 대충 하면은 뭐 한 한 삼사십호 땀시까?{그러면 할머니! 대충 뭐 한 삼 사십 호가 되었을까?}

10201 # 그렇게 데재양구!{그렇게 되고 말고!}

10201 @ 서른이나 마흔.{서른이나 마흔.}

10201 # 아아, 그렇게 데재양구. 그렇게 데재양구.{아, 그렇게 되고 말고. 그렇게 되고 말고.}

10608 @ 그럼 아매! 아까 아매가 말씀하실 때 오래라구 말씀하셨는데. 이 오래라구 하는 게 뭇둥? {그럼 할머니! 아까 말씀하실 때 ‘오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608 # 오래.{오래.}

10608 @ 음.{음.}

10608 @ 음. 자기 집이 있구.{음. 자기 집이 있고.}

10608 # 집이 잇구.{집이 있고.}

10608 @ 또?{또?}

10608 # 누(ну) 그 오래무 재비 집이 기계 오래:지. 오래.{음, 그 ‘오래’라면 자기 집이 그제 ‘오래’지. 오래.}

10608 @ 자기집:.{자기 집.}

10608 # 재비집이 오래. 집오래. 집오래라는 게.{자기 집이 ‘오래’. 집오래. 집오래라는 게.}

10608 @ 집오래가 어딴둥? 집오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은 마당이 있구 오구르트가 있재임둥?{‘집오래’가 어디입니까? ‘집오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은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잖습니까?}

10608 # 개 \*깁 집오래라이까테 게 마다~이랑 다아 들어가겠지.{그래 집 집오래라 하니까 그제 마당이랑 다 들어가겠지.}

10608 @ 그렇지.{그렇지.}

10608 # 누(ну). 집오래. 재비 집오래이까나 마대~이구 무시기구.{누. 집오래. 자기 집오래이니까 마당이고 무엇이고.}

10608 @ ‘재비집 오래’ 그러면은 마당, 오구르트…….{‘자기 집 오래’라고 하면 마당, 텃밭…….}

10608 # 집오래라는 게 글썤 집 절이지[저티지]. 싹 다 기계.{집오래라는 것이 글썤 집 절이지. 싹

다 그제.}

10608 @ 집 절이:.{집 절.}

10608 # 집오래라는 게.{‘집오래’라는 게.}

10608 @ 아아 집 절이[저티].{아, 집 절이.}

10608 # 음.{음.}

10608 @ 음:. 그럼 아매 낭그를: 어디다 장젿슴둥? 어디다 쟁젿슴둥 어디다가?{음. 그럼 할머니! 땀 나무는 어디다 쌓아 두었습니까? 어디다 쌓았습니까, 어디다가?}

10608 # 낭그느 이롭게 저나 우리집우르 이래 홀 (기침) 들어가, 장젿문 장젿문 열구 홀 들어가무 잉게 스라스(спазу) 영게 에따(это) 바~이 걸구 개구 바~이 저쪽에 집운 이렇기 나가 잇었지. 개 잉게 자리 많지. 개 그 바~이 저쪽에다는 우리 클아바이 낭그 해서 거기다 낭그 가뜩 장젿지. 낭그 가뜩 장치구 그담에 이게 집이지 집이 장젿지. 이렇기 이렇기 살앗맏지. 음.{나무는 이렇게 저기…… 우리 집으로 이렇게 (기침) 들어가면, 널문 널문 열고 홀 들어가면 여기에 곧바로 여기에 음 방아를 걸고 그리고 방아 저쪽에 집은 이렇게 나았맏지. 그래 여기에 자리 많지. 그래 그 방아 저쪽에다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무를 해서 거기다 나무를 가뜩 쌓았지. 나무를 가뜩 쌓고 그 다음에 이게 집이지 집에 쌓았지. 이렇게, 이렇게 살앗맏지. 음.}

10608 @ 음, 음, 음. 그럼 아매! 어: 씨랑칸두 있었슴둥?{음, 음, 음. 그럼 할머니! 어 팡도 있었습니까?}

10608 # 그 씨랑카이라는 기계 글썤나 저나.{그 팡이라는 그것이 글썤 저기…….}

10608 @ 허덕가이?{헛간?}

10608 # 저 누(ну), 허덕가이지. 집울루 정질르 들어가서 그 저쪽에.{저, 음, 헛간이지. 집으로 정지로 들어가서 그 저쪽에.}

10608 @ 그걸 씨랑카이라구두 했슴둥? 허덕간을 씨랑칸이라구 했슴둥?{그걸 ‘씨랑칸’(팡)이라고도 했습니까? ‘허덕간’을 ‘씨랑칸’이라고도 했습니까?}

10608 # 게 싹 싹라~이라 해두 일없구. 고려말르느 모르지 기계 미시긴두~. 누(ну) 마우재말르느 싹라~이 싹라~이 하지. 고려말르 허덕가이[카이] 올갯습지. 허덕가이[카이] 올갯습지.{그게 씨랑이라 해도 괜참고. 고려말로는 모르지 그게 무엇이지. 음, 러시아 사람 말로는 ‘씨랑칸’, ‘씨랑칸’ 하지. 고려말로는 ‘허덕간’(헛간)이 올갯지요. ‘허덕간’이 올갯지요.}

10608 @ 음, 음, 음. 아매 어려, 갱장히 어렸을 땐데 이걸, 이게 이게 기억에 이 남아 있슴둥? 이게. (웃음) 아아:: 그럼 아매 이게 이 집 주위에 멩태나 뭐 이런 거를.{음, 음, 음. 할머니 어렸, 팡장히 어렸을 때인데 이걸, 이게 이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이게. (웃음) 아아. 그럼 할머니 이게 이 집 주위에 멩태나 뭐 이런 것들.}

10608 # 앞에다 가뜩 걸었지.{집 앞에다 가뜩 걸었지.}

10608 @ 말리는 거.{말리는 거.}

10608 # 말리우는 거.{말리는 거.}

10608 @ 그제 어디에 있었슴둥 그거는?{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10608 # 이게 \*치양 이 이 집이 애이우?{이게 그냥 이 이게 집이 아니오?}

10608 @ 이게 집이라구 하면.{이게 집이라고 하면.}

10608 # 이 집이라 하면.{이게 집이라 하면.}

10608 @ 음.{음.}

10608 # 이 집이문 아 집이 그 바당문으르 바당문으르 들으가는 데 이쪽에 웬쪽이 바당문으 이래 홀 열무 오른쪽은 이렇구 홀 열기지 야~. 기래구 그쪽에 웬쪽에는 이쪽에는 이쪽에 조끔 더



와서 오크노(окно) 있지. 직금 오크노(окно) 있지. 아 오크노(окно) 잇는 데 채 아이가구서리 이래 저나 정질르서르 저쪽 다른 칸을르 들어가재이 또?{이게 집이면, 아, 집이 그 ‘바당문’으로 ‘바당문’으로 들어가는 데 이쪽에 왼쪽에 바당문을 이래 홀 열면 오른쪽은 이랑고 홀 열리지 웁, 그리고 그쪽에 왼쪽에는 이쪽에는 이쪽에 조금 더 와서 창문이 있지. 지금 러시아 말로 오크노(окно)라 하는 것이 있지. 아, 창문이 있는 데까지 채 안 가고서 이렇게 저기…… 정지로써 저쪽 다른 칸으로 들어가잖소 또?}

10608 @ 음.{음.}

10608 # 아하! 그래 그 어간에 그거 저나 백이 집 백에 자리 있지. 거기담 어 절컷다가는 거기다 가뜰 걸지. 지 집 아주 집에다.{아! 그래 그 사이에 그거 저기…… 벽이 집 백에 말릴 고기를 걸 수 있는 자리가 있지. 거기다 어 고기를 절엿다가는 거기다 가뜰 걸지. 한테가 아니고 바로 집에다.}

10608 @ 안에다?{안에다?}

10608 # 집 집 집이. 네트(нет)! 집 안이 아이. 집 바글이지.{집 집 집에. 집 안이 아니고! 집 바깥이지.}

10608 @ 바글인가?{바깥인가?}

10608 # 집 집 바깥백에다가. 바깥에 백에다가.{집 집 바깥 벽에다가. 집채의 바깥 벽에다가.}

10608 @ 아, 바깥백에다가.{아, 집 바깥쪽 벽에다가.}

10608 # 바깥에 백에다가 가뜰 걸지. 으흠. 바깥에다 가뜰 거지. 그 정지 들어가는 문우 문우 문 잇는 데.{바깥 벽에다가 가뜰 걸지. 으흠. 바깥에다 가뜰 걸지. 그 정지 들어가는 문을 문을, 문 잇는 데.}

10608 @ 예.{예.}

10608 # 아하! 문 인데 이 웬쪽으. 지금 내 다아 알기지.{아! 문 있는데 왼쪽에다. 지금 내가 다 알 아지지(생각이 나지).}

10608 @ 다(да), 다(да){예, 예.}

10608 # 웬쪽 웬쪽 스타라나(сторона) 거기 백이 저나 이 백이 있지. 그 백에다 가뜰 거지. 가재미. 가재미구 맹태구.{왼쪽, 왼쪽, 왼쪽 거기에 벽이 저기…… 이 벽이 있지. 그 벽에다 가뜰 걸지. 가자미. 가자미고 멍태고.}

10608 @ 아아. 음. 음. 그렇구나. 그럼 아매! 그릇은 이 부수께::하구 정지칸에.{아아. 음. 음. 그렇구나. 그럼 할머니! 그릇은 이 부엌하고 정지칸에.}

10608 # 음, 정지칸이.{음, 정지칸.}

10608 @ 에 그릇을 어디다 뒀슴등?{에 그릇은 어디다 두었습니까?}

10608 # 이궤두? 이궤 시장 가매 큰가매르 걸구 이궤 뿔리따(плита) \*\*\*\* 뿔리따(плита). 개 뿔리따(плита) 이궤에 이궤엔 바다~이 바다~이 잉게다는 그 거머거면 에따(это) 물또~이 물으 물으 절어 붓는 물둥기 있구. 그담에 둥기 저궤에는 이궤기 이런저 이런저 이궤 무스거 게 무스시간가 땡땡 이래 매구 그 백에 그 백에 저 저나 저 아궤 그래궤소? \*\*그눔 저궤 정지 정지 이 정지 이 구들 구들으 채 아이가구 이 뿔리따(плита), 이 뿔리따(плита) 이 백은 베엿:지. 기래 궤궤다 이런 거 매구서리. 그릇은 궤궤서 썩 일으 했지. 으흠.{이궤입니까? 이궤 지금 술, 큰 술을 걸고 이궤 번철 \*\*\*\* 번철. 그래 번철 이궤에 이궤에는 바당 바당 여기에다는 그 거면 음 물둥이, 물을 물을 길어다 붓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저궤에는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궤 무엿, 그궤 무엿인가 하면 선반을 이렇게 매고 그 벽에 그 벽에 저 저기…… 저 아궤 그러지 았앗소? \*\* 저궤 정지 정지 이 정지 이 방구들을 방구들을 채 안 가

고 이 번철, 이 번철이 잇는 이 벽은 비엿지. 그래 거기에다 이런 거 매고서. 그릇을 썩고 건사하는 것은 거기에서 썩 일을 했지. 으흠.}

10608 @ 땡땡르 매구서.{살강을 매고서.}

10608 # 아하! 땡땡르 매구서. 기래 이 바다~을르 들어가다나йка나 이 저궤에 이 집에 백으는 잉궤다 문우 했:지. 그러다나 잉궤르 아이 가지. 잉궤르 아이 가지. 그궤기 했땡어.{음! 살강을 매고서. 그래 이 바당으로 들어가다 보니 이 저궤에 이 집에 벽은 여기에다 문을 했지. 그렇다 보니 여기로 안 가지. 여기로 안 가지. 그렇게 했었어.}

10608 @ 그럼 아매! 그 땡땡르 널르 했슴등? 이 도 도 동낭그르 했슴등?{그럼 할머니! 그 살강은 널르 했습니까? 이 통나무로 했습니까?}

10608 # 넬(нет)! 널르서.{아니! 널로써.}

10608 @ 널르서 했지.{널로써 했지.}

10608 # 널르서리 해구서 개 그릇은 그거 메 멧 층대다 맨들구 맨들구서 개래구 그릇으 궤궤다 썩 잇어 뉓지.{널로써 하고서 그래 그릇은, 그궤 몇 층대를 만들고 만들고서 그리고 그릇을 거기 에다 썩 썩어서 놓앗지.}

10608 @ 음, 음, 음.{음, 음, 음.}

10608 # 그 땡땡르 맨 테는 그, 고려말르는 그전에 조양간은 어느 궤오? 조양간은 무스거 가지구 조양간이[까이]라구 하구? 내 쪼꼬마시궤이[썰기] 들올라이 조양간이[까니] 조양간이[까니]. 궤 땡땡르 한 거 거 그릇으 올레는 그궤 조양간이[까니]라구, 올슴지?{그 살강을 맨 테는 그, 고려말로는 그전에, ‘조양간은 어느 궤오? 조양간은 무엇을 가지고 조양간이라고 하고?’ 내 쪼꼬맷을 궤에 들으니 ‘조양간’, ‘조양간’이라고 하디구면. 궤 살강을 맨 거, 그궤 그릇을 올려 놓은 것을 조양간이라고 하지, 올슴지?}

10608 @ 아, 모릅꾸마. (웃음) 이름은 아는, 이름은 들었는데 어디에다 뉘 어터궤 하는 건지.{아, 모릅니다. (웃음) 이름은 아는, 이름은 들었는데 어디에다 뉘 어떻게 하는 건지.}

10608 # 기궤 조양간이라는 궤 기궤 그릇으 썩 올레놓는 그궤 청대르 하구서 올레는 그릇으 올레는 기궤 조양간이. 누(ну), 이궤기 널 이래 놓구 그담에 또 쪼곰 이마이 여기서 또 거기다 이래 널으 이궤기 놓구 개 땡땡르 그렇게 했지. 개 조양간이 조양간이. 기궤 아무래 조양간이. {궤궤 조양간이라는 궤 궤궤 그릇을 썩 올려 놓는 그궤 층대(層臺)를 하고서 올려 놓은 그릇을 올려 놓은. 궤궤 조양간이지. 음, 이렇게 널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또 쪼곰 이만궤 여기서 또 거기다 이렇게 널을 놓고 그래 살강을 그렇게 했지. 그래 ‘조양간, 조양간’하고 불렀지. 궤궤 아마도 ‘조양간’.}

10608 @ 맞습꾸마. 맞습꾸마. 그 생각입꾸마. 그러니까 아매! 이궤 이제 가매 아님등 이궤? 여기 가매 잇궤임등? 예:.{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할머니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이궤 이제 술이 아님니까 이궤? 여기 술이 잇궤습니까? 예.}

10608 # 아하! 개 이궤에는 시장 저나.{음! 궤궤 이궤에는 지금 저기…….}

10608 @ 허덕간으르 가야 테구 여기는.{허간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10608 # 아하, 이 형 궤궤르 궤궤르 이 부수궤르 딱 잉궤르 아이구, 누(ну) 그궤 이궤 이제 부수궤 무 잉궤르 호:드(вход) 있지 이궤기. 이궤다 이궤다 하구. 개 이궤는 베궤궤궤엿? 이궤 백은. 거기다가 땡땡르 매구 조양간은, 조양간은. (웃음){음, 이 거기로 거기로 이 부궤으로 딱 여기로가 아니고, 음, 그궤 이궤 이제 부궤이라면 여기로 입구가 잇지 이렇게. 여기에다 여기다 하고. 그래 이것은 비궤 았궤았습니까? 이궤는 벽. 거기다가 살강을 매고 조양간은, 조양간을 두었지. (웃음).}

10608 @ 다(да), 다(да), 다(да). 알겠습니까. 아아, 그게 조양간이구나.{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아, 그게 조양간이구나.}

10608 # 조양간. 아무래 기계 조양간이. (웃음){조양간. 아마도 그게 조양간.}

10608 @ 거기다가 널을 이렇게 예 청대로 이렇게 농구 또 이렇기 농구.{거기다가 널을 이렇게 예 층층이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놓고.}

10608 # 한 \*\*청재 농구 그담에 얼마간 또 하나 농구. 그담은 이렇지 야~. 세 청대 세 청대.{한 층대(層臺) 놓고 그 다음에 얼마간 또 하나 놓고. 그 다음은 이렇지 응. 세 층대 세 층대.}

10608 @ 아, 세 청대.{아, 세 층대.}

10608 # 으흠.{으흠.}

10608 @ 그래 거기다 이 그릇으 깨끗이 다아 닦아서 농구.{그래 거기다 이 그릇을 깨끗이 다 닦아서 놓고.}

10608 # 그릇으 씻어 농구. 그렇지.{그릇을 씻어 놓고. 그렇지.}

10608 @ 재미있게 살았습니까.{재미있게 살았습니다.}

10608 # (웃음) 재미있긴! 기계 무슨 옛날에……. (웃음) \*\*대팔령 그렇게 살았겠지.{(웃음) 재미있기는! 그게 무슨 옛날에……. (웃음) 대충 그렇게 살았겠지.}

10608 @ 이게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살아온 역사구마. 이스토리(история).{이게 우리 민족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역사.}

10608 # 원도~서 그렇기 산 게.{원동에서 그렇게 산 것이.}

10608 @ 아매가 돌아가시구 나면 아까 얘기했잖습둥? 그런 것들이 거이 다 없어져 버립꾸마 다. 아무 누구도 모름꾸마.{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아무 누구도 모릅니다.}

10608 # 모르재이꾸! 어티기 알겠소. (웃음).{모르고 말고! 어떻게 알겠소. (웃음).}

10608 @ 어티기 데어 있는지 역사를 모름꾸마. 역사, 이스토리(история)르 모름꾸마 예. 그래서 그래서 하느 거꾸마. 그래서.{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사를 모릅니다. 역사, 역사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608 # 아, 그전에, 그 직금은 그런 게 한나투 없습꾸마.{아, 그전에 그랬지 그 직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0608 @ 없습지.{없지요.}

# 그전이 원도~ 이시 적이 원도~ 이시적이 내 불라이까나 직금은 아무 그릇이나 쌀으 씻재임둥? 저 저 알류미니이(аллюминий) 찰쓰까(чашка)나 트물 트물소래나 요막씨나 소래에다 쌀으 씻재오? 직금 우리는? 아 그전엔 쌀으 씻는 게 스 스빠짚나(специально) 쌀으 씻는 그릇이 있었지. 함박이. 쌀으 씻는 함박이. 거기다 쌀으 씻었지 이 이런 그릇에 소 소래나 아이 씻었지. 함박에 쌀으 씻는 함박에다 씻었지. 기래 이렇기 돌이나 이시무 이 일어서 쌀 이래 일어서 내 쪼:고 마시 적이 내 밋지. (웃음).{그 전에 원동에 있을 적에 원동 있을 적에 내 보니까 지금은 아무 그릇이나 쌀을 씻잖습니까? 저 저 알루미늄으로 된 접시나 '특물소래'(대야 같이 생긴 그릇)나 요만한 소래에다 쌀을 씻잖소? 직금 우리는? 아 그전에 쌀을 씻는 것이 특별히 쌀을 씻는 그릇이 있었지. 이남박이. 쌀을 씻는 이남박이. 거기다 쌀을 씻었지 이 이런 그릇에, 소래 등에 안 씻었지. 이남박에 쌀을 씻는 이남박에다 씻었지. 그래 이렇게 돌이나 있으면 일어서 쌀을 이리해서 일어서 밥을 하고. 내 쪼끄맷을 적에 내가 보았지. (웃음).}

@ 예. 옳습꾸마. 아아.{예. 맞습니다. 아아.}

# 쌀함박이. 쌀 씻는 함박이 따 땀 게 잊지. 이래, 이래 줍찌키(зубчики) 같은 게 이렇기 이렇기

야~.{이남박이. 쌀 씻는 이남박이 따 땀 것이 있지. 이렇게, 이렇게 툽니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응.}

@ 골이 패여서.{골이 패여서.}

# 아하! 이렇기 이렇기. 기래 이래 휘휘 이 일무 돌이두 깔았구 이래. 내 조오꼬마시적이 그거 우리 삼촌택이나 어찌는 거 내 밋밋지.{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휘휘 일면 돌도 가라앉고 이래. 내 쪼끄맷을 적에 그 이남박으로 우리 삼촌택 등이 어찌하는 것을 내가 보았었지.}

@ 그럼 아매! 그:: 그릇은 어떤 그릇 어떤 것들이 있었으까? 그 당시에는?{그럼 할머니! 그 그릇은 어떤 그릇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 그릇이, 그전에 그릇으는 썩 다 대접입더문. 대접이. 그 대접이라는 거는 어 기계 \*\*아배 원도~서, 고려따~에서두 그 그런 그릇으 썩 씻겠지. 대접이. 저 어 부론살(бронза-리)르 하지. 부론사(бронза) 옳지? 다(да)? 대접이 한개. 잉게[이게] 노오란 노오란 이른 게 에말리(эмаль)두 아이구. 저런 썩 이런 해포르(фарфор)두 아이구.{그릇이, 그전에 그릇은 썩 다 대접이더구먼요. 대접. 그 대접이라는 것은 어 그게 아마 원동에서, 고려땅에서도 그 그런 그릇을 썩 씻겠지. 대접. 저 어 청동(靑銅)으로 하지. 청동 옳지? 응? 대접을 한 개(대접을 만든 재료가). 이렇게 노오란 노오란 이런 게 사기질(沙器質)도 아니고, 저런 이런 도자기로도 한 것이 아니고.}

@ 늦그릇이.{늦그릇.}

# 기계 늦그릇이[녹끄르시] 이래 요래 밥그릇이 밥그릇이랑 요렇게 노오란 덮개나 요렇기 잇는게. {그것이 늦그릇인가? 이렇게 요렇게 밥그릇, 밥그릇이랑 요렇게 노란 덮개가 요렇게 잇는 것.}

@ 다(да), 다(да).{예, 예.}

# 기계 늦그릇[녹끄를]이오?{그게 늦그릇이오?}

@ 음.{음.}

# 늦그릇이?{노그릇?}

@ 음.{음.}

# 그 그런 그런 그릇으 \*씩어뵈어, 썩 썩. 이 이 쉼시르 하는 게나 썩 다 그런 소렐르. 그런 \*소래 애다시 큰 큰 큰 소래.{그 그런 그런 그릇을 썩 썩 보았지. 썩 썩 보았어. 이 이 세수를 하는 것이나 썩 다 그런 대야로. 그런 대야에서 큰 큰 큰 대야까지.}

@ 그건 귀한 겁꾸마 그거는. 직금.{그것은 귀한 겁니다, 그것은. 직금.}

# 그런 직금은 없지. 어디메 잇겠어?{그런 것이 지금은 없지, 어디메 잇겠어?}

@ 없습지.{없지요.}

# 없재잉구.{없고 말고.}

@ 한국에서는 귀한, 아주 귀한 겁꾸마.{한국에서는 귀한, 아주 귀한 것입니다.}

# 아이구! 그러문 대접인두 무시기 그런 그릇으 닦을 적에느. 에이!{아이고! 그러면 대접인지 무엇인지 그런 그릇을 닦을 적에느. 에이!}

@ 크! 닦자문.{아이구! 닦자면 (고생이지).}

# 에이그! 안깐이덜으느 여자덜 생 죽을 고사~이. 그 잘란 거. 메출 아이 잇으문 에 그거 자꾸만 닦지. 빠안하라구, 빠안하라구. 이이!{에이구! 아낙네들은, 여자들은 죽을 고생이지. 그 잘란 거 닦느라고. 며칠 안 있으면 에 그거 자꾸만 닦지. 뻔하라고, 뻔하라고. 이 에이구!}

@ 무스거 가지구 닦습둥?{무엇을 가지고 닦습니까?}

# 그전에 그전에 무스거 가지구 닦나. 그전에 우리네 모셀르 닦았지. 모셀르.{그전에 그전에 무엇을 가지고 닦나. 그전에 우리네 모래로 닦았지. 모래로.}

@ 짚 짚울르 이렇기 대에서?{짚, 짚으로 이렇게 대서?}

# 짚인게 애이라. 저 모새 모새르 가져다서 어 지 짚우 짚우 궤에서 모샬르 이룽기 이룽기. 내 그 런거 바앗땃지.{짚이 아니라. 저 모래 모래를 가져다가서 어 짚을 짚을 꺾어서 모래로 이렇게 이 령게.}

@ 그럼 아매! 또 다른 그릇은 뭐가 있었습둥?(그럼 할머니! 또 다른 그릇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 다른 그릇이 저 저나 저.{다른 그릇이 저 저기…… 저.}

@ 무슨 첩시니.{무슨 첩시니 하는.}

# 직금 직금 막 아 막 아께 내 \*가져오셋습둥? 알루미늄이(аллюминий )나 찰쓰까(чашка) 그런 것두 귀했습습꾸마. 없었습꾸마. 개 사기그릇이 잇었지. 개 사기사발이 그전이 이룽기 사기덜이 잇었지. 음.{지금 지금 막 아 막 아까 내 가지오지 았았습니까? 알루미늄으로 만든 첩시 그런 것 도 귀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 사기그릇이 잇었지. 그래 사기사발이 그전에 이렇게 사기그릇 들이 잇었지. 음.}

@ 사기덜이.{사기그릇들이.}

# 으흠. 사기. 사기사발이나 더러 잇었지.{으흠. 사기. 사기사발이나 그런 것들이 더러 잇었지.}

@ 첩시 같은 것은 없었습둥?{작은 첩시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첩 첩시 첩시랑 그. 첩시구 개 종지구.{작은 첩시 첩시랑 그. 첩시고 그래 종지고.}

@ 아, 종지구.{아, 종지고.}

# 종지구. 어전 이릅이두 다아 잇어버리구. (웃음).{종지고. 이젠 이름도 다 잇어버리고. (웃음).}

@ 아아 땃 십넌전 애김둥 지금 이게!{아! 이게 몇 십 년 전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 음?{음?}

@ 몇 십년, 칠십넌전 애기르 하구 있는데. 칠십넌전 애기르 하구 있는데.{몇 십 년, 칠 십 년 전 이 야기를 하고 있는데. 칠 십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그러재이꾸. 칠십넌두 더 땃지.{그렇고 말고. 칠 십 년도 더 되었지.}

@ 더 땃지.{더 땃지.}

# 더 데. (웃음) 어전 원도~서 들어온지 내 원도~서 들어온지 일흔 두해 나. 내 열한 살에 들어왔거 든. 개 어전 일흔 두해 나.{더 돼. (웃음) 이젠 원동에서 들어온 지 내 원동에서 들어온 지 일흔 두 해가 되지. 내 열 한 살에 들어왔거든. 그래 이젠 일흔 두 해가 되지.}

@ 다(да) 다(да). 음.{예, 예. 음.}

# 게 일흔 두해 난 게 무스! 다 잇어뿌렷지.{게 일흔 두 해 난 것이 뭐! 다 잇어 버렸지.}

@ 그렇습지.{그렇지요.}

# 그전이 쪼오고말 적이 들은 것두 다아 잇어, 점 잇은 게 데. 다아 잇어뿌렷지.{그전에 쪼끄말 적 에 들은 것도 다 잇어, 좀 잇은 게 되어서. 다 잇어버렸지.}

@ 기래이까 오늘 저녁에 아매! 집에 가서두 많이 생각 좀 하압소. (웃음) 뭐 재미난 게 있었다: 아 이거는 내가 애:기르 해야 데짚다: 이런 게 생각나시면은.{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할머니! 집에 가 서도 많이 생각 좀 하십시오. (웃음) 뭐 재미난 것이 있었다, 아,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짚다 이런 것이 생각나시면은.}

# 궁, 궁니르 어 그 무스 무시 잇어 아이 빼렛는두~ 그저 궁니르 해 보지, 글썸.{궁리를 어 그 뭐 무엇을 안 잇어버렸는지 그저 궁리를 해 보지, 글썸.}

@ 예, 일부러 하하지 말구. 일부러 하하지 말구.{예, 일부러 하하지는 말고. 일부러 하하지 말고.}

# 다아 이 잇어빠린 게 무슨.{다 잇어버린 것(사람)이 뭐.}

@ 잠이 아이오무, 잠이, 잠이 아이 오무.{잠이 아니 오면 잠이, 잠이 안 오면.}

# 잠이 아이 오무.{잠이 안 오면.}

@ ‘내가 이눔들한테 뭐 애기르 해 주겠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하압소, 예.{‘내가 이눔들에게 뭐 이 야기를 해 주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 야! 어째 이리 험 잇에빼렛는두~ 모르겠다. 내 그전에 그전에 저어기 우리 원도~서부터 같이 살 앓지. 개 저 저 발하스(Балхасы)에서 살메서리 그집이 선스나 그 지 에미 이래 \*\*단도리에다 업 구 땡기는 게 잇구, 요 네 살 목은 선스나 에미 이래 초매르 해 주구 야~ 에미가 같이 땡기는 거, 네 네 살에 땃지.{야! 어째 이리도 쉬 잇어버렸는지 모르겠다. 내 그전에, 그전에 저기 우리 원동에서부터 같이 살앓지. 그제 저 저 발하스에서 살면서 그 집의 사내아이 그 집 어미 이렇게 채비를 해서 업고 다니는 거 있고, 요 네 살 먹은 사내아이에게 어미가 이렇게 치마를 (잡게) 해 주고 웅 아이와 같이 다니는 거, 네 네 살에 보았지.}

# 기래구서 이 이 제끼리에 와서 어티기 하다나이 제끼리 무슨 저나 집안 집 새아게르 서 서바~아 가메서 네 살에 본 거 서바~아 갈 적이 내 가르 알앗습꿈{아라쓰꿈}. 그 사름 알앗습꿈{아라쓰 꿈}. 네 살에 보구서. 기래 가 너무: 기차서. 야야! 쫄지에 어찌무 어찌무 빠매찌(память) 이룽기 좋은거구. 네 살에 땃는데 내 서바~아 갈 적에 내 그 사름 알앗단 말이. (웃음) 그 사름 까그(как) 우리 제끼리에 서바~아 갔지.{그리고서 이 이 제끼리에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제끼리 무슨 저기…… 집안의 처녀에게 서방을 가는(장가를 가는), 네 살에 본 그 아이를, 장가갈 적에 내 그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살에 보고서. 그래 그 아이가 너무 기차 서, “야! 어찌면 어찌면 기억력이 이리도 좋은가” 하고 말하지. 네 살에 보았는데 내가 (그 아이 가) 장가를 갈 적에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았던 말이오. (웃음) 그 사람 우리가 사는 제끼리로 장가를 갔지.}

# 기래 암암 바두 딱 보던 게. 그 적에 내, 그 적에 내 어느 땃 살 데갯는가. 열야름{여라름} 살이 나 땃갯습꿈. 소로끄 치뜨보르뜨(сорок четвертый) 저 다사라서 땃지. 그래두 그래두 그거 \*\* 하권더서부터 한 꼬호스(колхоз)에서 그양 살앓지. 기래 가네 에미 아: 한나르 업구 한나느 손목 으 쥐구 땡기지. 손목 쥔 건 에미 초매르 쥐구 땡기지. 가:느 네 살짜리 아. 개 서바~아 간다구 혼세에 오라 해 우리 갔지, 우리네. 우리 허재인(хозяин)가 갔지. 잔채: 오라구. 기래 가이 서방 제르 보이까나 딱 보던 아야. 딱 보던. 글썸 가안두~ 아인두~ 내 물어땃지. “네 아무개네 아이야” 하이까. “웁다” 하거든. 웁다. 기래 줄지에 어티기 알앓는가. 개 내 글썸 암암 바두 네 저나 오중 빔이 아들 가틀하다 하이까나, “야야! 기차다! 그 적이 네 살이 때인데 워찌~이 내 요즘 자란이 땃는데 서바~아 가는데 어티기 알앓는가” 하구. 갠가 바두 널 딱 보던 아 갈애서 내 네가 물어본 다구. 그래이까 가: 웁지. 네 살에 보던 아 웁지. 서 서바~아 갈 때 내 땃지. 음. 어전 어전 정시~ 이 그전 빠매찌(память)마. 음.{그래 암암 보아도 딱 어디서 보던 사람이지. 내가 그 때에 내가, 그 때에 내가 몇 살이나 되었겠는가. 열 여덟 살이나 되었습습니다. 1944년, 저 다사라에서 땃지. 그래도 그래도 그거 \*\*\*\*\* 한 콜호스에서 그냥 살앓지. 그래 그 아이네 어미 아이 하나를 업고 하 나는 손목을 쥐고 다니지. 손목을 쥐인 건 어미 치마를 쥐구 다니지. 그 아이는 네 살짜리 아이. 그래 장가를 간다고 혼사(婚事)에 오라고 해서 우리가 갔지, 우리네. 우리 남편과 갔지. 잔치에 오라고. 그래 가니 신랑을 보니까 딱 보던 아이야. 딱 보던. 글썸 그 아이인지 아닌지 내 물어 보았지. “네 아무개네 아이냐?” 하니까, “웁다” 하거든. 웁다. 그래 줄지에 어떻게 알앓는가. 그래 내 글썸 암암 보아도 네 저기…… 오중빔이 아들인 것 같다 하니까, “야! 기차다! 그 때 네 살 때인데 어떻게 내가 요즘 성인이 되었는데, 장가를 가는데 어떻게 알앓는가!” 하고 말하지. 그런 가 하고 봐도, 널 딱 보던 아이 같아서 내가 너에게 물어본다고. 그래니까 그 아이가 웁지. 네 살에 보던 아이가 웁지. 장가를 갈 때 내가 보았지. 음. 이젠 이젠 정신이 그전 기억력보다 (못하 지). 음.}

@ 그럼 아매 그런데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구 사셔야지 그런 것까지 다아 기억하구 사시면은 머리가 예: 좀 아프다구 하얏구마 예. (웃음){그럼 할머니 그런데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사셔야지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고 사시면은 머리가 예 좀 아프다고 합니다 예. (웃음)}

10606 @ 그럼 아매! 그러면은 요기 나호드까(Находка) 떠나서 노시아땅으로 처음 가셨을 때 거기서 사시던 집은 어땠습둥? 집이 이거하구 완전히 따지?{그럼 할머니! 그러면은 요기 나호드까를 떠나서 러시아 땅으로 처음 가셨을 때 거기서 사시던 집은 어땠습니까? 집이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지?}

10606 # 그 적이 \*제이비구 집이구 무스 거 거반 거저 원도~서 들어오던 것처름 거반 췌에뿌리구 왔지. 집우 집우 아 집은 우리 고 고르 에따(это)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꼬호즈(колхоз) 집우, 집 집덜이 다아 좋은 집덜이었댓지. 썩 다 이 드바이노이 크리샤(двойной крыша) 썩 널르 이 이거 저거 했지. 크리샤(крыша) 썩 널르 이룩기 한 거. 그룽기 좋은 집. 거기는 어 그런 게 이런 낭기 망제임둥? 리스(рис) 리스(рис) 가뜩하지. 굴다나이가 켄체르 낭글르 썩 저었지. 널르 썩 저었지. 기래 간다, 한나투, 이런 즘승게두 어떤 거느 췌에뿌리구 왔지. 어 불췌르 미시기 썩다구? 누기 썩갯소? 음? 그저 원도~서 들어오던 거처름 또취노(точно) 그룽기 들어왔지.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서. 으흠.{그 때에 집이고 뭐 거반 그저 원동에서 들어오던 것처럼 거의 집어 던지고 왔지. 집을, 집을, 아, 집은 우리 음 아스트라한 콜호스 집은 집들이 다 좋은 집들이었었지. 썩 다 이중으로 된 지붕인데 썩 널로 이거 지붕을 했지. 지붕에 없는 것은 썩 널로 이렇게 한 거. 그렇게 좋은 집이지. 거기는 어 그런 게 이런 나무들이 많잖습니까? 쌀, 쌀이 가뜩하지. 그렇다 보니 전체를 나무로 집을 썩 지었지. 그래 간단다고 하여, 하나도 (없이), 이런 짐승들도 어떤 것은 내버리고 왔지. 어, 갑자기 이주를 하는데 무엇이 그런 짐승을 산다고 하겠소? 누가 사겠소? 음? 그저 원동에서 들어오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들어왔지. 아스트라한에서. 으흠.}

10606 @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서.{아스트라한에서.}

10201 # 으흠. 마흔 해 마흔 한 해 마감 달이. 마흔 두해 빠르보이 또르고 프레치이고 얀바리얀(первая дорога третьего января-н)두 기래 마흔 두해 에 정월 초사흘날인두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서 떴지. 이 보이나(вой на)느 전자~으느 마흔 한해에 낫, 마흔 한 해 여름에 낫지. 기래 우리네는 마흔 두해 정월 초사흘날 이룩기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서 불췌르 썩 떴어.{으흠. 1941년 마지막 달에. 1942년에 1월 3일에 처음 길을 떠났는지, 그래 1942년 에 정월 초사흘날인지 아스트라한에서 떠났지. 이 전쟁, 전쟁은 1941년에 낫, 1941년 여름에 낫지. 그래 우리네는 1942년 정월 초사흘날 이렇게 아스트라한에서 갑자기 썩 떠났어.}

10201 # 야아! 기래 우리네는 두 번이나 떠왔지. 원도~서 원도~서 들어와서 기랬지. 그전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 야아! 좋기두 좋.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에서 보이나(вой на) 나서 다른 사름 아이 아이 떠왓습꿈. 아이 떠왓습꿈. 구려부 사름두 아이 떠우구. 고렷사름두 거기 구려부가뜩 사는데 우리 우리 동네서두 경계 이세르 더러 갓댓지. 개 그 사름덜은 한나투 아이 떠우구 톨리꼬(только) 아스트라한스개(Астраханьский) 고렷사름 기랬지. 톨리꼬(только) 우리네르. 아스트라한(Астрахань) 사름덜으 떠왓지.{야! 그래 우리네는 두 번이나 이주했지. 원동에서 들어와서 그랬지. 그전 아스트라한에서 살 때는 야! 좋기도 좋았는데. 아스트라한에서 있을 때 전쟁이 나서는 다른 사람은 이주시키지 않았습니다. 안 이주시켰습니다. 구려부 사람도 안 이주시키고. 고렷사람도 거기 구려부에 가뜩 사는데 우리 우리 동네에서도 거기 구려부로 더러 이사를 갔었지. 그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이주시키지 않고 오직 아스트라한에 거주하는 고렷사람만 그랬지(이주시켰지). 오직 우리네만을. 아스트라한 사람들을 이주시켰

지.}

10608 @ 그럼 아매! 그: 그 식집 가셨을 때.{그럼 할머니! 그 그 시집가셨을 때.}

10608 # 시집갔을 적에?{시집갔을 적에?}

10608 @ 그매 그 집은 어땠습둥? 원동 집하구{지바구} 비교했을 때 어땠습둥?{그매 그 집은 어땠습니까? 원동 집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10608 # 아, 저 우리 이 전 내 시집을 적이, 잉게르 이새르 해 올 적에?{아, 저 우리 이 전에 내가 시집을 적에, 여기로 이사를 해 올 적에?}

10608 @ 아니! 시 시집갔을 때.{아니! 시집갔을 때.}

10608 # 시집갔을 적이 글췌,{시집 갔을 적에, 글췌.}

10608 @ 그 집은.{그 집은.}

10608 # 그 집우.{그 집을.}

10608 @ 그 집은 이 구조가 어땠습둥?{그 집은 구조가 어떻습니까?}

10608 # 그 그 집 그 집우느. 그 집우는 그저 이게 \*\*이짜나 저나 그뎌 기게 마흔 일곱 해에서 그런 집두 어디메서 그런 게 좋은 게 없었지. 썩 다 \*거러 거러 집우 뜯어 집집마다 그런 집우 가지구 살았지. 뽕루 좋은 집이 없었지, 직금처름. 기래 그저 이 이래 으, 누(ну) 누(ну) 이래 지 집이라:구 잊지. 기래 잉게 잉게 잉게느 잉 잉게느 이게 집이라구 직금 다(да)? 이 이 이 러지.{그 그 집 그 집은. 그 집은 그저 이게 저기…… 그뎌는 그개 1947년이어서 그런 집도 어디 뭐 그런 게 좋은 집이 없었지. 썩 다 그런 집을 뜯어, 집집마다 그런 집을 가지고 살았지. 별로 좋은 집이 없었지, 지금처름. 그래 그저 이 이렇게 으, 음, 음 이렇게 집이라고 잊지.}

10608 # 개 잉게느 잉게느 집이라구 홀 들어가무 저나 그런 게지. 켈리도리(коридор)지. 으 저 까 꼬부뜨(какнибудь) 저런 잉기 켈리도리(коридор). 그 켈리도리(коридор) 쪼금 더 가무 여기 뽕두재라는 게 잊었지. 뽕두재라는 게.{그래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는 여기에는 이게 집이라고 지금 응? 이러하지. 그래 여기는 여기는 집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저기…… 그런 게지. 현관이지. 어 저 어췌든 저런 이렇게 현관. 그 현관 쪼금 더 가면 여기 벼 두지라는 것이 있었지. 벼 두지라는 것이.}

10608 @ 뽕두재.{벼 두지.}

10608 # 그런 걸르 매 맨들었지. 개 맨들구서리 그 켈리돌(коридор)르서리 베 뽕두재다 베르 이룩기 타무 거기다 쏴아 열지. 기래구 이 켈리도리(коридор) 이 \*\*층 그러면 이게 뽕두재구 켈리도리(коридор) 홀 들어오무 이 이췌 오른췌에느 에따(это) 바당무~이지. 저런 무~이지. 저런 무이 있구. 개 거저 저런 문우르 홀 들어가무 아 에따(это) 바다~이지. 아 기래구서 바다~이구 그담에 이게 정지. 그런 게지. 음. 구들이지.{그런 걸로 만들었지. 그래 만들고서 그 현관을 통해, 벼 두지애다, 벼를 이렇게 콜호스에서 배급으로 타면, 거기다 쏴아 넣지(붓지). 그리고 이 현관 이 \*\* 그러면 이게 벼 두지이고 현관을 홀 들어오면 이 이췌 오른췌에는 음 ‘바당문’이지. 저런 문이지. 저런 문이 있고. 그래 그저 저런 문으로 홀 들어가면 아 음 ‘바당’이지. 아 그리고서 ‘바당’이고 그 다음에 정지. 그런 게지. 음. 방구들이지.}

10608 @ 으음.{음.}

10608 # 으흠. 개, 개 구 구들이 이 \*\*그창 첫국 구들이 이췌 이췌 두 번채칸이 이거 이거 저나 이 건 이거 집 집이 집 너 \*너르비 다아 아이 차지르 했지. 집이. 구들이 아이 차지르 했지. 기래 그저 이췌에 바다~이 요마: 이마:이 줍게서리 이게 바~이 저췌 두 두 카이 다아 그 잉기 꽃꽃이 바다~이처름 하구. 아하! 꽃꽃이. 문은 문은 잊지. 저췌 칸 이췌 칸 문은 잊지. 그러나

이거 다아 다아 뿔노스썸(полностью) 구들으 아이 낫지. 잉겔르썸 바다~올르 이래 땡기라그  
헛지. 바다~올르 땡기라 헛지.{으흠. 그래, 그래 방구들과, 이 첫 방구들과 이쪽 이쪽 두 번째  
칸이 이거 이거 저기…… 이건 이거 집 집이 집이 너르께 다 차지를 안 헛지. 집이. 방구들이  
차지를 안 헛지. 그래 그거 이쪽에 바당이 이만큼 좁게 이게 방이 저쪽 두 칸이 다 그 이렇  
게 쫓쫓이 바당처럼 하고. 음! 쫓쫓이. 문은, 문은 있지. 저쪽 칸 이쪽 칸 문은 있지. 그러나  
이거 다, 다 죄다 구들을 안 낫지. 여기로 해서 바당으로 이렇게 다니라고 헛지. 바당으로 다  
니라고 헛지.}

10608 @ 음.{음.}

10608 # 으흠. 그렇게 한 집이 땡지. 이 이게 정지구 이게 바~이구.{으흠. 그렇게 지은 집이었지. 이  
이게 정지고 이게 방이고.}

10608 @ 바~이구.{방이고.}

10608 # 으흠. 바~아안이구. 개래 바~안에서는 내 시애께가 우리 시아바이구. 경계서 쉬구. 우린 정  
지에 있구.{으흠. 방안이고. 그래 방안에서는 내 시동생과 우리 시아버지가 살고. 거기서 쉬  
고. 우린 정지에서 지내고.}

10608 @ 그럼 고이깨(кой ка), 고이깨(кой ка)르 뒗슴둥?(그럼 침대를, 침대를 두었습니까?)

10608 # 그건.{그건.}

10608 @ 고이깨(кой ка), 고이깨(кой ка)를.{침대를, 침대를.}

10608 # 고이까(кой ка) 없었지.{침대는 없었지.}

10608 @ 없었지.{없었지.}

10608 # 구들이.{방구들이.}

10608 @ 그냥 구들이.{그냥 방구들이.}

10608 # 구들이. 내 원도~서 떠나서 그 그 그 시집가서 구들이 또 자밧지.{방구들. 내 원동에서 떠  
나서 그 시집가서 방구들에서 또 자 보았지.}

10608 @ 그러니까 지금 시집애기. 아, 그러니까 구들이 있었, 여기.{그러니까 지금 시집 이야기. 아,  
그러니까 방구들이 있었군요, 여기에.}

10608 # 아하! 시집오이까는 그 구들이.{음! 시집오니까 그 방구들이 있었지.}

10608 @ 구들이.{방구들.}

10608 # 그집이 아하, 구들이 잇었지. 원도~서 떠나서 어 구들집이 떠나서 개 시집와서 구들집이서  
쪼끔 자밧지.{그 집이 음 방구들이 있었지. 원동에서 떠나서 어 구들집을 떠나서. 그래 시집  
와서 구들집에서 쪼끔 자 보았지.}

10608 @ 예, 쪼끔 자보시구.{예, 쪼끔 자 보시고.}

10608 # 뉘름시까(немножко) 쪼끔 살았지. 기래구 저 제길리 월금생활 갔지. 인치 갔지.{조금, 쪼  
끔 살았지, 그리고 저 제길리로 월금 생활을 하러 갔지. 이내 갔지.}

10608 @ 인치. 인치.{이내. 이내.}

10201 # 누(ну), 그 땡 헤르 아이 살았지. 쪼끔 살구서리. \*\*자구 아무것두 타재애두 자꾸마 그런  
게 밍이 잇다하나이까나 우리 허 우리 허재인(хозяин) 게흑이 나서 어전으 경게는 그 꼬호즈  
(колюз) 떠가는 데르 가지 마자구 우리. 개 그 경계서 우슈토베(уш-тобе)서 열아흠채 꼬호  
즈(колюз) 전 꼬호즈(колюз) 떠서 바따라 가 가지. 개 그럴 적에 우리네 경게르 가지 마자  
구, 우리 남페이 그 우리. 기래 어드르 가겠는가. 제길리 가자. 귀애 그 사름덜은 저 꼬호즈(к  
олхуз) 사름덜은 레시가 무스 꼬호즈(колюз) 다아 저 바따라 썸 가구. 우리넨 제길리 갔지.  
{음, 그 땡 해를 안 살았지. 쪼끔 살고서. 콜호스로부터 자꾸 아무것도 타지 않아도 자꾸만

그런 빛이 있다 하니까 우리 남 우리 남편이 계획이 나서(서서) 이제는 거기는 그 콜호스가  
 옮겨가는 데로 가지 말자고, 우리. 그래 그 거기서 우슈토베에서 19번째 콜호스, 전 콜호스를  
 떠나서 바따라로 갔지. 그래 그럴 적에 우리는 거기로 가지 말자고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  
 우리. 그래 어디로 가겠는가. 제길리로 가자. 그래 그 사람들은, 저 콜호스 사람들은 레시가  
 무스 콜호스가 있는 바따라로 썸 가고. 우리네는 제길리로 갔지.}

10201 @ 그렇습지.{그렇지요.}

10201 # 으흠. 개 제길레 가길래 경계 가서 제길리 가길래 잘땡지. 그 따쉬겐뜨 그거 바따라 가 미  
 시길 하겠소. 으흠. 기래 우리 떨어지이 우리 헤재인(хозяин) 그적이 옮기 예산했:지. 개 저  
 제길리 가길래 좋았어. 좋았어. 제길리 그전에는 으 우리 가 살 적에는, 그거 음…… 이리 고  
 고려말이 미시긴두 모르겠어. 마우재말르 아비스뻐취니(обеспеченный) 그룻기 좋았지. 뻐  
 레모이 마스크바(премой Москва). 그룻기 땡땡지. 저 제길리.{으흠. 그래 제길리에 갔기에  
 거기에 가서, 제길리 갔기에 잘 땡지. 그 타슈켄트에 있는 그 바따르 가서 무엇을 하겠소. 으  
 흠. 그래 우리가 그 콜호스에서 떨어지니 우리 남편이 그 때 옮게 예산을 헛지. 그래 저 제길  
 리 갔기 때문에 좋았어. 좋았어. 제길리, 그전에는 어 우리가 가서 살 적에는 그거 음…… 이  
 리 고려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고려말로 살기가(생활 보장이) 그렇게 좋았어. 뻐레모야 모  
 스크바. 그렇게 되었었지. 저 제길리.}

10201 # \*\*거거 어쨌거나 루다나(руда)지. 루드니르(рудник)지. 그러다나이가 뻐레야모이 저나 스  
 마스크브이(премой с Москвы). 기래 다른 데는 무시기 없어두 저 제길리엔 무시기 쉬또  
 톨리코 이(что только и) 르바(рыба) 이 르바(рыба)두 르라스니야 르바(красная рыба), 꺄  
 따(кета), 가르브샤(горбуша) 뵈레 다아 잇었지. 으흠. 그룻기 아비스뻐취니(обеспеченны  
 й) 좋았지. 뻐레모야 마스크바(премой Москва). 경계 루드니르(рудник). 경계서 에따(это)  
 스비네쯔(свинец) \*\*난 파에지. \*\*정리제 정리르 제길리서. 루드니르(рудник) 데갓지. 기래  
 그룻기 아비스뻐취니(обеспеченный) 좋았지. 음. 그러길래서 경겔르 가길래서 가 잘 땡땡  
 어. 기래 경계 경계서 사다가서리 제길리 사다가 저 따지크스탄(Таджикстан) 두산베(Душа  
 нбе)르 갔지.{거긴 어쨌거나 채광장(採鑛場)이지. 광부(鑛夫)지. 그러니까 뻐레야모이 마스크브  
 이. 그래 다른 데는 무엇이 없어도 저 제길리에는 무슨 정말 물고기, 이 물고기도 뵈칸 물고  
 기, 캄차카 연어, 사할린 송어 등 별게 다 있었지. 으흠. 그렇게 좋았지. 살기가 좋았지. 뻐레  
 모알 마스크바. 저기에 광산(鑛山)이 있었지. 거기서 음 연(鉛)을 파내지. \*\*\*\*\* 제길리서. 광  
 부가 되겠지. 그래 그렇게 살기가 좋았지. 음. 그러기에 거기로 간 것이, 가서 잘 땡땡어. 그  
 래 거기 거기서 살다가 제길리에서 살다가 저 타지크스탄의 수도인 두산베로 갔지.}

10608 @ 그럼 아매! 직금 아매 사시는 집은 어떻습둥? 아매 사시는 집은 칸이 땡 칸임둥?(그럼 할  
 머니! 지금 할머니가 사시는 집은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사시는 집은 칸이 몇 칸임니까?)

10608 # 집이 내 우 우리 지금 사는 건 사는 집은 이 이게 시장 이룻기 이룻기 이룻기 집이라:구  
 이룻기 집이라:구 기래 이 마 마당올르서리 마당올르서 이래 홀 쫓쫓이 들어오무 꺄리도리(к  
 оридор) 잇소.{집이 내 우리 지금 사는 집은 이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집이라고 이렇게  
 집이라고 그래 이 마당으로 쫓쫓이 들어오면 현관이 잇소.}

10608 @ 꺄리도리(коридор).{현관.}

10608 # 꺄리도리(коридор). 꺄리돌(коридор)으 이래 \*\*그가 그담에 꺄리돌(коридор)르 더 나가무  
 으 더 나가무 꺄라도뻐까(кладовка). 이 이 문우 이 꺄리돌(коридор) 문우 열구 들어와서  
 꺄리도리(коридор) 들어오무 그 저 또 꺄라도뻐까(кладовка) 잇으무 꺄라도뻐까(кладовка)  
 무이 잇지. 이 무이 있구. 개 이 꺄라도뻐까(кладовка) 개 꺄리돌(коридор) 홀 들어오무 오

른쪽으는 으: 집이구. 이 이래 꽃꽂이 들어가무 걸리도리(коридор)구 이쇼(ещё) 지나 끌라도브까(кладовка)지. 누(ну), 그 장그릇이랑 무스 그양: 두구 먹는 데지 거기다. 이거 첫칸으는 끌리도리(коридор)구. 개 이래 혹 들어가무 이래 홀 들어가무 이게 꾸흐냐(кухня). 이게 꾸흐냐(кухня)구 이쪽에 에 에따(это) 그런 게우. 잘(зал)이구 이쪽이 또 스파냐(спальня)구 기래구 또 이쪽으로 꾸흐냐(кухня) 정지에서, 정지 그 꾸흐냐(кухня) 정지라 하지 고렷사름덜. 정질르서리 정질 홀 들어가무 잉게 빠치까(печка) 잇소.{현관. 현관을 이렇게, 현관으로 더 나가면 어 더 나가면 작은 창고. 이 이 문을 이 현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현관으로 들어오면 그 저 또 작은 창고가 있다면 그 창고 문이 있지. 이 문이 있고. 그래 이 작은 창고 그래 현관을 홀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어 사람이 거쳐하는 집이고. 이 이렇게 꽃꽂이 들어가면 현관이고 또 다시 저기…… 작은 창고지. 음, 그 장독이랑 뭐 늘 거기다 두고 먹는 데지. 이거 첫 칸은 현관이고. 그래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부엌. 이게 부엌이고 이쪽에 에 음 그런 게오. 웅집실이고 이쪽이 또 침실이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부엌 정지에서, 정지, 그 부엌을 ‘정지’라 하지 고렷사름들이. 정지로, 정지를 홀 들어가면 여기에 페치카가 잇소.}

10608 @ 아, 빠치카(печка)가 있어야 데지.{아, 페치카가 있어야 되지.}

10608 # 야~ 야~. 빠치카(печка). 부수께 잇소. 개 부수께 이거는 게 무시 으 점백이 애이오? 개 이 점백이 무이 무이 있지. 개 그 문으로 들어가무 이게 저어나 어 잘(зал) 잇구 저쪽에 또 그 문 잘(зал)르서 그 문우 저쪽으로 들어가무 에따(это) 그런 게오, 스파냐(спальня). 개 이 쪽으두 이게 꾸흐냐(кухня)문 이게 꾸흐냐(кухня) 애이오? 부수께. 이 백이 막했지, 맥했지. 꾸후냐(кухня) 이건 부수께구 개래 이렇기 이쪽 네레와서 잉게 무이 잇소. 무이 잇으무, 한 카이 잇소. 개 \*크 칸에서 또 이렇기 이렇기 또 저 오른쪽으 홀 들어가무 또 경게 무이 잇소. 저쪽에 쯔나따(комната) 잇소. 그렇기 있어.{응, 응. 페치카. 부엌이 잇소. 그래 부엌 이거는 그게 뭐 어 ‘점백이’(절벽?), 다른 곳으로 연결되지 않은 벽?) 아니오? 그래 이 ‘점백이’ 문이 문이 있지. 그래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게 저기…… 어 웅집실이 있고 저쪽에 또 그 문 웅집실로 그 문을 저쪽으로 들어가면 음 그런 게오, 침실. 그래 이쪽도 이게 부엌 문, 이게 부엌이 아니오? 부엌. 이 벽이 막했지. 부엌, 이건 부엌이고 그래 이렇게 이쪽 내려와서 여기에 문이 있고. 문이 있으면 한 칸이 잇소. 그래 큰 칸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저 오른쪽으 홀 들어가면 또 거기에 문이 잇소. 저쪽에 방이 잇소. 그렇게 있어.}

10608 @ 쯔나따(комната)가 또 있구나. 아이구! 복잡하네요, 그 집은. (웃음).{방이 또 있구나.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 집은. (웃음).}

10608 # 이 이 저:나 정지경정~ 다섯 카이지.{이 이 저기…… 부엌까지 다섯 칸이지.}

10608 @ 그렇지! 그러니까 복잡하지.{그렇지! 그러니까 복잡하지.}

10608 # 개구 잉 이쪽에는 에따(это) 걸리도리(коридор) 잇구 개 끌라도브까(кладовка), 개 끌라도브까(кладовка) 저쪽에는 에따(это) 그 물으 대는 마토프(мотор), 마토프(мотор) 거기다 낫:지. 개구 저쪽에는 어 반야(баня) 카이구 싸라~이구 그런 감제굴[감제굴]이구. 그런 게 잇구.{그리고 이쪽에는 음 현관이 있고 작은 창고가 있고, 그래 창고 저쪽에는 음 그 물을 대는 모터, 모터를 거기다 놓았지. 그리고 저쪽에는 어 목욕탕이고 광이고 그런 감자를 보관하는 곳이고. 그런 게 있고.}

10608 # 개 이쪽에다 이쪽 집 앞에는 그건 우리 와서 그룽기 톨리(толь)르 그저 톨리(толь)르서 그 서답 췌는 칸으. 레뜨나이 꾸흐냐(летний кухня), 여름 여름 여름 정지, 여름 꾸흐냐(кухня). 그 답에 그거 그 백에다가 람둠(рядом) 바이까이오, 바이카이. 바이 바이 걸어서 바이

칸. 그건 싹 다 그저 톨(толь). 이 이게 이거 빠딸로르(потолок)다는 그거는 쉬페리(шифер)했지. 이 백이 싹 다 그런 거 톨리(толь) 그 촌, 검정 이렇기 조에 잇재오? 톨리(толь) 톨리(толь)라구. 그 톨리(толь)르 싹 돌갓지. 막아.{그래 이쪽에다 이쪽 집 앞에는 그건 우리 이사 와서 그렇게 검은 타르지로 그저 타르지 그 빨래를 빠는 칸을 꾸몄고. 여름용 부엌, 여름 여름 여름 부엌, 여름 부엌. 그 다음에 그 벽에다가 잇넌 방앗간이오, 방앗간. 방아 방아를 걸어서 방앗간. 그건 싹 다 그저 바닥이 아스팔트. 이 이게 이거 지붕 밑에는 슬레이트를 얹었지. 이 벽은 싹 다 그런 거 타르지(--紙) 그 이렇게 검정 종이가 있잖소? ‘톨리(толь, 타르지)’라고 하는. 그 타르지로 싹 돌렸지. 막아.}

10608 # 개구 저 집우르 장젯문으 홀 들오다 나쁘레바(направо) 오른쪽에는 어 우굴리(уголь) 열는 게 우굴리야느(угольянка)가 있지. 개구 집이 잘 이기 집이나 이리 \*\*다닫아 하재오? 개 집이 두에다는 이렇기 이렇기 지나 어 낭그 열는 낭그 열는 드라비니르(дровишки) 낭그 열는 거. 낭그 열는 거 이렇기 이렇기 했지. 기래 이백에 이백에 이백에다 문우 했지. 그 바 바 글에, 바글에 그 지인 데 이 백에. 기래문 꾸흐냐(кухня) 꾸스까(окошко) 이게 쉬토프(чтобы). 저쪽에다 문우 했지만 그전에 어이 했는두 아이! 그저 불살개 낭기 저렇기 에따(это) 축이 아이 나는데 우티기 데서 저런가. 그담에 동삼에 보이까나 우리 경게 그 부수께 부수께애 때는 낭 낭그두 싹 한 거 췌서 거기다 거더 열었는데 동삼에 보이까나 눈이 오이까나 발작기 쌓안 데 경겔르서 우리 불살개 낭그 싹 도둑질해가.{그리고 저 집으로 널문으로 홀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는 어 석탄을 넣는 석탄저장고가 있지. 그리고 집 여기로 \*\*잘, 집으로 이리 다 다르자 하잖소? 그래 집의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저기…… 어 나무를 넣는 나무를 넣는, 장작, 나무를 넣는 거. 나무를 넣는 거 이렇게 이렇게 했지. 그래 이 벽에 이 벽에 이 벽에다 문을 냈지. 바깥에 바깥에 그 지은 데 이 벽에. 그러면 부엌 창문이지 이게. 저쪽에다 문을 했지만 그전에 어이 했는지, 아니! 그저 불쏘시개 나무가 저렇게 음 축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저런가(축이 나는가). 그 다음에 겨울에 보니까 우리 거기에 그 부엌 부엌에서 때는 나무도 싹 해서 쌓아서 거기다 거두어 넣었는데 겨울에 보니까, 눈이 오니까 발자국, 나무를 쌓은 데로, 거기로 나서, 우리 불쏘시개 나무를 싹 도둑질해 가.}

10608 @ 아휴!{아유!}

10608 # 그래 그쪽에 내 기래 그 답에 기랸지 아들가. 이 이거는 이 문은 전체르 닫아라, 이쪽으르. 기래구 경게르 이렇기 이렇기 이렇기 꽃:꽃이 이렇기 우리 백이 애이오? 기래 경게르 이렇기 이렇기 오무 기게 지나 저기 싸라~이지. 개 싸라~ 이쪽에다 문우 했거든. 우리 본래 췌엔이덜 이. 기래 거기다 \*해가 동삼엔 거기서 우리 사보르(забор) 그렇기 높우재이오. 장작 높우재이오.{그래 그쪽에 내가 그래 그 다음에 그랬지 아들에게. 이 이것은 이 문은 전체를 닫아라(폐쇄해라), 이쪽으로.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꽃꽂이 이렇게 우리 벽이 아니오? 그래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오면 그래 저기…… 광이지. 그래 광 이쪽에다 문을 했거든. 우리 집에 살던 본래 주인들이. 그래 거기다 하니까 겨울엔 거기서, 우리 담장이 그렇게 높지 않소. 장작 쌓은 것도 높지 않소.}

10608 # 경겔르 동삼에 글췌 탕기메션 그거 우리 불사스개 낭그 싹 도둑질 자꾸 한단 말이오. 발짜기두 하구. 누이 오기 전에는 몰랐지. 누이 오이까 알았지. 그 답에 아들아게다 이거 첼페르 해라. 개구 이기다 해라. 이쪽에다 해라. 이쪽에다 하무 우리 꾸흐냐(кухня) 오크노(окно) 딱 이렇기 싸라~이 딱 배우지. 기래 문우 돌가 때 때 땀:어. 예:구!{거기로 겨울에 글췌 (도둑이) 다니면서 그거 우리 불쏘시개 나무를 싹 자꾸 도둑질한단 말이오. 발자국도 내고. 눈이 오기 전에는 몰랐지. 눈이 오니까 알았지. 그 답에 아들아이에게다 이거 첼페(撤廢)를 하라고 했지.

그리고 여기다 문을 내라. 이쪽에다 문을 내라고 했지. 이쪽에다 하면 우리 부엌 창문으로 딱 이렇게 광이 딱 보이지. 그래 문을 돌려 댔어. 어이구!}

10608 @ 그런 걸 다아 가져감등?(그런 것을 다 가져감니까?)

10608 # 아, 그거 무슨 사깨구 마우재구 아 전에 아, 술으 먹으라무 잘 먹지. 아, 도 돈이 있어야 라스토쁘까(растопка)나 싸지! 그 불살개 낭기나. 그래 도둑질해. 그래 전에 딱 딱 알았지. 우리 낭그 자꾸 도, 어째 저렇게 빨리빨리 축이나는가: 했:지. 하! 그담에 보이까나 우리 불살개르 자 자꾸 도둑질해 가는. 그담에 그 문 첼페르 하구 이쪽으르 이쪽이다 문우 팬들었지. 에이그!!아, 그거 무슨 카자흐 사람이고 러시아 사람이고, 아, 전에는 술을 먹으라면 잘 먹지. 아, 돈이 있어야 불쏘시개나 사지! 그 불쏘시개 나무나. 그래 도둑질해. 그래 전에 딱 딱 알았지. 우리 나무를 자꾸 도둑질, 어째 저렇게 빨리빨리 축이 나는가 했지. 하!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불쏘시개를 자 자꾸 도둑질해 가지. 그 다음에 그 문을 첼페를 하고 이쪽으로 이쪽에다 문을 만들었지. 에이구!}

10608 @ 그래 눈이 와서 발짜기를 보구서 아셨군요. (웃음){그래 눈이 와서 발자국을 보고서 아셨군요.}

10608 # 기차지! 세상에. 기애 집은 하 한 미누뜨(минут)두 못 비우:. 누기 잇으무 집이 잇어야지. 집이 없으무 아이 데오.{기차지! 세상에. 그래 집은 1분도 못 비우오. 누가 있으면 집이 있어야지.}

## 2.5. 연금 생활

10201 @ 음. 그렇구나. 그럼 아매:! (보조원과 얘기를 나눈다) 그럼 아매! 예: 그:: 아이들 기를 때에 예, 어 어터게 기르셨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등? 아덜 기를 때에.{음. 그렇구나. 그럼 할머니! (보조원과 얘기를 나눈다) 그럼 할머니! 예 그 아이들 기를 때에, 어 어떻게 기르셨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이들 기를 때에.}

10201 # 아덜 기를 적에 나느 일으 아이 했지. 일으 아이 했지. 또 우리 우리 췌엔으느 어째 그랬는두~. 작금은 그저 이 무스 뻘시(пенсия) 줘 어째. 그전엔 뻘시(пенсия)법이라는 것두 없었지. 개 우리 허제인(хозяин)은 어째 나르 일으 시기, 일으 하지 말라구 너무:: 그래서, 일으 하지 말라구.{아이들 기를 적에 나느 일을 안 했지. 일을 안 했지. 우리 남편은 어째 그랬는지. 지금은 그저 이 뭐 연금을 주고 어찌하고 그래. 그전에는 연금법이라는 것도 없었지. 그 래 우리 남편은 어째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일을 하지 말라고 너무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10201 @ 아매 위해서 그랬지.{할머니를 위해서 그랬지.}

10201 # 일으 시기제이 나르. 국가 일 하지 말라구서 너무: 너무:: 그래서 괴래 일으 조끔 하다 얼마간 땀 해간 하다가 췌에뿌랬지.{일을 시키지 않아 나를. 국가 일 하지 말라고 너무 너무 그래서 그래 일을 조끔 하다 얼마간 땀 해간 하다가 집어 던졌지(그만 두었지.)}

10201 @ 그래, 예.{그래, 예.}

10201 # 일 하지 못해서.{일을 하지 못해서.}

10201 @ 음:. 얘기들:.{음. 얘기들.}

10201 # 그 담에 뻘시(пенсия)법이 딱 나저. 이 뻘시(пенсия)법이 어느 때 나졌던두 모르겠어. 이른 이른 어느 때에 나졌는두~, 뻘시(пенсия) 준다는 게. 이 뻘시(пенсия)법이 그전엔 없었

지.{그 다음에 연금법이 딱 생겼지. 이 연금법이 어느 때 생겼는지 모르겠어. 1970년대 어느 때에 생겼는지, 연금을 준다는 것이. 이 연금법이 그전에는 없었지.}

10201 # 개 뻘시(пенсия) 그법이 딱 나지이까나 내겐 스딸쉬이(старший )두 없지. (웃음) 기래 개 내 잘 땃다구 그야~ 내 기랬지. 잘 땃다구. 나르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어전 뻘시(пенсия)두 못 타구 잘 땃다 하이칸, 뻘시(пенсия) 못 타두 산다구, 우리. 이르메 일으 아이 시겼어. 국가 일두 국가 일 내 얼마간 했지. 시집오기 전에 하구 시집와서 조끔 일했지. 기애 꼴호즈랑 그런 게사 없지. 일한 건 없지. 일하재잉다나이. 기래 기래 내 미니말리(минимальный ) 뻘시(пенсия). 그 고렷사를 말하무 미시기라 하나. 채 차지 못했지. 내 잉게 메 땃 십넨 잉게 일하구 뻘시(пенсия) 나오재오? 기게 내겐 차지 못했지. 그거 고려말로 미시기라 하는두 모르겠어. 기게 차지못하다나이가나 내 전체 전체 뻘시(пенсия)르 못타지, 내. 미니말리(минимальный ) 내 타지. 미니말리(минимальный ) 뻘시(пенсия)르 타지.{그래 연금 그 법이 딱 생기니까 내겐 높은 사람도 없지. (웃음) 그래 내 잘 되었다고 그냥 그랬지. 잘 땃다고. (그거 보라고.) 나에게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하더니 이젠 연금도 못 타고 잘 땃다고 하니까, 연금 못 타도 산다고, 우리. 남편이 이러면서 일을 안 시겼어. 국가 일도, 국가 일을 내가 얼마간 했지. 시집오기 전에 하고 시집와서 조끔 일했지. 그래 콜호스에서랑 그런 것이야 없지. 일한 것은 없지. 일을 하지 았다 보나. 그래 그래 내 최소 연금을 타지. 그 고렷사람 말로 하면 무엇이이라 하나. 채 차지 못했지. 내가 이렇게 땃 십 넨 이렇게 일하고야 연금이 나오지 았소? 그게 내겐 그 기간이 차지 못했지. 그거 고려말로 무엇이이라 하는지 모르겠어. 그 기간이 차지 못하다 보니까 내 전체 전체 연금을 못 타지, 내. 최소 연금을 내가 타지. 최소 연금을 타지.}

10201 @ 음, 그래두 아까 말씀하시는데, 열.{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열.}

10201 # 열야들친, 열야들친삼백 타지. 열야들친삼백.{18,000뎡게, 18,300뎡게를 타지. 18,300뎡게.}

10201 @ 열야들친삼백이면 많이 타시는 거지.{18,300뎡게면 많이 타시는 거지.}

10201 # 기래두 일없소. 거저 사무이 글라브느이(самый главный ), 아 자라 앓재이무 땃지.{그래도 괜찮소. 그저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아 자라 앓지 앓으면 땃지.}

10201 @ 그렇습니다.{그렇습니다.}

10201 # 앓재이무 땃지.{앓지 앓으면 땃지.}

10201 @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아매! 그걸 열야흠친 타서 가지구.{그렇습니다, 예. 그럼 할머니! 그 걸 19,000뎡게를 타 가지고.}

10201 # 딸이 일하지.{딸이 일하지.}

10201 @ 예, 어터게, 그 돈으 어터게 쓰음등? 전부다 다?{예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씩니까? 전부다?}

10201 # 우리는 다(да), 나는 다(да) 그 어전 우리 아덜두[아덜땃] 있다가 저어찌리 살무 그렇겠지. 나는 무스거 돈 돈으 이룩기 타무, 저런 거 먹을 거부터 난 싸지.{우리는 응, 나는 응 그 이젠 우리 아이들도 좀 있다가 저희끼리 살면 그렇겠지. 나는 뭐 돈 돈을 이렇게 타면, 저런 거 먹을 거부터 나는 사지.}

10201 @ 그게 제일 중요하지.{그게 제일 중요하지.}

10201 # 먹을 거부터. 아하. 이런 고기는 안 싸두 한 길로(кило) 두 길로(кило) 이룩기 아이 싸지. 뻘시(пенсия)르 마이 못 받아두 나는 그렇기 아이 싸지. 땃달개 한나싸. 내 저 아까로시킨 까로브까(коробка)다, 까로브까(коробка)다 팔재오? 그 까로브까(коробка) 열 다숫 길로(кило) 드오. 개 그 까로브까(коробка) 한나싸 가져오지.{먹을 거부터. 음. 이런 고기는 안 사도 1

킬로그램 2킬로그램 안 사지. 연금을 많이 못 받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사지. 뒷다리 하나씩. 내 저 아가로스킨 상자에다 상자에다 팔잖소? 그 상자에 15킬로그램이 드오. 그래 그 상자 하나씩 가져 오지.}

10201 # 더 세고기나 싸두 나 기래 저 뿌끼 잊재오? 저저. 뿌끼 잊는거 그거 할렐으 우리 도취까(до-очья) 일할라 아이 가는 날이무, 그 그거 저나 내 드바차찌 빼찌(двадцать пять), 스물다-스 킬로(кило) 싸다 스물다스 킬로(кило) 싸다가 도취까(дочья)가 오온 할렐으 젤्ली 젠-치슬리(целый день чистили). 저 뿌끼. (웃음).{저 쇠고기 같은 것을 사도 나는 그래 저 ‘뿌끼’ 있잖소? 저저. ‘뿌끼’ 있는 거 그거 하루를 우리 딸이 일하러 가지 않는 날이면, 그 그 거 저기…… 내 25, 25킬로그램을 사다가 25킬로그램을 사다가 딸과 함께 온종일, 온종일 다-듬지. 저 ‘뿌끼’를. (웃음).}

10201 # 기래 그래 싸 씻어서 그담에 저런 바께뜨(bucket)다 잊재오? 집이. 보리 질르는 바 바께뜨(bucket), 조만지덜이. 거기다 열매씨 물을 싸 짜서 싸 영어서 그담에 말로지브까(морозилка)다 싸 홀로지니끄(холодильник)마당 말로지브까(морозилка)다 싸 거더 열지. 그래 게 마싸 뿌라두트(мясо продукт) 또 바자르(базар) 가서 내 뽀시(пенсия) 타오무 또 가서 싸오지.{그-래 그래 싸 씻어서 그 다음에 저런 바께쓰에다, 있잖소? 집에. 보리를 기르는 바께쓰와 주머-니들이. 거기다 열매씨 물을 싸 짜서 넣어서 그 다음에 냉동실에다 싸 냉장고마다 냉동실에-다 싸 거두어 놓지. 그래 정육점 또 시장에 가서 내 연금을 타오면 또 가서 사 오지.}

10201 @ 그럼 아매! 뽀 뽀 뽀시(пенсия)느 어디가서 탐둥? 갓다중둥?{그럼 할머니! 연금은 어디 가-서 탐니까? 갓다 줍니까?}

10201 # 에이! 내 재비 우리 재빌르 탈라 땡기지. 켄 켄뜨랄느이 즈베리카스(центральный сбер-касса)서 타오. 켄뜨랄느이(центральный ). 저영게 정게.{에이!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 타러-다니지. 켄뜨랄리 즈베리카서(центральный сберкасса)에서 타오. 켄뜨랄리(централь-ный ). 저어기, 저기.}

10201 @ 켄뜨랄리(центральный )?{켄뜨랄리(центральный )?}

10201 # 켄뜨랄리 즈베리카서(центральный сберкасса)서.{켄뜨랄리 즈베리카서(центральны-й сберкасса)에서.}

10201 @ 즈베리카서스.{즈베리카서(сберкасса, 저축은행).}

10201 # 즈베리카서스.{즈베리카서(сберкасса).}

10201 @ 즈베리카서스 멈둥?{즈베리카서(сберкасса)가 멈니까?}

10201 # 거기 가 타지.{거기 가서 타지.}

10201 @ 아.{아.}

10201 # 뽀시(пенсия)르.{연금을.}

@ 뽀시(пенсия)를. 그리구서 인제 예: 무슨 남우 집 잔체나 머.{연금을. 그리고 인제 예 무슨 남의-집 잔치나 뒬.}

# 잔체나. 그런 데두 아비사지(обязательно) 오란 데 \*이스간에두 가즈 갓다왔어. 가즈 갓다왔습꼬-마. 칠십 세는 거. 칠십살 세는 거. 오라, 또 오라 하무 어 \*무근 아이 가계두: 돈 애게서 아이 가-는 같은 게. 기래 다 아다나йка나. 뽀목 아다나이 그 돈 애게서두 아이가는 갈애서 천냥 천냥짜-리 한나 가지구 가지. (웃음).{잔치나. 그런 데도 초대하여 오라는 데. 이즈음에도 얼마 전에 갔다-왔어.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칠 십 세는 거(고회(古稀)). 오라, 또 오라고 하면 어 뒬 안 가려-고 해도, 돈을 아껴서 안 가는 것 같아서 가지. 그래 다 알다 보니. 뽀목을 알다 보니 그 돈 아껴-서 안 가는 것 같아서 1,000냥(뽀게), 1,000냥(뽀게)짜리 한 장을 가지고 가지. (웃음).}

@ 그럼 다른 사람덜두.{그럼 다른 사람들도.}

# 그럼 다른 사람덜두[사람덜뒬] 싸 그렇지.{그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지.}

@ 싸 그렇기 함둥?{싸 그렇게 함니까?}

# 싸 그렇지. 싸 그렇기 하지. 개래 오라구 하는 데느 다 가지. 무슨 생지이오 혼세오 무시기오. 오-오라구 청자 청자하무 다 다 가지. 뉘 집이던지. 음. 개 어떤 달에는 어 네 집씨 다스 집씨 다 테-오. 어떤 달에는.{모두 그렇지. 싸 그렇게 하지, 그래 오라고 하는 데는 다 가지. 무슨 생일(生日)이-요, 혼사(婚事)요, 무엇이오. 오라고 청하면 다 다 가지. 뉘 집이든지. 음. 그래 어떤 달에는 어-네 집씨 다섯 집씨 다 되오. 어떤 달에는.}

@ 어떤 달에는.{어떤 달에는.}

# 나-. 딸디꾸르간(Талдыкорган) 저 자리야(Зария). 그러다나йка나 웅 어떤 달에는 세 세 네 집-두 가는 때 잇구 세 집두 가는 때두 잇구 다섯 집두 가는 때 잇어. 음. 그거 쓰무, 어떤 달에는-어떤 달에는 사람덜이 저 자리야(Зария) 사람덜두 한달에 순 \*\*순즈 술한게 닳거든 남자나 여자-나. 한 달에. 그러이까 그 달 그 사람덜 다 오라 하무 한 달에 네 번이구 다섯번이구 가야지. 어-찌 하겠소.{웅. 탈디꾸르간 저 자리야 가지. 그러다 보니까 웅 어떤 달에는 세 서너 집도 가는 때-가 있고 세 집도 가는 때도 있고 다섯 집도 가는 때가 있어. 음. 그거 쓰면, 어떤 달에는 어떤 달-에는 사람들이 자리야, 사람들도 한 달에 술한 사람이 태어났거든 남자나 여자나. 한 달에. 그러-니까 그 달 그 사람들 다 오라고 하면 한 달에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가야 하지. 어찌 하겠소.}

@ 알마타나 이런 데두 또 먼데두 가야데제임둥?{알마타나 이런 데도 또 먼 데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 알마타느 글쎄 그전에는 땡겟소만 직금은 아이 가요.{알마타는 글쎄 그전에는 다녔소만 지금은-안 가요.}

@ 못 땡기지.{못 다니지.}

# 직금 아이 가요. 아이! 못 땡기긴! 가기사 무슨 그 악또부스(автобус)나 앓아나 일리(или) 무슨-택시(такси) 앓으무 가지만해두. 아이 가요. 그전에 내 젊었을 적에는 새 썸이 싸말료뜨(самолё-т) 썸기 레파했습꼬마. 마이 레파(взлёт)했어.{지금 안 가요. 아이! 못 다니긴! 아이! 가기가 뒬 버-스 등을 타거나 또는 택시를 타면 가지만 해도. 안 가요. 그전에 젊었을 적에는 비행기를 아주 많-이 땀습니다. 많이 땀어.}

@ 여기서 아매! 딸디꾸르간(Талдыкорган)에서:: 그 우슈토베(Уш-тобе)까지는 악또부수(автобус)-는 뽀 분이나 걸림둥?{여기서 할머니! 탈디꾸르간에서 그 우슈토베까지는 버스는 뽀 분이나 걸림-니까?}

# 악또부스(автобус) 지금은 그게 악또(автобус), 이 딸디꾸르간(Талдыкорган)가 우슈토베(Уш-т-обе) 한 쉼 킬로메파르(километре) 뽀겜쇼.{버스 지금은 그게 버스, 이 탈디꾸르간과 우슈토베는-한 50킬로미터 뽀 거요.}

@ 아, 가깝군요.{아, 가깝군요.}

# 머재이오. 머재이. 그 뽀시는 한 시동안이무 가는데. 한시 동안 우슈토베(Уш-тобе)꺼지.{뽀지 않-소. 뽀잖아. 그 택시는 한 시간 동안이면 가는데. 한 시간 동안 우슈토베까지.}

@ 한.{한.}

# 한 시 동안이.{한 시간 동안.}

@ 한 시 동안.{한 시간 동안.}

# 한 시 동안 잉게서 경게 우슈토베(Уш-тобе).{한 시간 동안, 여기서 거기 우슈토베까지.}

@ 그러면은 여기서 알마타까지는 그 악또부스(автобус)가 뽀 분이나 걸림둥?{그러면 여기서 알마-



티까지는 그 버스가 몇 분이나 걸립니까?)

# 몇 킬로메뜨른(километре-ㄴ)가?(몇 킬로미터인가?)

@ 아니!{아니!}

# 기래.{그래(그러면).}

@ 몇 시간이나 걸립둥?(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 아아! 몇 시간. 그거 어 어떤 사람으는 그거 마шина(машина) 가기에 달렸지. 어떤 거는 빨리 모 지리 몰지. 어떤 거는 그렇기. ну(ну) 몇 시 동안에는. 재빌르 탕기는 거는 세 시 동안. 알마티서 여기르. 딸디꾸르간(Талдыкорган)에서 알마타.{아아! 몇 시간. 그거 어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자동 차가 가기에 달렸지. 어떤 사람은 빨리 몹시 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지. 음, 몇 시간 동안에 는 갈 수 있지. 자기 차로 다니는 사람은 세 시간 동안이면 가지. 알마티에서 여기를. 탈디꾸르간 에서 알마타.}

@ 아아! 재비 마шина(машина) 가지구 가면.{아아! 자기 차를 가지고 가면.}

# 아하! 재비 마шина(машина) 가무 세 시 동안에 가오.{음! 자기 차로 가면 세 시간 동안이면 가 오.}

@ 아, 세 시 동안에 감둥?{아, 세 시간 동안에 갑니까?}

# 저래 딱시나 앉아 가무 몇 시동안에두.{바로 택시나 타고 가면 몇 시간 동안에도 가지.}

@ 딱시는 얼마나 줘야 땡둥? 알마티까지.{택시는 얼마나 주어야 됩니까? 알마티까지.}

# 알마타까진 지금은 무슨 천냥이라던둥 모르겠소. 여게 영게서 저나 딱시 딱시 우슈토베(Уш-тобе) 가는데 우리 우리 딸이 \*이스간에 가즈 우슈토베(Уш-тобе) 갔다왔지. 영게서 딱시 앉아서 우 슈토베(Уш-тобе) 가는거 한 한씩같이 양백 내\*, 양백 탕가.{알마티까지는 지금은 무슨 1,000냥(탱 게)이라던가 모르겠소. 여기 여기서 저기…… 택시 택시 우슈토베 가는데 우리 우리 딸이 이즈음 에 막 우슈토베 갔다 왔지. 여기서 택시 타고 우슈토베 가는 것은 편도가 200냥(탱게), 200탱게.}

@ 우슈토베(Уш-тобе) 가는 거.{우슈토베 가는 거.}

# 우슈토베(Уш-тобе) 가는 거. 딱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양백 탕가.{우슈토베 가는 거. 택시 한 사 랑이 한 사람이 200탱게.}

@ 알마타는 천냥이구.{알마티는 1,000냥(탱게)이고.}

# 어떤 것덜은 어 돈으 벌길래 천냐\* 아이래두 막 가오. 칠백냥 팔백냥. 그 마쉬나는 가뜩하지. \*각 자는 가는 사람운 으 작다 하다나이 눅 눅거리래두 막 가오. 알마타두.{어떤 것들은 어 돈을 벌기 에 1,000냥이 아니라 해도 싸구려로 막 가오. 알마티도.}

@ 그렇구나. 그럼 아매! 그 아매 여기서 머 잠불(따라즈)이나 머 침켄트나.{그렇구나. 그럼 할머니! 그, 할머니!, 여기서 잠불(따라즈)나 뭐 침켄트나.}

# 으음 잠불.{음 잠불(따라즈).}

@ 이런 데는 가끔 다니심둥? 거기두 우리 고렷사람덜이 많다 많다제이오?{이런 데는 가끔 다닙니 까? 거기두 우리 고렷사람들이 많다 많다고 하잖소?}

# 고렷사람 침켄트 가뜩하압꼬. 침켄뜨 잠불 가뜩하아꼬.{고렷사람 침켄트에 가뜩합니다. 침켄트 잠 불(따라즈)에 가뜩합니다.}

@ 잠불도 가뜩하압지?{잠불(따라즈)에도 가뜩하지요?}

# 아하! 잠불도 많소.{음! 잠불(따라즈)에도 많소.}

@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는?{크즐오르다는?}

#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 많소.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는 어제 갔다왔는가 하무. 음!. 야 야 야 야 든 아홉해[야든아호패] 뜨시찌 지바뜨쑈뜨 워심지샤뜨 지바똥 가두(в тысяча девятсот восемь

десят девятом году) 야든아홉 해 에 고렷사람덜 원도~서 들와서 첫 그 고려 고려말이 미시긴 등 노시아말르 빠르브이 웨시찌발(первый феситиваль), 빠르브이 웨시찌 웨시찌발(первый феситиваль) 고렷사람이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를 가 했어[해서]. 워심 저 팔십 구년 적이. 저 저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 처암 고렷사람이 들와서.{크즐오르다에 많소. 크즐오르다는 어찌하여 갔다 왔는가 하면. 1989년, 1989년에 에 고렷사람들 원동에서 들어와서 첫—그 고려 고려말로 무 엇인지—러시아 말로 ‘빠르브이 웨시찌발(первый феситиваль, 제1회 축제)’를 고렷사람들이 크 즐오르다를 가서 했어. 팔, 저 팔 십 구 년 때에. 저 저 크즐오르다에 처음으로 고렷사람이 들어 와서.}

# 기래 잉게 저나 야.덜이 젊은 야.덜이 이 레까꾸르(река Кур) 그런 거 아츨놀이, 그런 거 들었 어? 아츨놀이 있다는 거. 야 저나 춤추는 아덜 ‘아츨놀이’. 가덜이 가덜이 갈 적에 에따(это) 나르 가자 해서 내 나야 먹은 게 한내 갔다 왔어.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 가. 웨시찌발(феситивал ь)에 갔다 왔어.{그래 여기 저기……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이 레까꾸르(река Кур) 그런 거 ‘아 츨놀이’, 그런 거 들었어? ‘아츨놀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야 저기…… 춤추는 아이들 ‘아츨놀이’.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크즐오르다 공연을 갈 적에 음 나에게 가자고 해서 내 나이 를 먹은 것이 하나 갔다 왔어. 크즐오르다 가서. 축제에 갔다 왔어.}

@ 뭘로?{무엇으로?}

# 워심지바뜨(восемь девят). 기게 미시기오? 기게. 원도~서 고려말르. 고렷사름 들와서 처암으 처 암으 처 처암으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다서 해엿지.{89. 그게 무엇이오? 그게. 원동에서 고려말 로. 고렷사름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크즐오르다에서 공연을 했지.}

@ 부리운 곳이. 부리운테가.{이주하여 고렷사름을 부린 곳. 부린 데가.}

# 넬(нет)! 부리운텐 게 애이라. 처암으 고렷사름덜이 원도~서 썩 들와서 처엄, 허어! 웨시찌발(фес итиваль)이 고렷사름이 고려말르 웨시찌발(феситиваль)이 미시긴두 모르겠소. 처 처엄으 조선 간쎄르뜨(концерт)지. 거 까 고 고성 고려 미시기오? 기게. 야야! (허차는 소리) 고려말르 그런 말 으 모르다나이.{아니! 부리운 데가 아니라. 처음으로 고렷사름들이 원동에서 썩 들어와서 처엄, — 허어! ‘웨시찌발(феситиваль)’이라는 말을 고렷사름이 고려말로 웨시찌발(феситиваль)이 무엇인 지 모르겠소—처 처음으로 열린 조선 음악회지. 거 고려말로 무엇이오? 그게. 야! 고려말로 그런 말을 모르다 보니.}

@ 그러니가 말으 하압소. 그러니까 처암 와서.{그러니까 말으 하십시오. 처음 와서.}

# 차 차암 경게서 했어. 야 야든아홉해 야든아홉해. 기래 잉게 아츨놀이 아덜 구루빠(группа) 잇 지. 구루빠(группа) 춤추는 아덜이. 개 개래또 치 치스뜨이(чистый) 고려창가르 하는 그런 사름 우 보내라 하지. 가라 하지. 기래 아츨놀이에서 루까바지찌질(руководитель) 하는 그 여자 내 그저 ну(ну) 그룽기 그룽기 가깝운 빠두르가(подруга)가 아이지만 해두 멘목으 알지. 기래이까나 그 땅야(Таня)라구 죽었어. 루까바지찌질(руководитель)하던 여자. 그 고려 여자.{처음 거기에서 했어. 1989년, 1989년에. 그래 여기 ‘아츨놀이’ 아이들 그룹이 있지. 그룹, 춤추는 아이들. 그래, 그 래 또 아마츄어 고려 노래를 잘 하는 그런 사름을 보내라 하지. 나보고 가라고 하지. 그래 아츨놀 이에서 지도자로 일하는 그 여가, 내 그저 음 그렇게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아니지만 멘목을 알 지. 그러니까 그 파냐라고 하는데 그 여자 죽었어. 그룹을 이끌던 여자. 그 고려 여자.}

# 그 여자 나를 가자 하오. 정게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르. 기래 내 팔십구년 적에 크즐오르다(К ызылорда) 갔다왔지. 창 창가 쓰느라구 갔다왔지. 야든아홉해:.{그 여자 나에게 가자고 하오. 저 기 크즐오르다를. 그래 내가 1989년 그 때에 크즐오르다를 갔다 왔지. 노래를 부르느라고 갔다 왔 지. 1989년에.}

@ 음. 그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 그 사범대학이 있었는데.{음. 그 크즐오르다에 사범대학이 있었는데.}

# 그전에.{그전에.}

@ 그전에. 지금은?(그전에. 지금은?)

# 직금두 있는둥 모르지. 크즐오르다는 너름:더구만. 너르다:만 게. 울리짜(улица)란 거 어떻게 너르게 했던둥.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지금도 있는지 모르지. 크즐오르다는 너르더구먼요. 꽤 너른 데. 거리를 어떻게나 너르게 했던지. 크즐오르다.}

@ 아, 그렇습둥?(아, 그렇습니까?)

# \*\*궁아~, 개 내 야든아홉해 내 차암 잣다왓지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르. 음. 뽀예즈드(поезд) 앉아서.{그런. 그래 내가 1989년에 내가 처음으로 잣다 왓지 크즐오르다를. 음. 기차를 타고.}

@ 뽀예즈드(поезд) 앉아서.{기차를 타고.}

# 아하! 구루빠(группа)덜 싹 뽀예즈드(поезд) 앉아 잣지 경계.{음! 그룹 사람들도 싹 기차를 타고 잣지 거기에.}

# 오월 달에. 거 오월 오월 스무엿셋날 경계 가서 발써 우리 우스또마(выступать) 햇댓지. 오월 스무엿셋날. 개까나 영계서 우리 오월 스무나흔날 떠났어. 개 뽀예즈드(поезд)에서 하룻밤 자구 경계 잣댓지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르.{5월 26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5월 24일 떠났어. 그래 기차에서 하룻밤을 자고 거기에 잣었지. 크즐오르다.}

@ 거기에 그 옛날에 예: 끼따이(китай)쪽에서: 어 일본군하구 싸움햇던 유명한 그 조선사람이 있는데 홍범도 장군이라고.{거기에 그 옛날 중국 쪽에서 어 일본군하고 싸움햇던 유명한 그 조선사람이 있는데 홍범도 장군이라고.}

# 호 홍범도 이거 뷰스뜨(бюст)르 가지구 우리 밋지.{홍범도 이 사람을 반신상(半身像)을 가지고 우리 보았지.}

@ 아, 봤습둥?(아 보았습니까?)

# 보았지, 밋지. 개래 이룽기 그전에 그전에 노시아 무조노브스끼(буденовский ) 삼개라구 이런 게 있어 뽀오죽 잉게 뽀오죽한 게[뽀오조강계], 글이. 이런 무조노브스끼 삼개. 그거 그거 딱 쓰구 서리 이런 뷰스뜨(бюст)르 해서 거기다 딱 세웠습데.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보았지, 봤지. 그래 이렇게 그전에 그전에 러시아 부조노브스끼 모자라고 이런 것이 있어 뽀죽한, 여기가, 뽀죽한 게, 끝이. 이런 부조노브스끼 모자. 그거 그거 딱 쓰고서 이런 반신상(半身像)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딱 세웠데. 크즐오르다에.}

# 개 우리네 영계 간 사름덜 싹 가서 거기가 구경, 싹 개애다 베웁더구마. 데리구 가서. 개래 홍범도. 이계 홍범도.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서 죽, 개 그 사 그 사람이 사던 집우 또 베웁데. 층대집이 \*\* 층대집이. ну(ну) 불리고스뜨로이느이(Благострой ный ) 층대집이. 기래 그 사람이 사던 집이 어느 계라는 거 그것두 싹 베우구.{그래 우리네 여기서 간 사람들이 싹 가서 거기 가 구경, 싹 우리를 데려다 보이더군요. 데리고 가서. 그래 홍범도. 이계 홍범도. 크즐오르다 크즐오르다에서 죽어서, 그래 그 사람이 살던 집을 또 보이데. 아파트 \*\* 아파트. 음, 불리고스뜨로이느이 아파트. 그래 그 사람이 살던 집이 어느 것이라는 거 그것도 싹 보이고.}

@ 음:.{음.}

# 기래구 기게 무슨 구린 구린둥 무시겐두~ 그런 걸르 이룽기 뷰스뜨(бюст) 딱 해서 세웠어. 홍범도르. 구릴르 헨둥 무스걸르 헨두~. ну(ну), 그런 게 애이구, 흠이 애이구.{그리고 그게 무슨 구리 구리인지 무엇인지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반신상을 딱 해서 세웠어. 홍범도를. 구리로 했는지 무엇으로 했는지. 음, 그런 게 아니고, 흠이 아니고.}

@ 음. 다(да), 다(да).{음. 예, 예.}

# 켄멘뜨(цемент)두 애이구. 무스 이룽기 그런 걸 해서.{시멘트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그런 걸로 해서.}

@ 청동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느.{청동(靑銅)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느.}

# 호 홍범도.{홍범도.}

@ 청동이라는 쇠 쇠불일르.{청동이라는 쇠불이로.}

# 그룽기 해서 딱 세와. 그래 그매 야든아홉해에 내 가서 밋어, 홍범도.{그렇게 해서 딱 세웠어. 그래 그 때 1989년에 내가 가서 보았어. 홍범도.}

@ 그 양반이 원동에서 여기 들어와가지구서는 이 찌아뜨르(театр) 있재임둥? 끼노(кино) 찌아뜨르(театр).{그 양반이 원동에서 여기 들어와서는 이 극장 있잖습니까? 영화관이나 극장.}

# 아:.{아.}

@ 거기서 잉게 어 묻지키는 그런 일으 했답구마.{거기서 이렇게 어 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 아:, 그랫답둥?(아, 그랫답니까?)

@ 그런 애긴 못 들었습둥?(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 난 못 들었어.{난 못 들었어.}

@ 그러니까 그런 큰: 일으 하던 사람인데 원동에서 싹 들어와가지구서는 찌아뜨르(театр)에 가서 이.{그러니까 그런 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원동에서 싹 들어와서는 극장에 가서 이.}

# 기래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서 사.{그래 크즐오르다에서 사.}

@ 사망했쥬.{사망했쥬.}

# 상새난 모야~이야.{죽은 모양이야.}

@ 상새났쥬.{죽었지오.}

# 기래 경계다가 해:서 크:게 해서.{그래 거기다가 동상을 만들어서 그게 만들어서.}

@ 그렇습지. 그 양반이, 내지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꾸마. 중국하구 붙은 산에. 고담에 끼따이(китай) 있재임둥? 끼따이(китай) 만주라구 하는 데가 있습꾸마. 거기서 일본군들하구 많이 싸워가지구 일본이 이 조선을 강탈했을 때 싸워.{그렇지오. 그 양반이, 본국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붙은 산에. 고 다음에 중국 있잖습니까? 중국에 만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군들하고 많이 싸워 가지고, 일본이 이 조선을 강탈했을 때 싸워서.}

# 저, 그런 소리느, 선생님! 얘길 하압쇼.{저, 그런 말은, 선생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 일본군하구 싸워서 이제 예 승리르 많이 했습꾸마. 많이 이겼습꾸마.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예:: 어떻게 원동으로 들와가지구는 너무 쓸쓸하게. 너무 점 아무 누구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일본군하고 싸워서 이제 예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싸워서 많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예 어떻게 원동으로 들어와서는 너무 쓸쓸하게. 너무 좀 아무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 그 그러지. 그렇지.{그 그러지. 그렇지.}

@ 그것두 이제 한국사람덜이 와가지구 홍범도 장군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구 그래두 많이 알려지게 댜거꾸마. 그전에는 아무 누구두 잘 알려주지 았구 그랬는데. 얘기 하압쇼.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그것도 이제 한국사람들이 와서 홍범도 장군 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많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 누구도 잘 알려주지 았고 그랬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하십시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 그전에 그전에 정말인두 내 그전에 늣으이덜 하는 말으 들었지. 저 홍범도 그 빨찌산질한

일.{그전에, 그전에 정말인지 내 그전에 늙은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지. 저 홍범도 장군이 빨치산질한 것을.}

@ 다(да), 다(да){예, 예.}

# 빨치산질하메서 어 저 어르 안까이 어른아 낫지. 개 어른아 나이까나 아이! 빨찌산 이래 그 승계 땡기는데 아 울무 그거 저나 원수 원수덜이 접어들까바서 재비 아르 죽엿다구. 어른아 운다구. 울무 그 그런 그 적덜이 찾아온다구 재비아르 죽엿다구. 홍범도.{빨치산질하면서 어 저 어린, 아내가 어린아이를 낳지. 그래 어린아이를 낳으니까 아이! 빨치산 이렇게 숨어 다니는데 아이가 울면 그거 저기…… 원수 원수들이 덤벼들까 봐서 자기 아이를 죽였다고. 어린아이가 운다고. 울면 그 그런 즈 적들이 찾아온다고 자기 아이를 죽였다고. 홍범도가.}

@ 음. 그런 얘기가 있슴둥?{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 으흠. 그런 그런 소리르 내 들었습꿈. 으음.{으흠. 그런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음.}

@ 그 일본.{그 일본.}

# 누(ну), 누(ну) 글썸. 그전에.{음, 음 글썸. 그전에.}

@ 야뽀(Япония), 야뽀스끼이 솔다뜨(японский солдат)하구 맨날 싸웠습꾸마.{일본, 일본 군인들하고 만날 싸웠습니다.}

# 그런 소리두 내 들었습꿈[드러쓰끄].{그런 말도 내가 들었습니다.}

@ 아아, 그렇구나.{아아 그렇구나.}

## 제2편 어 휘

### 2.1. 농 경

#### 2.1.1. 경 작

20101	벼	베르(+대격형), 베
20102	이삭	베이사기, 베·이사가지
20103	범씨	베씨, 베씨르(+대격형)
20104	못자리	*(+직파(直播)합)
20105	모판	*(+직파(直播)합)
20106	쟁기	가대기르 가져오라{쟁기를 가져오라}, 가대기, 가대기두
20107	보습	△
20108	벧	△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가대기
20110	씨레	걸기르 논는다
20111	번지	*
20112	모내기	*(+직파(直播)합)
20113	흙덩어리	흙페이(+[hiktʰeʔ]), 흙명지르 마스더구마{흙덩어리를 부수더군요}, 흙페이르 마스라구(+[hiktʰeʔri]){흙덩어리를 부수라고}
20114	고무래	국떠기, 국뚜기라, 국띠길르{고무래로}
20114-1	고무래(곡식)	*
20114-2	고무래(재)	△(+cobók(=작은 삽)을 사용함)
20114-3	고무래(흙)	국뚜길르서리
20114-4	고무래(미는 것)	*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
20115	쇠스랑	△ cf. 세가달 각째르 가져오라{세 가닥 갈퀴를 가져오라}
20116	곡괭이	꽹찌(+명칭이 ‘괭이’와 동일함)
20117	괭이	꽹찌지{괭이지}
20118	삽	강차이지, 강차일르{삽으로}, 강차이

20119	호미	호밀루{호미로}
20120	농기구	→쟁기라구두 하구, 쟁기두, cf. 기계르 가져오라 하지
20121	김	지시미 지서따구{김이 무성하다고}, 지스무(+대격형)
20122	김매다	지슴맨다 하지
20123	애벌 매다	아시지슴 맨다 하지, 아시르 매지, cf. 처빠리지
20123-1	두벌 매다	두버르 매구, 두벌찌슴 매구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벌찌시미두 매구, 막빠르 맨다 하지
20124	논둑	큰드레기라구, 큰드러그(+대격형), 장드러그(+차량과 농 기계가 다닐 수 있게 폭을 넓게 해서 만든 논둑), 장드 레기라구두 하구, 뚜기, 뚜기지 무슨
20124-1	논두렁	드러그 너르다 하지, 드러굴루{논두렁으로}, 드러그느{논 두렁은}, 널분 드레기
20125	밭둑	뚜기지, 드러기지, 드러기라구두 하구
20126	밭두둑	든테기, 든테기다 수무구{밭두둑에다 심고}
20127	밭고랑	바꿀따~이, 바꿀다이라구, 바꿀따을르{밭고랑으로}, 바꿀 따~이다 무루 대지{밭고랑에다 물을 대지}, 바꿀따아 가 지구, cf. 물또랑, 물또래
20128	밭이랑	이래애지, 이래라구(+높낮이에 관계 없이 씨를 심은 곳 을 ‘이랑’이라 함.), 반니라이라구두 하구, 두 이라~아 수무구{두 이랑을 심고}, 반나라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간다구, 드러그 자바라, 가라 뇌따 하지
20128-2	이랑밭기	*
20129	보리	보리 에이우?{보리 아니오?}, 보리부터 가져오라구, 보리 이삭, 보리이사그(+대격형)
20129-1	가을보리	*(+보통 4월에 파종함), cf. 채미르느 가을에 수무구 보 매 수무지
20129-2	봄보리	*
20130	보리쌀	보리싸리지, cf. 바이에 농귀야{방아에 찼어야}, 농군다 능개{찼는다는 게}
20131	가을갈이	△
20132	감부기	→감부지 나서, 감부지, 그 감부지라능거느 옥수끼에(+ ‘감부기’는 보리에는 쓰지 않음), 보리에 베~이드러따구
20133	두엄	덤, 더어미, 더엄 가져오라, 더어미지{두엄이지}
20134	거름	걸금내나, 걸그무 낸다, 걸기미개찌{거름이겠지}, 비로(+ 이 지역은 ‘거름’을 유식하게 말할 때 이 어형을 사 용함)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가슬하지, 베가슬하지
20202	벧단	베따이구, 베따느(+대격형), 베따느 무끄능거, 베따느 동 지더구마{벧단을 동여매더군요}, cf. 베쪼베기(+벧단을 무더기로 쌓아 놓은 것)
20203	가리	가리르(+대격형), 베까리, 콩까리지
20204	가리다	베따느 가린다구, 가레라
20205	벧가리	베까리, cf. 베뚜지(+짚지 않은 벼를 쌓아서 넣어 두는 뒤주)
20206	낱가리	나까리
20207	타작	△, cf. 두디린다(+ ‘타작하다’의 의미)
20208	벼훑이	*
20208-1	그네	*
20209	개상	△, cf. 태빠 두디린다(+ ‘벧단을 개상에 메어쳐서 이삭 을 떼다’, ‘태질을 한다’의 의미), 도레다 두디리짐 (+돌에다 개상질을 함)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 cf. 태베르 두디린다
20210	도리깨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도리깨·대라 하더구마{도래깻장부라 하더군요}
20210-2	도리깨열	도리깨아드리구, cf. 도리깨아들만두 모타다(+말을 잘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아들에게 하는 말)
20210-3	도리깨꼭지	→도리깨마우리 올쓰꾸마{도리깨꼭지 옮습니다}
20211	벧짚	베찌피
20211-0-1	-을	베찌푸 드레오라{벧짚을 들어오라}
20211-0-2	-에	베찌페
20212	새 꺾기	베송치, 송치지
20213	쭈정어	베쭈거리(+벼 쭈정어)
20214	티	티 드러따 하지
20215	까끄라기	베꺼스레미(+벼의 까끄라기)
20216	풍구	풍채
20217	원두막	거저 마기{그냥 막}, 마기
20218	허수아비	헤채비지{허수아비지}
20219	홍년	송년, 송녀이 드러따구, 송녀이지
20220	머슴	머스미 애임두?{머슴 아님니까?}, 머시미질 하지
20221	눔	쌩꾼, 쌩꾸이 업써서
20221-0-1	-을	쌩꾸느 마이 데려오라
20222	품앗이	어품가푸미지
20223	품삿	쌩찌느 바다따
20223-0-1	-으로	쌩그르, 쌩그 바꾸{삿을 받고}

2.1.3. 방아 쪼기

20301	방아	바이, 바이지
20302	디틸방아	발바이
20303	방앗공이	덤무리, 바이뎀무리
20304	방아확	호박, 바이호박
20305	물레방아	물바이
20306	연자방아	성매, 성매지{연자방아지}
20307	절구	절귀(+[čəlgwi])
20308	절구통	절귀토~이(+[čəlgwithõʷ]), 절귀통
20309	절굿공이	절귀막때, 절귀막땡기
20310	절구질	△, cf. 절귀바~이 쥘는다 하지
20311	거	채라하지, cf. 베르 쥘 무 베제라 하지{벼를 쪼으면 벗겨 라 하지}
20312	보릿겨	보리썰지
20313	왕겨	아시썰
20314	쌀겨	두벌썰(+[tobɔlč'e])
20315	검불	검부르(+대격형), 검부르 썩 끄러라
20316	껍질	껍쥘짐{껍질이지 뭐}, 능금 껍때기, 능금 껍때기르

2.1.4. 곡물

20401	곡식	곡썩기지(+다), 곡썰기(+다), 곡썩그(+대격형), 곡썩기 마 느나(+소){곡식이 많으나}
20402	참쌀	차입싸리지, 차입쌀
20403	맷쌀	맷쌀, 맷싸르 가져오겐는두{맷쌀을 가져오겠는지}, 맷입쌀
20404	쌀보리	*
20405	조	조이지{조지}
20406	차조	찰조이
20407	메조	메조이두 이찌
20408	좁쌀	조이싸리, 참싸리라 하지{차좁쌀이라 하지}
20409	잘다	잘다구 하지, 자라서, 자다망게{자그마한 게}, 장게 저 조이싸리구마{잔 게 저 좁쌀입니다}, 재다 : 망게{자그마 한 게}
20410	조이삭	조이이새기, 조이이새기나{조 이삭이나}, 조이이사그(+대 격형)
20411	수수	밥썩구 만타(+[paps'ügu]), 밥썩두 망쿠, 밥썩꾸 가져오 라, 밥썩끼, cf. 밥썩송치 에이오?{수수 이삭 아니오?}
20411-1	붉은색 수수	△

20411-2	장목수수	비썩(+[pisü]), 비썩지(+[pisüji]), 비썩두 만타(+[pisüdu]), 비썩르(+[pisüri])
20411-3	찰수수	밥썩끼지, 밥썩지(+[paps'üji]), 찰밥썩끼짐{찰수수지 뭐}
20411-4	메수수	*, cf. 메밥썩기는 모 모빠쓰꾸마{메수수는 못 못랐습니다}
20412	수수깁	밥썩때지
20413	옥수수	옥썩끼지, 옥썩꾸 송귀찌{옥수수를 심었지}
20413-1	찰옥수수	찰옥썩끼
20413-2	메옥수수	매옥썩끼지
20414	귀리	귀미리(+[kümiri]), 구미리(+말에게 주로 먹임), cf. 유미 리(+싯태=유밀떡)의 재료)
20415	메밀	매미리, cf. 메밀국썩
20416	콩	콩, 코~이지, 코~오(+대격형), 코~울르 하지{콩으로 하지}
20417	콩각지	콩각찌, 콩각찌르 가져오나라, cf. 콩딸개(+콩각대)
20418	메주	메지르(+대격형)
20419	매달다	다라매지
20420	떡우다	떠우구
20421	곰팡이	곰태기, 곰틀래기 업썰{곰팡이 없지 뭐}
20422	강낭콩	열코~이지, 열코오느{강낭콩은}
20423	콩기름	콩지름두, 콩지리미
20424	깨	깨지리미라능게오{깨지름이라는 것이오}, 깨지를 짜먹 꾸, 깨르 다까서{깨를 볶아서}
20424-1	참깨	창깨두 이꾸&
20424-2	들깨	들깨구&
20425	고소하다	고소하지

2.1.5. 채소

20501	채소	채소 만타구
20502	나물	나무리, 나무르 마이 캐오라구{나물을 많이 캐오라고}, cf. 메와멍는다{무쳐 먹는다}
20502-1	나물(밭)_재료	나무리
20502-2	나물(밭)_반찬	나물채라 하구, 나시채나{냉이 반찬이나}, cf. 나시침치
20502-3	나물(들)_재료	나무리
20502-4	나물(들)_반찬	채라 하무{반찬이라 하면}
20502-5	나물(산)_재료	산나무리라구 하지
20502-6	나물(산)_반찬	고사리채라{고사리 반찬이라}
20503	푸성귀	→푸나무새구
20504	다듬다	검주래야지, 나무르 썩 검줄해야
20505	반찬	해애미, 해애미르 가져오나라, cf. 반찬(+물고기를 가지 고 요리한 것)

20506	무	무끼, 무끼지, 무꾸 가져오나라, 무꾸부터, 무수마{무보 다}, 무수두 망쿠
20507	썰다	쏘오지{썰지}, 쏘오라라, 싸아라라, 칼르 싸알지, 싸알지, 씨엄두{썰지?}, 씨어러라, 무꾸 씨얼다
20508	무청	무수이피라 하지, 무순니피
20509	시래기	시래기나, 시래기지(+배추 잎을 말린 것만 지칭함), 시 래기느{시래기느}, cf. 시락짱무리지{시래깃국이지}
20510	무말랭이	△, cf. 무수말리웅거{무 말린 거}, 무꾸말리웅게짐{무 말 린 거지 뭐}
20511	장다리무	→장다리무끼지{장다리무지}
20512	배추	배채
20513	고갱이	속갱·기
20514	오이	베(+[ve]), 베지(+[ve]), 무뢰(+[murö])
20515	오이지	△
20516	오이소박이	△, cf. 소그 연는 베김치라 하지
20517	가지	까지
20518	호박	호바기, cf. 야뽀스키 호바기라 하지(+ ‘ 동아 ’ 를 ‘ 일 본 사람들 호박 ’ 이라 부른다 함)
20519	고구마	*
20520	감자	감제
20521	우엉	→우병니피{우엉 잎}
20522	파	파이, 파이크 가져오라 하지, 파에(+처격형)
20523	고추	고치지
20524	시금치	시금치, cf. 채쉬나 해먹찌(+ ‘ 쉬 ’ 는 [sü]로 나타남), 채 나 해먹찌
20525	미나리	미나리(+원동에서만 봄), 미나리르 가져오나라, 미나리 부터 가져오나라
20526	부추	염지
20527	상추	불기, 불기두 망쿠, 불구 가져오나라(+[pulga])
20528	마늘	마누리, 마느리지 무시기{마늘이지 뭐}
20529	생강	△
20530	냉이	나시이꾸마{냉이입니다}
20531	달래	달리
20532	도라지	도라지두 먹찌
20533	더덕	*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이파비지
20602	찬밥	참바비라 하지, 무근 바비라구(+[mugun]), 무근 바비느 (+전 날에 한 밥이 남은 것)
20602-1	더운밥	더뽀밥
20603	조밥	조이바부(+대격형, 밥에 조를 섞어서 지은 밥), 찰배비 (+조만으로 지은 밥), cf. 차입쌀 바비지{참쌀밥이지}
20604	누룽지	가마치
20605	눌은밥	가마치, 가마치 바비지
20606	송늬	송뉴~이, 송뉴~우(+대격형)
20607	뜨물	뽀무리지
20608	김(蒸氣)	지미지{김이지}
20609	갱죽(羹粥)	국쭈기라구(+어린 시절에 들어 본 말이라 함)
20610	싱겁다	승겁따, 승겁찌, 승거바서 몸머깨따{싱거워서 못 먹겠다}
20611	국수	국씨르 기래오{국수를 그러오?}
20612	칼국수	칼구기, 칼구기지, 칼구그 가져오라, 칼구구 가져오라, 칼구게다{칼국수에다}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국씨지, cf. 국씨분트리
20613	건더기	깡치
20613-1	국물	장물무리 지터찌{국물이 남았지}
20614	고명	추미(+고명과 추미의 통칭)
20615	꾸미	국씨추미르
20616	미역	메에기, 메에길르 장물 해메기지{미역으로 국을 해 먹이 지}, cf. 메엑짱무르{미역국을}
20617	김(海苔)	△
20618	수제비	뜨더꾸기
20619	끼니	시거기람마리{끼니라는 말이}, 시거그 머거라
20620	미음	미이미, 미임
20620-1	(미음을)끓이다/쭈다/삶다	미이무 쭈다{미음을 쭈다}, 미이무 써서 메기지{미음을 쭈어서 먹이지}
20621	옛기름	씩쩔구미, 보리씩쩔구미
20622	식혜(食飮)	감지
20623	식혜	시캐느{식혜느}, 반차이(+손질한 다음 소금을 쳐서 채운 생선에 소금 간을 한 무와 마늘, 고추 등을 넣은 후 식 초를 넣고 절인 음식)
20624	달다(甘)	너무 다라서, 다지
20625	가루	갈그 내지{가루를 내지}, 채밀깎기
20625-0-1	-에	갈게서
20625-0-2	-을	갈그 내능거{가루를 내는 거}

20625-0-3	-도	채밀까르두 망쿠, 입쌀깎기마 모타다, 입쌀까르마 모타다
20626	밀가루	채밀깎기두 망쿠, 채밀깎그두 망쿠
20627	밀기울	채밀제(+?제)
20628	미숫가루	미쉬깎기(+[miswik'algi]), 미쉬지(+[miswi])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지레예, 지레이라구두 하구(+[čirey]), 지러어 가져오나 라, 지령두 업꾸, 간자~, 간제, 간장, 간자이라 해찌, 간 장두 업찌
20702	된장	장, 자~아 여치{된장을 넣지}
20703	고춧가루	고치깎기, 고치깎그(+대격형)
20704	고추장	고치자~이지{고추장이지}, 고치자~아느{고추장은}
20705	소금	소곰 노치
20706	김치	짐치라 하지, 짐치르 가져오라구
20707	김장	*
20708	깍두기	무꾸짐치지, 로배짐치지(+ ´로배 ´는 러시아 어로 ´무 ´)
20709	나박김치	*
20710	담그다	짐치르 당군다 짐치르 절군다
20710-0-1	-고	짐치르 당구자구서, 절구자구 그런다
20710-0-2	-어라	당과라, 절귀라
20711	양념	양념 다 연는다
20712	버무리다	버무리지 마라, 다 버무렌나, 버무레라, 적쎌나, cf. 골레 썩 서건냐?{고루 썩 쉬었냐?}
20713	버섯	버스시
20713-0-1	-이	버스시
20714	콩나물	질구미
20714-1	콩나물	질곰채지
20714-2	숙주(나물)	녹떠질구미지, cf. 동배{동부}, 동배질곰두 이찌{동부 나 물도 있지}
20715	두부	드비, cf. 드비모이{두부모}
20716	비지	드리
20716-1	비지떡	*
20717	달걀	달가리 만타, 달가리 만타, 달개리(+자연 발화에서 제일 많이 씹), 달가르(+대격형)
20718	가래떡	*
20719	시루떡	시르떠기
20720	송편	*
20721	빫다	*, cf. 피이제{만두피}

20722	흰떡	골미떠기지{절편이지}
20723	고물	곰무리지
20724	팥죽	오구랑주기, 오구랑죽 에이오{팥죽 아니오?}
20725	새알심	오구래~르 비베여치{새알심을 비벼서 넣지}
20726	백설기	셀기
20727	튀밥	△, cf. 옥썴구 티우능거{옥수수 튀기는 거}
20728	술	수우르느, 수우르 멍는거뚜 이꾸{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20729	막걸리	*, cf. 감지
20730	소주	토지지
20731	부침개	*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가매찌니라 해찌
20802	가마솥	가매구, 쿵가매르
20802-0-1	-을	가매르
20802-0-2	-에	가매~다{가매에다}
20803	아궁이	부수깨지
20803-0-1	-이	부수깨아구리 크다, 부수깨 무이 크다 하던지
20804	그을음	끄스레미, 가매 검대기
20805	불쏘시개	불살개(+[pulsarge])
20806	연기	내구리 나온다
20806-1	내(煙氣)	내구리
20807	그을리다	끄스려따
20808	부지깅이	부수맹기
20809	부삽	→불광차이라 해두 일업찌, 불광차이
20810	넙다	내굴지, 내군다, 내구러서
20811	냄비	△, cf. 쪽팔기두 이꾸{손잡이도 있고}
20812	그릇	그르시 만터라
20812-0-1	-을	그르스
20813	뚜껑	더깨
20814	주발 뚜껑	더깨~지
20815	사발 뚜껑	시끼더깨지
20816	솔뚜껑	가매뜨베
20817	밥주걱	밥쭈기, 밥쭈그(+대격형)
20818	숟가락	수리 업따, 술루 먹찌{숟가락으로 먹지}
20819	젓가락	저리, cf. 차아제저리{포크}
20820	종지	중지, 종지지, 종지르 가져오나라
20821	보시기	→보시기

20822	뚝배기	토기라 하지
20823	접시	세첩, 세체비라 하지, 세처부(+대격형)
20824	조리	조리(+동북방언 지역의 조리는 그림과 다르게 생겼음)
20825	이남박	무람바기, 무람바그(+대격형)
20826	바가지	바가지
20827	행주	새앵지, 새앵지르(+대격형)
20828	행구다	히우지 마라, 히와서, 히와라
20829	설거리	그르스 시처라, 거두매르 해라, 자실 까세라
20830	개숫물	자심무리
20831	찌꺼기	→깡치
20832	화로	화루또~에, 화루또~에르 가져오라
20833	화룻불	화루똥부리라구
20834	부젓가락	→불저리라구 하지
20834-0-1	부손	→불저리라 하지
20834-0-1	-이	→불저리라 하지
20835	다리쇠	△, cf. 화리또~에 논는 적째지
20836	석쇠	적째라 합땜{석쇠라 하더균요}
20837	도시락	*
20838	바구니	△, cf. 꿩재
20839	뒤주	배뚜지
20840	찬합	△
20841	강판	채카리, 채카르(+대격형)
20842	개다리소반	크라바이 사이구, 크라바이 사~아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정지
20902	벽	베기
20903	다락	*
20904	벽장	*
20905	감추다	꿈치운다
20906	흙	△, cf. 올기와꾸나, 올리와꾸나, 그미 나찌
20907	돌쩌귀	문쩌기(+[munčʼəgi]), 문쩌길 다라라(+[munčʼəgil])
20907-1	암짜	문쩌기지(+[munčʼəgiji]), cf. 웅지{웅이}
20907-2	수짜	문쩌기지(+[munčʼəgiji])
20908	미단이	밀째, 밀짙문, 밀짙무이지
20909	여단이	무누 열지{문을 열지}, 문 다다라

20910	덧문	두벌무이지(+[tuβəlmuiji]), 두벌무누(+[tuβəlmunu])
20911	열다	열자구, 여러라
20912	문고리	몽꼬리라
20913	자물쇠	쇄때
20914	갸히다	개끼우나, 개끼완는지
20915	열쇠	열썰, cf. 쇠때, 쇠{쇠}
20916	잠그다	채운다, 채와라
20917	구멍	구나아 똥꾸{구멍을 뚫고}, 구냐~아~ 똥버야 하지{구멍을 뚫어야 하지}
20917-1	쥐구멍	취구내(+[čügunyɛ]), 취구냐~아~(+대격형), 취구~애(+[čügũyɛ])
20918	찢다	제지마라, 찌찌마라 하나, 찌는다, 찌찌마라, 찌저테지능거, 쨌다구두 하구
20919	구들	구두리(+방바닥의 의미임), 구두레서
20920	흙받기	△, cf. 흙찢하는 널뻔대기
20921	흙손	△
20922	흙갈	△, cf. 엠벙하는 카르 가져오나라
20922-1	흙갈(나무로 만든 것)	△
20922-2	흙갈(쇠로 만든 것)	△
20923	바르다	바르지, 바른다구, 발라라
20924	장판	노저는 까라찌{삿자리를 깔았지}, 점제라구두 하구, 장파이지(+바닥에 널을 놓은 것)
20925	종이	조애
20926	도배	도배르 하지
20927	구석	구세기
20928	굽도리	△(+제보자가 원동에서는 못 보았다고 함, 러시아 어로 ‘쁠린뚜사’라 함)
20929	깨끗하다	깨끄타다, 깨끄태 조타구, 깨까지 거더서 조타, 깨까제서
20930	문지방	문터기
20930-0-1	-에	문터게
20931	틈	찌미나따구, 찌마기 싹 마그라구, 찌무 업째라
20932	가장자리	여가리두
20933	가운데	함파이지, 함파느(+대격형)
20934	시렁	덩때
20935	살강	그르땡때
20936	선반	그르땡때
20937	서랍	뽀비, 뽀비르 빼~라, 뽀비르 여어라, 뽀비르 마차라
20938	경대	세계~이 세계~이 하지
20939	거울	세경, 세껴~이라 하지



20940	걸다	걸라구, 거지 말라, 거러야
20941	호롱	초로~이, cf. 심치{심지}, 남봉지름, 께라신(+러시아)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버어꼭때게다{지붕 꼭대기에다}
21001-0-1	-에	지버~이다가
21002	기와	좌아짱
21003	기와집	좌애짱지비라
21004	수키와	△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용마르때
21007	서까래	세까달, 세까다리라구
21008	추녀	△
21009	처마	△
21010	오두막	△, cf. 외판지비{외판집}
21011	초가집	△, cf. 지폴루 예영 여어찌{짚으로 이엉을 이었지}
21012	이엉	예영 예영, 예여어 여어찌
21012-0-1	-에서	예여~에
21013	용마름	이게 용말긴두 모르지{이게 용말기인지 모르지}
21014	기스락	예영기술기입찌, 기술기
21015	낙숫물	△ , cf. 물꼬치 떨어진다
21015-1	기스락물	△ , cf. 예영에서 흐린무리 떨어진다
21016	사닥다리	새당따리 노치{사닥다리 놓지}, 새당따리르(+대격형)
21017	용마루	용말기
21018	토방	바다~이, 바다~아(+대격형)
21019	멧돌	채세기, 채세기라 하얏떠마, 채셔그 볍찌 마라
21019-1	섬돌	*
21020	마루	△
21020-0-1	-을	△
21021	텃마루	*, 폴호즈, 소포즈(+러시아 어, 현재 씀)
21022	기둥	지둥, 지두~이지, 지두~우 세와야
21023	주춧돌	△, cf. 도르 바체라
21023-0-1	-을	△, cf. 도르 여어라
21024	굴뚝	구새, 구새지

### 2.3.3. 마당

21101	뜰	△, cf. 오고로드(+러시아 어, 가옥 구조에 따라 의미가 다름), 터바티
21102	마당	마당두, 마다~아다 너러라, 마다~아 쓰러라, 마대~이지, 마대· 너르다
21103	넓다	너르더라
21103-0-1	-어서	널거서 조타
21104	넓히다	널구지 모태파, 널귀라, 늘귀라(+[nɪlgʷəra])
21105	곳간	허덕칸, 허더까이 너르다
21106	외양간	오양까이지, 세구리라구두 하구
21107	마구간	△
21108	광	허더까이구, 싸라~이라(+제보자는 러시아 어로 인식하고 있음)
21109	헛간	허더까네다 다 두웁찌{헛간에다가 다 두지요}
21110	쓰레기	△
21111	장독대	*
21112	장독 뚜껑	장더깨구
21113	변소	봉간, 봉까니라구두 하구, 봉까느 가바라, 즐스까이라, 똥수까이라구두 하구

21113-1	똥장군	*
21114	울타리	→배재라구, 장재(+널판을 대어 만든 울타리)
21115	담	토다미
21115-0-1	-에	토다메
21115-0-2	-도	토담두
21116	사립문	△, cf. 터바티무이{텃밭의 문}, 댐무이{대문}
21117	뒤꼍	두왜니, 두왜니두 너르다
21117-0-1	-에서	두왜네
21118	바깥	바가트 바라
21118-0-1	-에	바가테 나가 놀라, 바그테 나가 노라라
21119	모퉁이	집모태지, 집모태서, cf. 집오래서 노나{집 근처에서 노나}
21120	모서리	모이, 상 모에 베케파, 귀띠(+[kütʲi])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마으리라 해찌, 고으리구 마으리구(+원동에서 썼음)
21202	윗마을	움마리, 움마으리구, cf. 아램마·리
21203	이웃	겨테쩍, 겨테찌비라구, 이우찌비라구두
21203-0-1	-이	겨테찌비라, 이우찌비라
21203-0-2	-에	이우찌베

21204	마을가다	마시또리칸다구(+옛날에 썼음)
21205	우물	구렁무리
21206	두레박	자새르 자사서
21207	샘(泉)	삼치무리
21208	가(邊)	여기, 여가리
21208-0-1	-을	여그 잘바라, 여가리르 잘바라
21208-0-2	-에	여게서
21209	물지게	물찌개때
21210	가게	상저미라, 공이사지, 공이사르(+대격형)
21211	싸다	눅따
21212	비싸다	비싸다, 비싸서
21213	홍정	홍자·한다, cf. 물건 갑쓰 톱찌{물건 값을 깎지}
21214	거간꾼(중매인)	방간재지, cf. 방간질 한다{홍정질 한다}, 빼치개질{홍정질}
21215	잔돈	잔도늘르 바까달라
21216	에누리	누께 달라구, 네리와 달라구
21217	거스름돈	승천 바다야 하지
21218	거스르다	△, cf. 승천 받는다
21219	꾸다(借)	꾼다
21219-0-1	-어야	꿔따
21220	구두쇠	딱쫌째
21221	말기다	매끼구, 매께따
21222	나머지	지통길르{남은 것으로}, 진능겨, →나마지구
21223	몹	△
21224	몹	내 모기구, 지저그느{몹은}
21224-0-1	-을	내 모그 달라구
21225	빚	비디 만타
21225-0-1	-을	비드 마이지구{빚을 많이 지고}
21225-0-2	-에	비테 빠져서, 비테 물기나 하나{빚에 물리나 하나}
21226	이자(利子)	베니, 베이 올라가지
21227	심부름	심바람
21228	두름	한다래미, 두다래미
21228-1	축	*
21228-2	쾌	한다래미 두다래미
21228-3	접	*
21228-4	쌈	한싸미, 한싸무 싸따(+[hans'amu])
21228-5	두름	함무꿈, 함무꾸미 두무꾸미
21228-6	단/몹	한단, 한다이러, 한다느 싸따, 함무꾸무 싸따
21228-7	단/몹	한단
21228-8	툇	*
21228-9	모숨	한쭈씨

21229	컬레	네커리 싸따, 한드디래구두
21230	마지기	*, cf. 쏘뜨까(+러시아 어 сотка, 1 쏘뜨까는 10m <sup>2</sup> )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
21231	꾸러미	*
21232	그루	항개 두개
21233	포기	배채 폐기
21234	저울	저우레, 저우레 뜨지
21235	자루(包袋)	잘기라구(+ ' 커우대 ' 와 ' 조만지 ' 의 통칭), 조만지나 (+작은 자루, 1kg~3kg 정도의 무게), 커우대(+큰 자루, 한 커우대가 10kg, 국가에서 만들어 줌)
21235-0-1	-을	잘그 가져오나라
21235-0-2	-에	잘게다 싸를 여어라
21236	하나	한나
21236-1	한 개	항개
21236-2	한 되	한되(+ ' 되 ' 의 ' 나 ' 는 [ö])
21236-3	한 말	*
21237	둘	두우
21237-1	두 개	두개
21237-2	두 되	두되(+ ' 되 ' 의 ' 나 ' 는 [ö])
21237-3	두 말	*
21238	셋	서어
21238-1	세 개	세개
21238-2	세 되	세되(+ ' 되 ' 의 ' 나 ' 는 [ö])
21238-3	세 말	*
21239	넷	너어
21239-1	네 개	네개
21239-2	네 되	네되(+ ' 되 ' 의 ' 나 ' 는 [ö])
21239-3	네 말	*
21240	다섯	다스
21240-1	다섯 개	다스깨
21240-2	다섯 되	다스뵈(+ ' 뵈 ' 의 ' 나 ' 는 [ö])
21240-3	다섯 말	*
21241	여섯	여스
21241-1	여섯 개	여스깨
21241-2	여섯 되	여스뵈(+ ' 뵈 ' 의 ' 나 ' 는 [ö])
21241-3	여섯 말	*
21242	일곱	일구
21242-1	일곱 개	일구깨
21242-2	일곱 되	일곱뵈(+ ' 뵈 ' 의 ' 나 ' 는 [ö])
21242-3	일곱 말	*

21243	여덟	아듭	21253	아흔	구십
21243-1	여덟 개	아듭개	21253-1	아흔 개	구십개
21243-2	여덟 되	아듭.되(+ ' 되 ' 의 ' 이 ' 는 [ø])	21253-2	아흔 되	구십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43-3	여덟 말	*	21253-3	아흔 말	*
21244	아홉	아홉	21254	백	백, 배가지
21244-1	아홉 개	아홉개(+[aʊk'ɐ])	21254-1	백 개	백개
21244-2	아홉 되	아홉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54-2	백 되	백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44-3	아홉 말	*	21254-3	백 말	*
21245	열	열(+[yɐɾ])	21255	이백	양배기
21245-1	열 개	열개(+[yɐrk'ɐ])	21256	한들	한두리 와따
21245-2	열 되	열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56-1	한두 개	한두개, 한뒤:개
21245-3	열 말	*	21256-2	한두 되	한두되(+ ' 되 ' 의 ' 이 ' 는 [ø])
21246	스물	스무리지, 스물	21256-3	한두 말	*
21246-1	스무 개	스무개	21257	두셋	뒤:서이
21246-2	스무 되	스무되(+ ' 되 ' 의 ' 이 ' 는 [ø])	21257-1	두세 개	두세개
21246-3	스무 말	*	21257-2	두세 되	△
21247	서른	서르이지, 서른	21257-3	두세 말	*
11247-1	서른 개	서룻개	21258	두서넛	뒤:서너
21247-2	서른 되	서른되(+ ' 되 ' 의 ' 이 ' 는 [ø])	21258-1	두서너 개	뒤:서너개
21247-3	서른 말	*	21258-2	두서너 되	뒤:서너되(+ ' 되 ' 의 ' 이 ' 는 [ø])
21248	마흔	마은	21258-3	두서너 말	*
21248-1	마흔 개	마웁개	21259	서넛	너이, 세너이 와따, cf. 서너너이, 서너너덱며~이
21248-2	마흔 되	마은되(+ ' 되 ' 의 ' 이 ' 는 [ø])	21259-1	서너 개	서너개
21248-3	마흔 말	*	21259-2	서너 되	서너되(+ ' 되 ' 의 ' 이 ' 는 [ø])
21249	쉰	쉰:(+[sü:n])	21259-3	서너 말	*
21249-1	쉰 개	쉰:개(+[sü:ŋɐ])	21260	네댓	너더
21249-2	쉰 되	쉰:되(+ ' 뒤 ' 의 ' 이 ' 는 [ü], ' 되 ' 의 ' 이 ' 는 [ø])	21260-1	네댓 개	너더개, 너더대:개
21249-3	쉰 말	*	21260-2	네댓 되	너더띠(+ ' 띠 ' 의 ' 이 ' 는 [ø]), cf. 너더대애띠
21250	예순	육십	21260-3	네댓 말	*
21250-1	예순 개	육십개	21261	대여섯	대애여스 와따, 대:여스 와따, cf. 대애일곱 와따구
21250-2	예순 되	육십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61-1	대여섯 개	대애여스개
21250-3	예순 말	*	21261-2	대여섯 되	대애여스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51	일흔	칠십	21261-3	대여섯 말	*
21251-1	일흔 개	칠십개	21262	예닐곱 예일곱 와따구	예일구개
21251-2	일흔 되	칠십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62-1	예닐곱 개	예일곱개
21251-3	일흔 말	*	21262-2	예닐곱 되	예일곱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52	여든	팔십	21262-3	예닐곱 말	*
21252-1	여든 개	팔십개	21263	일여덟	이라듭
21252-2	여든 되	팔십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63-1	일여덟 개	이라들개
21252-3	여든 말	*	21263-2	일여덟 되	이라듭띠(+ ' 띠 ' 의 ' 이 ' 는 [ø])

21263-3 일여덟 말	*
21264 여덟아홉	야듭아웁
21264-1 여덟아홉 개	야들깨나 아우깨
21264-2 여덟아홉 되	△
21264-3 여덟아홉 말	*
21265 여남은	여라무 와따구
21265-1 여남은 개	여라무개
21265-2 여남은 되	여람되(+ ' 되 ' 의 ' 라 ' 는 [ö])
21265-3 여남은 말	*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초매라하지 cf. 함복.오시라구 하오
21302 길이	지리, 초매지리 cf. 너비
21303 저고리	조고리(+[čoxori])
21304 색동저고리	까치조고리라
21305 두렁이	택빠지라구(+가슴 윗부분만 가림), 압초매라
21306 무늬	△
21307 고쟁이	짹빠지느&, 가비라구& cf. 소구티라 하오{속웃이라 하오}, 속초매라 하오, 소부티{속웃}
21308 바지	바지라 하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매기라& cf. 소조고리르 입쏘{숨 저고리를 입소}

21310 의복	우티라구(+다), 오시라구두 하지(+소)
21311 구겨지다	꾸게져따 하오, 꾸게정거{구겨진 거}
21312 옷고름	고르미, 고름 다라따구, 고리미라 cf. 고름다리저고리라구
21313 단추	단치
21314 동정	△
21315 겹	거치, 거치두
21315-0-1 -에	거치에
21315-0-2 -을	거즈 씨즈라구
21316 홀웃	하부께르, 하부우티느
21317 겹웃	저부티라 하지, 겹.우티라구, 겹께라구서르
21318 잠방이	△, cf. 째른바지라구
21319 누더기	△, cf. 파이난 우티라 하지{헤진 옷이라 하지}, 누테기느(+여러 번 기운 이불만을 가리킴), 누덩니부리라구

21320 거지	{누덕이불이라고}
21321 구걸	비렁배
21322 조끼	비러서 어더오지{구걸해서 얻어 오지}
21323 내의	등거리라 하오, →쪼끼느(+한국어라 함)
21324 껌입다	→송내보그느, 송내보끼지, 송내보그
21325 소매	찌이부라구느{껴입으라고는}
21326 주머니	소매라, 진소매라{긴 소매라}

21327 호주머니	엽차개구 cf. 조만지르(+주로 밀가루 등을 담은 "자루(袋)"를 가리킴), 댜배쌈지라구, 주먼지라지(+주로 밀가루 등을 담은 "자루(袋)"를 가리킴)
21328 허리띠	까르만, 까르마네다{호주머니에다}

21329 땡기	허리띠라구 cf. 리뎜띠라구서(+러시아 어 "ремен(가죽)"에 "띠"가 결합된 것){가죽띠라고서}
21330 도포	*
21331 삿갓	*

21331-0-1 -에	사까지, 사까즈(+대격형)
21332 고깔	사까제
21333 사모	△
21334 유건	*

21335 대님	감티, 감티라 하구 cf. 죽췌이라(+[čukč'ɛ'ra]){죽장(竹杖)이라}
21336 감발	△
21337 짚신	감바리지
21338 미투리	머커리라(+총이 네 개인 짚으로 만든 신)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매커리지
21339 나막신	△
21340 설피	△

### 2.4.2. 바느질과 세탁

21301 치마	초마, 초매
21302 길이	질씨 지다구, 질씨 기다구
21303 저고리	저고리, 고름다리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
21305 두렁이	*, cf. 텍쓰께{턱받이}, 압초매
21306 무늬	무이 놉찌(+격자 형태만을 무늬라 함), 문:놉따구
21307 고쟁이	짹빠지라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제매기&, cf. 차우시라구
21310	의복	우티 만타, 우티르 빼서라, 우티에 흘기무더따, 이보게, 오시, 오세{옷에}
21311	구겨지다	구게저따, 꾸게저따
21312	옷고름	고름, 고르미지, 고·르미지
21313	단추	단치지
21314	동정	동저~이(+[tonjǽ y]), 동저~어~(+대격형), 동정두
21315	걸	거치우{걸이오}, 거즈두 곱따
21315-0-1	-에	거추~에(+[kǽčʰǽ e])
21315-0-2	-을	거즈 씨쳐라
21316	홀옷	하비우티라 하지
21317	겹옷	접우티라, cf. 접찌고리라 하지
21318	잠방이	*
21319	누더기	→현투레기라구, 지분우티지, cf. 누테기{포대기}
21320	거지	비렁배지
21321	구걸	빌구, 비지, 구쳐해달라능게{도와달라는 게}
21322	조끼	쪼끼
21323	내의	송내보기지, 송내보그(+대격형)
21324	껴입다	깨이꾸 나가라, 우에다 더 깨이꾸 나가라
21325	소매	사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머이, 돈쭈머이지, cf. 담배쌈지
21327	호주머니	까르마니지, 까르만
21328	허리띠	허리띠지
21329	땀기	△
21330	도포	차우시(+봄과 가을에 입음)
21331	삿갓	사까스, 사까디, 사까드
21331-0-1	-에	사까데
21332	고깔	*
21333	사모	*
21334	유건	*
21335	대님	오금매기라
21336	감발	감바리, 감바르 하구서리
21337	짚신	*
21338	미투리	메커리느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겉다	메커리 시느 삼는다
21339	나막신	*
21340	설피(雪皮)	△
21401	명주	비다이, 멍지라 해두
21401-1	명주실	비단시리 업따, 멍지시리라
21402	목화	모카르 수무지{목화를 심지}

21402-1	목화다래	△
21403	무명	△, cf. 앵미영 헝거치
21403-1	무명실	모카시리지
21404	씨아	*
21405	자새	자새지(+우물에서 물을 자아 올리는 것)
21406	물레	*
21407	베	*
21408	길쌈	*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질고리	지티황재
21411	가위	가셀르 베지
21411-0-1	-을	가새르
21411-0-2	-에	가새애 노기 스러따
21412	마르다(裁)	우티르 마른다
21412-0-1	-고	마르지 말라
21412-0-2	-어라	우티르 말가라
21413	형겔	형겔쪼배기라
21413-0-1	-을	형겔쪼배그
21413-0-2	-에	형겔쪼배게
21414	바늘	바눌루 집찌(+[panɐllu]), 바눌루 지찌(+[panɐllu])
21415	꿰다	깼다, 깬다구, 꺾능거
21415-0-1	-고	꺾지
21415-0-2	-어라	꺾·다구
21416	바느질	바누질한다(+[panɐjil]), 바느질한다, 지벽질한다
21417	재봉틀	마서이지, 마서느(+대격형)
21418	끈	기들르{끈으로}, cf. 오래길르 목찌
21419	노끈	노~이 지다, 노~이 업따, 노~오 파찌
21420	참바	바이, 삼빠이
21421	매듭	매들비, 오르매체저따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위다/묶다	매들부 매체라
21422	보자기	보이, 보에, 보에다 싸라
21423	이불	이부리, 이부레
21424	솜	소캐지
21425	포근하다	푸구·나다
21426	홀이불	→하분니부리라
21427	겹이불	→점니부리
21427-1	솜이불	소캐이부리, 소개이부리
21428	누비이불	예·옌이부리
21429	베개	베개르 베구

21430	베갯잇	베개이시
21430-0-1	-에	베개이세 때 만타
21431	목침	목떼기, 목띠기라 하더만
21432	퇴침	*
21433	방석	*
21434	담요	△
21435	빨래하다	시쳐라, 빨래질한다, 우티르 시찌
21436	빨랫방망이	서답빵치, 방치지
21437	빨래터	△
21438	빨랫줄	△
21439	다리미	대레미, 대레밀르 대리움찌, 다레닐르 다리지
21439-1	다림질	대렌질한다
21440	인두	윤디라
21441	다듬잇방망이	방치, 방칠르
21442	다듬잇돌	방치또리라 함떠마
21443	다듬이질	방치질한다, 다드미질한다, 다디미질한다, 서답 두디린다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라리지, 정월초할리라 하지
21502	설	서리, cf. 다노
21503	섣달 그믐달	그므미, 그믐따리오, 서팔서른할리나리지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오레지
21505-0-1	-는	오렌 덩따
21505-1	작년	상녀니
21505-2	재작년	상년그러께, 상년그러께라 하지
21505-3	내년	멩녀니구, 도라오느해지
21505-4	후년	후녀니구
21505-5	내후년	*
21506	작은설	*
21507	웃	유꾸치기, 유끼치기라능게오
21507-0-1	-을	유꾸
21507-0-2	-에	유께
21507-1	웃놀이	유꾸치기(+강낭콩으로 웃놀이를 함)

21508	웃가락	*
21508-1	도	또깨지오
21508-2	개	*
21508-3	걸	*
21508-4	웃	*
21508-5	모	*
21509	단동	*
21509-1	외동무니	*
21509-2	두동무니	*
21509-3	석동무니	*
21509-4	넉동무니	*
21509-5	막동	*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
21511	추석	취서기(+[čʰüsəgi])
21512	망월	*
21513	취불놀이	*
21514	차치기	꿀깨치기(+원으로 금 세 개를 그은 후 뒤로 돌아서서 막대를 던져 치는 횃수를 결정한다. 두 번째 줄에 걸리면 두 번치고 가운데나 금 사이의 빈 공간에 떨어지면 막대를 치지 못 한다. 이렇게 치는 횃수를 결정한 후 멀리 친 사람이 놀이에서 이긴다.)

21514-1	작은 막대	꿀깨구(+[k'urk'ɛgu])
21514-2	긴 막대	꿀깨치는 낭기라 해두 이럽꾸
21515	수수께끼	수수께끼, 수수께끼르 해애바라
21516	호미씻이	△
21517	팽과리	△
21518	장구	△
21519	걸두리	*
21520	무당	→복썩리
21520-1	박수	복썩리르
21521	고수레	*
21521-1	고수레!	*
21522	점쟁이	신서니 엽따, 신서니라
21523	상여(喪輿)	상뒤(+[saŋd̥ü]), 상뒤르 메구 간다(+[saŋdwi])
21524	굴건	*
21525	제사	제세르(+대격형)
21526	제기	*
21527	귀신	구시니

21528	도깨비	도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쇠곱찌(+[sögopč'i])
21602	굴레	→굴게(+말에게만 씌움), 말굴레르 씌와라
21603	멍에	△
21604	길마	마란재지, 마란자~(+대격형)
21605	부리망	△
21606	구유	쇠구시(+[sögusi])
21607	작두	작뛰(+[čakt'wi]), 작뛰에(+[čakt'üe])
21608	꼴	△, cf. 깔두 빼지{갈대도 빼지}
21609	여물	여물두
21610	쇠죽	*
21611	쇠죽바가지	*
21612	수레	쇠술기지(+ ' 쇠 ' 의 ' 나 ' 는 [ö]), 쇠파리(+ ' 쇠 ' 의 ' 나 ' 는 [ö]) {소 썰매}
21613	꼴다	끄는다지
21613-0-1	-고	끄스구 간다, 끄스지
21614	바퀴	바퀴(+[pakʰwi]), 바키 이서야 하지
21615	새끼(繩)	새끼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구
21616	망태기	중태 여어가지구, 새끼중태
21617	떡등구미	*
21618	거적	*
21619	가마니	*
21619-1	가마니틀	*
21620	돛자리	*
21621	자리틀	*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견다/매다	*
21622	왕골	*
21623	삼태기	→소보치
21623-1	짚 삼태기	소보치
21623-2	싸리 삼태기	*
21624	명석	*
21625	어레미	얼경채
21625-1	고운채	총채구
21625-1	고운채	보드라분 채라
21625-2	굵은채	얼경채
21626	대장장이	애쟁이(+[yɛjɐʷ]), 애장, 애자~아(+대격형)

21627	대장간	예장까네서
21628	풀무	풍구미
21629	모루	△
21630	모루채	망치지
21631	갈퀴	각째이(+[k'akčɛ ʷ]), 각째르(+대격형)
21632	집게	찌째지
21633	장도리	△
21633-1	노루발	△
21634	툽	토비, 토볼루{툽으로}
21634-0-1	-에	토베 노기 스러따
21635	도끼	도끼르 찌찌
21636	자루(柄)	도끼찔기지
21636-0-1	-을	도끼찔그 가져오라
21636-0-2	-에	도끼잘게
21637	갈고리	쇄까꾸래지
21638	쇄기	쇄애기르(+대격형)
21639	송곳	송고들르, 송고즈 가져오나라
21639-0-1	-에	송고제, 송고제 흘기무더따
21640	뽕죽하다	뽕오주가지
21641	숫돌	수똥르, 시똥르
21641-0-1	-에	수똥레다
21642	맷돌	매폰리, 매폰르, 매폰부터, 매폰레다
21642-1	수쇠	△, cf. 함파네 꼬재
21642-2	암쇠	△
21643	지게	쪽찌게
21644	발채	*
21645	지게 작대기	쪽찌개때, 쪽찌개막때기, 쪽찌개때개썩지
21646	막대기	막때기
21647	몽둥이	→몽대일르{몽둥이로}, 몽대이르(+[monɖeyri], 대격형)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빌루 쓰지{빗자루로 쓸지}
21702	광주리	강주리
21703	소쿠리	*
21704	함지	함지
21705	폴비	△
21705-1	귀알	△
21706	독	도기 만타

21706	독	토기, 독, 도그(+대격형)
21706-0-1	-에	도게다
21707	물독	등기, 물똥그 가져오라구
21708	항아리	→항사리라
21709	단지	단지라구두
21710	물동이	물또애
21711	짜리	따바리
21712	옹기	토기 그르떠리라
21713	표주박	△
21714	키(箕)	치입꾸마{키입니다}
21715	떡살	*
21716	다식관	*
21717	시루	*, cf. 시리따리(+이 지역은 이것만 있음)
21717-0-1	-을	*
21717-0-2	-에	*
21718	시룻밀	*, cf. 시르뽀이
21718-0-1	-에	*
21719	시룻번	*
21720	부싯돌	→부수또리(+부싯돌과 부시를 구분 못함)
21720-0-1	-을	부수또르 가져오라
21721	부시	부시, 부술루{부시로}
21722	부싯깃	→부수지치(+썩은 쓰지 않음)
21723	담배	땜배르 피운다
21724	담뱃대	담배때라
21725	담배설대	담배때
21726	대통	대토~이
21727	물부리	땜목찌구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땜배쌈지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통시
21731	벼루	△
21732	가락찌	가락찌
21733	비녀	비내
21734	참빗	참비슬르 비서찌
21734-0-1	-을	참비스 가져오라구
21734-0-2	-에	참비세 흘기 무더따
21735	얼레빗	얼개
21736	세숫대야	쉐시양푸나라, 쉐시양푸이라, 쉐시소래라 해두 일업꾸
21737	비누	비누리지, 쉐시뻘누리{세숫비누}
21738	도투마리	*

21739	활대	*
21740	잉앗대	*
21741	부티	*
21742	도롱이	*

## 2.6. 인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니마, 니매, 이매 녀따
21802	이마뼈기	이땜대기, 이땜때계{이마뼈기에}
21803	눈자위	→눈짜시라구두 하구(+눈알과 눈자위를 구분 못 함)
21804	검은자위	검정동재라구
21805	흰자위	흰동재라
21806	눈꺼풀	눈떼기, 눈떠그 시쳐라
21807	거적눈	부성누이라구
21808	눈썹	눈썰피, 눈썹부(+대격형)
21808-0-1	-이	눈썹비 까아마타
21809	속눈썹	눈싸부레
21809-0-1	-이	눈싸부레 지다{속눈썹이 길다}
21810	눈두덩	눈뜨베
21811	안경	푸아니지, 푸아느(+대격형)
21812	안경집	푸안 토이개찌
21813	돋보기	△
21814	주름살	쭈국싸리
21814-0-1	-이	쭈국싸리
21815	엷되다	△, cf. 늑썰이따, 늑썰에따
21816	수염	쉐에미
21817	구레나룻	구리쉐에미구&(+보통은 구분 없이 ‘쉐에미’를 씀),
21817-0-1	-을	구리쉐이미르&(+대격형)
21818	코	코올르{코로}
21818-0-1	-이	코이 크다
21819	콧수염	코미테 쉐에미개찌
21820	코딱지	코떼테
21821	콧구멍	코꿍개짐{콧구멍이지 뭐}
21821-0-1	-을	코꿍가 마가라
21821-0-2	-에서	코꿍가에서 피난다
21822	콧물	콧무리



21823	입술	입쭈니, 입녀기라 하지
21823-0-1	-에	임녀게
21824	다물다	다무더라, 다무러라
21825	어금니	검니
21826	덧니	던니 나능게, 던니빠리지
21827	회파람	회빠름 분다(+ ' 회 ' 의 ' 기 ' 는 [ö])
21828	침	추미
21829	삼키다	녕구지
21830	가래(痰)	가래 나오개썸
21831	빨다	바다 데지지, 바꾸 가가라{빨고 가거라}
21832	혀	세, 세띠, 세떼, 헤(+존)
21833	헛바늘	세떼에 쓰리 도다따 하지
21834	꿇불	△
21835	귀고리	△
21835-1	귀걸이	△
21836	귀지	귀채(+ ' 귀 ' 의 ' 기 ' 는 [ü])
21837	귀이개	△, cf. 비지개 살르 파내지
21838	소리	소리 치지 마라
21839	엮든다	여뜨른다구두 하구, →여뜨는다, cf. 후망질 하지
21840	귀청	귀채이 떠러진다(+ ' 귀 ' 의 ' 기 ' 는 [ü]), 귀채 떠러진 다(+ ' 귀 ' 의 ' 기 ' 는 [ü])
21841	귀밑	귀미티지(+ ' 귀 ' 의 ' 기 ' 는 [ü])
21841-0-1	-에	귀미테(+ ' 귀 ' 의 ' 기 ' 는 [ü])
21842	관자놀이	벤뒤라구(+[pendüragu])
21843	기미	재미 나 도다따, 줌두 망쿠
21844	주궁깨	주궁깨
21845	턱	태기
21846	턱수염	△, 태게 쉼에미 나따
21847	뺨	뺨(+맞았을 때만 가리킴), 볼태기지
21847-1	볼	빠무 마자따(+맞았을 때만 가리킴)
21848	가름하다	→질쭈:마다
21849	보조개	△
21850	머리카락	머리끼, 머리끼르 뽀바따
21851	비듬	머리빠누리
21852	기계총	△, cf. 백빼, 백빼~이
21853	정수리	수궁기라 하지(+숨구멍과 정수리의 의미가 없음)
21854	대머리	→번들리매라구
21855	고수머리	양머리
21856	가르마	그무 내지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그무 내능게지{금을 내는 것이지}

21857	가마(旋毛)	가ː매
21857-1	가마(鼎)의 성조 · 음장	가매ˊ지
21857-2	가마(轆)의 성조 · 음장	가ˊ매라
21857-3	가마(窯)의 성조 · 음장	*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 · 음장	*
21858	뒤통수	뒤떠라 하지(+ ' 뒤 ' 의 ' 기 ' 는 [ü])
21859	뒷덜미	목떠투미, 목떠튀미(+[moktʰətʰümi]), 더튀미지(+[tətʰümiɟi])
21860	목	모기지, 모게 호기 나따
21861	먹살	멕따시미, 멕따시미두, 멕뚜시미라구, 멕뚜시미르(+대격형)

## 2.6.2. 상체

21901	어깨	영께
21902	밀치다	광 밀구간다
21903	겨드랑	자개미지, 재개미, 재가매{겨드랑이에}
21904	등	드이라구두 하압떠마{등이라고도 하더군요}, 뒤짚더리 너르다구(+[tücʰandəri]), 뒤까스미나(+ ' 뒤 ' 의 ' 기 ' 는 [ü]), cf. 구술빠라 하덤마{등빠라 하더군요}
21905	가슴	가시미지, 가슴두 너르구, 압까시미구, 압까슴두 너르다
21906	결리다	케운다, 케와서
21907	갈비뼈	갈비빼지, 갈비
21908	허파	폐
21909	슬개	여리지
21910	콩팥	콩빠치
21910-0-1	-에	콩빠채 베이 생게따
21910-0-2	-을	콩빠츠
21911	팔	파리 아푸다, 파리지
21912	팔꿈치	팔꾸비, 팔뚜꾸비, 팔뚜꾸비두 아푸구
21913	팔짱끼다	팔짱개르(+대격형)
21914	손톱	손토비지
21915	오른손	오른썸쏘이구, 오른소이구
21916	왼손	웬썸쏘이구, 웬소이지
21917	다르다	따다, 따지
21917-0-1	-아서	따서
21917-1	틀리다	틀레따
21918	왼손잡이	웬재라 하지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소까라기, 엄지소까라기라
21920	집게손가락	△
21921	가운뎃손가락	△

21922	약손가락	△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까라기구
21924	생인손	새앵손 알른다, 새앵송까락 알른다
21925	사마귀	사마귀
21926	손아귀	△
21927	손목	숨모기지
21928	뺨	한 뺨미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페르 집꾸멍긴다
21931	옆구리	여꾸리지
21932	간지럽다	간질기우지{간지럽히지}, 간지러바서
21933	간지럼	간질군다 하지
21934	잔허리	△
21935	근육	△
21936	배꼽	배뿌기지, 배뿌그 다까라
21937	목물	△

### 2.6.3. 하체

22001	복사빠	발꼬무리
22002	발가락	발까래기, 발까락 시쳐라, 바까래기지
22003	발바닥	발빠다기, 발빠다게
22004	발톱	발토비
22005	냄새	내 난다
22006	고린내	발쿠린내 난다, 발똥내 난다
22007	굳은살	→자아~리라, 자아리 배게따구
22008	정강이	성무니, 성무니라, 성무느 시쳐라
22009	종아리	다리암빠라(+다리와 종아리, 장딴지의 구분이 없음)
22010	장딴지	장딴지라구두 하구(+다리와 종아리, 장딴지의 구분이 없음)
22011	회초리	훼차리
22012	무릎	무루피지
22012-0-1	-을	무루푸 시쳐라
22012-0-2	-에	무루페 안자따
22013	오금	△(+이 지역의 ‘오곰’은 다리의 높임말)
22014	엉덩이	영치지
22015	궁둥이	영치, 궁디라(+집승에게 쓰는 낮춤말)
22016	불기	신다리지{불기지}
22017	명	이무러따구
22018	명울	모리 서찌(+[mɔri]), 모르(+[mɔri], 대격형)
22019	가랑이	가다리라구두 하지, 가다리 어가이

22020	사이	어가네, 새·라구두 하구
22021	살	△
22021-0-1	-이	△
22021-0-2	-을	△
22022	사타구니	*
22023	가래뿔	△, cf. 모리 선다{명울이 선다}
22023-0-1	-을	△
22024	허벅다리	신다리라 하지
22025	넓적다리	신다리라 하지, 신다립찌
22026	가부좌(跏趺坐)	올방재르 하구 안는다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올방재르 하구 안는다구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송감해에서, 용가미라구두 하구
22102	기침	지치무 진는다
22103	채채기	채채기라, 채채기르 하지
22104	사레	개께따구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개긴다
22105	팔꼭질	패기르 하는게지
22106	트림	트름한다
22107	곰보	억뚜배, 억뚜배기지
22108	천연두	마누래, 마누래베~이
22109	여드름 구	구리, 구르 짜라
22110	학질	학짚빠~이지
22110-1	하루거리	학짚 하루
22110-2	이틀거리	학찌리
22110-3	매일 앓는 학질	학짚
22111	홍역	대애기, 대애기라, 홍지니라
22112	볼거리	도투베~이라
22113	땀띠	땀때
22114	두드러기	두두럭빠~이
22115	버짐	버지미
22115-1	마른버짐	마른 버지미라
22115-2	진버짐	저즌 버즈미
22115-3	도창버짐	버지미
22116	문둥이	문둥벵~재라
22116-1	문둥병	문둥베~이(+[mundunpëy])
22117	부스럼	→부수레미지, 부수레미, 부수렘두 만타, 부수레무 곤체라{부스럼을 치료해라}

22117-1	중기	△
22118	고름	고르미, 고르미지
22119	곰기다	곰긴다
22120	난쟁이	난쟁애, 난쟁애두 와따, 난쟁·애르 바라
22121	사팔뜨기	해뜨개, 해뜨개라 하지
22122	언청이	해채, 해채더리 만타구
22123	소경	쉐게이(+[swegey]), 쉐거어더리 와따(+소경과 당달봉사의 총칭), 눈맥째라 하지
22123-1	당달봉사	뜯누이, 뜯누이더리두 와따
22124	애꾸	엔눈통싸아재라구
22125	눈곱	농꼬비
22126	다래끼	때애지라구, 께애지라 하더마
22126-1	다래끼	께애지, 때애지(+위 아래 구분 없이 씀)
22126-2	다래끼	께애지, 때애지(+위 아래 구분 없이 씀)
22127	절름발이	다리절루배
22128	곱사등이	등곱째라구
22129	귀머거리	귀백째(+ ‘귀’의 ‘귀’는 [ü])
22130	말더듬이	말머께라{말더듬이라}
22131	병어리	버버리라 하지
22132	잠꾸러기	잠꾸태기라구
22133	줄리다	자분다 하지, 자불구 안자이따구, 자부러바서
22134	하품	하페미, 하페밀 한다, 하페미마 한다구
22135	줄음	자부래미 온다
22135-0-1	-을	자부러무 참찌 모타구
22135-0-2	-에	자부러메 하페미두 만타
22136	잠꼬대	잡쏘리 한다구

## 2.7. 육아

22201	입덧	게우닥절 하지
22201-0-1	-을	게우닥찌르
22202	갓난아이	가즈나 어르나, 가즈난 어르나라 하지, 아라구 하짐(+갓난아이와 어린아이의 총칭)
22203	어린아이	어르나라, 어르나지, 어르나(+서너살 정도의 아이), 선스나라 하구(+6세~10세 정도의 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어르나 푸~우 일구능거르
22205	눅히다	누핀다
22206	계집아이	새아가더리지, 에미나라구두 하지, 게지배라구두 하구(+오래된 말로 인식), 간나라구두
22207	예쁘다	곱따

22207	예쁘다	고바서
22208	사내아이	선스나르(+대격형), cf. 총가기라 하구
22209	아우 타다	제 아래르 타서, cf. 아아 말라든다, 제자리에 드러서 예빈다
22209-1	아우보다	네 동새애르 보개따
22210	야위다	예빈다, 예베에간다구, 추가한다구
22211	쌍둥이	쌍뒤(+ ‘뒤’의 ‘귀’는 [wi]), 쌍둥어르나라 하지, 쌍둥아더리라
22212	오줌	오죤두 싸지
22213	똥	또오 싸지, 똥두 싸구
22214	기저귀	영치바치개라 하더마
22215	뉘다(排便)	오죤 뉘운다(+ ‘뉘’의 ‘귀’는 [ü])
22216	방귀	방기르 낀다
22216-1	뀌다	뀐다(+[k'ündä])
22217	구린내	똥쿨래 나짐{구린내가 나지 뉘}, 똥내 난다
22218	구리다	쿠리다구두 하구
22219	포대기	△(+하부리 싸서 업찌)
22220	기지개	지지개 쓴다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지지개르 한다구, 쓴다
22221	거짓말	거스뿌레르 해따, 거스뿌레르 자란다, 거즈뿌레 한다구
22222	남부끄럽다	부끄러바서, cf. 넬래서 무안바다따
22223	겁쟁이	→겁째라구, 거비 만타 하지, 무세에비 만타
22224	불쌍하다	불싸아다 하지, 불싸애 모뽏개따(+[puls'aɕ])
22225	죄암죄암	쥔·쥔, 재엠재
22226	곤지곤지	송곤송곤
22227	따로따로	서라서라 하지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썉썉기
22230	부라부라	디디장 디디장
22231	걸음마	거름발 탈찌개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22233	넘어지다	어푸러진다, 어퍼진다(+앞으로 넘어지다), 번드러진다(+옆으로 넘어지다), 대배진다(뒤로 넘어지다)
22234	곤두박질	공두박절 해·떠러져따
22235	안기다	앵기와찌, 앵기우지
22236	바람개비	발랑개비
22237	호드기	△, cf. 통세{통소}
22238	숨바꼭질	꿈치올래기
22239	소꿉놀이	바꿈재노로미
22240	사금파리	△
22241	연	여니, 연

22241-1 방패연	여니
22241-2 가오리연	여느 떠운다
22242 걸리다	걸게따
22243 고누	△
22244 땅뻐기	*
22245 팽이	배아리라구, 배아르 친다
22246 딱지치기	*
22247 구슬	구수리(+구슬은 있으나 이것을 가지고 놀지는 않음)
22248 그네	굴기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떠지
22249 밧실개	△
22250 굴렁쇠	구불개라구, 구부레가지구 노지
22251 굴리다	구부린다
22251-0-1 -고	구부리구
22251-0-2 -어야	구부레 가지구, 구부레라
22252 자전거	재앵고, 재앵고두
22253 목말	몽매르 탄다, 몽매르 태운다
22254 말타기	말타개
22255 달음박질	다름질 해·라
22256 썰매	쭉빨기, 쭉빨기(+[č'okp'a'gil])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탄다
22256-2 송곳	△
22257 엽살	엽사르
22257-1 (엽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썬다
22258 부아	부왜르 도꾼다(+[puʰwɛri])

## 2.8 친족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부지(+원동에서 주로 썼음), 빠빠(+지금 주로 씀)
22301-1 아버지(호칭)	아부지 잉게르 오오
22302 어머니	어머니(+원동에서 주로 썼음), 마마(+지금 주로 씀)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잉게르 오오
22303 할아버지	크라바이, 하나바이, 하나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나부지, 크라바이
22304 할머니	크나매
22304-1 할머니(호칭)	크나매 잉게르 오오

22305 남편	남퍼니, 남제, 궤에니
22305-1 남편(호칭)	일보 잉게르 오오(+원동에서 썼음.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22306 아내	앙까이, 부인네라구
22306-1 아내(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원동에서는 ‘여보’, ‘일보’를 씀)
22307 형	헤~이다, 행님
22307-1 형(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08 아우	동상, 동새·라구(+다), 애끼라구(+소)
22308-1 아우(호칭)	동새애!(!+어렸을 때는 주로 이름을 부름)
22309 누나	느배, 내 이상느비오
22309-1 누나(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0 누이	느비다
22310-1 누이(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1 자식	자석떠리{자식들이}
22312 맏아들	마다드리
22313 맏딸	마파리, 마파리구
22314 막내	점메기라구, 점메에기
22315 오빠	오라바이, 오래비
22315-1 오빠(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6 언니	서애라구, 서애르 만나파
22316-1 언니(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7 아비	네 남저~어, 네 남제르, 남편 어드르 간냐
22317-1 아비(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18 어미	처이 어드르 간냐(+아이를 낳기 전), 메누리 어드르 간 냐(+아이를 낳은 후), 예미 어드르 간냐(+아이를 낳은 후)

22318-1 어미(호칭)	이사르마(+주로 이름을 부름)
22319 손자	→손재라구
22320 손녀	→손네
22321 사위	싸우, 싸우 이기르 오오, 싸우이(+[s'auy]), 싸우마 아드 리 나따{사위보다 아들이 낫다}

22321-1 사위(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22 외손자	웨손재
22323 외손녀	웨손네
22324 꾸짖다	육한다(+[yok.handa]), 요가지(+[yogʰaji]), 쟁망한다
22324-0-1 -고	쟁망하더라
22324-1 나무라다	육·한다, cf. 지르디린다{잘못을 바로잡다}
22325 총각	총가기
22326 처녀	새애기
22327 혼인	혼세르 한다, 잔체르 한다
22327-1 혼인식	△(+잔체르 한다)

22328 혼인 잔치	잔체라구	22348 작은아버지	아즈바이, 삼추니라구, 삼추이
22329 장가가다	서바~간다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아즈바이
22329-1 시집가다	시집간다	22349 작은어머니	아즈마이
22330 혼숫감	△, cf. 새애기 지미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아즈마예! 오오!
22331 함	→하미라구	22350 삼촌	삼추이, 아즈바이
22332 겹사돈	두벌 사두이지	22350-1 삼촌(호칭)	아즈바예!!
22333 새색시	각씨라구	22351 아저씨	마다바이(+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바이(+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33-1 새색시(호칭)	애기 여기르 오오, 각씨, 애기네	22351-1 아저씨(호칭)	마다바이(+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바이(+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34 시아버지	시아바니, 시애비(+낮춤말)	22352 아주머니	마다매(+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마이(+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반니미, 아반님	22352-1 아주머니(호칭)	마다매(+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마예!!(+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35 시어머니	시어마니, 시어머니, 시에미(+낮춤말)	22353 조카	조캐
22335-1 시어머니(호칭)	어마니, 어머니 오옴쑈, 어먼님	22354 조카딸	조캐
22336 비위	△, cf. 마암 마차준다, 성지르 마차준다	22355 고모	마다매(+아버지의 누나), 아재(+아버지의 여동생)
22337 아주버니	스혜~이	22355-1 고모(호칭)	마다매(+아버지의 누나), 아재(+아버지의 여동생)
22337-1 아주버니(호칭)	아즈바이(+[ajibai])	22356 고모부	마다바이(+아버지 누나의 남편), 아재(+ 아버지 여동생의 남편)
22338 서방님	시애끼	22356-1 고모부(호칭)	마다바이(+아버지 누나의 남편), 아재(+아버지 여동생의 남편)
22338-1 서방님(호칭)	새워이	22357 고종	베사춘(+[vesačʰun]), 웨사춘
22339 도련님	시애끼, 새워임두	22358 이모	베다마매(+[vemadame], 어머니의 언니), 아재, 웨아지미(+어머니의 여동생)
22339-1 도련님(호칭)	시애끼	22358-1 이모(호칭)	마다매(+어머니의 언니), 아재(+어머니의 여동생)
22340 형님	형니미, 마똥세	22359 이모부	마다바이(+어머니 언니의 남편), 아즈바이(+[ajibai], 어머니 여동생의 남편)
22340-1 형님(호칭)	행님(+주로 이름을 부름)	22359-1 이모부(호칭)	마다바이(+어머니 언니의 남편), 아즈바이(+[ajibai], 어머니 여동생의 남편)
22341 시누이	스느비	22360 이종	웨사춘, cf. 웨가
22341-1 시누이(호칭)	스느비(+주로 이름을 부름)	22361 외삼촌	마다바이(+어머니의 오빠), 아즈바이(+어머니의 남동생), 베삼춘(+[vesamčʰun])
22341-2 아가씨	스느비(+주로 이름을 부름)	22361-1 외삼촌(호칭)	마다바이(+어머니의 오빠), 아즈바이(+어머니의 남동생)
22341-3 아가씨(호칭)	스느비 잉게 오오(+주로 이름을 부름)	22362 외숙모	마다매(+어머니 오빠의 부인), 아즈마이(+어머니 남동생의 부인)
22342 올케	올찌세미	22362-1 외숙모(호칭)	마다매(+어머니 오빠의 부인), 아즈마이(+어머니 남동생의 부인)
22342-1 올케(호칭)	올찌세미(+주로 이름을 부름)	22363 외종	웨사춘
22343 매형	매비, 매부	22364 외할아버지	웨크라바이
22343-1 매형(호칭)	매부 잉게르 오오, →행님		
22344 매제	만매비구, 둘째매비구		
22344-1 매제(호칭)	매비, 매부(+주로 이름을 부름)		
22345 큰아버지	마다바이		
22345-1 큰아버지(호칭)	마다바이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둘째마다바이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세째마다바이		
22346 큰어머니	마다매		
22346-1 큰어머니(호칭)	마다매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둘째마다매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세째마다매		
22347 큰집	큰지비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웨크라바예
22365 외할머니	웨크나매
22365-1 외할머니(호칭)	웨크나매 아츨 잡싸쏘
22366 장인	가시아바니
22366-1 장인(호칭)	가시아바님임두{장인이십니까?}
22367 장모	가시어마니
22367-1 장모(호칭)	가시어마니미
22368 처남	처내미, cf. 처제
22368-1 처남(호칭)	처나마(+주로 이름을 부름)
22369 처남댁	처남대기
22369-1 처남댁(호칭)	△(+주로 이름을 부름)
22370 할아버	보토리, →하부레비
22371 할머니	하부레미
22372 계모	이부데미, cf. 후처(後妻)
22372-1 계부	이부대비
22373 아저씨	마다바이(+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바이(+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73-1 아저씨(호칭)	마다바예(+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바예(+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74 아주머니	마다매(+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마이, 아재(+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74-1 아주머니(호칭)	마다매(+아버지보다 나이가 위일 때), 아즈마예, 아재(+아버지보다 나이가 아래일 때)
22375 사나이	→스나
22376 영감	△(+주로 이름을 부름)
22376-1 할망구	*
22377 나이	나이
22377-0-1 -를	나아
22378 환갑	항갑
22378-1 환갑 잔치	항갑짬체
22379 사투리	△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꼬기
-----------	-----

22402 민물고기	میم물꼬기
22403 피라미	*
22404 지느러미	△
22405 아가미	저버리
22406 창자	배애리, cf. 열두, 뿔통개
22407 송사리	*
22408 해엄	헤에가지, 헤에미 헤에가지
22409 메기	메사귀(+[mesagü]), 메사길(+대격형)
22410 자라	자래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쉐처네
22413 개구리	메구락찌, 개고락찌, 개고라기
22414 올챙이	올채
22415 두꺼비	두께비
22416 거머리	거마리
22417 다슬기	골배
22418 우렁이	골배
22419 고둥	골배
22420 달팽이	뿌리인은 골배
22421 새우	새비
22421-1 새우(민물 대)	*
22421-2 새우(민물 소)	*
22421-3 새우(바다 대)	왕새비
22421-4 새우(바다 소)	새비
22422 새우젓	→새비저시
22422-0-1 -이	새비저시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도에, 고도에르(+대격형)
22426 가오리	*
22427 가자미	가재미, 가재미르(+대격형)
22428 멸치	*
22429 명태	멩태
22429-1 동태	얼군 멩채
22429-2 황태	*
22429-3 노가리	*
22429-4 북어	△, cf. 말리와서 두드레서 먹찌
22429-5 생태	멩태(+이 지역에서는 멩태를 일린 것만을 판다 함)
22430 조기	*
22431 도미	*

22432 뱀장어	*
22433 낚시	낙씨, 낙씨지라지
22434 미끼	미끼, 미끄 개애와라, 미껴다, 미끄부터
22435 낚싯대	낙씨때
22436 얼레	△
22437 조개	조개
22438 소라	골배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거지덜, 벌기
22502 날벌레	날빨기
22503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쉬파리(+[süp <sup>h</sup> ari])
22504 쉬슬다	쉬르 쓸지(+[süri]), 쉬르 쓸재이따{쉬를 쓸지 않았다}
22505 가시	구테기
22506 진딧물	드미 치지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친다
22507 잠자리	젼:재리
22508 방아깨비	메떼기, 메띄기(+[met'ögi])
22508-1 암컷	메떼기, 메띄기(+[met'ögi])
22508-2 수컷	메떼기, 메띄기(+[met'ögi])
22509 메뚜기	메띄기구(+[met'ögigu])
22510 여치	메띄기(+[met'ögi])
22511 사마귀	△
22512 벌	버어리, 버리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버르 친다
22513 땅벌	*
22514 나비	나비, 나빌 자바라
22515 하루살이	*
22516 풍뎡이	*
22517 모기	모기
22518 장구벌레	*
22519 매미	△
22520 개똥벌레	개똥벌거지
22521 반딧불	개똥부리
22522 거미	거미, 거미지, 거미주리{거미줄이}
22523 굼벵이	굼베이(+[kumbey])
22524 구더기	구테기
22525 노래기	*

22526 그리마	△
22527 지네	△
22528 개미	배깨애미
22529 바구미	△
22530 진드기	어예, 어~예, 진뒤(+[čindü])
22531 벼룩	베리기
22532 이	이르 잡찌, 이 치지
22532-1 서캐	써개, 써개르 주게라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쑤쑤·미
22534 귀뚜라미	기뚜리
22535 누에	느베, 느베벌거지
22536 고치	느베고치
22537 번데기	△
22538 지렁이	지레, 지랭게 애이라{지렁이인 게 아니라}
22539 회충(蛔蟲)	거시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

### 2.9.3. 가축

22601 가축	즘승개·라구
22602 암소	암소, 암쇄
22603 송아지	쇄애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마냐(+ "마샤", "완냐" 등의 송아지 이름을 부름)
22605 황소	둥굴쇄, 둥구리
22606 길들이다	지르 디린다, 질디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려)	△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려)	△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몰러나라)	△
22607 쇠고기	쇠고기(+[sögogi])
22608 고기(肉)	고기르 멩는다
22609 들치	→들쇄, 들쇄(+[tuls'we])
22610 꼬리	쇄꼬리, 쇠평랑대기
22611 망아지	매애지
22612 당나귀	당나귀(+ '귀'의 '기'는 [ü])
22613 갈기	말모리, 모:래기, 모오래기
22614 돼지	돼애지, 대애지

22614-1 멧돼지	메때애지, 매때애지르, 메때애지르
22615 주둥이	도투주디, 주디이르(+대격형)
22616 돼지 머리	도투대가리
22617 돼지우리	도투구리지
22617-1 오래오래	쫘:쫘, 쫘:쫘쫘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암캐
22619 강아지	개애지, 개애지르(+대격형)
22620 염소	염췌
22621 고양이	고애
22621-1 수고양이	수코애
22621-2 암고양이	암코애
22622 토끼	토끼
22623 거위(鵞)	게사이
22624 암탉	암타기, 암탈기
22625 병아리	배우리
22626 모으다	모다따, 모다라, 모여따
22627 수탉	수타기, 수탈기
22627-0-1 -이	수탈기
22628 벼슬(鷄冠)	빼시
22629 부리	부부리, 달기 부부리
22630 모이	머거리, 요리 만타, 요라구, 올부터
22630-0-1 -을	요르 췌라
22630-1 모이다	모다와따
22631 닭털	달그터레기, 닥터리라구
22632 닭똥	달기또~오 췌다
22633 어리	달구구리
22634 닭장	달그구리
22635 등우리	등지지{등우리이지}
22636 날개	날개
22637 깃	△, cf. 꿩꼬리, 꿩꼬랑대기, 닥꼬랑대기
22637-0-1 -을	△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버미, 범
22702 살췍이	→슬기
22703 여우	여끼, 여끄, 여끼두, 여끼에, 여끄재비, →여스새끼
22704 원숭이	젠내비, 젠내빌 자바라, 젠내비두 엽따

22705 사슴	사시미, 사시미꾸마, 사스무, 사슴새끼
22706 노루	놀가지
22706-0-1 -이	놀가지 만타
22706-0-2 -를	놀가질 자바라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고슴도칠
22708 두더지	따뚜지
22709 족제비	족췌피, cf. 항가리
22710 뱀	배애미
22711 도마뱀	도마배·미, 도마배미 만타
22712 구렁이	→구레
22713 살모사	*
22714 생쥐	췌(+[čü])
22715 박쥐	빨췌, 빨췌(+[č'ü])
22716 거꾸로	가꾸루 다라매지
22717 다람쥐	다래미
22718 새(鳥)	날췌식~(+[nalč'imsĩ]), 새더리, cf. 가치, 가마괴, 두루미, 기러기, 참새, 콩새, 앵무새
22719 꿩지	꼬리
22720 솔개	△
22721 독수리	닥췌리, 닥췌릴 자바라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두루미
22724 소쩍새	△
22725 꿩	췌~이 애임두~?
22726 장끼	수췌~이
22727 까투리	암췌~이
22727-1 꺼병이	췌~이새끼, 췌~어새끼
22728 종달새	종달췌
22729 빠꾸기	버췌췌
22730 기러기	기러기, 기러기 만타, 기러기두 만타, 기러기부터
22731 뜸부기	*
22732 올빼미	△ cf. 부에{부영이}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떡뚜구리, 떡뚜구리 자바라
22735 뿔	더티
22735-0-1 -을	더티 만:타
22736 올가미	올개기



# 2.10. 식물

##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천지꼬지
22802 철쭉꽃	△
22803 민들레	무순둘레
22804 팬드라미	부드꼬지, 부드꼴
22805 봉선화	△
22806 파리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자부리, 해자부릴, 해자부레, 해자불부터
22808 꽃봉오리	꼬뿌디
22809 시들다	시들다, 시드러져따
22810 질경이	배짜개, cf. 배짜개씨라 하지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배짜개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
22811 땔기	*
22812 비름	도투비느리
22813 쇠비름	너울푸리라구
22814 씬바귀	세투리, 참세투리
22815 고들빼기	*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지름고비
22818 도깨비바늘	→닥싸리
22819 도꼬마리	깨꼬리
22820 억새	새지{억새이지}
22821 갈대	까리지
22822 이끼	△, cf. 물깁치
22823 아주까리	피마재, 피마재르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카자흐스탄에는 없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 으며 주로 몸을 씻는 데 씀)
22826 덩굴	너우리 번는다
22827 덩불	덤부리
22827-1 가시덤불	가시덤부리
22828 잔디	잔디푸리

## 1.10.2. 나무

22901 소나무	솔랑기, 솔랑그, 솔랑개, 솔라무부터
22902 솔방울	송치 달개따
22903 관솔	솔라무옹지
22904 솔가리	솔라무이피 말라따
22905 그러모오다	끄러모다라
22906 뽕나무	뽕낭기, 뽕나무, 뽕낭기, 뽕나무, 뽕나무이피
22907 오디	오디(+[ɔdi])
22908 도토리	바미라구, 밤두
22909 떡갈나무	가람낭기, 가람나무두
22910 상수리	바미라구
22911 옷	*
22911-0-1 -으로	*
22912 버드나무	버드리, 버들랑기, 버들랑그, 버들라무두
22913 느티나무	*
22914 그림자	그름제지
22914-1 그늘	그느리 생기지
22915 숲	나무바티
22915-0-1 -을	나무바틀
22915-0-2 -에	나무바테
22916 시원하다	씨어워:나다, 선서:나다
22917 짙레	*
22918 쭈	*
22918-0-1 -에	*
22919 가지(枝)	아치, 아채기, 나무아채기
22920 끝	그티 나지
22920-0-1 -이	그티 나지
22920-0-2 -을	그트 내라, 그트 마차라
22920-0-3 -에	그테
22921 삭정이	△, cf. 아채기 말라드러따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뚝뚝 꺾겨서
22922 나무	낭기 판타, 나무두 만터라
22922-0-1 -을	낭글르
22922-0-2 -에	낭게
22923 나무하다	나무하라, 낭그하라 간다
22924 그루터기	→글거리, 나무글거리, 나무드털기, cf. 지적빼기(+도끼 로 나무를 찍었을 때 나오는 톱밥과 같은 것)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글거리
22925 등걸	글거리, 글기

22926 장작	→장재기라 하지
22927 패다	낭그 팬다구
22928 부스리기	부수레기, 지적빼기
22929 솟	수수깨기
22929-0-1 -이	수수깨기
22929-0-2 -을	수수깨기르 가져오나라
22929-0-3 -에	수수깨게 무루 쳐라
22930 불잉걸	△
22931 짹	쌔기 올라와따, 싸그(+대격형)
22932 잎	입쌔기, 이피
22932-0-1 -을	나무이푸
22932-1 잎사귀	입쌔기, 입쌔기르
22933 가랑잎	가람니피라구
22934 뿌리	뿌리, 뿌레기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그미, 능그무
23002 돌배	돌배라
23003 복숭아	복쑤애
23004 콧감	*
23005 홍시	*
23006 고욤	*
23007 살구	살귀(+[salgũ])
23008 앵두	앵도, 앵도르, 앵도지
23009 자두	△
23010 오얏	왜애지(+원동에 있었음)
23010-0-1 -을	왜애지르 가져오나라
23011 석류	△
23012 모과	*
23013 과일	과시리, 개시리, 여르매(+[yərime])
23014 쪽지	쪽짚기
23015 밤	*
23015-1 밤송이	*
23015-2 풋밤	*
23015-3 알밤	*
23015-4 쌍동밤	*
23016 보늬	*
23017 호두	가랍토시
23018 가래(楸子)	*

23019 개암	깨애미(+원동에 있었음)
23020 머루	덜귀
23021 다래	다래(+원동에 있었음)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
23024 참외	고려차매
23025 딸기	땅딸기, 가시달기
23025-1 "딸기(발 재배)"	*
23025-2 "딸기(발 야생)"	땅딸기
23025-3 "딸기(들 재배)"	*
23025-4 "딸기(들 야생)"	땅딸기
23025-5 "딸기(산 재배)"	*
23025-6 "딸기(산 야생)"	가시달기
23026 뱀딸기	*
23027 마름(菱)	*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꼭때기
23102 기슭	산지슬기
23102-0-1 -에	산지슬게서
23103 골짜기	상폴채, 상폴째기
23104 메아리	△, cf. 사니 우러난다
23105 고향	아부재기 친다
23105-1 (고향) 치다/지르다/하다	친다
23106 묘	모이라구, 모이 크다, 모오르 간다, 무덤이라구
23107 뿔자리	산짜리 불라명킨다
23107-1 광중	△
23108 구덩이	구러~어~ 판다, 구러~이두 너르다
23109 비탈	△, cf. 네리매기, 네리마기, 올리매기
23110 가파르다	강하다, 강해서
23111 언덕	언테기 저따, 언더그 너머가따
23112 낭떠러지	베락때라구
23113 들(野)	뜨리
23113-0-1 -에	뜨레서 일한다

23114 벌	벌파니, 벌파이라구, 벌판
23115 갈림길	세가달 지리, 갈가지능 기리라구
23116 헤어지다	갈가져따, 갈가지자
23117 바위	돌빠우지
23117-0-1 -을	△
23117-0-2 -에	돌빠우에
23118 돌(石)	도리지
23118-0-1 -을	도르
23118-0-2 -에	도레 달기 마자따
23119 자갈	자작또리
23120 모래	모새 만타
23120-0-1 -를	모새르
23121 진흙	즌홀기지
23121-1 찰흙	△, cf. 개홀기라구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르
23202 거품	더푸미
23203 개운하다	씨워:나다, 거뿌나다, 거뿌내
23204 도랑	도래, 도래 너르다, 도랑두 너르다, 물또래
23204-1 붓도랑	논또래애지, 논또래애두, 논또라~아, 논또랑두
23205 독	뚜기, 논뚜기
23206 잠기다	쟁게찌
23207 개울	물깨애니(+가~이{강} > 물깨애니{개울} > 도래애{도랑})
23208 내(川)	물깨애니
23209 미역 감다	모역한다
23210 발가숭이	버얼개
23211 목욕하다	모역.할라가따, 모역.한다
23212 수채	△, cf. 자시무리 나가는 구야
23213 개골창	도라~아~ 만드러찌
23214 시궁창	△, cf. 개핼물 씨근데, 구정물, 가븨무레 빠져따
23215 웅덩이	웅더~이(+[uŋd̥äy]), 웅더~, 웅덩부터, cf. 즌타~이(+[čintäy])
23216 수렁	증개구레 빠져따
23217 늪	느피
23217-0-1 -에	느페
23218 배(船)	배·라 하지, 차이, 찬, 차느
23219 나루터	△
23220 돛	푸~이구, 푸~우 쳐찌, 풍두
23220-0-1 -에	푸~에

23221 돛대	도때지
23222 돛배	△, cf. 푸~우 단 배
23223 돛 줄	△, cf. 푸~에 단 주리
23224 돛줄	다티, 다쭈리(+제?)
23225 거루	△
23226 상앗대	△
23227 개(펄)	△
23228 물	△
23228-0-1 -으로	△
23229 밀물	△
23230 썰물	△
23231 가라앉다	까란찌
23232 그물	구무리, 구무루(+대격형)
23233 해녀	*

## 2.11.3. 시 후

23301 새벽	새바기
23302 새벽밥	조바니, 조바느
23303 아침	아즈미, 아츨두
23304 아침밥	아치미, 아즈미라지
23305 점심	정시미지, 정슴 머거라
23306 저녁	저녕 머거라, 저너기, 저녁뿌터, 저너그
23307 설핏하다	△
23308 노을	느부리(+[niburi])
23308-0-1 -을	느부리르
23309 불그레하다	버얼거치, 벌게스레:, 불그스레:
23310 해거름	△
23311 땅거미	△
23312 봄	보미, 보메
23313 여름	여르미지
23314 더위	더비르 머거따
23315 추위	치비 나따
23316 가을	가스리, 가스리지, 가슬부터
23316-0-1 -에	가스레
23317 겨울	동새미, 동사미, 동삼두
23317-0-1 -에	동사메두 머꾸
23318 얼음	어리미 데지, 어름두
23319 오늘	오늘
23320 내일	내일, 내일 온다

23321	모레	모레
23322	글피	글피
23323	그글피	그글피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그저께
23326	그그저께	그그저께
23327	훗날	훗나레, →후제
23328	하룻날	초할리, 초하룻날
23329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부터
23330	사흘날	사은날(+[sa <sup>h</sup> innar]), 사은날부터
23331	나흘날	나은날, 나은나레
23332	닷새날	다쎌나리, 다쎌나레
23333	엿새날	여쎌날
23334	이렛날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야드렌날
23336	아흐렛날	아으렌날
23337	열흘날	여를랄
23338	하루	하르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으(+[sa <sup>h</sup> i])
23341	나흘	나으(+[na <sup>h</sup> i])
23342	닷새	다쎌
23343	엿새	여쎌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야드레
23346	아흐레	아으레
23347	열흘	여를, 여르
23348	한나절	반날
23348-1	반나절	△
23349	그믐	그미미라, 그므미 온다
23349-1	그믐께	그믐께
23350	지금	지금 이르 해애라
23351	아직	안죽
23352	이제	이제
23353	이미	발쎌, cf. 즐거{미리, 앞서}
23354	요즈음	이세 어떠냐, 이지가니 어떠냐
23355	금방	곰만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배치, 해배치
23401-0-1	-이	배치, 해배치
23401-0-2	-을	베트, 해베츠
23402	따스하다	따따:사다, 따따:새 조타
23403	아지랑이	△
23404	웅달	능다리, 그느리라구
23405	양달	△
23406	비(雨)	비지
23407	가랑비	△
23408	이슬비	△
23409	안개	앙개
23410	눈개	즌새
23411	무지개	무지개 서파
23412	소나기	소낙베찌
23413	갑자기	불셀르
23414	홍수	무리저따
23415	번개	병개 친다
23416	천둥	소내기 운다
23417	벼락	베래기 친다
23418	무섭다	무셔:바서, 무세에바서
23419	함박눈	누니, 눈, 누이지, 누이오지
23420	싸락눈	싸랑누이
23421	발자국	발짜기
23422	진눈깨비	능개베 온다
23423	우박	박쎌
23424	고드름	고조리
23425	햇무리	해 머리르 언저따, 해 따바리 에에따
23426	달무리	달 머리르 에와따, 달 머리르 언저따
23427	등글다	또리또리사다, 또리또리새·보기조타
23428	은하수	* cf. 삼태장베리{삼태성}, 치쎌베리{북두칠성}
23429	금성	새베리
23430	가뭇	가무리
23431	마르다	말라드러따
23431-0-1	-어서	말라찌
23432	위	우우루, 우에
23433	아래	아래르
23434	왼쪽	웬짜기
23435	오른쪽	오른짜기
23436	결	저티라구
23436-0-1	-에	저테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돌개바르미  
 →북푸~이  
 △  
 △  
 △

## 제3편 음운

### 3.1. 음운체계

####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2 테(輪)-보다

31002-0-1 태(胎)-이/가

31002-0-2 태(胎)-보다

31003-0-1 떼(群)-이/가

31003-0-2 떼(群)-보다

31004-0-1 때(時)-이/가

31004-0-2 때(時)-보다

31005-0-1 틀(機)-이/가

31005-0-2 틀(機)-보다

31006-0-1 털(毛)-이/가

31006-0-2 털(毛)-보다

31007-0-1 글(文)-이/가

31007-0-2 글(文)-보다

31008-0-1 걸(옷)-이/가

31008-0-2 걸(옷)-보다

31009-0-1 기(旗)-이/가

31009-0-2 기(旗)-보다

31010-0-1 귀(耳)-이/가

31010-0-2 귀(耳)-보다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2 시(生時)-보다

31012-0-1 쉬(蠅卵)-이/가

테(+이 지역은 선행 음절의 모음이 전설 모음인 경우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지 않음. 이형태 ‘-가’는 없음.)

테보다

태지

이 태보다

떼 지나간다구

떼마{떼보다}

때, 먹을 때

때마{때보다}

트리라, 트리

이 틀마{이 틀보다}

터리라 하지{털이라 하지}

터리마{털보다}

그리{글이}, 그르 쓴다{글을 쓴다}

이 글마{이 글보다}

\*

\*

기

기마 : {기보다}

퀄루(+[küllu]){귀로}, 귀 너르다(+[kü]), cf. 귀꾸야~ : 너  
 르다{귀구멍 났다}

귀마(+[küma]){귀보다}

다스씨{다섯시}, 시가이짐{시간이지 뭐}

다스씨보다{다섯시보다}

쉬르 쓰지(+[süri], 대격형)

31012-0-2	쉬(蠅卵)-보다	쉬마(+[süma]){쉬보다}	31032-0-2	되(升)-보다	△
31013-0-1	쇠(鐵)-이/가	쇄라 하지(+[swɛraɸajɪ])	31033-0-1	계:(蟹)-이/가	계(+[ke])
31013-0-2	쇠(鐵)-보다	쇄마(+[swɛma]){쇠보다}	31033-0-2	계:(蟹)-보다	△
31014-0-1	외:국(外國)-이/가	외구구루(+[öguguru])	31034-0-1	개:(犬)-이/가	개
31014-0-2	외:국(外國)-보다	외궁마(+[öguŋma]){외국보다}	31034-0-2	개:(犬)-보다	개마두 모타다{개만도 못하다}
31015-0-1	왜국(倭國)-이/가	*			
31015-0-2	왜국(倭國)-보다	*			
[보충]					
31016	쉬:다(休)-더라	쇄에라, 쉰다 하지(+[sünda])	31035-0-1	여럿(多)-이/가	여래
31017	쇠:다(설을~)-더라	멩시르 쇄애라(+[swɛɛra]), 멩시르 새애라, 멩시르 쉰다 {멩질을 쉰다}, 멩시르 쉰다(+[swenda])	31035-0-2	여럿(多)-보다	여래보다, 여래더리
		배	31035-0-3	여럿(多)-을/를	△
31018-0-1	베(布)-이/가	배마{배보다}, 배라구 하지	31036-0-1	물결(波)-이/가	물멀기, →물꺼리
31018-0-2	베(布)-보다		31036-0-2	물결(波)-보다	물결보다
31019-0-1	배(船)-이/가	배두 이찌	31036-0-3	물결(波)-을/를	물꺼르
31019-0-2	배(船)-보다	배마{배보다}	31037-0-1	예:의(禮儀)-이/가	예모바르다
31020-0-1	배(腹)-이/가	배뿌러따{배가 불렀다}	31037-0-2	예:의(禮儀)-보다	예모마
31020-0-2	배(腹)-보다	배라 하구	31037-0-3	예:의(禮儀)-을/를	예모르
31021-0-1	(떡)메-이/가	멍메	31038-0-1	계:획(計劃)-이/가	게라니라구(+‘계획’을 러시아 어로만 알고 있어 ‘계란’으로 조사함)
31021-0-2	(떡)메-보다	멍메마{떡메보다}, 멩메르 치지			
31022-0-1	매(鞭)-이/가	매르 친다하지, cf. 화차릴 가지구{화초리를 가지고}	31038-0-2	계:획(計劃)-보다	게란마
31022-0-2	매(鞭)-보다	△	31038-0-3	계:획(計劃)-을/를	게라느
31023-0-1	메:다(擔)-더라	다라매지	31039-0-1	규칙(規則)-이/가	*
31023-0-2	메:다(擔)-어서	다라매라	31039-0-2	규칙(規則)-보다	*
31024-0-1	매:다(繫)-더라	매구 간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
31024-0-2	매:다(繫)-어서	매애라	31040-0-1	휴일(休日)-이/가	*
31025-0-1	떼:다(分離)-더라	뎌다 하지, 뎌다구	31040-0-2	휴일(休日)-보다	*
31025-0-2	떼:다(分離)-어서	뎌라	31040-0-3	휴일(休日)-을/를	*
31026-0-1	때:다(炊)-더라	때구 이서{때고 있어}	31041-0-1	교통(交通)-이/가	*
31026-0-2	때:다(炊)-어서	때애라	31041-0-2	교통(交通)-보다	*
31027-0-1	베:다(切斷)-더라	베구 이따	31041-0-3	교통(交通)-을/를	*
31027-0-2	베:다(切斷)-어서	베에라	31042-0-1	효:자(孝子)-이/가	교사
31028-0-1	배:다(孕胎)-더라	뱅거 가따{뎌 것 같다}	31042-0-2	효:자(孝子)-보다	교사마
31028-0-2	배:다(孕胎)-어서	배따	31042-0-3	효:자(孝子)-을/를	교사르
31029-0-1	셈:다(算)-더라	셈 세지	31043-0-1	웬일(何事)-이/가	웬니리나
31029-0-2	셈:다(算)-어서	세무 쉰다	31043-0-2	웬일(何事)-보다	△
31030-0-1	새:다(漏泄)-더라	샌다	31043-0-3	웬일(何事)-을/를	△
31030-0-2	새:다(漏泄)-어서	새구 이따	31044-0-1	궤:(軺)(櫃)-이/가	궤에다
31031-0-1	뒤(後)-이/가	두이라구, cf. 발두추기{발뒤축}	31044-0-2	궤:(軺)(櫃)-보다	궤마
31031-0-2	뒤(後)-보다	두우루 바라{뒤를 봐라}	31044-0-3	궤:(軺)(櫃)-을/를	궤르
31032-0-1	되(升)-이/가	한되 두되(+[tö])	31045-0-1	왜란(倭亂)-이/가	*

31045-0-2 왜란(倭亂)-보다	*
31045-0-3 왜란(倭亂)-을/를	*
31046-0-1 헛대(鷄架)-이/가	해때르
31046-0-2 헛대(鷄架)-보다	해때마
31046-0-3 헛대(鷄架)-을/를	해때르
31047-0-1 원망(怨望)-이/가	원썬(+[wəns'ü])(원수)
31047-0-2 원망(怨望)-보다	원썬르
31047-0-3 원망(怨望)-을/를	원썬다
31048-0-1 권:투(拳鬪)-이/가	두두릴레기
31048-0-2 권:투(拳鬪)-보다	권한다
31048-0-3 권:투(拳鬪)-을/를	권하구
31049-0-1 의논(議論)-이/가	으사, 이사덜{의사들}
31049-0-2 의논(議論)-보다	이사마
31049-0-3 의논(議論)-을/를	이사르
31050-0-1 무늬(紋)-이/가	무니라구, 무니
31050-0-2 무늬(紋)-보다	무누마
31050-0-3 무늬(紋)-을/를	무누 바라
31051-0-1 왕(王)-이/가	와이라
31051-0-2 왕(王)-보다	왕마
31051-0-3 왕(王)-을/를	와~아~
31052-0-1 과자(菓子)-이/가	당겨, 과실, 과시리
31052-0-2 과자(菓子)-보다	과실마
31052-0-3 과자(菓子)-을/를	과시르

###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일'
31053-0-2 일(一)-보다	일'보다
31054-0-1 일:(事)-이/가	일'하지
31054-0-2 일:(事)-보다	일'마
31055-0-1 매(鞭)-이/가	*
31055-0-2 매(鞭)-보다	*
31056-0-1 매:(鷺)-이/가	매'두
31056-0-2 매:(鷺)-보다	매'마, 매'느
31057-0-1 밤(夜)-이/가	바'미
31057-0-2 밤(夜)-보다	밤'마
31058-0-1 밤:(栗)-이/가	밤', 바'미
31058-0-2 밤:(栗)-보다	밤'마
31059-0-1 눈(眼)-이/가	누'니, 누'늘르
31059-0-2 눈(眼)-보다	눔'마

31060-0-1 눈:(雪)-이/가	누'니
31060-0-2 눈:(雪)-보다	눔'마
31061-0-1 말(馬)-이/가	마리'
31061-0-2 말(馬)-보다	말보'다
31062-0-1 말:(𪛑)-이/가	*
31062-0-2 말:(𪛑)-보다	*
31063-0-1 말:(言)-이/가	말'하지, 마'리만타
31063-0-2 말:(言)-보다	말'말구
31064-0-1 손(客)-이/가	손'니미, 나그'내 와따
31064-0-2 손(客)-보다	손'니무, 손'님부터
31065-0-1 손(手)-이/가	소'니지
31065-0-2 손(手)-보다	숨'마
31066-0-1 손:(孫)-이/가	충'구니
31066-0-2 손:(孫)-보다	손'네나
31067-0-1 배(梨)-이/가	배두'
31067-0-2 배(梨)-보다	배마'
31068-0-1 배:(倍)-이/가	고비'지
31068-0-2 배:(倍)-보다	△
31069-0-1 벌(罰)-이/가	버'르
31069-0-2 벌(罰)-보다	벌'마, 벌'두
31070-0-1 벌:(蜂)-이/가	버'리지
31070-0-2 벌:(蜂)-보다	벌'마
31071-0-1 솔(松)-이/가	소'리
31071-0-2 솔(松)-보다	솔'마, 솔'보다
31072-0-1 솔:(刷)-이/가	소'리지
31072-0-2 솔:(刷)-보다	솔'보다
31073-0-1 줄(鉉)-이/가	주'리 짜르다
31073-0-2 줄(鉉)-보다	줄'보다
31074-0-1 줄:(연장)-이/가	쎄'르 케는 토비
31074-0-2 줄:(연장)-보다	△
31075-0-1 돌:(石)-이/가	도'리
31075-0-2 돌:(石)-보다	돌'마
31076-0-1 담(牆)-이/가	토'대미라구, 다'무
31076-0-2 담(牆)-보다	담'마
31077-0-1 담:(膽)-이/가	△
31077-0-2 담:(膽)-보다	△
31078-0-1 들:(野)-이/가	뜨'리
31078-0-2 들:(野)-보다	뜰'마
31079-0-1 달-(懸)-고	다라'매지
31079-0-1 달-(懸)-더라	달'구, 다'라라

31080-0-1 달-(甘)-더라	다다, 달터'라
31080-0-1 달-(甘)-고	다라'서
31081-0-1 달-(熱)-고	달'더라
31081-0-1 달-(熱)-더라	다라'라
31082-0-1 갈-(換)-더라	간'다
31082-0-1 갈-(換)-고	갈'구, 가'라따
31083-0-1 갈-(磨)-고	갈'구
31083-0-1 갈-(磨)-더라	가'라라
31084-0-1 갈:-(耕)-더라	간'다, 갈'구
31084-0-1 갈:-(耕)-고	가'라라
31085-0-1 걷-(收)-고	거두'지, 거두'자
31085-0-1 걷-(收)-더라	거더'라
31086-0-1 걸:-(步)-더라	걸'른다
31086-0-1 걸:-(步)-고	걸'따
31087-0-1 적-(書)-고	저거'라
31087-0-1 적-(書)-더라	저꾸'이따
31088-0-1 적:-(小)-더라	작'따
31088-0-1 적:-(小)-고	자'가서

## 3.2. 음운과정

### 3.2.1 활용

32001-0-1 막-(防)[ㄱ]-지	막찌
32001-0-2 막-(防)[ㄱ]-고	막꾸
32001-0-3 막-(防)[ㄱ]-더라	막떠라
32001-0-4 막-(防)[ㄱ]-으니까	마그이
32001-0-5 막-(防)[ㄱ]-아/어(왔/었다)	마가라
32002-0-1 흐르-(流)[ㅡ]-지	흐르제인다
32002-0-2 흐르-(流)[ㅡ]-고	흐르구
32002-0-3 흐르-(流)[ㅡ]-더라	흐르더라
32002-0-4 흐르-(流)[ㅡ]-으니까	흐른다
32002-0-5 흐르-(流)[ㅡ]-아/어(왔/었다)	홀러간다
32003-0-1 오-(來)[ㅏ]-지	오제애타
32003-0-2 오-(來)[ㅏ]-고	오구
32003-0-3 오-(來)[ㅏ]-더라	오더라
32003-0-4 오-(來)[ㅏ]-으니까	오이
32003-0-5 오-(來)[ㅏ]-아/어(왔/었다)	와따, 오나라

32004-0-1 듣-(聞)[ㄷ 변]-지	들찌
32004-0-2 듣-(聞)[ㄷ 변]-고	들꾸
32004-0-3 듣-(聞)[ㄷ 변]-더라	들떠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들른다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드러라
32005-0-1 많:-(多)[ㅓ]-지	망치
32005-0-2 많:-(多)[ㅓ]-고	망꾸, 만타
32005-0-3 많:-(多)[ㅓ]-더라	만터라
32005-0-4 많:-(多)[ㅓ]-으니까	마느이
32005-0-5 많:-(多)[ㅓ]-아/어(왔/었다)	마내서
32006-0-1 말-(任)[ㅌ]-지	말찌
32006-0-2 말-(任)[ㅌ]-고	마꾸
32006-0-3 말-(任)[ㅌ]-더라	마떠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마트이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마타따
32007-0-1 알:-(知)[ㄹ]-지	안다
32007-0-2 알:-(知)[ㄹ]-고	알구
32007-0-3 알:-(知)[ㄹ]-더라	알더라
32007-0-4 알:-(知)[ㄹ]-으니까	아이
32007-0-5 알:-(知)[ㄹ]-아/어(왔/었다)	아라따
32008-0-1 감:-(閉眼)[ㅁ]-지	감지 마라
32008-0-2 감:-(閉眼)[ㅁ]-고	감구
32008-0-3 감:-(閉眼)[ㅁ]-더라	감떠라
32008-0-4 감:-(閉眼)[ㅁ]-으니까	가무이
32008-0-5 감:-(閉眼)[ㅁ]-아/어(왔/었다)	가마따
32009-0-1 벗-(脫)[ㅍ]-지	빼찌 마라
32009-0-2 벗-(脫)[ㅍ]-고	빼꾸
32009-0-3 벗-(脫)[ㅍ]-더라	빼떠라
32009-0-4 벗-(脫)[ㅍ]-으니까	빼스~이
32009-0-5 벗-(脫)[ㅍ]-아/어(왔/었다)	빼서따
32010-0-1 옴:-(可)[ㅕ]-지	올타, 올채이타
32010-0-2 옴:-(可)[ㅕ]-고	올꾸
32010-0-3 옴:-(可)[ㅕ]-더라	올터라
32010-0-4 옴:-(可)[ㅕ]-으니까	오르이
32010-0-5 옴:-(可)[ㅕ]-아/어(왔/었다)	오라따
32011-0-1 입-(着衣)[ㅂ]-지	입찌 마라
32011-0-2 입-(着衣)[ㅂ]-고	입꾸
32011-0-3 입-(着衣)[ㅂ]-더라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이부이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이버따



32012-0-1	바꾸-(換)[ㄸ]-지	바꾼다, 바꾸지 마라
32012-0-2	바꾸-(換)[ㄸ]-고	바꾸구
32012-0-3	바꾸-(換)[ㄸ]-더라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ㄸ]-으니까	바꾸이
32012-0-5	바꾸-(換)[ㄸ]-아/어(았/었다)	바까따
32013-0-1	덮-(覆)[ㅍ]-지	덮찌
32013-0-2	덮-(覆)[ㅍ]-고	더꾸, 덮꾸
32013-0-3	덮-(覆)[ㅍ]-더라	덮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더꾸이
32013-0-5	덮-(覆)[ㅍ]-아/어(았/었다)	더퍼떠라
32014-0-1	물:- (問)[ㄷ 변]-지	물찌
32014-0-2	물:- (問)[ㄷ 변]-고	물꾸
32014-0-3	물:- (問)[ㄷ 변]-더라	무떠라
32014-0-4	물:- (問)[ㄷ 변]-으니까	물른다
32014-0-5	물:- (問)[ㄷ 변]-아/어(았/었다)	무러보지
32015-0-1	낫:- (癒)[ㅅ 변]-지	난췌이따
32015-0-2	낫:- (癒)[ㅅ 변]-고	나꾸
32015-0-3	낫:- (癒)[ㅅ 변]-더라	나떠라
32015-0-4	낫:- (癒)[ㅅ 변]-으니까	나스이
32015-0-5	낫:- (癒)[ㅅ 변]-아/어(았/었다)	나따, 나사져따, 나사 아이져따
32016-0-1	닫-(閉)[ㄷ]-지	다찌
32016-0-2	닫-(閉)[ㄷ]-고	다꾸
32016-0-3	닫-(閉)[ㄷ]-더라	다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다드이
32016-0-5	닫-(閉)[ㄷ]-아/어(았/었다)	다다라
32017-0-1	쫓-(追)[ㅈ]-지	쫓춘다
32017-0-2	쫓-(追)[ㅈ]-고	쫓꾸
32017-0-3	쫓-(追)[ㅈ]-더라	쫓떠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쫓추이
32017-0-5	쫓-(追)[ㅈ]-아/어(았/었다)	쫓차가
32018-0-1	베:- (枕)[ㅂ]-지	베지 마라
32018-0-2	베:- (枕)[ㅂ]-고	베구
32018-0-3	베:- (枕)[ㅂ]-더라	베더라
32018-0-4	베:- (枕)[ㅂ]-으니까	베이
32018-0-5	베:- (枕)[ㅂ]-아/어(았/었다)	베에라
32019-0-1	깨:- (破)[ㄴ]-지	깨지 마라, cf. 마사따, 마사제따
32019-0-2	깨:- (破)[ㄴ]-고	깨구
32019-0-3	깨:- (破)[ㄴ]-더라	깨더라
32019-0-4	깨:- (破)[ㄴ]-으니까	깨이
32019-0-5	깨:- (破)[ㄴ]-아/어(았/었다)	깨애타

32020-0-1	펴-(伸)[ㄷ]-지	폐지
32020-0-2	펴-(伸)[ㄷ]-고	폐구
32020-0-3	펴-(伸)[ㄷ]-더라	폐더라
32020-0-4	펴-(伸)[ㄷ]-으니까	폐이
32020-0-5	펴-(伸)[ㄷ]-아/어(았/었다)	폐따, 폐에따
32021-0-1	밝-(明)[ㄹ]-지	박찌
32021-0-2	밝-(明)[ㄹ]-고	박꾸
32021-0-3	밝-(明)[ㄹ]-더라	박떠라
32021-0-4	밝-(明)[ㄹ]-으니까	발그이
32021-0-5	밝-(明)[ㄹ]-아/어(았/었다)	발가떠라
32022-0-1	삶:- (烹)[ㄹ]-지	삼찌
32022-0-2	삶:- (烹)[ㄹ]-고	삼꾸
32022-0-3	삶:- (烹)[ㄹ]-더라	삼떠라
32022-0-4	삶:- (烹)[ㄹ]-으니까	살무이
32022-0-5	삶:- (烹)[ㄹ]-아/어(았/었다)	살마라
32023-0-1	읊-(吟)[ㅇ]-지	*
32023-0-2	읊-(吟)[ㅇ]-고	*
32023-0-3	읊-(吟)[ㅇ]-더라	*
32023-0-4	읊-(吟)[ㅇ]-으니까	*
32023-0-5	읊-(吟)[ㅇ]-아/어(았/었다)	*
32024-0-1	밟:- (踏)[ㅁ]-지	밟찌
32024-0-2	밟:- (踏)[ㅁ]-고	밟꾸
32024-0-3	밟:- (踏)[ㅁ]-더라	밟떠라
32024-0-4	밟:- (踏)[ㅁ]-으니까	발부이, 불부이
32024-0-5	밟:- (踏)[ㅁ]-아/어(았/었다)	불바라
32025-0-1	하-(爲)[ㅏ 변]-지	하지
32025-0-2	하-(爲)[ㅏ 변]-고	하구
32025-0-3	하-(爲)[ㅏ 변]-더라	하더라
32025-0-4	하-(爲)[ㅏ 변]-으니까	하이
32025-0-5	하-(爲)[ㅏ 변]-아/어(았/었다)	해에라, 헤라
32026-0-1	맷-(結)[ㅈ]-지	매찌
32026-0-2	맷-(結)[ㅈ]-고	매꾸
32026-0-3	맷-(結)[ㅈ]-더라	매떠라
32026-0-4	맷-(結)[ㅈ]-으니까	매즈이, 매즈니
32026-0-5	맷-(結)[ㅈ]-아/어(았/었다)	매자따
32027-0-1	엷:- (無)[ㅍ]-지	엷따
32027-0-2	엷:- (無)[ㅍ]-고	엷꾸
32027-0-3	엷:- (無)[ㅍ]-더라	엷떠라
32027-0-4	엷:- (無)[ㅍ]-으니까	엷쓰니
32027-0-5	엷:- (無)[ㅍ]-아/어(았/었다)	엷써서

32028-0-1	앉-(坐)[ㅅ]-지	안찌 마라
32028-0-2	앉-(坐)[ㅅ]-고	양꾸
32028-0-3	앉-(坐)[ㅅ]-더라	안떠라
32028-0-4	앉-(坐)[ㅅ]-으니까	안즈이
32028-0-5	앉-(坐)[ㅅ]-아/어(왔/었다)	안자라
32029-0-1	비비-(刮)[ㅣ]-지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비비구
32029-0-3	비비-(刮)[ㅣ]-더라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비비이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비베에따
32030-0-1	끄-(消)[ㅡ]-지	끄지
32030-0-2	끄-(消)[ㅡ]-고	끄구
32030-0-3	끄-(消)[ㅡ]-더라	끄더라
32030-0-4	끄-(消)[ㅡ]-으니까	끄이
32030-0-5	끄-(消)[ㅡ]-아/어(왔/었다)	꺼라
32031-0-1	꺾-(折)[ㅍ]-지	꺾찌 마라
32031-0-2	꺾-(折)[ㅍ]-고	꺼꾸, 끄닌다
32031-0-3	꺾-(折)[ㅍ]-더라	꺾떠라
32031-0-4	꺾-(折)[ㅍ]-으니까	꺼끄이
32031-0-5	꺾-(折)[ㅍ]-아/어(왔/었다)	꺼꺼라
32032-0-1	신:-(-履)[ㄴ]-지	신지 마라, 신찌 마라
32032-0-2	신:-(-履)[ㄴ]-고	싱구, 싱꾸
32032-0-3	신:-(-履)[ㄴ]-더라	신평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신느이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시너라
32033-0-1	보-(視)[ㅂ]-지	보지
32033-0-2	보-(視)[ㅂ]-고	보구
32033-0-3	보-(視)[ㅂ]-더라	보더라
32033-0-4	보-(視)[ㅂ]-으니까	보이
32033-0-5	보-(視)[ㅂ]-아/어(왔/었다)	바라
32034-0-1	추-(舞)[ㅈ]-지	추지, 춘다
32034-0-2	추-(舞)[ㅈ]-고	추구
32034-0-3	추-(舞)[ㅈ]-더라	추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추이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취라
32035-0-1	피우-(吸煙)[ㅍ]-지	피우지
32035-0-2	피우-(吸煙)[ㅍ]-고	피우구
32035-0-3	피우-(吸煙)[ㅍ]-더라	피우더라
32035-0-4	피우-(吸煙)[ㅍ]-으니까	피운다, 피우이
32035-0-5	피우-(吸煙)[ㅍ]-아/어(왔/었다)	피와라

32036-0-1	서-(立)[ㅅ]-지	서지 마라
32036-0-2	서-(立)[ㅅ]-고	서구, 서마 이따
32036-0-3	서-(立)[ㅅ]-더라	서더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서이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서라
32037-0-1	기-(匍腹)[ㅣ]-지	기지, 긴다
32037-0-2	기-(匍腹)[ㅣ]-고	기구
32037-0-3	기-(匍腹)[ㅣ]-더라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기이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게에라
32038-0-1	이-(戴)[ㅣ]-지	이지
32038-0-2	이-(戴)[ㅣ]-고	이구
32038-0-3	이-(戴)[ㅣ]-더라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이이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에에따
32039-0-1	아니-(否)[ㅣ]-지	아이다
32039-0-2	아니-(否)[ㅣ]-고	아이구, 아이꾸마, 아이꼬마
32039-0-3	아니-(否)[ㅣ]-더라	아이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아이이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아이오
32040-0-1	되-(升)[ㅂ]-지	되지(+‘되’의 ‘ㅂ’는 [ö])
32040-0-2	되-(升)[ㅂ]-고	되구(+‘되’의 ‘ㅂ’는 [ö])
32040-0-3	되-(升)[ㅂ]-더라	되더라(+‘되’의 ‘ㅂ’는 [ö])
32040-0-4	되-(升)[ㅂ]-으니까	되이(+‘되’의 ‘ㅂ’는 [ö])
32040-0-5	되-(升)[ㅂ]-아/어(왔/었다)	돼애라
32041-0-1	있-(有)[ㅅ]-지	이찌
32041-0-2	있-(有)[ㅅ]-고	이꾸
32041-0-3	있-(有)[ㅅ]-더라	이떠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이스~이, 이스니
32041-0-5	있-(有)[ㅅ]-아/어(왔/었다)	이서라
32042-0-1	놓-(放)[ㅎ]-지	노치(+[nočʰi])
32042-0-2	놓-(放)[ㅎ]-고	노쿠
32042-0-3	놓-(放)[ㅎ]-더라	노터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노오이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놉아따
32043-0-1	훑-(扱)[ㅍ]-지	홀찌 마라(+[ɸulč'i])
32043-0-2	훑-(扱)[ㅍ]-고	홀꾸(+[ɸulk'u])
32043-0-3	훑-(扱)[ㅍ]-더라	홀떠라(+[ɸultʰara])
32043-0-4	훑-(扱)[ㅍ]-으니까	홀트이(+[ɸultʰai])
32043-0-5	훑-(扱)[ㅍ]-아/어(왔/었다)	홀터라(+[ɸultʰara])

32044-0-1 곱:-[麗]-[니 변]-지 곱찌, 곱따  
32044-0-2 곱:-[麗]-[니 변]-고 곱꾸  
32044-0-3 곱:-[麗]-[니 변]-더라 곱떠라  
32044-0-4 곱:-[麗]-[니 변]-으니까 고우이  
32044-0-5 곱:-[麗]-[니 변]-아/어(왔/었다) 고바따  
32045-0-1 쥐:-[握]-[기]-지 쥐지(+‘쥐’의 ‘기’는 [ü])  
32045-0-2 쥐:-[握]-[기]-고 쥐구(+‘쥐’의 ‘기’는 [ü])  
32045-0-3 쥐:-[握]-[기]-더라 쥐더라(+‘쥐’의 ‘기’는 [ü])  
32045-0-4 쥐:-[握]-[기]-으니까 쥐이(+[ëüii])  
32045-0-5 쥐:-[握]-[기]-아/어(왔/었다) 쥘에떠라, 쥘에서  
32046-0-1 가-(去)[ㅏ]-지 가지, 가재이꾸, 가재이쿠  
32046-0-2 가-(去)[ㅏ]-고 가구, 가가라  
32046-0-3 가-(去)[ㅏ]-더라 가더라  
32046-0-4 가-(去)[ㅏ]-으니까 가이  
32046-0-5 가-(去)[ㅏ]-아/어(왔/었다) 가따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멍는다, 먹찌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라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뜯떠라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뜯더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가트지, 가트다, 가트기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태서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야따, 야꾸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태서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 cf. 헤쳐나아따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날구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라올라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울구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러서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인다, 일구  
32054-0-2 "일:-[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라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얼제에따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찌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넘는다, 넘구, 넘꾸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나따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숨찌, 숨기지, 곱치운다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라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혈쿠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허래서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눅찌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버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집찌, 짐는다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버라  
32061-0-1 "밋:-[憎]-지 -고 -더라" 밋따, 밋꾸  
32061-0-2 "밋:-[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버서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노푸다, 높따, 높꾸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파서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지찌, 진는다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어라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부찌, 분는다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따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우찌, 운는다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라  
32066-0-1 "짖-(吠)-지 -고 -더라" 지꾸, 진는다  
32066-0-2 "짖-(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라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꼬꾸, 꼽는다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바라  
32068-0-1 "낱-(產)-지 -고 -더라" 나터라  
32068-0-2 "낱-(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아따  
32069-0-1 "땡:-[辮]-지 -고 -더라" 따꾸, 따치  
32069-0-2 "땡:-[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아라  
32070-0-1 "꺾-(切)-지 -고 -더라" 끄너지  
32070-0-2 "꺾-(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네라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이럼따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럼써서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이르지, 이른다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거라  
32073-0-1 "땨:-[澁]-지 -고 -더라" 텃끼두  
32073-0-2 "땨:-[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텃버서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옴떠라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마따  
32075-0-1 "뚫:-[貫]-지 -고 -더라" 뚫는다, 뚫꾸  
32075-0-2 "뚫:-[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뚫버라  
32076-0-1 "꺾-(脆)-지 -고 -더라" 끌꾸  
32076-0-2 "꺾-(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라  
32077-0-1 "닿-(抗 연필 심이)-지 -고 -더라" 다스더라  
32077-0-2 "닿-(抗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스러따, 다라따  
32078-0-1 "달:-[煎 솥에서 장이]-지 -고 -더라" 달구, 달제에따  
32078-0-2 "달:-[煎 솥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찹찌, cf. 짜지{{옷을} 짜지}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바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말지 마라, 만다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라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쓰지, 쓴다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라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오르즈 마라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간다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바쁘더라, 바쁘다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서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배고푸다, 고푸다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푸서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쏘지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파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꾸더라, 꺼다(+’꺼’의 ‘기’는 [ü])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에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다듬찌, 다듬는다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드마라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전디더라, 전딘다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테서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마르구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라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끼더라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에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마이더라, 마이지 마라, 마인다, 마신다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세라, 마에떠이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세더라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서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게페논는다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페나아라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두드리지, 두드린다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두레라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케지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케라  
 32097-0-1 "썰-(바람을)-지 -고 -더라" 썰오구(+’썰’의 ‘기’는 [ö])  
 32097-0-2 "썰-(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와파(+’썰’의 ‘기’는 [ö])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췌지 아네따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에서  
 32099-0-1 "쉬-(體)-지 -고 -더라" 쉬지 아네따(+’쉬’의 ‘기’는 [ü])

32099-0-2 "쉬-(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에따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히지, 히다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에서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닥찌, 당는다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까라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앙구 인는다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나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무찌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더라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부더라, 분다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러라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빠더라, 뻔다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빠라라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죽췌에따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거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거떠라, 걸떠라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러맹킨다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가무더라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무러서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자불구, 자분다(+’자’의 ‘즈’은 [c])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부러서(+’자’의 ‘즈’은 [c])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쓸지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라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감쩍(+[kamč’i]), 감는다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마라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더듬꾸, 더듬는다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마라  
 32113-0-1 "끓-(炙)-지 -고 -더라" 끓찌  
 32113-0-2 "끓-(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버라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무겁따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거바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이꾸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서라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비꾸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라  
 32117-0-1 "까맣-(黑)-지 -고 -더라" 까아마타  
 32117-0-2 "까맣-(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아매서  
 32118-0-1 "넣-(入)-지 -고 -더라" 여치  
 32118-0-2 "넣-(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어라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골꾸, 골른다구두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콰아라, 콰아따, 고아따  
32120-0-1 "얹:-(-載)-지 -고 -더라" 영꾸  
32120-0-2 "얹:-(-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라  
32121-0-1 "귀찮:-(-囁)-지 -고 -더라" 귀채이타, 귀차제이타  
32121-0-2 "귀찮:-(-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제에서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바르지, 바른다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라라, →발가라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막따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서  
32124-0-1 "끓:-(-膿)-지 -고 -더라" 곰재애타  
32124-0-2 "끓:-(-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따  
32125-0-1 "끓:-(-太)-지 -고 -더라" 국따, 국떠라  
32125-0-2 "끓:-(-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서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여따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여떠라  
32127-0-1 "쐬:-(-春)-지 -고 -더라" 쓸꾸  
32127-0-2 "쐬:-(-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러라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일터라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따, 이레빼레찌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할쿠이따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라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짜르다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짧가서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놀라지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놀라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자구이따, 자더라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거라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모타구, 모탄다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태서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모르구, 모른다(+‘모’의 ‘ㅁ’는 [o])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몰라서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아프다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파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크더라, 크다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커서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판다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  
32138-0-1 "쑤:-(-造粥)-지 -고 -더라" 쑤구, 쑤다  
32138-0-2 "쑤:-(-造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쑤라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마추즈, 마춘다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차라  
32140-0-1 "테우:-(-燂)-지 -고 -더라" 테끼지 마라, 테우지  
32140-0-2 "테우:-(-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테께라, 테와라  
32141-0-1 "이:-(-蓋 지붕을)-지 -고 -더라" 옌다, 예지 마라  
32141-0-2 "이:-(-蓋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에라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갈기지, 갈긴다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게라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기달구지, 기달군다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달가라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세지, 센다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에라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빼지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라  
32146-0-1 "켜:-(-搥을)-지 -고 -더라" 켜다  
32146-0-2 "켜:-(-搥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케라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되구, 되다(+‘되’의 ‘ㅍ’는 [ö])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돼에서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쉬지(+‘쉬’의 ‘ㄱ’는 [ü])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쉼에라  
32149-0-1 "할퀴:-(-擻)-지 -고 -더라" 허비더라, 허빈다  
32149-0-2 "할퀴:-(-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헤베에따  
32150-0-1 "늪:-(-焦)-지 -고 -더라" \*  
32150-0-2 "늪:-(-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깨달재에따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다라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마렵떠라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바서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부꾸럽떠라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끄러바서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가참따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바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기푸다, 김떠라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퍼서  
32156-0-1 "긋:-(-劃)-지 -고 -더라" 끄치마라  
32156-0-2 "긋:-(-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꺼어찌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시꾸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쳐라  
32158-0-1 "찜:-(-搗)-지 -고 -더라" 찜는다, 찌꾸  
32158-0-2 "찜:-(-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어라  
32159-0-1 "값:-(-擻)-지 -고 -더라" 극떠라

32159-0-2 "값-(-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글거 논는다  
32160-0-1 "굶-(-飢)-지 -고 -더라"           굶떠라  
32160-0-2 "굶-(-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굶떠따  
32161-0-1 "닳-(-似)-지 -고 -더라"           담떠라  
32161-0-2 "닳-(-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마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실타, 슬타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스레서  
32163-0-1 "끓-(-𪎩)-지 -고 -더라"           끓재이따, 끓재에따  
32163-0-2 "끓-(-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빠진다  
32164-0-1 "붓-(-注)-지 -고 -더라"           부쯔, 분는다  
32164-0-2 "붓-(-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라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타구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라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마르더라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씼따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바 몸머께따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슬프다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퍼서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기뿌다, 방갑찌, 즐겁찌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빠서  
32170-0-1 "쏘-(-蠶 벌이)-지 -고 -더라"          싸더라, 쏜다  
32170-0-2 "쏘-(-蠶 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싸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주더라, 주지, 준다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줘라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재래우지, 키운다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재래와따, 키와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가두지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다여따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마스구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사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농구구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농가머거라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소기구서리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게찌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끼우더라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끼와따  
32178-0-1 "튀-(-跳)-지 -고 -더라"           띠구, 띠다  
32178-0-2 "튀-(-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떼에따  
32179-0-1 "괴-(-滯)-지 -고 -더라"           개피더라

32179-0-2 "괴-(-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페따  
32180-0-1 "여위-(-羶)-지 -고 -더라"          예비구  
32180-0-2 "여위-(-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베.따, 예베.서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맵떠라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바서  
32182-0-1 "뀌-(-尾)-지 -고 -더라"           뀌구(+’뀌’의 ‘기’는 [ü])  
32182-0-2 "뀌-(-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폐에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곤치더라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곤체따  
32184-0-1 "싣-(-載)-지 -고 -더라"           싣꾸  
32184-0-2 "싣-(-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러라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어떠라, 어더간다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더따  
32186-0-1 "빻-(-粉碎)-지 -고 -더라"          갈그넨다  
32186-0-2 "빻-(-粉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그넨다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파아라타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아래서, 파라서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따다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서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푸구, 푼다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라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누더라, 누다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오라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더럽따, 더럽췌에타, 어즈럽따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바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거두구, 거둔다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더라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끄리구, 끌른다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레라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이기더라, 이기구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게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사물거린다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물거레 모뽏개따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자빠지더라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테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일구더라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귀야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맹기구, 맹킨다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맹게라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테지구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제라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훔치구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쳐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지구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제에라, 제에떠니  
32202-0-1 "외:- (暗誦)-지 -고 -더라" \* cf. 외운다(+[öunda]), 외우구(+구구단을~)  
32202-0-2 "외:- (暗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사기우구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귀와라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씨꾸이따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거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즈다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즈러서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까부리구, 까부린다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러서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드무다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러서  
32208-0-1 "줄:- (縮)-지 -고 -더라" 쫄구  
32208-0-2 "줄:- (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쫄라따  
32209-0-1 "심:- (植)-지 -고 -더라" 수무더라, 수문다  
32209-0-2 "심:- (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라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쓰다진다, cf. 어르만진다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사무렵따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무러봉 개, 사무러바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해잡따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해까바서  
32213-0-1 "젓:- (撈)-지 -고 -더라" 저꾸이따  
32213-0-2 "젓:- (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서라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두껍따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두꺼바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물कु더라, 물쿸다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커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불러지구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저따, 부절저거따, 불거저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배우더라, 배운다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와라  
32218-0-1 "다리-(燙)-지 -고 -더라" 다리구, 다린다  
32218-0-2 "다리-(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레라  
32219-0-1 "후비-(空 귀를)-지 -고 -더라" 우비구, 우빈다

32219-0-2 "후비-(空 귀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베라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아리구, 아리다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래서  
32221-0-1 "그리-(畫)-지 -고 -더라" 그리구, 그린다  
32221-0-2 "그리-(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레라  
32222-0-1 "저리-(癲)-지 -고 -더라" 저리더라  
32222-0-2 "저리-(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러서  
32223-0-1 "불리-(憎)-지 -고 -더라" 퍼지우구, 퍼지운다, 부루더라  
32223-0-2 "불리-(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지와라, 불거 이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따따:사다, 뜨뜨:사다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따:새서, 뜨뜨:새서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끄리구, 끄린다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레라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예구, 옌다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예예 해라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구기지, 구긴다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구게라  
32228-0-1 "비:- (空)-지 -고 -더라" 비구  
32228-0-2 "비:- (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에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시키구, 시키더라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케라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매구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매애라  
32231-0-1 "매:- (結)-지 -고 -더라" 매구  
32231-0-2 "매:- (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맨다, 매애라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떠구, 떠다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떼에라, 뻬에라  
32233-0-1 "담:- (盛)-지 -고 -더라" 담구  
32233-0-2 "담:- (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마라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가람떠라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라바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때리자 한다, 때린다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레라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어둡찌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드바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잡떠라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찬다, 차구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라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모자라지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모자라서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부루구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러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째운다, 째우구, 따르구, 따른다 cf. 분는다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째와라, 따라  
 32242-0-1 "쪼:- (啄)-지 -고 -더라" 쪼꾸, 쪼는다  
 32242-0-2 "쪼:- (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쪼사 멩는다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두구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뒤라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시기더라, 시킨다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게라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지린다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뿌리구, 뿌린다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뿌레라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모다오더라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모다따, 모예따  
 32248-0-1 "만지-(搨)-지 -고 -더라" 만지구  
 32248-0-2 "만지-(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만제따  
 32249-0-1 "쨌:- (曬)-지 -고 -더라" 쨌우구, 쨌운다  
 32249-0-2 "쨌:- (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쨌와라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바탈구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타라서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도꾸, 돕꾸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도바준다, 도바주구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씹꾸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씹버라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미끄럽떠라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끄러바서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대우자구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대와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누루더라, 누룬다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눌러라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주물구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물거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메꾸구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메뛰라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고소:하다, 고소:하더라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고소:해 조타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네린다, 네리구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네레따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구불구, 구분다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구부러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만들구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만드러따  
 32262-0-1 "늙-(老)-지 -고 -더라" 늙제인다  
 32262-0-2 "늙-(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늘거따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알꾸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라따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따루구, 따른다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라한다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싸지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싸운다, 싸와따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치우구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치와라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불거지더라, 불거진다, 끄네진다, 꺾겨진다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거져서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다치우제에따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치와따, 사:에따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느지구, 느지다, 느려진다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느져서, 느려져따  
 32270-0-1 "무치-(和 나물을)-지 -고 -더라" 메운다, 메우구  
 32270-0-2 "무치-(和 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메와라  
 32271-0-1 "죄:- (締)-지 -고 -더라" 죄구(+[čögu])  
 32271-0-2 "죄:- (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궤에라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팔구, 팔지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파라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뽑꾸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뽑바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드비구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드베본다, 어더본다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마치더라, 그티나따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제따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절구구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절귀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홀구, 훈다(+자동사), 히우구, 후린다, 후리구(+타동사)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후러따(+자동사), 히위따(+타동사)  
 32278-0-1 "줍:- (拾)-지 -고 -더라" 주꾸  
 32278-0-2 "줍:- (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서라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아사빼구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사빼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지부더라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부러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아깝떠라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바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방갑따, 방갑떠라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바서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찌구, 찌다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찌라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누우러치, 노오라타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오래서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푸루더라, 푸루다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푸루러서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서두루더라, 서둘지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두러라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서거푸다, 서거푸더라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거파서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게그르더라, 게그르다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게그러서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따따:사다,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따:새 조타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침꾸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바서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따갑따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가바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미지그러:하다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그러:해에서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차다, 차더라, 차갑따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가바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불부다, 불버한다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버서  
32295-0-1 "알빔-(憎)-지 -고 -더라" \*  
32295-0-2 "알빔-(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비저:사다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저:개서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새롭떠라, 새롭따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로바따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섭떠라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설버서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까드럽떠라, 까다로분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다로바서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웨롭떠라, 웨롭따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로바서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땅따하지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땅따에서, 땅따내서  
32303-0-1 "늦-(晚)-지 -고 -더라" 느떠라, 미도르하더라  
32303-0-2 "늦-(晚)-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 와따, 느저 오더라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남더라, 지꾸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마따, 지터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남게오더라, 지치지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남게따, 지체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냉게뿌리구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냉게뿌레따  
32307-0-1 "꾸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꾸굴떼리구, 꾸굴떼리더라  
32307-0-2 "꾸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굴떼레 모쓰개따  
32308-0-1 "전주-(比)-지 -고 -더라" 전주구, 전준다  
32308-0-2 "전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쥐라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에우지, 에우개쏘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와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문대구, 문댄:다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대라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가르친다, 가르치구, 가르치운다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체라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가르치구 이따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르체 쥐라, 베와쥐라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전주구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쥐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달개구, 얼린다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개라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보느바꾸, 봄바꾸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느바다라, 봄바다라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 cf. 어즐구구이따{어지럽히고 있다}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cf. 어즐귀따{어지럽혔다}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달터라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라간다, 다라가구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우게 쓴다

32319-0-2 "우기-(扐)-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주얼거리구, 주얼거린다, cf. 두두버린다{투덜거린다}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얼거러서  
32321-0-1 "지껄이-(駢)-지 -고 -더라" 지지버리구, 지지버리한다  
32321-0-2 "지껄이-(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지버레서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땡기구, 땡긴다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땡게라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떨구더라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떨귀서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깨더라, cf. 깨어나따, 깨우더라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깨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시구지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구러  
32326-0-1 "숫-(湧)-지 -고 -더라" 소스구, 손는다  
32326-0-2 "숫-(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소사서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조타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아서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버얼거타, 빠알가치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얼개서, 빠알개서  
32329-0-1 "끌:--(曳)-지 -고 -더라" 끄스구 간다  
32329-0-2 "끌:--(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서따  
32330-0-1 "넓-(廣)-지 -고 -더라" 넓따, 너르다  
32330-0-2 "넓-(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버서, 널버서, 널거서  
32331-0-1 "하얗-(白)-지 -고 -더라" 하아야타  
32331-0-2 "하얗-(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아애

##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구기  
32332-0-2 국(羹)-을/를 구그  
32332-0-3 국(羹)-에(서) 구게  
32332-0-4 국(羹)-으로 구근  
32332-0-5 국(羹)-도 국뚜  
32333-0-1 논(沔)-이/가 노이  
32333-0-2 논(沔)-을/를 노느  
32333-0-3 논(沔)-에(서) 노네서  
32333-0-4 논(沔)-으로 노느르  
32333-0-5 논(沔)-도 논두  
32334-0-1 쌀(米)-이/가 싸리  
32334-0-2 쌀(米)-을/를 싸르

32334-0-3 쌀(米)-에(서) 싸레  
32334-0-4 쌀(米)-으로 쌀르  
32334-0-5 쌀(米)-도 쌀두  
32335-0-1 봄(春)-이/가 보미  
32335-0-2 봄(春)-을/를 보무  
32335-0-3 봄(春)-에(서) 보메  
32335-0-4 봄(春)-으로 보문  
32335-0-5 봄(春)-도 봄두  
32336-0-1 집(家)-이/가 지비  
32336-0-2 집(家)-을/를 지부  
32336-0-3 집(家)-에(서) 지비서  
32336-0-4 집(家)-으로 지부루  
32336-0-5 집(家)-도 집뚜  
32337-0-1 옷(衣)-이/가 오시  
32337-0-2 옷(衣)-을/를 오스, 오슬  
32337-0-3 옷(衣)-에(서) 오세서, 오세  
32337-0-4 옷(衣)-으로 오슨  
32337-0-5 옷(衣)-도 오뚜  
32338-0-1 방(房)-이/가 바~이, 고배~이  
32338-0-2 방(房)-을/를 바~아~  
32338-0-3 방(房)-에(서) 바~에서  
32338-0-4 방(房)-으로 바~아~르  
32338-0-5 방(房)-도 방두  
32339-0-1 낮(晝)-이/가 나지  
32339-0-2 낮(晝)-을/를 나즈  
32339-0-3 낮(晝)-에(서) 나제  
32339-0-4 낮(晝)-으로 나즈느  
32339-0-5 낮(晝)-도 나뚜  
32340-0-1 낮(顏)-이/가 나치  
32340-0-2 낮(顏)-을/를 나츠  
32340-0-3 낮(顏)-에(서) 나체  
32340-0-4 낮(顏)-으로 나촌  
32340-0-5 낮(顏)-도 나치두  
32341-0-1 부엌(廚)-이/가 부수깨  
32341-0-2 부엌(廚)-을/를 부수깨르  
32341-0-3 부엌(廚)-에(서) 부수깨에서  
32341-0-4 부엌(廚)-으로 부수깨르  
32341-0-5 부엌(廚)-도 부수깨두  
32342-0-1 밭(田)-이/가 바티  
32342-0-2 밭(田)-을/를 바트

32342-0-3 밭(田)-에(서)	바테서
32342-0-4 밭(田)-으로	바틀르
32342-0-5 밭(田)-도	바뚜
32343-0-1 앞(前)-이/가	아피
32343-0-2 앞(前)-을/를	아푸
32343-0-3 앞(前)-에(서)	아페
32343-0-4 앞(前)-으로	아폴루
32343-0-5 앞(前)-도	압뚜
32344-0-1 녋(魂)-이/가	호이
32344-0-2 녋(魂)-을/를	*
32344-0-3 녋(魂)-에(서)	*
32344-0-4 녋(魂)-으로	*
32344-0-5 녋(魂)-도	*
32345-0-1 흙(土)-이/가	홀기
32345-0-2 흙(土)-을/를	홀그
32345-0-3 흙(土)-에(서)	홀게서
32345-0-4 흙(土)-으로	홀글르
32345-0-5 흙(土)-도	혹뚜
32346-0-1 여덟(八)-이/가	야들비
32346-0-2 여덟(八)-을/를	야들부, 야드부
32346-0-3 여덟(八)-에(서)	야들베서
32346-0-4 여덟(八)-으로	야들부느
32346-0-5 여덟(八)-도	야듭뚜
32347-0-1 돌(週歲)-이/가	돌씨
32347-0-2 돌(週歲)-을/를	돌쓰
32347-0-3 돌(週歲)-에(서)	돌쎄
32347-0-4 돌(週歲)-으로	돌싼
32347-0-5 돌(週歲)-도	돌두
32348-0-1 값(價)-이/가	갑씨
32348-0-2 값(價)-을/를	갑쓰
32348-0-3 값(價)-에(서)	갑쎄서
32348-0-4 값(價)-으로	갑싼
32348-0-5 값(價)-도	갑뚜
32349-0-1 속:(內)-이/가	소기지
32349-0-2 속:(內)-을/를	소그
32349-0-3 속:(內)-에(서)	소게서
32349-0-4 속:(內)-으로	소그느
32349-0-5 속:(內)-도	속뚜
32350-0-1 돈:(錢)-이/가	도니
32350-0-2 돈:(錢)-을/를	도느

32350-0-3 돈:(錢)-에(서)	도네서
32350-0-4 돈:(錢)-으로	도늘르
32350-0-5 돈:(錢)-도	돈두
32351-0-1 밭(足)-이/가	바리
32351-0-2 밭(足)-을/를	바르
32351-0-3 밭(足)-에(서)	바레, 바레다
32351-0-4 밭(足)-으로	바르느
32351-0-5 밭(足)-도	발두
32352-0-1 짐(荷物)-이/가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지무
32352-0-3 짐(荷物)-에(서)	지메서
32352-0-4 짐(荷物)-으로	지문
32352-0-5 짐(荷物)-도	짐두
32353-0-1 입(口)-이/가	이비
32353-0-2 입(口)-을/를	이부
32353-0-3 입(口)-에(서)	이베서
32353-0-4 입(口)-으로	이불루
32353-0-5 입(口)-도	입뚜
32354-0-1 낫(鎌)-이/가	나지
32354-0-2 낫(鎌)-을/를	나즈
32354-0-3 낫(鎌)-에(서)	나제
32354-0-4 낫(鎌)-으로	나즐르
32354-0-5 낫(鎌)-도	남뚜
32355-0-1 강(江)-이/가	가~이
32355-0-2 강(江)-을/를	가~아
32355-0-3 강(江)-에(서)	가~에서
32355-0-4 강(江)-으로	가~아르
32355-0-5 강(江)-도	강두
32356-0-1 젖(乳)-이/가	저지
32356-0-2 젖(乳)-을/를	저즈
32356-0-3 젖(乳)-에(서)	저제
32356-0-4 젖(乳)-으로	저즌
32356-0-5 젖(乳)-도	저뚜
32357-0-1 꽃(花)-이/가	꼬지
32357-0-2 꽃(花)-을/를	꼬즈
32357-0-3 꽃(花)-에(서)	꼬제
32357-0-4 꽃(花)-으로	꼬즌
32357-0-5 꽃(花)-도	꼬뚜
32358-0-1 팥(赤豆)-이/가	패끼
32358-0-2 팥(赤豆)-을/를	패끼르

32358-0-3 팔(赤豆)-에(서)	패끼에
32358-0-4 팔(赤豆)-으로	패깁르
32358-0-5 팔(赤豆)-도	패끼두
32359-0-1 옆(側)-이/가	여피라구
32359-0-2 옆(側)-을/를	여푸
32359-0-3 옆(側)-에(서)	여페
32359-0-4 옆(側)-으로	여푸루
32359-0-5 옆(側)-도	엽뚜
32360-0-1 샅(賃金)-이/가	싸기
32360-0-2 샅(賃金)-을/를	싸글
32360-0-3 샅(賃金)-에(서)	싸게서
32360-0-4 샅(賃金)-으로	싸그
32360-0-5 샅(賃金)-도	싸뚜
32361-0-1 닭(鷄)-이/가	달기
32361-0-2 닭(鷄)-을/를	달그
32361-0-3 닭(鷄)-에(서)	달게서
32361-0-4 닭(鷄)-으로	달근
32361-0-5 닭(鷄)-도	닥뚜
32362-0-1 막(外)-이/가	바그티
32362-0-2 막(外)-을/를	바그트
32362-0-3 막(外)-에(서)	바그테
32362-0-4 막(外)-으로	바가틀르
32362-0-5 막(外)-도	바감뚜

## 제4편 문 법

### 4.1. 대명사

#### 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내라 하지
40101-0-1 내-가	내
40101-0-2 내	내게지, 내게오
40101-0-3 나-를	나르
40101-0-4 나-에게	내인테르, 내게다
40101-0-5 나-와	내가 가치
40101-0-6 나-는	나느
40101-0-7 나-도	나두
40102 저/제-가	내라구(+이 방언에서 ‘저/제’는 이인칭 평대 대명사로 쓰임)
40102-0-1 저-가	*
40102-0-2 저-의	*
40102-0-3 저-을/를	*
40102-0-4 저-에게	*
40102-0-5 저-와/과	*
40102-0-6 저-는	*
40102-0-7 저-도	*
40103 우리	우리 아부지다(+[aβuʃida])
40104 저희	우리
40105 너	네, 네다, 네느
40105-0-1 -가	네
40105-0-2 -의	네게냐{너의 것이냐?}
40105-0-3 -을/를	너르
40105-0-4 -에게	네게서 아사뻐다
40105-0-5 -와/과	네가
40105-0-6 -는	네느
40105-0-7 -도	너두
40106 자네	*(+지금은 주로 이름을 부름) cf. 네, 싸우! 나가바라

40107	당신	*(+‘하오’할 대상에게 간혹 쓰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름을 부름)
40108	너희	너어(+청자가 복수일 때), 네(+청자가 단수일 때)
40109	개	가아, 가아느
40109-1	애	야, 야느
40109-2	재	자아, 자아느
40110	자기	제말만{자기 말만}, 제비말만(+‘제’의 ‘ㅈ’은 [c])
40111	당신	*

##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누기 와썜두?{누가 왔습니까?}, 누기 와쑤?{누가 왔소?}
40112-0-1	누-가	누기
40112-0-2	누구-의	눠에
40112-0-3	누구-를	누기르
40112-0-4	누구-에게	누기게, 누기르, 뉘게서(+탈격형)
40112-0-5	누구-와	누기가
40113	무엇-이나/입니까	미시게냐, 무시기냐, 무시기 인냐?
40113-0-1	무엇-이	무시기냐
40113-0-2	무슨	무슨 이르 해앤냐
40113-0-3	무엇-을	무스거
40113-0-4	무엇-과	무스거까

##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어드르 간냐?
40115	언제	언제 오겐냐
40116	어느	어느
40117	왜	어째 내 우냐
40118	얼마나	얼매나 머냐
40119	어떻게	어뜨끼, 어르기

##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이게 무시게냐
40121	그것	그게, 기게
40122	저것	저게느 무시게냐
40123	여기	여기르 파라, 잉게르
40124	거기	거기르, 경게르 파라
40125	저기	저영게, 저어기르 파라(+‘저’의 ‘ㅈ’은 [c])
40126	이리	이리르 오나

40127	그리	그리르 가거라
40128	저리	저리르 가거라

## 4.2. 조사

### 1) 격조사

40201	-이/가	갑씨
40202	-이/가	코이 크다
40203	-을/를	귀르(+[küri])
40204	-을/를	비로르, 디어무, 무루
40205	-에게/게	저 사르무(+여격) 동미게서(+탈격)
40206	-보고/더러	네 누기가{너 누구와}
40207	-보고/더러	누기가
40208	-에	지베(+처소), 지부루(+방향)
40209	-에	훈나레, 내애레
40210	-에서	큰지베서
40211	-에서	알마따서{알마티에서}
40212	-에서	탈디꾸르간서 우슈토펬겨지{탈디꾸르간에서 우슈토펬까지}
40213	-으로	쌀갈글르
40214	-으로	지폴르
40215	-으로	새깁르
40216	-으로	어드르 가냐?
40217	-와/과	수박까 차메르
40218	-와/과	내가 가치 가자
40219	-보다	행마, 행보다
40220	-처럼	두투새끼처럼
40221	-만큼	네마이 키 커스무{너만큼 키 컸으면}
40222	-만큼	머글 마이 가져가가라
40223	-아/야	봉내미!, 봉나마!
40224	-아/야	봉내이! 여기르 오오!
40225	-아/야	영수! 여기르 오나라
40226	-아/야	누애!, 누이! 여기르 오오
40226-1	-예	느배! 이리 오오
40227	-아/야	크라바이! 여기르 오웁쑤
40227-1	-요	*(+주로 이름을 부름)
40228	-이랑	수우리랑 떠기랑 마이 머거따
40229	-커녕	만냐~아커사느

2) 보조사

40230 -은/는	수우르는 머거두 땀배느 아이 피운다
40231 -만	딸만
40232 -도	키두 크구 나치두
40233 -마다	날마지, 날마지르, 날마질, cf. 이태배기다(+술 주정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태백이다}
40234 -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	내일꺼지(+구), 내일까지(+신)
40236 -조차	→마일물아부라{마실 물조차}, cf. 모욕할 무르 커사{목욕할 물은 커녕}
40236-1 -할라	△, 비오는데 나가지 마라
40237 -이야/야	마리사 잘하지{말이야 잘 하지}
40238 -을랑	△, 마른{말은}
40239 -이라도	부재래두
40240 -밖에	네배께 업따
40241 -가지고	보에 싸가즈구(+[s'agaŋigu]), 싸가즈구 가따(+[s'agaŋigu])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오라구 해따, 오란다
40243 알았어-요	*
40244 했지-요?	*, cf. 뉘기 이러케 해애썸두?

4.3 종결어미

40301 -아라	안자라
40302 -게	안쏘
40303 -으오	안쏘 하지
40304 -으십시오	안썸썸
40305 -세요	안썸썸 하지
40306 -자	나두 가치 가자
40307 -세	가치 가자
40308 -으오	가치 가시오
40309 -십시오	가김썸, 가기입썸
40310 -세요	가기입썸
40311 -니	비 오냐?
40312 -나	비 오냐?
40313 -오	비 오오?
40314 -습니까	비 오옴두?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십니까
40320 -세요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시오
40330 -으세요
40331 -아

40332 -지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40 -입니까
40341 -이시지요
40342 -이시지요
40343 -이냐?
40344 -인가?
40345 -이오?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비 오옴두?
어드르 가냐?
어드르 가냐?
어드르 가오?
어드르 가암두?
어드르 가암두?
잘멍는다
잘멍는다
먹쏘
잘먹쓰꼬마
먹쓰꼬마
네게 작따{너에게 작다}
작따
작쏘
작쓰꼬마
작쓰꼬마
어드메 아프냐(+다), 어드메 아프오, 어드메 아파?(+소, 남편, 딸, 친구 등에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제보자는 쓰지 않음)
해애찌비
생진나리다
네 생지니냐?
생진나리다
새지이냐?, 생지이야?, 생진나리야?
생진나리오
내이리 생지이오?, 생진나리오?
새~일나리꾸마, 생진나리꾸마
생진나림두?
생지니입꾸마, 생진나리꾸마, 새~일나리꾸마
새이림두?, 생진나림두?
네 소네 미시기냐?{네 손에 무엇이냐?}
미시게냐?, 미시기냐?, 미시게야?, 무시게냐?
미시게오?
무시겜두?
무시겜두?
소네 미시게냐?
네 소네 미시게냐?
마안쓰꼬마, 만쓰꼬마, 해애쏘다
만썸떠구마
잘멍는구나

40353	-능구먼/구먼	잘먹꾸마
40354	-일세	오람마니구나
40355	-으마	주마
40356	-음세	주마, cf. 주우꼬마(+합쇼할 대상에게 씀)
40357	-올라	베올라, 카레 베올라 멍심해라{칼에 베일라 멍심해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머꾸서
40402	-으면서	바부 머그메
40403	-어/-어서	치바서, 너무 치와서(+[ʧhiβasə])
40404	-으니 /-으니까	뜨뜨 : 사이 자부레미 온다
40405	-관테	이리길래, 무슨 일래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보거든(+소), 보문(+다)
40408	-더라도	먹떠래두, 바부 머거두
40409	-으려고	어부러 먹짜구(+다), 어부러 머글라구(+소)
40410	-도록	죽뚜라 일해따, cf. 죽께 일해따 하지
40411	-을수록	만트리비, 노폴사로, 월그비 작뜨리비{월급이 적을수록}, 만트리, 사니 뽀뜨리{산이 높을수록}
40412	-듯이	물쓰드시
40413	-지	챙만보지

## 4.5 주체존대

40501	-셔	*, 오오(+이 지역에서는 주체 존대 ‘-시-’를 쓰지 않음) 지슴 다 매애쏘?(+이 지역에서는 주체 존대 ‘-시-’를 쓰지 않음)
40502	-졌소	

## 4.6. 시제

40601	웃는다	운는다
40602	기어간다	게에간다, 긴다
40603	크다	크다
40604	생일이다	생진나리다
40605	오고 있다	비온다, 이서따{있었다}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머건냐?
40607	왔었다	와서따(+‘-왔/였-’이 ‘-앗/엇-’으로 나타남), cf. 와때따
40608	먹더라	잘먹떠라

40609	먹더냐	먹떠냐?
40610	만나는 친구	만나는 동미다, 보는 동미다
40611	만난 친구	어제 본 동미다
40612	만났던 친구	만나뻘 동미르 차자따
40613	만날 친구	만날 동미다
40614	큰 아이	키큰 아다
40615	크던 아이	크던 아다
40616	컸던 아이	커뻘 아느
40617	마시지 않겠다	마이제이캐따{마시지 않겠다}
40618	비가 오겠다	오개스니, 비오개스이{비 오겠으니}, 오개따

##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바부 아이 머거따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아이 조타, 조채이타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아이 깨끗자다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서바 아이 가따구{장가 안 갔다고}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만나 안 보았다	아이 만나바쑤, 안즈근 모빠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먹쑤대·쿠 잔다, 먹쑤대이~쿠 자기마 한다, →먹뚜두 애 이쿠 자기마 한다, →먹뚜두 대이쿠 자기마 한다, 들찌 도 모타고 보지도 모태따
40706-1	먹도 않고	먹쑤이쿠 잔다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아이 마시오, 수우르 몸멍는다
40708	맛잖소?/안 맞소?	마쑤 아이 마쑤?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군다, 살가따
40802	늘리다	늘귀라, 늘귀따
40803	말리다1	말리와라, 말리운다
40804	말리다2	말게따, 말게라
40805	얼리다	얼구지 마라, 무르 얼군다
40806	녹이다	노긴다
40807	신기다	싱긴다
40808	보이다	베운다
40809	알리다	알긴다
40810	입히다	이페주구 이떠라, 이피더라

40811 얹히다  
40812 벗기다  
40813 웃기다  
40814 씹히다  
40815 숨기다  
40816 굶기다  
40817 깨우다  
40818 돌우다

안치더라, 안채따  
빼끼더라, 빼께라  
우끼더라  
썰기더라, 썰게라  
곰치와라  
궁기더라, 궁게라, 굴메라  
깨우더라, 깨와라  
도꾸더라, 도까라

4.8.2. 피동

40819 잡히다  
40820 깎이다  
40821 끼이다  
40822 떼이다  
40823 채이다  
40824 닫히다  
40825 들리다  
40826 업히다  
40827 바뀌다  
40828 씹히다  
40829 엎히다  
40830 찍히다  
40831 놀리다

채피와따, cf. 부뜰기와따{불들렀다}  
까끼와따, 잘 깨끼와따  
끼와따  
떼와따, 이러저따  
채와따  
대께따, cf. 열께따{열렀다}  
들긴다, 드킨다  
에피와찌  
배끼와따구두 하구, 바끼와따  
도리 씨피더라  
언치와따  
찌끼구, 찌끼워따, 찌께따  
눌기와따, cf. 파무끼와따{파문혔다}, 지달기와따{(위에  
서) 눌렀다}  
실께따  
끄닌다, 끄너저따  
글키와따 해두, 어리와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2 싫다  
40903 보다  
40904 버리다  
40905 대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7 -나/는가 보다  
40908 -나/는가 보다

바꾸 시풍게 미시게냐?, cf. 소위니 미시게냐?{원하는 것  
이 무엇이냐?}  
바부 잘 먹떠이  
이버 보옵쏘, 이버 보라구  
머거 뿌레따, 다 머거 치와따  
→우리 댄·다  
올까따 올가트다, 비 올까따, 올가틀하다  
다 자능가따, 자는 모애~이다  
침는모애~이다

4.10. 부사

41001 실컷  
41002 많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1 나중에  
41012 가득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5 혼자  
41016 항상  
41017 똑똑히  
41018 겨우  
41019 늘  
41020 저절로  
41021 자꾸  
41022 설마

슬큰 머거라  
마이 머거라  
너무 머거두  
죄외꿈(+[čöök'om]), 죄 : 꿈(+[čö : k'om])  
자주루 땡긴다  
빨리 간다  
얼름머께따  
→기영쿠 가더이(+다){기여코 가더니}, 기여이 와꾸(+소)  
드물게 마신다  
만저 멍는다  
후에  
까뜩 채와따, →꼴뜩 채와따  
썩 가져오라해두, 다 가져오나라, →몽땅  
모조리 다 뽀바라  
하분자 이찌, 혼자 이찌  
늘, →늘쌍  
똑떼기 씨라  
제에구 와따  
늘 놀기마 한다, 그양(+ ' 계속 ' 의 의미로 쓰임)  
제제비르 나온다  
자꾸 한다  
간대르사 가아 나르 소기겐능가{설마 그 아이가 나를  
속이겠는가}, 간대르사

41023 하마터면

함마트문 차르 미도르 할뻔 해따{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다}, 함마트문

41024 함께  
41025 걸핏하면  
41026 공연히  
41027 그냥  
41028 매우  
41029 곧장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함께  
데각.하무  
고여~이, 고여~이 트지반다, cf. 제에나{일부러}  
그양 나와따(+ ' 계속 ' 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  
시미 모지리 세더라{힘이 매우 세더라}  
꼬꼬지 가가라  
발써 다 머거꾸나(+다), 벌써(+소)  
제일 빠친다구  
가마 : 이 이서라{가만히 있어라}, cf. 조여:내라{조용히 해라}  
미루  
드무게(+다), →이따금(+소)



## 4.11. 관용적 표현

=4 올라모깁 낭그느 치바다 보지마라{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 보지 마라}

### 1) 관용어구

41101 여보	*(+지금은 이름을 부름)
41102 여보세요	여보 말씀 물께쏘(+ ' 합쇼 ' 할 대상에게 씀), 여보 말씀 물을만 하오(+ ' 합쇼 ' 할 대상에게 씀), 이보오(+ ' 하오 ' 할 대상에게 씀), 이사르마(+ ' 해라 ' 할 대상에게 씀)
41103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아슴채니꼬마(+ ' 합쇼 ' 할 대상에게 쓰나, 주로 러시아 어를 씀){고맙습니다}
41104 수고하세요	아슴채니꼬마(+ ' 합쇼 ' 할 대상에게 쓰나, 주로 러시아 어를 씀){고맙습니다}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야아! 오람마네 바따{야아! 오랜 만에 봤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주로 러시아 어를 씀)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해로바 말구 오래오래 안즈라 하지
41108 여기 있습니다	어썩소(+주로 러시아 어를 씀){언으시오}
41109 예	예
41110 아니	아이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이럽쏘
41112 내버려 뒀	놀게 나아도라{놀게 놔둬라}, cf. 치다르지 마라{못살게 하지 마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

### 2) 속담

41114 밭 빠진 독에 물 붓기	둥기난 도애 : 무루 부뚜시{구멍 난 독에 물을 붓듯이}, 궁기난 두애 : 무루 부뚜시{구멍 난 독에 물을 붓듯이}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되기 쉼도되기 된다구(+ ' 궤 ' 가 [ø]로 실현됨)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바늘 도되기 쉼도되기 된다(+ ' 궤 ' 가 [ø]로 실현됨){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41116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부루 아이뎌 굶무게서 내구리 아이난다구{불을 안 뎌 구멍에서 연기가 안 난다고}

=4 구차항거느 나라두 몸뚝는다{구차한 거는 나라도 못 돕는다}

=4 조애짱두 마뜰무 헐타{종이 (한) 장도 맞들면 쉽다(낫다)}

=4 발업는 마리 칠리르 간다{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

=4 참새 바~이칸 지나따(+새빨간 거짓말을 표현할 때 씀){참새가 방앗간을 지났다}

=4 가매모게 소곰두 가매애다 여쿠야 짜다{부뚜막의 소금도 가마에다 넣어야만 짜다}

=4 셰르 일쿠 오양 고친다구{소를 잃고 외양 고친다고}

<Abstract>

## 2010 Research on Regional Dialect of Overseas

### Collective Diaspora Korean

—on Taldy-kurgan in Kazakhstan

This report contains (1)narrative discourse(only four hours), (2)vocabulary, (3)phonology, (4)grammar research material which were surveyed from the Korean on Taldy-kurgan in Kazakhstan. This survey proceeded from July 17<sup>th</sup> to July 31<sup>th</sup> in 2009, for about 60 hours. This materials may show the real state of the Korean language "*Koryeo-mal*" of the Koreans who were residents in Kazakhstan.

The ancestors of the informant resided in Tancheon-gun of Hamnam province which belongs to the North-eastern dialect and the her hasband resided in Kyeongheung-gun which belongs to the Yukcin-dialect area. The informant speak koine "*Koreo-mal*" which has developed gradually by the regional dialects of Hamgyeong-province in North Korea. The sentence endings are similar to the Yukcin-dialect, and Phonology is similar to the North-eastern dialect.

Kazakhstan are located in center of Central Asia, with China to the east, Russia to the north. In Kirgizstan, Uzbekistan, Turkmenistan to the south, there are 100 thousand Koreans who forced to emigrated from the Russian Far-East by Soviet Russian.

The majority of the Koreans in Kazakhstan live on Astana(the capital city), Almaty(the old capital city), Ushyutobe, Karaganda, Taraz, Chimkent, Kyzylorda, Zheskasgan etc. They call their mother country "*Korea*"(Korea), call their mother tongue "*Koreo-mal*"(the Korean Language spoken in Central Asia), and call themselves as "*Koreo-saram*"(the Korean). The Koreans from seventy years up can speak Korean fluently, but sixty years down cannot speak Korean well. It is very difficult to speak Korean in their sixties. So they usually speak Russian. The elderly Korean usually speak Russian, and they speak Russian with the members of their family, because their family members speak only Russian. But They mostly speak Korean with "*Koreo-saram*".

Key-words; Kirgizstan, Bishkek, diaspora, *Koryeo-mal*"(the Korean Language), "*Koreo-saram*"(the Korean), Yukcin dialect, North-eastern dialect.